

기록으로 다시 보는 축산항

- 일제강점기 축산항 아카이브 -

기록으로 다시 보는 축산항

-일제강점기 축산항 아카이브

차 례

I. 축산항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범위

- 1. 지역 아카이브의 필요성 5
- 2. 축산항 아카이브의 내용과 범위 6

II. 기록으로 보는 축산항의 역사

- 1. 일제강점기 이전 7
- 2.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현재 15

III. 일제의 수산업 정책과 경상북도의 수산업

- 1. 일제의 수산업 정책 17
 - 1) 제도적 조치의 강구 18
 - 2) 통어의 장려 21
 - 3) 이주어업의 보호장려 22
- 2. 경상북도의 수산업 24
 - 1) 경상북도의 해양 상황 24
 - 2) 중요수족 25
 - 3) 어업자 인구 26
 - 4) 어업의 종류 26
 - 5) 어선수 및 중요 수산물 어획고 33
 - 6) 중요 어업별 어획고 33
 - 7) 중요 수산 제품액 33
 - 8) 면허,허가,계출 어업 건수 34
 - 9) 어업에 관한 등록 건수 34

IV. 축산항의 수산업과 축산어업조합

- 1. 축산항의 수산업 35
- 2. 어업조합의 설립 42

1) 어업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42
2) 어업조합의 설립 경과와 의미	44
3. 축산어업조합의 설립과 주요활동	46
1) 축산어업조합의 연혁	48
2) 축산어업조합의 사업개요	48
3) 축산어업조합의 현황	49
4) 축산어업조합의 임원 현황	53
5) 경상북도어업조합과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	56

V. 축산항의 건설

1. 축산항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72
2. 동해안지역의 자연재해와 축산항 건설의 노력	74
3. 축산천 제방공사	77
4. 축산항 수축공사	78

VI. 축산항 사람들

1. 축산항의 주요 인사	92
2. 김정한(金禎漢, 1894~?)	94
3.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 1883~?)	98
4.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1887.9.17.~?)	101
5. 신덴 요시지로(新田義次郎)	102

VII. 축산항 항로개설과 전기가설 그리고 학교설립

1. 동해안 연안항로와 축산항	104
1) 축산항과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	104
1) 축산항과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108
2. 축산항 전기가설	115
3. 축산항의 학교	116

VIII. 신문기사로 본 축산항

1. 축산항 기사목록	121
-------------------	-----

1. 축산항 관련 신문기사 내용 126

IX. 1914년 축산항 지적원도와 토지 소유주

1.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180

2. 축산항의 토지조사사업 181

참고문헌 220

Ⅰ. 축산항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범위

1. 지역 아카이브의 필요성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광장의 법원 옆에는 신의 어머니 ‘(Metroon)’ 라는 이름의 사원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아테네 사람들이 귀중한 자료를 모아서 보존하는 장소였다. 이곳에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아이킬로스, 소포클레스, 유피테스의 희곡 작품과 올림픽 게임의 승자에 대한 기록들이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작성되어 차곡차곡 보관되었다. 이천년이 훨씬 넘는 도도한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서구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의 실체를 비교적 소상하게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숨은 배경에는 바로 ‘신의 어머니’ 라는 기록보존기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의 아테네에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늘날의 세계 문화사에서 이들 걸출한 철학자와 예술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으로 대표되는 찬란한 기록문화가 꽃 피었고 장구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화유산은 면면이 전해오고 있다.

인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의 흔적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으로 남겨왔고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기록들은 축적되고 활용 되어져서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동시대의 삶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후대에 전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10여 년 전 만 해도 ‘아카이브’란 용어 자체가 매우 생경한 전문용어로만 인식되었나,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록보존과 아카이브에 대한 학회가 조직되고, 아카이브에 근무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관련 학과가 설치·운영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쏠림 현상은 지역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가치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억과 기록은 끊임없이 단절되고 배제되어 지역 사료를 충분히 수집·기록하지 못하여 학문적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에 대한 인식 또한 발전하고 있는 국면에서 지역 사료의 체계적 조사와 수집, 보존 그리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배타적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2. 축산항 아카이브의 내용과 범위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 통어어업자들과 이주어업자들에 의한 수산업 수탈의 전초기지였으며 해상을 통한 대륙침탈의 거점이었다. 현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각 지역의 역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의 망각 또는 의도적 회피를 통해 잊혀지고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카이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탈식민주의 사학자인 호미바바는 “기억이 식민주의와 문화적 정체성 문제 사이의 필요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다리”라고 이야기하며 기억하기는 결코 자기반성이나 회고와 같은 정태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현재의 외상을 이해하기 위해 조각난 과거를 짜맞추어 보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다시 떠올림’이라고 했다. 기억하기란 식민화의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대적인 과거를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해를 시도하고 다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식민화라는 악성질환과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 회복기를 불필요하게 연장시킬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식민화에 대한 인정과 지속적인 드러내기를 통해 그것을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역사가의 역할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며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즉 일제강점기 축산항에 대한 아카이빙은 당시의 아픈 기억들의 고통스러운 다시 떠올림이며 그 고통에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나아가 한국 근대의 근본적 성찰을 위한 디딤돌이며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축산항 아카이빙의 시·공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 이전 1900년대 초반부터 해방전후까지 현재의 축산항을 중심으로 한 축산리 일대이다. 내용적으로는 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및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각종 단행본에 나타난 축산항의 역사, 수산업, 항구건설과 이를 이루어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더듬어 보는 것이다. 첫째, 축산항의 역사는 크게 일제강점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축산항은 어업과 수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근대적 항만으로서의 기능하기 위한 각종 시설도 완비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제의 수산정책과 그 속에서 경상북도의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셋째, 축산항은 1924년 어업법에 따른 축산어업조합의 설립 이후 이를 중심으로 어업과 수산업등이 활발하게 성장하였다. 또한 어업조합의 주요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축산항을 사회·문화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축산항의 주요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내용으로 축산천 제방공사, 축산항 수축공사의 생생한 현장을 조망했다. 축산항은 1920년대말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제방 공사, 방파제 공사, 배후 도로 건설 등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현재 축산항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섯째, 당시에 활동했던 축산항의 주요한 인물들의 활동상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신문기록에 나타난 축산항의 이모저모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축산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기록으로 보는 축산항의 역사

1. 일제강점기 이전

축산항은 조선시대에 축산포(丑山浦)로 불리었는데, 수군의 만호(萬戶)가 다스리던 곳으로 대소산에 위치한 봉수대의 존재가 말해주듯이 동해안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축산항은 동해안에서 국방과 어업의 중요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재에도 축산항 주변에 솟아 있는 북쪽의 와우산, 서쪽의 대소산, 그리고 남쪽의 죽도산은 바람을 막아 주어 피항지(避港地)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해안 남쪽의 대진항, 강구항과 함께 영덕의 수산업 생산기지로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¹⁾

1914년 3월 조선총독부의 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해 영해군이 영덕군으로 합병되기 전까지 축산항은 영해군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이전의 축산항에 대한 기록은 영해군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14년 이후에는 영덕군의 기록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丑山誌』가 그것이다. 이는 남씨(南氏) 문중(門中)의 시종에 대한 기록으로 서기 755년 당(唐)나라의 김충(金忠)이 축산포에 당도한 내력과 당시 축산포의 자연과 지역민들의 생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축산항이 오늘날 남씨(南氏)의 발상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축산포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축산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영해는 태조 6년(1397)에 진(鎭)으로서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겸 부사(府使)를 두어 다스려지며, 세종 14년(1414)에는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가 된다. 이 무렵 『경상도지리지』(1425)에는 영해도호부의 호수(戶數)가 215호이며, 남자가 1,539구, 여자는 1,861구로 총 3,399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해부 토성(土姓)은 박씨, 김씨, 황씨, 이씨, 임씨, 신씨의 6성(姓)이 있다고 한다. 영해부에서 동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던 축산포(丑山浦)는 병선 12척, 군사 429명을 거느린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수어(守禦)하고 있던 경상좌도의 군사적 요충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했다.²⁾

조선 정조(正祖) 병진년(丙辰年, 1796), 영해에 살던 남씨(南氏)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축산에 김충(金忠)의 유허비를 세우는 논의를 하여 문중 어른들의 명으로 12월 12일 구산

1) 심일중·박재홍, 『뱃불, 푸른동해에서 피어나다』, 국립민속박물관, 2009, 16쪽.

2) 심일중·박재홍, 『뱃불, 푸른동해에서 피어나다』, 국립민속박물관, 2009, 27쪽.

(九山) 남경제(南景霽), 운곡(雲谷) 남경열(南景烈), 남경도(南景燾) 등이 그동안 가전(家傳)되던 보첩(譜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조(始祖) 영의공(英毅公)의 축산(丑山) 도래(渡來) 내력 등에 대하여 축산(丑山)을 답사하고 그 기문(記文)인 축산지(竹山誌) 및 죽포소원록(竹浦溯源錄)으로 밝혔다. 『축산지(丑山誌)_시조영의공유허비건립실기(始祖英毅公遺墟碑建立實記)』는 병진년(丙辰年,1796) 12월 12일 유허비(幽墟碑)를 세우기 위하여 축산(丑山)으로 찾아가서 시조(始祖)의 유지(遺址)들을 둘러보는 때부터 시작하여 무오년(戊午年,1798) 5월 7일 각자일기(刻字日記)까지의 과정을 일기 및 각종 통문, 지출 내역 등을 기록한 수필본 이다. 기문(記文)을 시작으로 통문(通文), 벌석시사일기(伐石始事日記), 운석일기(運石日記), 마석일기(磨石日記), 각자일기(刻字日記), 유허비문 등 후손 및 타성(他姓)들이 시조(始祖)를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도(丑山島)를 혹 죽산(竹山)이라고도 하는 데 지금 영해에 있다...

동네의 옛터는 찾을 수 없었다. 또 섬의 산에 올라가 보니 울창한 대나무가 가득하였다. 돌길이 펼쳐져 있어서 성큼성큼 걸어 산꼭대기에 오르니 아름다운 대나무가 펼쳐져 눈을 마음대로 돌려 바라볼 수 조차 없었다. 걸음을 옮겨 남쪽으로 내려오니 지세가 흡사 제단이 있었던 흔적처럼 평평하였다. 그 아래쪽 몇 발자국 밑에는 흙이 쌓여 마치... 이처럼 펼쳐져 정돈되어 있는 것이 세 층이었고 모두... 사람들이 망제단(望祭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축산(丑山)은 우리 비조이신 영의공(英毅公)께서 배를 타고와 정박하신 곳이다. 대개 군자가 살터를 잡더라도 다섯 대가 내려가면 끊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선조께서 선택하신 곳은 천세가 지나도록 끊어지지 않았다. 가첩(家牒)을 살펴보니, “비조이신 영의공께서는 저 중국의 여남(汝南)지방 사람으로 본성은 김씨(金氏)이고 휘(諱)는 충(忠)이신데, 당(唐)나라 천보(天寶)14년(755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시던 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신라(新羅) 유린(有隣) 땅인 축산포(丑山浦)에 정박하였다”라 한다. 유린(有隣)은 영해(寧海)의 옛 지명이다.

남변(南邊) 축산의 만호(萬戶)가 황폐하게 사라진 것은 임진(壬辰)·계사(癸巳)의 큰 난리가 있었던 뒤의 일이다. 포구의 백성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포구의 모래로 땅을 이룬 곳에도 인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성안의 가옥들과 서로 가축을 기르고 장사를 하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채집하기도 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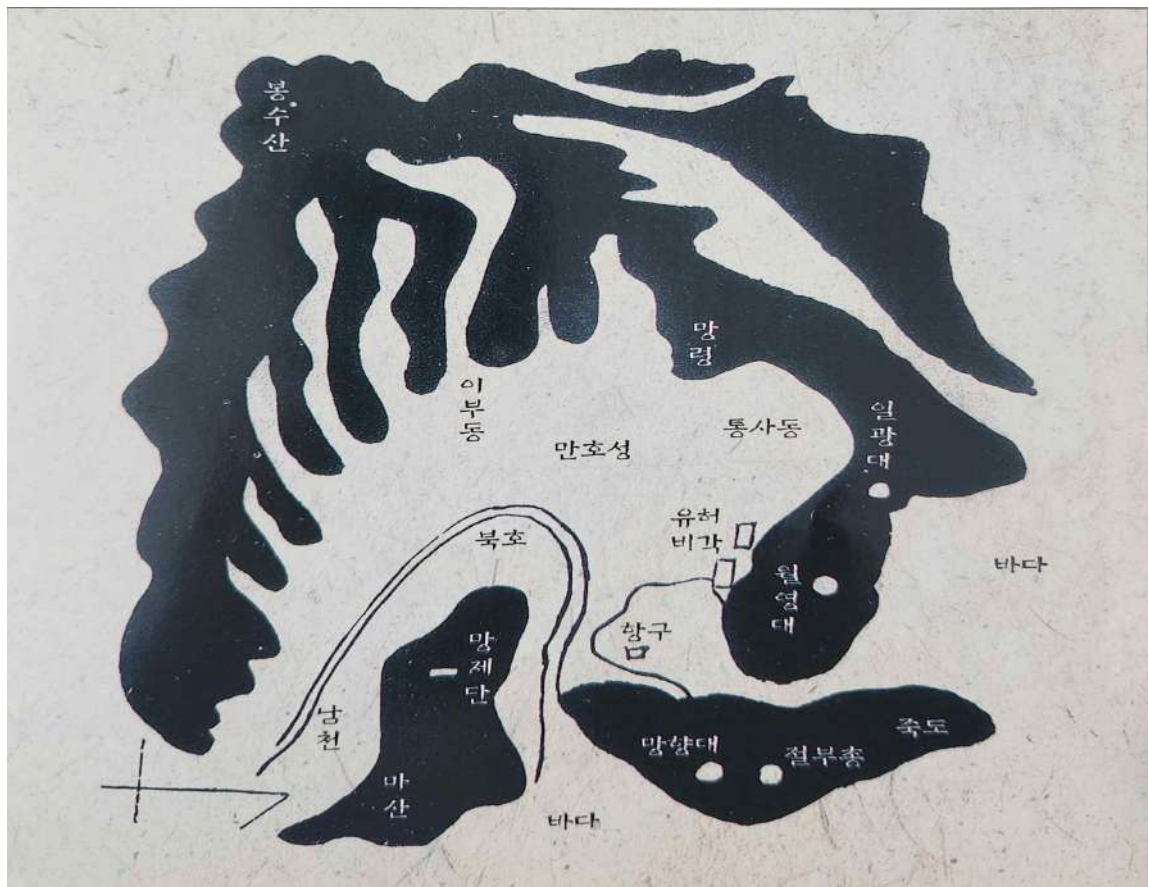
위 내용은 당나라 사신 김충(金忠)은 하남성 여남(汝南)사람으로 755년 사신으로 일본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영해군의 축산포에 정박했으며 당시 신라 경덕왕이 중국 하남성 여남에서 왔다면 성을 남(南)씨로, 민첩하다하여 이름을 민(敏)으로 하사함으로써 남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축산포는 수군의 만호

3) 남교철, 『丑山誌』, 대정14년 8월.;하정원역, 『丑山誌』, 南氏大宗會, 2014. 48쪽. 1798년에 건립한 유허비를 1973년 3월 10일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근도로개설, 주변 수목 제거 작업, 중수 기념비 건립등을 실시하고, 중수사업의 경과와 유허비 건립 당시의 축산지를 번역하여 함께 실었다.

(萬戶)가 황폐히 사라졌으며 백성들이 성(城)의 안과 밖에서 살며 포구 모래로 땅을 이룬 곳에도 즐비하게 집을 짓고 살았으며 해산물 채집과 장사와 가축을 기르며 살았다는 당대(1796년) 축산포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4> 남씨발상지 비석 및 유허비©『丑山志』



<그림-5> 축산유적지, 『丑山志』

다음으로 축산포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1899년(광무3) 편찬된 『경상북도 영해군 읍지』이다. 편찬시기에 관한 단서는 관적(官蹟) 항목의 마지막에 기재된 ‘서민순(徐敏淳)’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에 따르면 서민순은 1899년에 영해군수로 부임하였다가 1901년 해임되었다. 따라서 본 읍지는 서민순 재임중에 있었던 1899년 읍지 상송령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책은 필사본이며, 1책 21장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경상북도영해군읍지(慶尙北道寧海郡邑誌)’이다. 본문 앞에 영광군 지도 1장이 첨부되어 있다.

본 읍지는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성씨(姓氏), 산천(山川), 풍속(風俗), 방리(坊里), 호구(戶口), 전부(田賦), 군액(軍額), 성지(城池), 임수(林藪), 창고(倉庫), 군기(軍器), 관애(關陞), 진보(鎭堡), 봉수(烽燧), 학교(學校), 단묘(壇廟), 총묘(塚墓), 불우(佛宇), 공해(公廩), 누정(樓亭), 도로(道路), 교량(橋梁), 도서(島嶼), 제언(堤堰), 장시(場市), 어염(魚鹽), 역원(驛院), 목장(牧場), 형승(形勝), 고적(古蹟), 토산(土産), 진공(進貢), 봉름(奉廩), 관적(官蹟), 과거(科擧), 인물(人物), 제영(題詠), 비판(碑版)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치연혁에 따르면 영해의 고을 이름은 본래 고구려 때 우시군(于尸郡)이었다가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유린(有隣)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초 예주(禮州)라고 칭해졌다가 충선왕(忠宣王) 때 영해부(寧海府)가 되었다. 조선 태조 때 진(鎭)으로서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겸 부사(府使)를 두었고, 태종 때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며, 영양현(英陽縣), 청기현(靑杞縣)의 속현을 두었다. 영해군의 역대 군명(郡名)으로는 우시(于尸), 유린(有隣), 예주(禮州), 단양(丹陽), 덕원(德原), 영해(寧海)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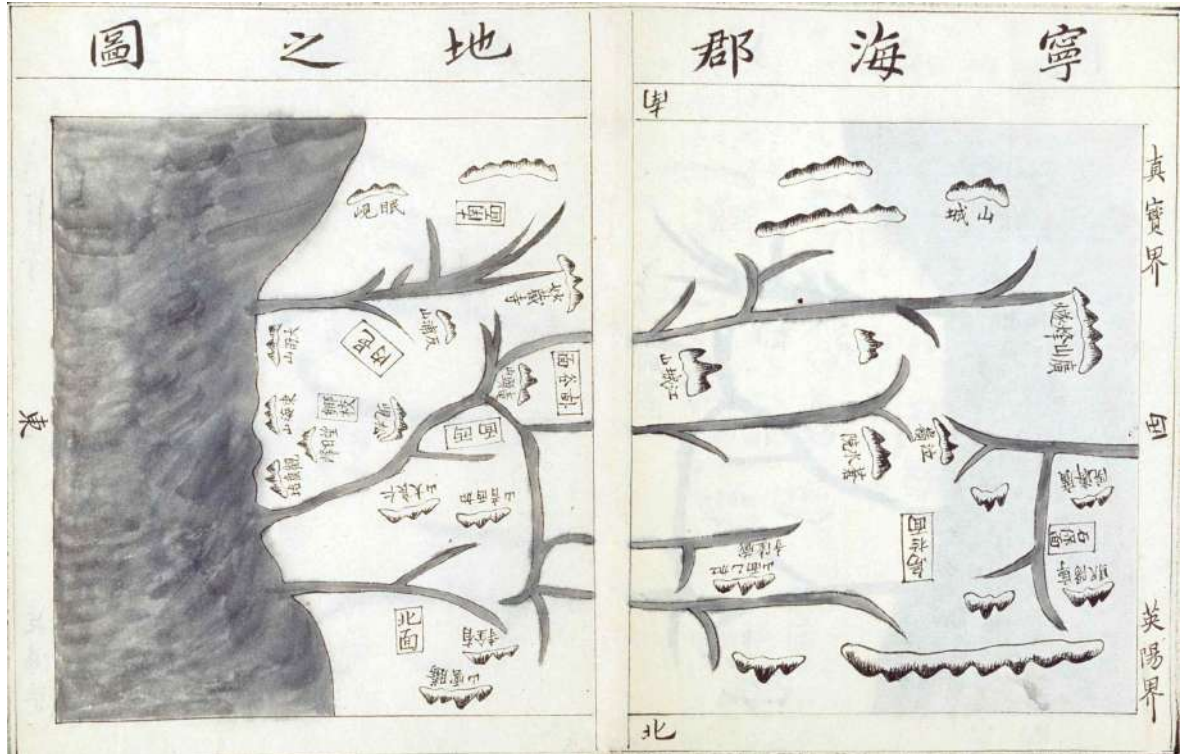
산천(山川) 항목에는 용두산(龍頭山), 동해산(東海山), 반포산(半浦山), 인양대산(仁良大山), 가서음산(加西音山), 등운산(騰雲山), 가을면산(加乙面山), 산성산(山城山), 일월산(日月山) 등 지역내 산들을 비롯하여, 망일봉(望日峯), 서읍령(西泣嶺), 오현(烏峴), 면현(眠峴), 송현(松峴), 함한동(含恨洞), 용당(龍塘), 백석정(白石汀), 경정(鯨汀), 장정(長汀), 병곡포(柄谷浦), 망곡포(網谷浦), 경정(景汀), 고성포(高城浦), 대진(大津) 등 각종 봉우리, 포구, 호수 등의 위치 정보 및 특징,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풍속(風俗)은 권근(權近)의 서루기(西樓記)를 인용하여 ‘집집마다 거문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거문고 숨씨가 뛰어나다’고 하였으며, ‘선비들은 질박함을 숭상하고, 백성들은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방리(坊里)는 읍내면(邑內面), 남면(南面), 묘곡면(畝谷面), 서면(西面), 갈면(葛面), 오어면(烏於面), 북면(北面), 석보면(石保面)의 8개 면으로 구성되었다. 각 면에 소속된 리(里), 동(洞), 원(院), 하천, 골짜기, 수풀 등 각종 정보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여지도서』와 비교해 보면 신설된 면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18, 19세기 행정구역의 시대적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영해의 총 호구는 1,998호에 남자 3,131구, 여자 3,361구였다. 전부(田賦)는 원장(元帳)에는 전(田)이 608결 77부 5속, 답(畓)이 464결 26부 6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6> 『영해군읍지』에 나타난 영해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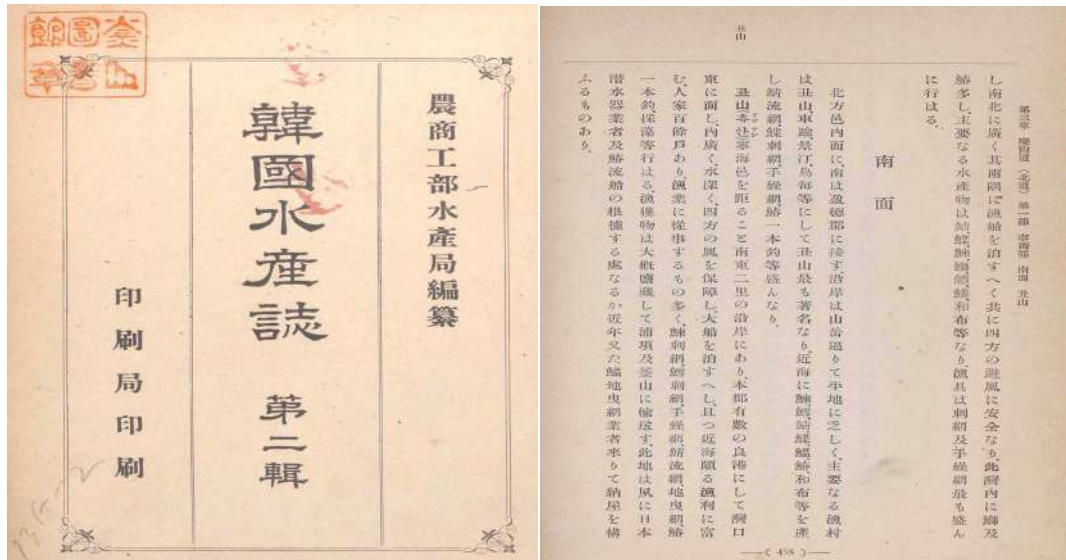
영해 지역에 창고(倉庫)는 호적고(戶籍庫), 관청고(官廳庫)가 있었고, 부창(府倉), 현창(縣倉), 대동고(大同庫)는 당시 모두 폐지되었다. 봉수(烽燧)는 대소산(大所山)에 있었다. 영해의 학교(學校)들은 향교(鄉校), 단산서원(丹山書院), 충렬사(忠烈祠), 구봉서원(九峰書院), 경현사(景賢祠)가 있었다. 단묘(壇廟), 불우(佛宇), 공해(公廡), 누정(樓亭), 교량(橋梁), 제언(堤堰) 항목에서는 모두 군내의 해당 시설에 대해 기록하였다. 도로(道路)는 영해에서 주변 부군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거리를 기재하였다.

장시(場市)에는 부시(府市)와 석보시(石保市) 두 군데 5일장의 장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형승(形勝)과 고적(古蹟)에서는 주변의 명승지와 사적지 등을 소개하였는데, 수비부곡(首比部曲)과 석보부곡(石保部曲)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물산(物産)은 바다와 인접한 지역인 만큼 대구, 홍어, 청각, 문어, 송어, 광어, 꽃게, 고등어, 전복, 홍합, 김, 미역 등 해산물이 주를 이루고, 전죽(箭竹)도 있었다. 진상 물품으로는 해구신, 말린 광어, 꽃게, 말린 대구, 말린 문어와 같은 해산물이 많았으며, 방풍(防風), 구기자와 같은 농산물도 있었

다.4)

이 읍지에는 축산포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축산포는 부의 남쪽 20리에 있으며 수군만호가 예전에 있었으나 임진왜란후 부산 동래로 이전하여 폐지되었으며 전죽(箭竹)은 축산도에서 생산⁵⁾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융희4년(1910년)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편찬된 『한국수산지 제2집』에서는 영해군과 축산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림-7>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축산항에 대한 기록

본 군은 고구려 우시군(于尸郡), 신라 유린(有隣), 고려 충선왕 2년에는 예주(禮州)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에 이르러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로 이후 영해군(寧海郡)으로 되었다. 본군의 바다에 접한 4개면(北二面, 北初面, 邑内面, 南面)이 있으며 그 중 남면은 북쪽으로는 읍내면, 남쪽으로는 영덕군과 접해있다. 해안에는 산악이 접해있으며 평지가 부족하다. 주요 어촌은 축산(丑山), 차유(車躰), 경정(景汀), 오매(烏每)등이 있으나 축산이 제일 저명하다. 근해에는 청(鯖, 고등어), 려(鰈, 청어), 접(鰈, 가자미, 넙치), 설(鱈, 대구), 온(鰻, 정어리), 춘(鱻, 삼치), 화포(和布, 미역)등이 생산된다. 청류망(鯖流網), 접자망(鰈刺網), 수조망(手繰網), 춘일본조(鱻一本釣, 삼치외줄낚시)등이 성행한다.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https://kyujg.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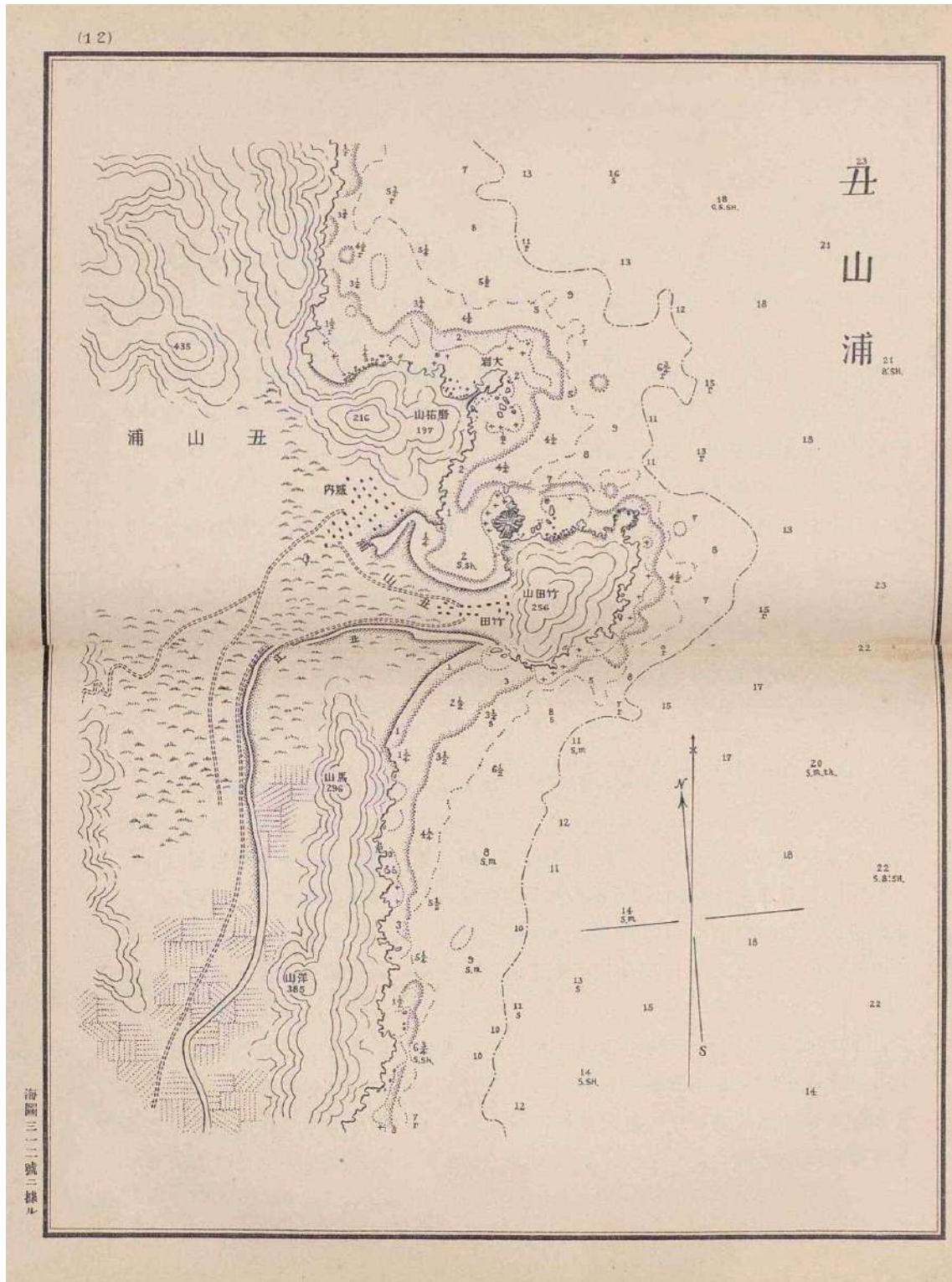
5) 寧海郡, 『경상북도영해군읍지』, 1899. 영해군 소속 여러 면리의 이름과 위치, 지역의 역사, 거주 성씨와 풍속,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 공해 등 행정시설, 교육시설, 제언 등 민생 시설, 지역인물 관련 정보 등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읍지에 기록된 호구와 전결의 수로 미루어 볼 때 영해는 조선시대 작은 규모의 읍세를 지닌 고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영해 읍지는 4종이다. 본 읍지와 1832년 경 작성된 『경상도읍지』에 수록된 영해읍지, 1871년 작성된 『영남읍지』에 수록된 영해읍지, 1895년 작성된 『영남읍지』에 수록된 영해읍지가 그것이다. 본 읍지는 이전에 편찬된 영해 지역 읍지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기존 읍지들과 비교를 통해 19세기 영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축산(丑山)은 영해읍에서 동남 2리의 거리의 연안에 있으며 본 군의 유수한 양항이며 만의 입구 동쪽에 위치하여 그 안쪽이 넓으며 수심이 깊고 사방이 바람을 막고 있어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다. 가까운 바다에 고기가 풍부하며, 인가 수백여호가 있으며 어업 종사자가 다수이다.

연자망(鰈刺網), 설자망(鱈刺網), 수조망(手繰網), 청류망(鯖流網), 지예망(地曳網), 춘일본조(鯖一本釣, 삼치외줄낚시), 채조(綵藻)등이 행해진다. 어획물은 대개 염장하여 포항, 부산으로 운송된다. 일본의 잠수기업자(潛水器業者) 및 춘류선(鯖流船)의 근거지로 이용된다. 근년에는 온지예망(溫地曳網)업자(業者)가 들어와서 창고를 짓는 일도 있다.⁶⁾

『한국수산지』에서는 영해군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정(고구려-우시군, 신라-유린, 고려-예주, 조선-영해도호부, 영해군)영해군내의 주요 어촌중 축산이 제일 유명한 항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산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좋은 항구가 될 수 있었으며 수산물로서는 청어, 고등어, 가자미, 삼치 등이 생산된다고 했다. 더불어 수백여호의 인구중 어업종사자가 다수이며, 일본 어업자들의 기항지로도 이용된다고 하고 있다.

6)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第二輯』, 隆熙四年. 455~458쪽.



<그림-8> 한국수산지에 나타난 축산향 지도

1992년 『영덕군향토사』에서도 축산항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위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은 신라 경덕왕 14년 당나라 현종때 金忠이란 접렴사(接廉使)가 일본에 다녀오다가 풍랑을 만나 십생구사로 죽도산에 상륙하여 경덕왕이 남쪽에서 왔다 하여 南氏로 사성(賜姓)하고 호(號)를 영의공(英毅公) 食邑을 영양(英陽)으로 하니 南氏 始祖가 된곳으로. 신라 경덕왕때 淸州 韓氏가 마을을 개척하였으나 조선시대 丑山營을 두고 순군 만호가 있었으며 동해를 향해 좌편에 있는 산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와우산이라 하고 우편에 대나무가 많은 산을 竹島山이라 하여 丑山이라 칭하였다.⁷⁾

2015년 영덕문화원에서 발행한 『축산면지』에서는 축산면의 역사, 자연, 인물등에 대해 각 리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영해군과 영덕군의 통합이전과 이후의 각 동,리등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1895년 축산리는 영해군 남면(이전 영해부)에는 14개의 리(里)-축산,양장,경정,지경,차유,고곡,반포,수일정,부곡,아삼,복기암,웅창,대곡,화전-중의 일부로서 존재했으며 1914년에는 영덕군에 영해군이 통합되어 11개동으로 재편되었다. (도곡동-반포,정신방,북평,망곡, 기암동-기암,복기암,아삼, 부곡동-원포,죽촌, 고곡동-고곡,갈항,외고곡, 대곡동-대곡,동노곡, 상원동-와고,수일정,원포, 황토항, 경정동-경정,차유,지경,오매, 조항동, 축산동-축산,양장,마초,금사부, 화천동-웅창,도동,금천, 칠성동-칠성,화전,니전,망전)

현재의 축산면은 동쪽으로 축산1,3리와 경정1,2,3리의 5개 마을이 동해와 접해있고, 서쪽은 지품면 및 영덕읍의 일부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영덕읍 석리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영해면 사진리와 경계를 이루는데 국사봉(國祠奉), 화림산(華林山), 경산(鯨山), 용당산(龍塘山)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하천이 丑山川을 이루어 축산리를 거쳐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동해안 굴지의 항인 축산항이 발달되어 있다.

축산이라는 지명이 처음보이는 것은 고려말 영해로 귀양온 양촌 권근의 『양촌집』이다. 이 책 『사재소감 박강전』에 축산도 ‘병선도관령’이란 관직명이 나오고 조선시대 1425년 발간된 『경상도지리지』에 축산포라는 이름이 보이며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그 이름이 보인다.⁸⁾

이후 영덕의 향토사학자인 이완섭은 「축산항을 영덕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자」라는 기고문에서 축산포 만호성은 고려시대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영덕군, 『영덕군향토사』, 1992. 366쪽.

8) 김영광, 『축산면지』, 영덕문화원, 2015. 24~29쪽.

축산포 만호성은 고려 우왕 10년인 1384년 7월에 경상도 부원수이던 윤가관 장군이 경주와 안동의 군졸 2천여명을 동원하여 쌓았다. 둘레가 700여m, 높이가 2.3m, 넓이 12,650㎡였다. 권근(權近)이 영해에 귀양와서 쓴 『사재도감 박강전』에 의하면 이때 축산에 ‘축산도병선도관령’이란 관리를 두었던 것으로 나온다. 축산포 만호에 대한 기록은 조선 태조5년인 1396년 12월 9일자에 “왜구의 배 60척이 축산도에 이르러 축산포 만호 임온에게 항복을 하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고려시대 말기부터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9)

이상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현재의 축산항은 과거 영해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며¹⁰⁾ 북쪽의 와우산, 서쪽의 대소산, 남쪽의 죽도산으로 둘러 쌓여 바람과 파도를 막아 주는 천혜의 양항으로 선박들의 피항지이자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수군의 만호(萬戶)와 봉수대의 존재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남씨(南氏)의 발상지로서 조선 태종조에 이르러서는 병선 12척, 군사 429명이 지키던 포구이며 1910년경에는 수백여호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주요 생산물로서는 청어, 고등어, 가자미, 넙치, 대구, 정어리, 명치, 삼치, 미역등이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어업종사자였다.

2. 일제강점기부터 현재

조선후기 축산포가 군사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 되고 어업과 수산업이 부각되면서 또 다른 국면과 마주친다. 1908년 일본은 ‘한국 어업법’을 발표하여 조선에 있어서 어업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종래 한국 궁내부의 직할 어장 또는 부호 양반 등의 독점물이었던 중요어장은 널리 한일 양국인에게 개방되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어업권의 허가는 한국 거주자들에 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통어에서 이주 어촌경영으로 전환하여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 출어를 조장한 정책에 힘입어 일본 어민들은 조선에서 어업상의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 한국 각지에 일본인의 이주와 거주가 촉발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독려는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축산의 중요성도 함께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준다.¹¹⁾ 일제강점기 축산항은 명치(明治) 35~6년(1903년경)부터 일본 카가와·야마구치현

9) 이완섭, 「축산항을 영덕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자」

1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D%95%B4%EB%A9%B4>, 고대 우시군국(于尸郡國)의 근거지였다.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우시군국에서 유린(有隣)으로 바꿈.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유린군을 예주(禮州)로 고침. 고려 고종 46년(1259년)에는 위사공신 박송비의 고향으로 덕원소도호부(德原小都護府)로 승격. 고려 충선왕 2년(1310년)에는 영해부사영(寧海府使營)을 둠. 이 때부터 영해부가 설치됨.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첨절제사를 둠.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다시 도호부사를 둠. 조선 고종 32년(1895년)에 이르러 칙령 제98호에 의하여 영해부가 영해군으로 됨.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호에 의하여 영해군이 영덕군에 합병되면서 영해면이 새로이 신설. 1988년 5월 1일 군조례 제972호에 의해 동을 리로 개칭.

(香川·山口縣) 통어업자(通漁業者)의 피항지였으며 일본해와 맞닿아 있어 어족이 풍부하여 어업자들의 이익이 많아 통어업이 성행했다. 대정(大正) 3~5년(1914년경) 사이에는 항만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일본 어선들이 즐비하여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박들로 인해 방파제 등 항만시설의 설치가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소화(昭和) 2~3년에는 축산천의 제방을 축조하고 소화(昭和) 7년부터 4년에 걸쳐 방파제 시설을 완비하였다. 그 결과 300톤이상의 발동기선들이 정박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인력과 수하물들의 수송이 가능해졌다.¹²⁾ 이후 수산물 채취와 정어리기름, 통조림 가공 등 수산 제조품 생산업이 왕성했다. 일제강점기 축산항의 수축 과정, 어획고, 어업조합 등의 내용은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후 축산항은 1971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의 원활한 양륙,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사회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물양장(物揚場)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축산항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정비 사업을 준공했다

축산항 시설은 북 방파제 395m, 동방파제 150m, 물양장 995m, 소파(消波) 호안 110m, 준설 27.75m, 친수 시설, 기타 월파 방지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 어항 구역의 면적은 31,707㎡이다.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부대 시설 등에 대한 보완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항구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매년 차이가 있다.

축산항은 축산천이 동해로 유입되는 인근에 조성되었다.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어항으로서 1971년 12월 21일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축산항은 강구항과 함께 영덕군의 대표적인 2대 항구로 평가된다. 축산항 앞 남동쪽으로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산(竹島山)[78.1m]이 있다. 죽도산은 약 1억 년 전의 모래와 진흙, 자갈로 구성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에 해당한다. 죽도산은 과거 죽도(竹島)라는 섬이었다. 섬은 육계사주로 육지와 연결되었다. 죽도산 정상에는 ‘축산항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동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 기능을 더해 2011년에 ‘죽도산 전망대’로 새롭게 태어났다. ‘축산항 등대’는 2020년 5월 해양수산부에서 ‘이달의 등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축산항 일대는 신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무총리실 정동쪽에 자리하여 신(新) 정동진으로 알려져 있다. 항구 마을은 축산항 어시장, 남씨발상지(南氏發祥地) 등이 자리하며, 남쪽으로 인접한 경정리에는 대계 원조마을(차유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또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와도 가깝다. 경정리 대계 원조마을에서 죽도산 블루로드 다리, 축산항과 남씨발상지에 이르는 길은 영덕 블루로드 B 코스 ‘푸른 대계의 길’에 해당한다. 축산항 남쪽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이 통과한다.¹³⁾

11) 심일중·박재홍, 『벧불, 푸른동해에서 피어나다』, 국립민속박물관, 2009. 16~31쪽.

12) 경상북도, 『축산항수축공사준공기념』, 소화11년.

Ⅲ. 일제의 수산업 정책과 경상북도의 수산업

1. 일제의 수산업 정책

일제의 한국 수산업 침략은 무자비한 것이었다. 그 기간이나 강도에 있어서 수산업만큼 가혹한 침략을 받은 산업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일제의 수산업 분야 침투는 1880년대 초부터 이미 개시되었다. 일본은 1883년에 조·일 양국간에 체결된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약칭 朝日通商章程)에 의하여 한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에 앞서 청국이 1882년에 조·청간에 체결되었던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에 의하여 평안도와 황해도 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으므로 일본은 재빨리 그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충청도 이북의 서해안을 제외한 전 한국 영해에서 어로권을 획득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개항 이후 외국인이 획득하였던 이권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것이었다. 한국인도 일본의 일부 지방에 출어(出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호혜 평등조약을 가장하기 위한 가식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1889년에는 조선일본양국통어장정(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이 체결되었다. 이는 양국 3해리 이내의 영해에 출어하는 어민에 대한 어세(漁稅)·통어수속(通漁手續)·벌칙 등을 정한 조약이었다. 일제는 어로권을 획득한 이후 통어(通漁) 형태의 어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장려하였다. 통어는 일본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 영해에 계절적으로 출어한 출가어업(出稼漁業)을 말한다. 일본이 근대공업의 급속한 발달을 원동력으로 하여 군사적·제국주의적 발달을 추진시켜 갔던 과정에서 그 수반 현상으로 나타났던 인구의 도시 집중, 교통의 발달, 군수품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일본에서는 수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업은 종전과 다름없는 연안교착적(沿岸膠着的) 영세어업의 영역을 일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혹어남획(酷漁濫獲), 해운업의 발달, 수질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은 감소 일로에 있었던 것이므로 어업 생산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의 극복책으로 일제는 한국해 통어를 보호 장려하는 한편 일정 톤수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국고에 의한 장려금을 교부하는 원양어업장려법(遠洋漁業獎勵法)을 1898년부터 시행하여 어업의 원양 진출을 장려하였다.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된 일본은 1900년에 일본 어선의 경기도 연안 출어 허가를 요구하여 목적을 달성하였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13)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yeongdeok>

일본군대의 부식품으로서 어류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연안도 일본어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여 역시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본인은 한국 영해의 전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일본인의 통어는 급속히 신장되고 있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1904년에 통어선 수가 1,581척, 승선 인원이 6,975명, 어획고 개산고(概算高)가 149만 9천 800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이 강화되면서부터는 통어에서 한 걸음 나아가간 이주어업(移住漁業)이 본격적으로 개시 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그들의 수산업 침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08년에는 통감부의 각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을 한일간에 체결케 하였다. 또 이어서 통감부에서 작성한 법안에 의하여 어업법(漁業法; 소위 舊韓國漁業法)이 제정되어 동년 11월 11일자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어업에 관한 협정과 어업법은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큰 것이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한국 영해의 실질적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수산업 분야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기 이전에 이미 그 침략을 받았던 것이다.

1) 제도적 조치의 강구

소위 한일합방은 정치적 대변혁이었으나 수산업은 그 이전에 이미 철저한 침략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산업에 전후일변적(前後一變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화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수탈을 본격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총체적 재편성·정비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수산업에 관한 제도의 재편성·정비도 실시하였다.

새로운 수산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수산제도의 기본법인 어업법을 먼저 제정하여 어업령(漁業令; 制令 제6호)이라는 명칭으로 1911년 6월 3일에 공포하였다. 이는 1910년에 공포된 일본의 어업법(소위 明治漁業法)을 모방하여 제정한 것이었다. 그 주내용은 어업의 면허 및 허가, 어업의 제한,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 벌칙 등에 관한 것이었다. 어업령 시행규칙(漁業令施行規則; 조선총독부령 제67호)과 어업취체규칙(漁業取締規則; 조선총독부령 제68호)도 어업령과 동일부로 공포되었고, 이어서 어업조합규칙 및 수산조합규칙을 비롯한 각종 부속 법규가 공포되었다. 어업령과 그 부속 법규는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산업 수탈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일단 완료하였다.

어업령에서는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계출어업(屆出漁業)의 3종으로 법정 분류하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어업은 면허어업이었는데 이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어업이었다. 그 구체적 종류는 어업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제1종에서 제6종까지 6종류로 나누고 있다(제17조).

- 제1종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건설 또는 부설하여 일정 어기간 이를 정치하여 하는 어업.
- 제2종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區劃)하여 양식을 하는 어업.
- 제3종 면허어업 : 해빈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어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예양(曳揚) 또는 예기(曳壽)하여 하는 어업.
- 제4종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어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건설 또는 부설하여 하는 어업.
- 제5종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 어류를 집합시키는 설비를 하여 하는 어업.
- 제6종 면허어업 : 전 각호에 든 것을 제외하고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하는 어업.

제1종에서 제5종까지의 면허어업은 개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어업이었으나 제6종 면허어업은 전용 어업으로서, 이의 면허는 어촌의 경영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면허하지 않는 어업이었다. 이 어업은 어업조합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법인 자격을 지니는 어업조합이 권리의 주체로서 면허를 취득하여 어업권을 향유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동 어업권을 행사하게 하는 어업이었다. 이에 의하여 단유(單有) 또는 공유에 의한 사유와 어업조합을 권리의 주체로 하는 집단적 소유의 2원적 소유관계가 근대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어업권이란 법률적으로는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어업령 제1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후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어업권의 실질적 내용은 일정한 수역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으로서의 어업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였고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었다(어업령 제6조). 면허어업은 어업권어업이라고도 하며 어업면허 제도를 어업권 제도라고 한다.

허가어업은 어업령시행규칙 제26조에 다음과 같은 9종류로 나누고 있었다.

- 제1종 허가어업 : 포경업.
- 제2종 허가어업 : 트롤어업.
- 제3종 허가어업 : 잠수기어업.
- 제4종 허가어업 : 경족(鯨族) 이외의 해수(海獸) 어업.
- 제5종 허가어업 : 풍력, 조류 또는 나선추진기(螺旋推進器)에 의하여 어선을 운항시켜 낭망(囊網)을 인예(引曳)하여 하는 어업(트롤어업을 제외함).
- 제6종 허가어업 : 해빈에서 장소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어망을 예양 또는 예기하여 하는 어업.
- 제7종 허가어업 : 어선에 의하여 낭망을 장치(張置)하거나 이를 조기(繰壽)하여 하는 어업.

제8종 허가어업 : 어망으로서 어류를 위요하고 망거(網裾)를 졸라 매어 하는 어업.
 제9종 허가어업 : 어망을 장하(張下)하거나 유하(流下)하여 어류를 망목에 낚히게 하거나 감기게 하여 하는 어업.

이와 같이 운용어구(運用漁具)로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는 어업으로서 근대적 대규모 어업이 포함되어 있다. 어업의 허가는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어업을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어업권을 설정하는 행정행위인 어업의 면허와는 다르므로 그것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제1종에서 제5종까지의 허가어업은 조선 총독, 나머지 허가어업은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어업령 제12조, 동시행규칙 제27조).

계출어업은 다음과 같이 제1종에서 제3종까지의 3종으로 나누었다(어업령시행규칙 제34조).

제1종 계출어업 : 1어선에 3인 이상이 타고 어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제2종 계출어업 : 1어선에 3인 이상이 타고 연승 기타의 타 조구구(釣鉤具)를 사용하여 하는 어업.
 제3종 계출어업 : 전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계출어업은 모두 영세한 어업이었으며,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 속하지 않는 어업은 모두 이에 속하였다. 계출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사항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었다(어업령시행규칙 제34조). 계출(신고)은 그 효과가 계출의 수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면허와는 달리 어업의 계출이 적법한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어업의 3분법은 오늘날에도 그 골격이 계승되고 있다. 당시에는 면허어업이 가장 중요한 어업이었다. 연안어업의 비중이 클수록 면허어업은 그 중요성이 큰 것이다.

1930년에 이르러서 수산관계 법규의 전면적인 개정에 의하여 신수산제도를 수립하였다. 그 기본법은 1929년 1월에 공포되어 193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어업령(제령 제1호)이었다. 한반도의 어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면목을 일신하였고, 사회적 사정과 경제적 상태도 크게 변혁되어 어업령과 같은 간단한 법률로서는 수산업을 규율할 수 없게 되어 신령(新令)으로서 조선어업령을 제정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어업령의 부속법규로서 조선어업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7호)과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9호)을 비롯하여 조선어업등록규칙, 조선어업조합규칙, 조선수산조합규칙 등이 1929년 12월에 공포되고 조선어업령과 동일부로 시행되었다.

조선어업령에서는 면허어업을, ① 양식어업, ② 정치어업, ③ 정소집어어업(定所集魚漁業), ④ 정소예망어업(定所曳網漁業), ⑤ 정소부망어업(定所敷網漁業), ⑥ 전용어업(專用

漁業)으로 분류하였고(제6조), 허가어업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의 2종이 있었는데, 전자는 ① 포경어업, ② 트롤어업, ③ 공선어업(工船漁業), ④ 기선저예망어업(機船底曳網漁業), ⑤ 잠수기어업이었고(조선어업령 제10조), 후자는 ① 예망어업, ② 부망어업, ③ 조망어업(繰網漁業), ④ 선망어업(旋網漁業), ⑤ 자망어업(刺網漁業), ⑥ 공조승어업(空釣繩漁業), ⑦ 시지어업(柴漬漁業), ⑧ 제사어업(鵜飼漁業), ⑨ 나잠어업(裸潛漁業), ⑩ 해수어업이었다(어업령시행규칙 제15조). 상기 어업에 속하지 않는 어업은 모두 계출어업에 속하였다(조선어업령 제14조).

신 수산제도에 있어서 개정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권 제도를 확립하여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화한 점이었다.

첫째로 어업의 발달에 따라 어업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법상의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 하였다(조선어업령 제15조).

둘째로 어권업의 존속기간을 구령의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2배 연장하였다(조선어업령 제8조). 10년 이내는 너무 단기간이어서 어업의, 실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셋째로 어업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종래의 10년 이내의 갱신을 인정하는 갱신제에서 20년 이내의 연장을 인정하는 연장제로 개정하였다(조선어업령 제8조). 갱신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신규(新舊)어업권간에 법적 연계가 없어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개정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수산 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업권 제도와 어업허가 제도를 기축으로 하여 어업을 규율하려고 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식민지 수산업 수탈의 수단으로서 편리하게 이용되었다.

2) 통어의 장려

통어에 대한 모든 제한과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 일본인의 통어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일제는 이를 계속 장려하였다. 일본인이 통어에 매력을 느낀 이유 중 가장 큰 것의 하나는 한반도 연해 어장의 풍도(豊度)가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높은 데 있었다. 풍도가 높았던 이유는 원래 자연적 조건이 유리하여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하였던 데 있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일본에 비하여 어장의 개발도가 훨씬 낮은 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다. 1910년대말(한국은 1919년 기준, 일본은 1918년 기준)에 있어서의 한일 양국의 어장 면적 1평방마일 당 어선수, 어업자 호수, 어업자 인구 수, 어획고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각각 0.6척 대 4척, 1호 대 7호, 7인 대 15인, 876원 대 1,783원으로 되어있다. 한국 어장은 일본 어장과 비교도 안될 만큼 개발 여지가 많았음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일본이 평방마일 당 어선 수에 있어서는 한국의 근 7배임에도 불구하고 어획고에 있어서는 2배 강에 불과하였을 정도로 어장 생산력에 큰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어획량이 너무 많아 처리에 곤란할 정도였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가까운 식민지에 수산자원의 보고(寶庫)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인의 통어 의욕을 한없이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었는데 일제는 재정적 지원하에 이를 적극 장려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므로 통어가 발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지방별로 통어단체를 설립하여 통어하였고, 통어 장려를 위한 보조금은 주로 각 부현(府縣)이 교부하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11년의 ‘조선해 출어단체’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통어단체를 좌가현한해출어조합(佐賀縣韓海出漁組合)을 비롯하여 함께 28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부현비(府縣費) 보조금은 합계 38,842원에 달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동 통계에 의하여 1912년의 통어단체 수를 보면 51개가 되어 있고, 1단체당 보조금은 최고 9,600원이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에는 누락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선남발전사(鮮南發展史)』에는 1912년 2월 현재의 통어단체 현황이 소개되어 있는데 1부 18현에서 설립된 단체가 73개에 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부현비 보조금은 1단체에 최고 9,710원이 교부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조선수산조합이 1915년 2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23현에 69개 단체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1910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27개(일제의 한국강점 이후에 설립된 것 중 확실한 것이 15개)였다. 그리고 각 부현에서 1913년에 한국해어업의 장려를 위하여 교부한 보호장려비가 62,456원에 달하였다. 가장 많은 보호장려비를 교부한 현은 산구(山口 : 야마구치)로서 10,000원이었다. 동 현은 1899년도 이래 1912년도까지 378원 내지 9,810원을 교부하였는데 1913년도에는 1년에 10,000원이나 교부하였던 것이다. 보조금 지급 목적을 보면, 대부분이 통어 장려와 이주어촌 경영으로 되어 있다. 일제시대로 넘어온 이후에도 통어의 보호조장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1932년까지 보조금 교부에 관한 통계가 실려 있다. 일제시대 후반기로 넘어가서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이주어업의 보호장려

일제의 한국해어업 보호장려 정책은 통어에서 이주어업으로 그 중심을 점차 이행시켜 갔다. 어장 왕래, 어획물의 운반이나 처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던 통어보다는 현지에 어업기지인 이주어촌을 건설하여 정주하면서 하는 이주어업이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어민 이주를 통하여 자체 내의 모순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주어민

에게 식민지 지배의 침병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시킬 의도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주 어업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일본인이 이주어업을 개시한 역사는 깊어 1880년대까지 소급된다. 예컨대 오오이케 다다스케(大池忠助)같은 일본인은 1875년에 도래하여 1880년부터 부산에서 어장을 매수하여 청어·대구 정치어업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 이주어업이 발달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부터였다. 일제는 보조금 교부, 어장조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주어업을 장려하였다. 전술한 어업법(舊韓國漁業法)이 제정된 이후에는 통감부 관리가 도입하여 어업면허, 근거지 불하 등의 편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단체 이주를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여 1910년대초의 이주어촌 현황을 보면, 1910년 45어촌, 1,656호, 6,277명, 1911년 62어촌, 2,486호, 9,236명, 1912년 71어촌, 2,618호, 7,110명(동년은 정착 이주자에 한함)으로 되어 있다. 이 무렵 이주어촌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 상기 통계에 의하면 이주어촌 수가 가장 많았던 도는 경상남도로서 1912년에 34어촌이었다. 그 다음이 전라남도로서 8어촌이었다. 남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조선수산조합이 조사한 1913년까지의 일본 각 부현의 어업 보호 장려 실적을 보면, 관계 부현 1부 25현이 모두 부현 보조비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이주어촌 경영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으며, 이주어촌 건설만을 위한 보조로 되어 있는 것도 더러 있다. 그리고 이주 어민이 거주할 가옥 [漁舍] 을 지어 놓고 이주 어민을 유치한 현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주 어민의 이주는 네 가지 유형이 있었다. 즉 임의로 이주한 것, 부현의 장려에 의한 것, 조선수산조합의 장려 및 경영에 의한 것,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이민 계약을 맺고 이주한 것이 그것이었다. 이들 중 과반은 임의의 이주였다고는 하나 초기에는 계획적인 이주 장려 정책에 의하여 많이 이주 하였다. 전자가 건설한 이주어촌은 자유 이주 어촌이었고, 후자가 건설한 이주어촌은 보조 이주 어촌이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간행물에 의하여 이주어업자 호구 수의 추이를 보면, 1911년에 3,172호, 11,436명(『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통계와는 상이하다)이던 것이 1919년에는 2,688호, 10,09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그 뒤에는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1928년에는 6,653호, 21,254명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이주어민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방은 경상남도로서 2,502호, 8,312명이었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였으며, 임해도(臨海道) 중 이주 어민 호수가 가장 적었던 도는 충청남도로서 54호, 157명이었다. 그 이후는 다시 감소 추세로 역전하여 1933년에는 4,424호, 7,716명(15세 미만은 제외)으로 줄었다. 이주 어민은 연해1 2도에 모두 분포하고 있었으나 이때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었으며 양도의 호수 합계가 3,225호로서 총 호수의 72.8%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일제는 어민들을 이민형 식민지 지배를 위한 침병으로서 이주시켰던 것이다. 일본의 한 양심적 학자는 말하기를 “이주 어민은 경영적으로는 조선인 동업자와 동렬의 지위에 서서, 이들과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조선인의 직장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아주 하급 고용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그것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에로의 진출이 언제나 기업 경영체의 진출을 의미하며, 극히 소수의 최고급 직원의 이주에 그치고 중급 및 하급 직원에 식민지 국민을 충당하는 방법과는 대조적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경영체가 아닌 생업 이민에 의한 제국주의의 진출이라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본주의의 미발달 때문인 것이며, 이는 일본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 이민 이용에 의하여 역으로 제국주의의 도구로 전용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내부의 문제를 자신의 자체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역으로 외적인 것에 의하여 내적인 것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식민지 국민의 생업을 약탈할 뿐,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가장 무자비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형태이다”라고 혹평하기까지 하였다. 보조 이주어촌에 대한 정책이 그 전형적인 것이었다.¹⁴⁾

2. 경상북도의 수산업¹⁵⁾

1) 경상북도의 해양 상황

경북 해안선은 연장 160리요, 중앙부에서 서남방에 깊이 만입(灣入)하여 소위 영일만을 형성한 외에는 대개 평조하며 배부(背部)는 태백산맥에서 분기 하여온 기십조(幾十條)의 지맥은 산각해(山脚海)에 박(迫)하여 암초를 작(作)하고, 계곡은 연안에 개(開)하여 사빈이 되고, 암초 사빈과 삼차교착(參差交錯)하여 그간에 일도(一道) 삼군(三郡) 20면(二十面) 칠십유오(七十有五)의 어촌을 포용하였다. 그리하여 영덕군 축산항·강구항, 영일군 포항항·구룡포항·대포항, 경주군 감포항은 해륙 무역항, 또 어항으로 호적지인데 그 설비도 점차 완비하여 간다. 일방 울릉도는 본토로부터 73해리의 해상에 홀립(屹立)한 주위 29리 되는 고도(孤島)인데 경북 유일의 속도(屬島)이며 최고 해발 3,230척 이하 천척(千尺)의 십수준봉(十數峻峯)이 홀립하여 연봉은 거의 단애절벽(丹崖絶壁)을 이루어 기봉괴

1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의 수산업정책」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hdsr_005_0040_0030_0010

15) 「경북의 수산업1」, 『동아일보』, 1935.8.4.,4면.; 「경북의 수산업3」, 『동아일보』, 1935.8.8.,4면.; 「경북의 수산업(終)」, 『동아일보』, 1935.8.17.,4면.

암(奇峯怪巖)은 수소기복(隨所起伏)하여 풍광이 절가(絶佳)하며 기후가 온화하여 천혜적 낙원이라는 정평이 있다.



<그림-9> 경북의 수산업, 동아일보 1935년 8월 4일, 8월 8일

경북 연안의 수심은 울릉도 연해에는 급경사로 충합수십미돌(沖合數十米突) 들어가지 안아 백심선(百尋線)에 달하고 해저의 대개는 급구배가 되어 있으나 본토 연해에는 비교적 완연하여 충합(沖合) 육리(六里) 내지 십수리(十數理)를 거하지 않으면 백심선(百尋線)에 달하지 않는다. 또 난류인 대마해류의 일파는 조선해협을 관류북진하여 경북 연안을 세류(洗流)하고,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 연안에 연하여 남하하는 한류 소만해류와 경북 연해 북부에서 조우교착하여 일본해 충합(沖合)방면(方面)에 분주하다. 조석은 극히 미소하고 간만의 차는 삭망에도 겨우 일척(一尺)요~육촌(五~六寸)에 불과하다. 경북 연해는 한류의 이조류가 교착한 관계상 한남양성의 각종 수족(水族)의 회유분포와 그 서식 상황이 극히 풍요농밀하여 호개(好個)의 양어장을 형성한다. 해안선의 단소에 비하여 어획고는 연간 5~6백만원에 달하는 실로 무진장의 보고요 천혜적 해리(海利)이다.

2) 중요(重要)수족(水族)

경북 연안은 그 지세 해황이 각종 수산동식물의 회유첩식(回遊捷息)에 적당하고 해양 상황은 각종의 어업경영에 적합하여 수소(隨所) 호어장을 형성하고, 각종 수족의 종류가 극히 번다하며 그 분포 상황은 자못 기지(既知)의 수산의 수가 범 70종류가 있다. 어류 50종, 패개(貝介)류 6종, 조(藻) 6종, 해수류(海獸類) 기타 10종으로 그중 청(鯖), 연(鰱), 온(鱸), 설(鱈), 접(鰈), 조(鯛), 사(鮪), 방(魴)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어획고로 수산을 고찰하면 청(鯖,고등어)의 회유농밀(回遊濃密)한 점은 전 조선을 통하여 제1위인데 영일만 충합(沖合)의 추청(秋鯖)은 청건착망(鯖巾着網)어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업(斯業)의 흥폐는 경북 연안 어획 여하로 좌우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타 춘·하(春·夏) 양기에도 청(鯖)의 호어장으로 정평이 있고 기선유망어법(機船流網漁法)의 발달이 전 조선 제일인 것을 보면 연해 청(鯖)어장이 탁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유어(柔漁)는 울릉도 해안에 어획되는데 반도 스루메(오적어포, 烏賊魚脯) 총산액의 8할은 실로 울릉도산으로 도(島)의 수산 경제는 유어어업(柔漁漁業)의 성쇠로 좌우하는 실정에 있다. 연(鰱,청어)는 영일만이 전 조선에 관절(冠絶)하는 곳으로 조선 연(鰱)어장의 대표가 되는데 연간 총생산액의 약 7할이 영일만에서 어획될 뿐 아니라 본 어업은 지방 어민들이 경영하는 대중적 어업인 관계상 본 어업의 소장(소장(消長)은 경북 수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설(鱈)는 본도 연해 도처에 회유첩식하여 본도 수산물의 제3위를 점하는 확실한 어장으로 일반이 촉망하는 바이다. 기타 각종 수족의 회유분포와 첩식 등으로 본다면 어떠한 수족이든지 양호한 어장인 것은 그 어획고의 다수인 것과 어업자의 조밀(稠密)한 것이 입증된다.

3) 어업자 인구

구 분		전업(專業)	겸업(兼業)	피용자(被傭者)
조선인	호수(戶數)	2,658	1,742	1,272
	인구(人口)	6,237	2,978	1,683
일본 내지인	호수(戶數)	239	26	106
	인구(人口)	405	54	161
계	호수(戶數)	2,897	1,767	1,378
	인구(人口)	6,652	3,030	1,944

어업자 인구중 조선인은 전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658호(戶)에 6,237명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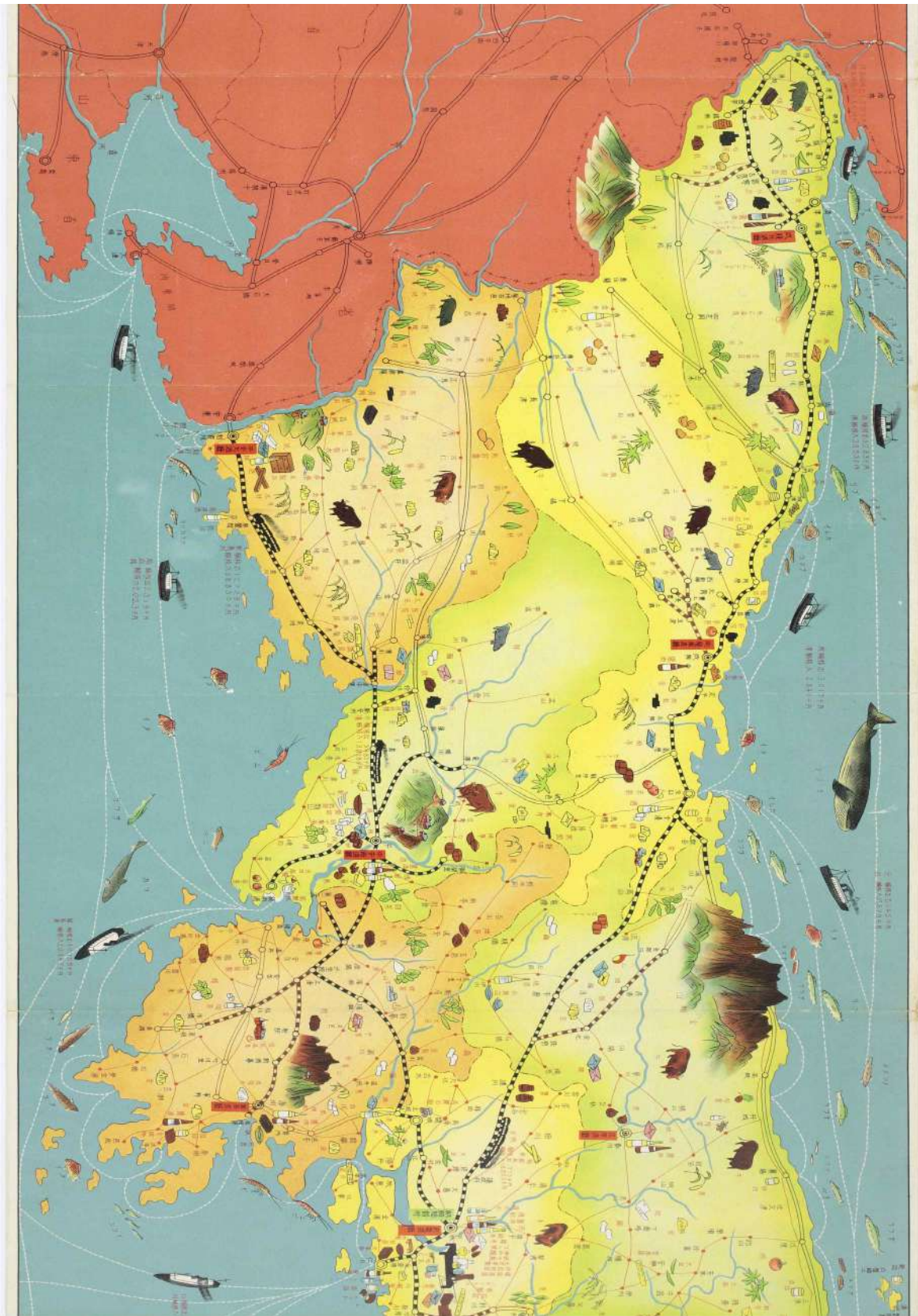
어업과 농업등 다른 업종과 함께 종사하는 겸업 인구는 1,742호에 2,978명이,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272호에 1,683명이다. 그리하여 조선인은 5,672호에 10,898명이다. 한편 일본인은 전업자 239호 405명, 겸업자 26호 54명, 고용인 106호 161명으로 총 371호에 620명으로 겸업비중이 현저히 적어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한 주요 이유가 어업에 종사하기 위함을 추론 할 수 있다. 1935년 현재 경상북도의 총 어업 종사자는 6,042호 11,62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통계표가 명시하는 것과 같이 조선인 어업자는 10,898명, 일본 내지인은 620명으로 인구의 대비는 조선인이 일본 내지인의 16배나 많으나 어획고를 본다면 조선인 1,968,136원이오 일본내지인이 3,759,135원이므로 조선인의 어획고는 일본 내지인의 1/3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조선인 어업자가 얼마나 영성한 지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4) 어업의 종류

경업구래(慶業舊來)의 어업 중 그 종류 20여 종의 주요한 것은 장시(杖矢), 휘리망(揮羅網), 자망(刺網) 및 일본조(一本釣) 등이 었으나, 명치(明治) 37년 통어(通漁)조약의 체결로 일본 내지인의 통어자 및 이주자가 점차 증가하여 한일합병 전후부터 일본 내지인 어업자의 통어가 일층 빈번하고 각종 어업의 이입, 어구, 어법은 급속도로 진보 발달하였다. 대정(大正) 초기(初期)에는 박망(縛網), 건착망(巾着網), 대부망(大敷網), 팔각망(八角網), 각망(角網), 호망(壺網), 지성망(地成網), 유망(流網)등 일본식 어업이 발전하였으며 어업상 일대 혁신을 보게 되었다. 특히 종래의 연(鰵)어업을 주로 한 임시(林矢)어업은 대정(大正) 6년경부터 전폐하고 기대(基代)로 낙망(落網) 또는 표망(瓢網)어업이 발흥하였다. 범선박망(帆船縛網) 및 건착망 어업은 발동기선 건착망으로 변하여 대정(大正) 12년경에는 범선 건착망어업은 절영되었고, 범선유망(帆船流網)도 역시 기선유망으로 발전하여 점차 기계화하였다. 기선저예망(機船底曳網)어업의 발흥, 북해도식 대모망(大謨網)의 진흥, 저호망(底壺網) 어업의 출현, 어구, 어법의 개선으로 어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1) 청어(靑魚)어업

경북 연해는 조선 제일의 연어장지(鰵漁場地)이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연해 이르는 곳마다 우수한 어장이 많아 년어획고 150만원을 불하하여 전조선 연(鰵) 총 어획고의 7할을 점하고 있다. 유래(由來) 조선인은 연(鰵)을 가장 기호하여 식선과 체물로 진중히 여겨 이곳 어업중 가장 중요한 어업이다. 따라서 연(鰵)의 어·불어(漁·不漁)는 연안 어촌 경제에 다대(多大)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구래(舊來) 본 어업에 사용한 어구는 대정(大正)



초기까지는 조선 특이인 장시(杖矢)하는 정치(定置)어업이었으나 근년 점차 발달하여 호망, 표망 등이 비상한 세력으로 보급되었다. 대정(大正) 6년경에는 호망은 낙망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재에는 낙망의 두 종류(양(兩)낙망, 편(片)낙망)와 표망의 이중 어장이 대표적이 되어있다. 이외에 연자망 어업이 중,소 어업자간에는 행성하고 있다.

(2) 청(鯖,고등어)어업

경북 연해는 실로 조선 청(鯖)어장 중 가장 중요한 어장으로 당업자(當業者)간에 중요시하는데 그중에도 추계(秋季)에는 청(鯖)의 대군이 집단농밀하고 어체(魚體)가 비만대형한 것은 타 어장에 그 유례가 없다. 따라서 청(鯖) 어획은 경북 어획물 중 제일위를 점하고 있으며 년 어획고는 250만원에 달하는 중요의 것이다. 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는 기선건착망, 기선유망, 범선유망, 연승(延繩,주낙), 일본조(一本釣) 등인데 각종 어업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 : 대정(大正) 8년 이전까지에는 박망어업이 성행하였으나 그 당시(當時)편수회(片手廻) 기선건착망의 출현과 동시에 박망어업은 선조(先漕)건착망으로 변천하고 순연한 범선박망어업은 점차 감소하여 대정(大正) 14년경부터는 선조건착망은 기선건착망으로 변하여 또 양수회(兩手廻)건착망이 발흥하여 현재에는 우수한 진용을 정제(整齊)하였다.

기선유망(機船流網)어업 : 청(鯖) 유망어업은 일본 내지인의 창업한 것인데 그 근거지를 감포와 구룡포로 하고 범선유망은 기선유망으로 개량하여 현재에는 40마력 이상의 발동기 어선이 수백 척을 돌파하나 어군의 감소와 재계 불황으로 침체상태에 있다.

범선유망(帆船流網) : 범선유망은 조선인 소 어업자의 경영인데 현재 종업선수(從業船數) 92척이며, 어황은 부진상태에 있다.

청연승(鯖延繩)어업 : 소자본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간이어업인데 대정(大正) 14년 이래 울릉도 근해에서 상당한 성적을 보게 되어 소화(昭和) 7년도부터 영일군 연안의 소 어업자를 독려하여 비상한 호성적을 본 소 어업이다. 본 영업은 소자본으로 경영할 수 있고 수익이 확실할 뿐 아니라 어한기에 조업할 수 있는 대중적 어업으로 그 어로 해역은 충합(沖合) 7리 내지 10리의 해역까지 출어하는 고로 범선보다 소형발동기선을 사용이 증가되게 되었는데 다년(多年) 청어(靑魚)어흥으로 우는 연안 소 어민들을 구제하는 소 어업이다.

(3) 온(鱶, 정어리)어업

어획물의 종류로 대별하여 ○온(鱶) 어업과 진온(眞鱶) 어업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주로 지예망 및 권현망(權現網)으로 어획하는데 이 어업은 연안 사빈 수소(隨所)에서 보통하고 그 수 89건에 달하며 각 어장에 제조설비를 하여 어획물은 즉시 전자(煎子)로 제조하여 도내 년생액이 16만 6천여원에 달한다. 진온(眞鱶) 어업은 대정(大正) 12년에 이르러 어획이 증가하여 금일에 지(至)하였는데 주로 자망을 사용하고 최근 약간의 기선건착망을 사용함에 이르렀다. 그 어기(漁期)는 주로 5월~8월간이 성어기요 어획물은 착박유(搾粕油)의 제조원료 사용하는데 연간 총생산액이 착박 3만표, 유(油)10만관 내외이다. 소화(昭和) 6년부터 총독부의 착박 및 온유 판매 통제에 순응하여 박(粕)은 삼릉(三稜)상사 주식회사에 위탁 판매하고 유(油)는 합동유지(合同油脂) 주식회사에 판매하게 되었다. 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수는 기선건착망 23척, 범선유자망 410척에 달하고 성어기에는 경남, 전남의 어선도 입어하여 활황을 이룬다.

(4) 설(鱈, 대구)어업

경북 연해는 도처에 설(鱈)의 회유(回遊) 서식(棲息)이 많아 이르는 곳마다 우량한 어장을 형성하여 경북 어획물 중 제3위를 점하는 주요 어업이다. 사용하는 어구는 주로 기선저예망, 연승 및 낙망, 표망 등인데 기선저예망은 조선어업보호규칙에 의하여 허가 종업선(從業船) 수 20척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어족의 번식 보호 견지에서 사용 어선을 25톤 80마력으로 제한하여 난획의 폐를 방지하고 있다. 설연승(鱈延繩) 어업은 주로 조선인 어업자로서 현재 종업선수 400척인데 조선인 어업으로는 청어어업과 비견하는 추요(樞要)어업이다. 또 낙망, 표망은 청어어획을 주로 하는 것이나 경북에서 설(鱈)의 성어기는 매년 12월부터 익년 4월경까지이요. 산란을 위하여 연안의 회유하는 것을 낙망 또는 표망으로 청어와 혼획하는 것이다. 설(鱈)의 어획고는 년 350관, 가액 48만원에 달하는데 12월로부터 2월경까지는 주로 선어로 조선내 각지에 판매하고 특히 최근 도 수산회와 도 어업조합연합회에서는 설(鱈)의 대중적 수용으로 환기하고 어가(魚價)의 향상유지를 기도하기 위하여 설(鱈)의 조리법의 보급과 시험회 등을 개최 선전하고 있다. 전기 어기(漁期) 이외의 어획물은 무두개설(無頭開鱈)로 제조하여 일본 내지, 남중국 방면에 수출하는데 그 수량은 년 37,000관, 가격 23,000원에 달한다.

(5) 청절(鯖節, さばぶし)

청절역(鯖節亦) 울릉도가 주산지이다. 경북은 청어장(鯖魚場)으로 전조선 제1위를 점하

고 그 어획물은 선어(鮮魚) 또는 염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통레이나 울릉도는 대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라 운반이 불편하여 청절(鯖節)의 제조가 성한데 현재 울릉도에 청절 제조 공장수가 57개소이다. 제조품은 광도현(廣島縣), 향천현(香川縣), 대판(大阪) 등지의 삭절(削節,가쓰오부시)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영일군 관하에 청연승(鯖延繩) 어업을 장려한 결과 그 어획물의 가정적 처리 방법으로 청절(鯖節) 제조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는데 장래 기대가 큰 제조업이다.

(6) 앵간류(櫻干類)

앵간(櫻干)은 포항을 주산지로 감포, 구룡포, 강구 등에서 제조하나 아직 성행치 못하고 포항이 독점무대가 되어 있다. 제조 공장 수 5개소이며 제품의 종류는 해로(海老,새우), 하돈(河豚,복어), 소접설(小鰈鱒,가자미,대구) 등으로 수용지는 대판(大阪), 동경(東京)이다.

(7) 관힐류(罐詰類)

경북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관힐류는 포수자(鮑水煮전복), 만(鰻뱀장어), 포소청수자(蒲燒鯖水煮어묵), 청미부(鯖味付), 온미부(鰻味付), ○○미부, 해(蟹게) 등이며 그 주요 집산지는 부산(釜山), 하관(下關) 등이다.

(8) 온유비(鰻油肥)

경북 연해에는 대정(大正) 18년경부터 대우온(大羽鰻)이 회유하기 시작하여 이내 년년 증획되어 온(鰻) 어업은 급진적으로 진흥하였다. 따라서 온유비(鰻油肥) 제조업자의 족출(簇出)을 보게 되었다. 소화(昭和) 4년경에는 박(粕) 50,000표, 유(油)130,000관에 달하였으나 재계 불황으로 온유비 가격이 폭락하여 당업자는 비경에 함(含)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발흥하는 경향으로 장래 유망시 된다. 온유비(鰻油肥)의 주산지는 영일군 대보·구룡포·양포·곡강, 영덕군 축산·오보·강구·영해, 경주 감포이며, 제조고는 박(粕) 28,425표, 유(油) 79,164관이다.

(9) 양식업(養殖業)

경북에는 고래 해수산(海水産) 동물의 양식업에 관하여는 문헌이 없고 시설은 볼 만한 것이 없다. 대정(大正) 6년 이래 영일 어업조합에서 영일군 대송면(大松面) 해안 부근의

수류(水流)를 이용하여 치어의 보호 양식을 하였으나 그 성적을 보지 못하여 포기하였다. 대정(大正) 12년 이래 지방비 보조를 받아 연안 암면(巖面)에 세멘트를 도포하여 암해태(岩海苔)의 번식을 시킨 결과 그 성적이 양호하였으므로 총독부에서도 어촌진흥, 어가의 부업 장려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있어 도 지방비와 아울러 도내 각 어업조합에 보조금을 주어 적극적 장려하여 호성적을 나타내었다. 동해의 암해태(岩海苔)는 세계무류(世界無類)의 영양 가치가 있고 품질이 우량하여 어촌 부업으로 크게 유망하다고 한다.

(10) 어항(漁港) 및 어선(漁船) 피난장(避難場) 수축(修築)

경북 연안의 어촌 중 어선이 기박(寄泊)하기 적당한 개소는 약 15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항 또는 어선 피난장에 적당한 곳은 감포, 구룡포, 포항, 강구, 축산, 도동이다. 하지만 어느곳 이든지 인공적으로 수축(修築)하지 않으면 완전한 어항 또는 어선 피난장이 되지 못한다. 대정(大正) 3~4년 포항항 하구 준설과 어장선 피난의 개수(改修)를 하고, 대정(大正) 7~9년에는 강구, 포항, 감포, 구룡포, 축산항의 수축(修築)을 했으며, 다시 양포, 대보의 간이한 어선 피난장의 수축(修築)을 진행중이나 아직 완전히 되기까지는 전도요원하다. 특히 경북의 관문인 포항항의 개·축항(改築港) 문제는 긴급 시행을 요하는 경북의 대문제가 되었다. 경북의 어항시설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어항과 어선피난장 수축상황

항명	기준공	수축종류	총공비(원)
포항	기공 대정3년 준공 대정4년	하구준설, 導水堤 291미, 制水工事6개소	9,993
강구	기공 대정7년 준공 대정9년	防波堤 91미, 川口 切開 91미	142,165
포항	기공 소화2년 준공 소화5년	導水堤 744미	423,000
감포	기공 소화6년 준공 소화9년	防波堤 173미 防波堤 100미	875,150
구룡포	기공 소화6년 준공 소화9년	防波堤 182미 防波堤 200미	875,887
강구	기공 소화원년 준공 소화5년	導水堤,制水堤, 締切堤760미 防波堤,導水堤350미	389,000
축산	기공 소화7년 준공 소화8년	防波堤107미	72,000

5) 어선수 및 중요 수산물 어획고(단위:원)¹⁶⁾

구분	청(鯖)	연(鰵)	온(鰺)	설(鱈)	大刀漁
소화 9년	2,175,809	1,120,400	350,921	523,946	397,629 162,886
소화10년	1,599,396	1,072,045	521,225	497,347	335,962 247,348
구분	접(鰈)	방(魴)	약포(若布)	기타	계
소화 9년	116,252	19,186	79,273 69,146	695,815	5,707,273
소화10년	123,256	96,831	91,759 75,322	734,006	5,394,497

- 어선수 : 무동력(조선형 920척, 일본형 2,198척), 동력(297척), 계 3,415척

6) 중요 어업별 어획고(단위:원)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각종정치망	1,443,424	1,431,595	타뢰망	76,765	162,526
건착망	1,647,900	1,286,421	지예망	141,491	177,414
수조망	419,404	493,300	채조	119,843	140,491
각종연승	379,201	466,359	나잠	14,840	195,934
연자망	406,725	413,260	각종 일본조	85,668	132,500
온류망	190,787	246,962	기타	257,325	257,217
청류망	523,900	90,100	계	5,707,273	5,394,497

7) 중요 수산 제품액(단위:원)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약착박	232,061	386,529	약포	80,953	96,899
신흙연	171,190	301,500	포○	68,815	92,700
약유	148,819	283,175	개설	27,541	84,540
전자	167,908	223,611	하양건	39,200	71,673
염청	161,460	236,668	염연	49,090	70,220
방魴	15,677	119,800	기타	400,637	598,483
			계	1,563,495	2,465,798

16) 「경북수산개황」, 『동아일보』, 1936.5.7.,8면.

8) 면허·허가·계출 어업 건수

구 분	년 도	受 理	免 許	현재유효수
면허어업	소화 9년	283	37	609
	소화10년	187	22	608
허가어업	소화 9년	848	788	765
	소화10년	1,945	1,421	909
계출어업 (届出, 신고)		감찰하부(鑑札下付)		현재유효수
	소화9년	598		837
	소화10년	579		588

9) 어업에 관한 등록 사건수

구분	직권에 의한 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	총계
소화 9년	124	221	345
소화10년	223	235	458

Ⅳ. 축산항의 수산업과 축산어업조합(丑山漁業組合)

1. 축산항의 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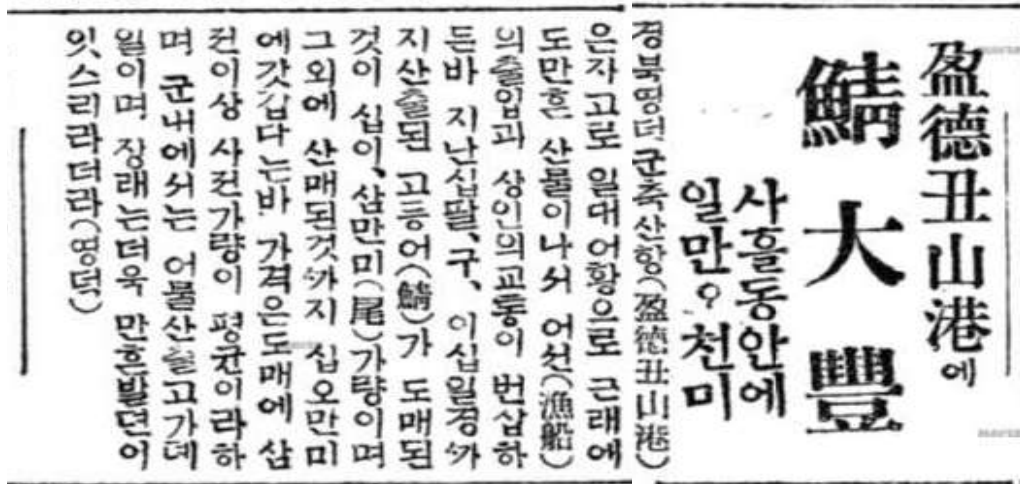
광무(光武) 3년(1899년) 영해군수로 부임한 서민순(徐敏淳)에 의해 편찬된 『경상북도 영해군읍지』에 따르면 축산항은 자연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예부터 군사적으로나 수산 어업의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인 만큼 대구, 홍어, 청각, 문어, 송어, 광어, 꽃게, 고등어, 전복, 홍합, 김, 미역 등 해산물이 주를 이루고, 전죽(箭竹)도 있었다. 진상 물품으로는 해구신, 말린 광어, 꽃게, 말린 대구, 말린 문어와 같은 해산물이 많았으며, 방풍(防風), 구기자와 같은 농산물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융희4년(1910년)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편찬된 『한국수산지 제2집』에서는 영해(寧海)의 주요 어촌으로 축산(丑山), 차유(車踰), 경정(景汀), 오매(烏每) 등이 있으나 축산이 제일 저명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생산물로서는 청(鯖고등어), 런(鰱청어), 접(鰈가자미), 설(鱈대구), 온(鱘정어리), 춘(鱸삼치), 화포(和布미역) 등이 생산되며 어업법으로는 청류망(鯖流網), 접자망(鰈刺網), 수조망(手繰網), 춘일본조(鱸一本釣, 삼치외줄낚시) 등이 성행한다고 하였다.

축산(丑山)은 영해읍(寧海邑)에서 동남 2리의 거리의 연안에 있으며 본 군의 우수한 양항이며 만의 입구 동쪽에 위치하여 그 안쪽이 넓으며 수심이 있고 사방이 바람을 막고 있어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다. 가까운 바다에 고기가 풍부하며, 인가(人家)는 수백여 호(戶)가 있으며 어업종사자가 다수이다. 어업으로는 연자망(鰱刺網), 설자망(鱈刺網), 수조망(手繰網), 청류망(鯖流網), 지예망(地曳網), 춘일본조(鱸一本釣, 삼치 외바늘낚시), 채조(綵藻) 등이 행해진다. 어획물은 대개 염장하여 포항, 부산으로 운송된다. 일본의 잠수기업자(潛水器業者) 및 춘류선(鱸流船)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위의 기록으로 보면 축산항에는 고등어, 청어, 가자미, 대구, 정어리, 삼치 등이 주로 많이 잡혔고 그 수익도 많아 어업경기가 좋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수백여(數百餘) 호(戶)의 대촌(大村)으로 선박 출입과 어획목입(漁獲牧入)이 부절(不絶)하는 군내 우수한 어항인바 근일에는 고등어와 정어리의 산출이 파다하여 어선 백여척과 발동선 수십여척씩 매일 출어하여 그 산액은 매일 평균 수천여 원에 달한다는데 어업경기는 파(頗)히 대호황이라더라(7)

사흘 동안에 일만 오천미,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자고로 일대 어황으로 근래에도 만흔 산물이 나서 어선의 출입과 상인의 교통이 번잡하든바 지난 18, 19, 20일경까지 산출된 고등어(鯖)가 도매된 것이 12~13만미 가량이며 그 외에 산매된 것까지 15만미에 가깝다는 바 가격은 도매에 3전이상 4전가량이 평균이라 하며 근내에서는 어물 산출고가 제일이며 장래는 더욱 많은 발전이 잇스리라더라.18)



<그림-12> 영덕 축산항에 청대풍, 조선일보 1928년 12월 6일 5면

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으로 일반 경기가 매우 조하 영덕군 축산항 부근 동리에는 근일에 메르치(은)고기가 다수히 산출되었다는데 이로 인하여 어업 당사자 및 일반 상업가에게는 조흔 경기를 주게 되었다는데 특히 경정동에는 수히 산출되어 사오천원의 가액에 달한다더라.19)

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 비철에 만히 잡혀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부근 경정동에서는 지난 구일에 『메르치』(은)를 만히 잡었다는 바 때아닌 겨울철에 잡힌 것이 이상하다는데 총 산출고는 대략 수천여원에 달한다며 그 지방 경제는 이로 인하여 다소간 완화될 듯하다더라.20)

청(鯖), 설(鱈)의 풍어를 본 경북 연안에서는 다시 동해안 어업의 왕좌를 점하는 은(鰺)의 어기(漁期)가 접근함을 따라 연안의 화형(花形) 건착망(巾着網)어선은 북부 해안에 집결하여 은(鰺)의 습래를 대기하고 잇서 경북연안은 바야흐로 활황을 정하고 있다. 그는 즉 금년 해류의 변조에 의하여 어기라 빨리 도래한 것으로 청(鯖), 설(鱈), 은(鰺)의 성어기가 한꺼번에 도래한 것이라 한다. 이제 축산어조에서 30일 도(道) 수산과(水産課)에 어황을 보고한데 의하면, 수 일 전부터 호어의 강원도 삼척중의 은어(鰺魚)도 점차 남하하여 23일 후포리(厚浦理)충(沖)에서 상

17) 영덕 축산항 어업호황, 일수입 수천원, 『조선일보』, 1927.7.20.,1면.
 18) 「영덕 축산항에鯖大豊(청대풍)」, 『조선일보』, 1928.12.6.,5면.
 19) 「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으로」, 『조선일보』, 1929.10.16.,3면.
 20) 「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 『조선일보』, 1929.12.13.,3면.

당한 어획이 잇섯스며 24일 발동기선(發動機船)척(隻)을 축산 북방 25리에 출동 식혀서 시어(試漁)한 결과 25준(樽)의 어획이 잇섯다. 25일은 동북 8방리(方里)에서 53준(樽), 26일은 출어선 오척에서 각기 3~40준(樽)의 어획이 잇섯다. 는 것으로 온(鱸)의 성어기는 20일 가량이 빨라서 강원도충에서 대군이 회어한다는 정보도 잇스므로 경북 연안에의 회어는 순일(旬日, 열흘)을 격(隔)한데 불과하여 연안은 자못 활황을 정하리라 한다.²¹⁾

경북 영덕군 해안에서는 객년(客年) 12월 중순까지 각항 어획이 부진되어 당업자는 물론이오 각계에 과급되는 영향이 막대 하든바 12월20일경부터 온어(鱸魚)가 잡히기 시작하여 강구, 영덕, 축산, 영해어구내에서 육양된 것이 1월22일까지 십만준 이상에 달하여 가격도 십수만원에 달한다는바 이로 인하여 한산하든 각 어촌에는 대활황을 띠고 있다.²²⁾

경북 영덕군에서는 수산계원(水産係員)들의 지도와 강구, 영덕, 축산, 영해 4개소 어업조합이 잇서 어민훈련, 어업장려에 철저하므로 수산물도 년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수산 제조고도 매년 증가하여 소화12년 총제조고는 1,269,921원으로 세별(細別)하면 여좌하다고

-절류(節類) 260원, 소건류(素乾類) 24,504원, 염건류(鹽乾類) 900원, 자건류(煮乾類) 12,698원, 염장류(鹽藏類) 110,680원, 관힐류(罐詰類) 163,657원, 염신류(鹽辛類) 1,473원, 식용해조(食用海藻) 42,023 이상 식용품

-비료류(肥料類) 480,220원, 유납류(油臘類) 426,613원, 해조류(海藻類) 45원 이상 비식용품²³⁾

1920년대~1930년대 축산항 근해에서는 주로 정어리, 고등어등이며 이로인해 영덕군내에서는 그 산출고가 제일 높았으며 장래에도 전망이 밝을 것이란 관측을 내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축산항 근해의 풍부한 어획량과 피항하기 좋은 항만의 구조로 인해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인 명치(明治) 35~6년(1903년경)부터 일본 카가와·마야구치현(香川·山口縣) 통어업자(通漁業者)의 피항지였으며 일본해와 맞닿아 있어 통어업(通漁業)이 성행했다. 더불어 정어리, 고등어의 대량 생산은 수산 제조품의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생선의 1차 가공품인 통조림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기름생산과 비료의 생산에도 축산항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정(大正) 3~5년사이에는 항만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일본 어선들이 즐비하여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수산물 채취와 정어리기름, 통조림 가공 등 수산 제조품 생산업이 왕성했다.

경북 동해안 영덕군 축산항을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의 바다 가운데에는 "멜"의 떼가 들어 밀어 멜치 대풍의 호황이라는데 목하 동지의 중 어선은 백오십척 매일 평균 5천상(일상 4~5백 미)인데 매상 80내지 1원5전의 시가로 비료 제조용에 공급된다더라.²⁴⁾

21) 「온(鱸)점차 남하, 경북 연안 활황」, 『조선일보』, 1936.12.5.,4면.

22) 「영덕 근해 온(鱸)어획, 각 어장합계 십만준(樽) 돌파, 가격으로 십여만원」, 『조선일보』, 1938.1.27.,6면.

23) 19380504_6_조선일보_영덕 수산(水産)제조고(製造高) 작년중 백수십만원 초과

24) 19280720_4_동아일보_丑山海에大鱸群(대약군) 毎日 漁獲高(매일 어획고)가 五千箱(오천상)

매일 선박 출입이 백여척 人夫 賃金(인부임금)만 千餘圓到達(천여원도달),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고래로 유명한 어항으로써 근래에 이르러서는 제방공사 완성과 항만수축이며 선박출입이 편리토록 일반시설을 가하여 본 군내에서는 우수한 대어항인데 今春부터는 어물산출이 평균으로 풍부하여 시세가 좋아 오든바 근일에 와서는 온어(鱻魚, 정어리)가 대풍이 되어 착박(搾粕, 지게미를 짜다, 시메까스)공장이 수십개소이며 매일 기선, 발동선, 기타 어선 출입이 백여척이며 노동인부 임금만 일평균 천식원(千蝕圓)에 달하는 호상황인바 차외에도 관입(罐入) '간쯔메' 공장 등이 잇서 압으로 크게 발전될 여망이 만타더라.²⁵⁾

盈德丑山港

鱻魚大豐獲

每日船舶出入이百餘隻
人夫賃金만千餘圓到達

慶北盈德郡丑山港은古來有名한漁港으로近來에이르러는堤防工事完成과港灣修築이며船舶出入이便利토록一般施設을加하여本郡內에서는有數한大漁港인데今春부터는漁物產出이平均으로豊富하여時勢가조하오든바近日에와서는鱻魚(정어리)가大豐獲이되어搾粕(시메까스)工場이數十個所이며每日汽船發動船其他漁船出入이百餘隻이며勞働人夫賃金만日平均千餘圓에達하는好狀況인바此外에도罐入「간쯔메」工場等이잇아압으로 크게發展할餘望이만타더라(盈德)

主演인支那街의秘密外에十餘種映畫의사랑을차키외에數種의劇을演리이러는데本報讀者에게는特別히半額券으로優待할터인바本報讀者諸位는優待券을持參하기를바라나타(信川)

金泉新幹支會

臨時大會

新幹會金泉支會에서는去月三十日下午三時에金泉青年同盟館에石泰衡氏司會로臨時大會를開催하고議長이石泰衡書記에黃義準兩氏가被選되어經過報告와任員選舉가行한바(盈德)

<그림-13> 영덕 축산항 온어대풍획, 조선일보 1929년 8월 2일 4면

경북 영덕군내에는 강구, 오보, 축산, 영해 4어업조합이 편성되어 제선어산물(諸船漁山物)을 판매하여 오는 중 금년도에 이상 4어구(漁區)내 약유(鱻油), 박(粕) 총계는 여좌 하다는 바 비작년 성적도 매우 양호하며 수출지 가격도 유일등매관(油一等每罐)에 2원30전, 박일등매표(粕一等每俵)에 8원96전이라고 한다.

강구어조-油10,100관56 粕4,800표, 오보어조-油3,000관 粕1,200표, 축산어조-油9,690관 粕4,600표, 영해어조-油12,800관 粕3,500표²⁶⁾

영덕군 축산항 김정환씨는 현금 경상북도 평의원(評議員)으로 도내 우수한 자본가인바 항상 기계공장, 공업, 기타 생산될만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매양 연구중이든바 작년 추기(秋期)부터 전기 항내에 관할공장을 설립하였는바 건축 기타 화비(華備)에 개만원(開萬圓)자금을 투하였스며 그 공장에 대한 기계도 거대한 자금을 투하였다는바 위선 해산물로 전복, 해삼, 게 기타 고급어류 관할제조를 개시 하였는데 각종 어물의 산출이 만히 원료가 풍당부시(豐當富時)는

25) 19290802_4_조선일보_영덕 축산항 鱻魚大豐獲(온어대풍획)
26) 19340706_4_조선일보_영덕내 어조의 약유(鱻油)와 박(粕)풍부

매일 백명 인부를 수용한다하며 금후 계획은 육산품으로 제조할 예정인바 장래가 자못 유망하다더라.27)

조선인으로서는 당시 유일하게 수산 제조품인 통조림 제조업을 개시한 김정한(金禎漢)은 축산어업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전도유망한 청년실업가로 칭송받고 있었다.

이렇듯 축산항은 풍부한 어획고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중요한 어항으로서 그 위치를 굳혔다. 한편 어업납획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는데 당시 정어리 가격이 너무 낮아지자 어업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림-14> 매상가 저락으로 온어업자총파, 조선일보 1930년 6월 25일 6면

근래의 경제공황은 어테나 갖게되어 시세를 이길 수 없어 각 방면 사업에 지장이 만흔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어니와 영덕군 축산항 부근 일대에서는 지난 20일경에 각지에서 집중한 정어리(鱈漁業者)잡는 배 근 백여척이 항만에 정박한 후 휴업을 단행한 바. 이에 대한 원인은 정어리 가격이 너무 헐하여서 그와 같이 총파업을 한다하나 일방으로 온어 공장주(鱈漁工場主)의 진술을 들건대 생 정어리 가격은 별로 헐치안코 어비와 기름 가격은 거의 작년 반액임으로 지금 것만은 타격을 맞는다는데 양편의 양보로 불원간 해결되리라 한다.28)

1930년 6월 20일경 정어리 잡는 배 백여척이 축산항에 정박한 후 조업을 거부하고 휴

27) 19280408_4_조선일보_전도유망(前途有望)한 관할공장(罐詰工場) 김정한(金禎漢)씨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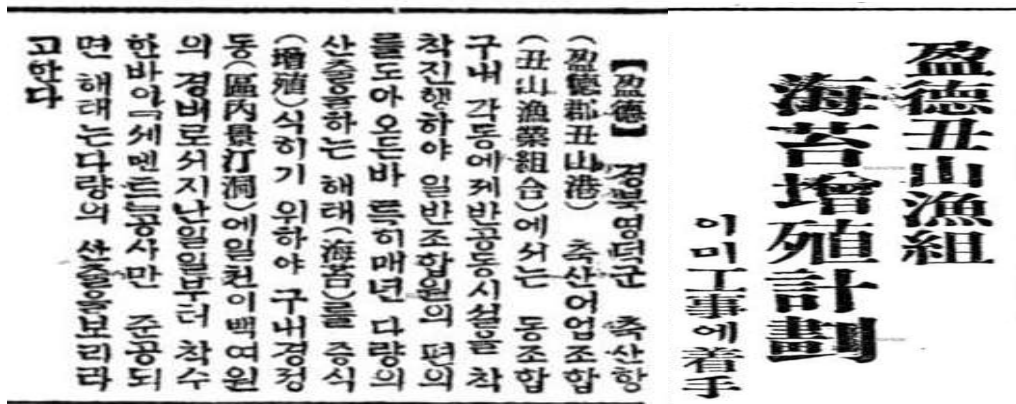
28) 19300625_6_조선일보_매상가 저락으로 온어업자 총파(鱈漁業者總罷), 영덕 축산항부근에서 백여척 어선 휴업

업을 단행했다. 그 이유는 정어리 가격이 너무 낮아서였다. 이에 맞서는 공장주는 정어리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라 어비(魚肥)와 어유(魚油) 가격이 작년 비교 거의 절반으로 현재의 것만 타격을 받을 건이라며, 어업자와 공장주 양편의 양보로 원활히 해결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정어리를 비롯한 어족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어획량 증가 속도는 경이로웠다. 정어리가 기록적으로 많이 어획되었던 1937년에는 200만 M/T대를 돌파하여 어획량에 있어서 세계 제1위였던 일본 다음 가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실제 어획량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통계보다 많았다. 주로 일본인이 어획한 어획물 중에는 한국에 양륙되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반출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총독부 수산기사를 지냈던 추산실(秋山實 : 아키야마 미노루)은 1930년경의 고등어 건착망어업에 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해상에서 발동기선에 적재하고 빙장하여 내지로 운반되므로 어디서 고등어가 몇 십만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항내에서는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을 정도”라는 말을 하였다. 또 조선총독부 식산국 수산과의 한 관리는 1927년 재직 당시에 정확한 수산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논한 가운데 “남선방면의 근해 어업가의 다수는 어장 및 어기 시가의 관계상, 선내(鮮內)에는 돌아오지 않고 바로 시모노세키 방면에 양륙하여 판매하는 경향도 있고, 또 폭발물을 사용한 부정어업의 어획물 같은 것도 과반수는 대안(對岸)의 시모노세키 방면에 양륙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통계에 나타난 실수의 2할 내지 3할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양식고의 증가 속도는 더욱 경이적인 것이었다. 양식물의 대중은 김이었고 그 다음이 굴이었으나, 생산액에 있어서는 김이 총 양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김 양식업의 성쇠는 곧 양식업의 성쇠를 좌우하는 것이었다. 어획물과 양식물의 급증에 따라 수산제조업도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생산액에 있어서 제조고가 어획고를 능가한 때도 있었고 1938·1939년에는 제조고가 어획고와 양식고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1930년대초의 제조고 감소는 당시 세계를 휩쓴 대공황 때문이었다. 제품의 종류는 소건품(素乾品), 염건품, 자건품(煮乾品), 염장품, 젓갈, 해조류제품 등의 저차 가공품이 많았다. 정어리어업 발흥 이후에는 정어리를 원료로 한 어유, 압착비료, 어분, 통조림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정어리 어유는 경화유지 공업의 원료로서 화장품으로부터 폭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²⁹⁾ 축산항 어업조합에서는 양식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 공사도 진행했다.

2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의 수산업정책」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hdsr_005_0040_0030_0010



<그림-15> 영덕 축산어조 해태증식 계획, 조선일보 1933년 9월 4일 3면

경북 영덕군 축산항 축산어업조합에서는 동 조합구내 각 동에 제반 공동시설을 착착 진행하여 일반조합원의 편의를 도아 오든바 특히 매년 다량의 산출을 하는 해태(海苔)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구내 경정동에 1,200여원의 경비로서 지난 1일부터 착수한바 ‘세멘트’공사만 준공되면 해태는 다량의 산출을 보리라고 한다.³⁰⁾

양식은 해태라 불리는 김이었다. 축산항 인근 경정동에 1,200여원의 경비를 들여 김 양식을 위한 시멘트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원의 수입증대를 위해 다량의 산출물을 기대하고 있다.

수산 어획량제고를 위한 어업방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높아진 어획고를 이용해 통조림, 어유, 어비등 2차 가공품을 생산을 늘려 오던중 어업권의 확장을 위해 경북 근해만이 아니라 원양어업에도 발을 디디기 위해 노력했다.

경북 구룡포 어업자로부터 당지 어업조합을 통하여 북해도 원양어업의 출어를 희망하는 자 있으므로 경북도에서는 북해도청에 기존 유자망(流刺網)허가를 교섭중이었는데 최근 강구, 축산, 감포어업조합에서도 출어할 의향이 있다는 바 만일 북해도청에서 출어허가가 되는 날이면 동해안 어업자의 일약 원양어업시대가 실현되리라 하여 일반 어업자들은 그 기추를 흥미시 한다고 한다.³¹⁾

30) 19330904_3_조선일보_영덕 축산어조(漁組) 해태(海苔)증식계획, 이미 공사에 착수

31) 19331008_3_동아일보_원양어업시대! 경북어업자들이 분기(憤氣), 북해도(北海道廳)에 출어원(出漁願)

遠洋漁業時代!

慶北漁業者들이憤起

北海道廳に出漁願

【포항】 구룡포(九龍浦) 청서 출항가 된다는
 어업조합 당지 어업조합
 동하여부청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2011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2011년 출항가 된다는

【고령】 구룡포(九龍浦) 청서 출항가 된다는
 어업조합 당지 어업조합
 동하여부청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2011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고령】 구룡포(九龍浦) 청서 출항가 된다는
 어업조합 당지 어업조합
 동하여부청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2011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고령】 구룡포(九龍浦) 청서 출항가 된다는
 어업조합 당지 어업조합
 동하여부청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2011년 출항가 된다는
 (漁業者)의 출항가 된다는

<그림-16> 원양어업의 시대, 동아일보 1933년 10월 8일

원양어업은 일본의 북해도 앞바다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구룡포, 강구, 축산, 감포의 어업조합은 경북도청에 원양어업 출원 의사를 밝히고 일본 북해도청의 허가를 위해 교섭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근해어업에서 일약 원양어업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그 생산량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지역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위의 4개의 항구는 연안 항구의 위상을 넘어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내는 일이라 하겠다.

2. 어업조합의 설립

일제의 식민정책이 농촌에서 관철되도록 가능한 기구가 금융조합이었다면, 그 역할을 어촌에서 담당할 것은 어업조합이었다.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전후 시기에 한반도 동·남·서쪽 연안의 수산자원 확보, 어촌과 어민의 통제를 위해 법안 제정, 단체 설립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 일제강점 직후 총독부의 적극 개입으로 만들어진 수산 단체 가운데 하나가 어업조합이었다. 1912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어업조합은 1942년에는 200여개로 늘었고, 15만 6천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 했다.

1) 어업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일제는 한국 강점을 전후로 한반도의 수산자원 확보와 어촌·어민의 통제, 일본 어민

의 이주 장려와 이주 일본 어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통감부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1908년 ‘어업법’을 제정토록 했다. 또 식민지화 직후 ‘어업령’(제령 제6호), ‘수산조합규칙’(조선총독부령 제13호), ‘어업조합규칙’(조선총독부령 제14호)을 잇달아 제정·공포했다. 어업령은 1911년 6월 3일 제령 제6호로, ‘어업령 시행규칙’과 ‘어업취체규칙’은 각각 조선총독부령 제67호와 제68호로 공포되었다. 어업령은 본문 28개조, 부칙 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업령이 어업법에 비해 달라진 점은 크게 ‘수면을 전용하여 어업을 하는 권리’(전용어업권)가 신설되고,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었으며,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업령과 부속 법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조선총독부령 제15호)되었다.

어업령 제16조(‘일정한 지구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설치할 수 있음’)를 근거로 어업조합 설립과 활동을 뒷받침할 ‘어업조합규칙’이 1912년 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고, 시행은 어업령 시행일과 동시에 하도록 했다. 이어 191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관통첩(제79호)을 통해 각 도장관 앞으로 ‘어업조합규약례’와 경비예산방식을 시달하여 조합설립 시 준거토록 했다. 이후 1929년에 이르러 어업령과 부속법령, 그리고 어업조합 관계 법령이 전면 정비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 1월 26일 ‘조선어업령’이 제령 제1호로 공포되었고, 동년 12월 10일에 ‘조선어업령 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7호), ‘조선어업보호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8호), ‘조선어업조합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4호), ‘조선어업조합 업무규정’(조선총독부령 제115호)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법령은 모두 1930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1930년 5월 1일 시행된 조선어업령(이하 ‘령’)과 조선어업조합규칙(이하 ‘규칙’)을 중심으로 어업조합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합명칭에 관한 것이다. ‘어업조합의 명칭 중에는 어업조합이란 문자를 사용할 것’(규칙 제1조)이라 했는데, 이는 역으로 ‘령’과 ‘규칙’에 의거해서 인가받지 않은 단체는 ‘어업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조합설립 자격에 관한 것인데, ‘일정한 지구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령 제43조 제1항)이라 하여 ‘어업자’ ‘일정한 지구 내 거주’라는 요건을 명시했다.

셋째, 조합지구에 관한 것으로, ‘어업조합의 지구는 부 혹은 면의 구역 또는 부 혹은 면내의 부락의 구역에 의해 이를 정할 것을 요함. 단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는 이 제한에 있지 않음’(령 제43조 제2항)으로 하여 1912년 규정에 비해 ‘부 또는 부내 부락’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부, 즉 도시지역 어업자들도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넷째, 조합설립 절차에 관한 것이다. 즉 ‘조합을 설립시킬 때는 조합의 지구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 5인 이상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인가신청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할 것’(규칙 제4조), ‘어업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때는 발기인에서 규약을 정하고 조합의 구역될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을 것’(령 제44조)이라고 하여 발기인은 어업자 5인 이상이면 가능토록 했고, 규약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지구 내 거주 어업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어업자 5인 이상으로 발기인회가 성립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다섯째, 조합가입 강제 규정인데, ‘어업조합이 성립될 때는 조합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함’(령 제45조)이 그것이다.

여섯째, 조합의 법적 성격과 목적에 관한 것이다. ‘어업조합은 법인으로 함’(령 제47조 1항), ‘어업조합은 조합원으로 하여 어업을 하게 하기 위해 어업권을 취득 또는 어업권의 대부를 받음. 또 조합원의 어업 또는 이에 관한 경제 혹은 구제에 필요한 공동의 시설을 함으로써 목적으로 함’(령 제47조 2항), 그리고 ‘어업조합은 어업을 할 수 없음’(령 제47조 3항)인데, 특히 조합의 목적은 1912년 어업령 제17조 규정(어업조합은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어업권의 대부를 받아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의 시설을 함으로써 목적으로 함)과 비교할 때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경제 혹은 구제에 필요한 공동의 시설’이 추가되었다.

일곱째,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어업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해 조합이 취득 또는 대부를 받은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어업을 할 권리를 가짐’(령 제48조)이라 하여 조합이 갖고 있는 어업권의 범위 안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여덟째, 어업조합연합회에 관한 것인데, ‘어업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어업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령 제49조)이 그것이다. 부·면 또는 부·면내 부락을 조합지구로 한 어업조합은 금융조합의 조합구역과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즉 농촌지역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했던 금융조합은 설립 초기 여러 개의 군을 조합 구역으로 하였다가 조합증설과 조합원 증가에 따라 구역이 축소되어 1군 1조합, 나아가 1군 수 개의 조합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어업조합은 면 또는 면 내 부락을 단위로 하여 근본적으로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규모성은 유력한 어업자의 장악력을 높여주게 될 개연성이 컸다. 이주어촌 거주 일본인들이 조선인 어민들을 장악하여 어업조합을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 것이다. 또 조합설립을 추진할 발기인 역시 조선인 어민들보다는 조선인·일본인 어업유력자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컸다. 어업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는 어업령과 어업조합 규칙이었다.

1911년 어업령 제정에 따라 어업조합규칙도 제정되었고, 1912년 어업령 시행일에 어업조합규칙도 시행되었다. 이후 1930년 어업령이 조선어업령으로 개편 시행되었을 때, 어업조합규칙도 조선어업조합규칙으로 변경, 시행되었다. 조합규칙도 철저히 어업령의 개편에 연동되었던 것이다. 어업령 시행은 곧 조선 어촌에서 저렴한 어업노동력의 확보와 일본인 이주 어민으로 하여금 특정 수면을 그들의 생산수단으로 확보토록 하는 식민지 어업정책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어업조합 설립 역시 일제의 식민지 어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2) 어업조합의 설립 경과와 의미

1912년 4월 어업령과 어업조합규칙이 시행되어 어업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초로 설립된 어업조합은 거제어업조합으로 1912년 11월 30일 ‘설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의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의문이 생긴다. 하나는 1912년 4월 어업령 시행 이전에 어업조합 설립 출원자가 있었으나 심사 결과 불비한 점이 있어 각하되었고, 그 후로는 출원자가 아예 없어 1913년 1월에 총독부 당국자가 울산에 어업조합 설립을 강구 중이라는 기사이다.

총독부 당국이 울산에 어업조합 설립을 꾀한 이유는 1년 전인 1912년에 울산군 연안 해조 채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분쟁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할 대책으로서 어업조합 설립을 ‘최량’의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13년 3월 1, 2 양일간 울산군 연해 각 동리 어업자 총회가 개최되어 5개 어업조합을 설립하였고, 3월 27일에 총독부 허가를 얻어 법인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거제어업조합이 설립은 빨랐지만, 곧바로 총독부 인가를 받지 못했고, 울산군내 5개 어업조합이 가장 먼저 총독부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어업조합규칙 제6조 ‘조합은 설립 허가를 때 성립함’이란 구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1912년에 1개였던 어업조합은, 1913년에 13개, 1914년에 22개가 신설되어 모두 36개가 되었다. 이후 5년간 연평균 6개 정도씩 추가 설립되어 1919년에는 72개에 이르렀고, 이후 10년간 연평균 9개씩 90개가 늘어 1929년 말에는 162개가 되었다. 조선어업령과 조선어업조합규칙이 시행된 1930년에는 전년에 비해 42개 늘어난 204개였고, 1931년에는 211개로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1942년 7월 기준으로 198개의 어업조합의 존재가 확인된다.

1930년 조선어업령과 조선어업조합규칙의 시행에 따라 어업조합의 상부기구로서 도단위 어업조합연합회(어련)가 조직되었다. 1930년 11월 29일 경북도 어련을 시작으로, 이어 전남,경남,강원도 어련이 1931년 1월 6일 설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40년 1월 충남

도 어련이 설립됨으로써 12개도 어련이 모두 설립되었다. 또 중앙기구로서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가 1937년 5월 29일 설립되었다. 이로써 어업조합은 도 단위 어업조합이 설립되어 도내 어업조합에 대해 감독과 통제를 하게 되었고, 중앙기구가 설치됨으로써 도 단위 어련을 통해 일선 어업조합에 대한 이중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어업조합도 일원적 통제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³²⁾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수산자원의 확보, 일본인 어민의 이주 장려와 보호, 조선 어촌과 어민의 통제를 위해 어업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1910년대 어업조합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은 ‘신중’하고 소극적이었다. 매년 4만 원씩 지원하여 ‘상당한 보조’를 했던 수산조합에 대한 방침과는 사뭇다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1910년대 어업조합 설립과 조합원 가입, 그리고 어업조합 활동 실적은 미미했다.

1920년대 들어 일제는 인식을 전환하고, 방침을 변경했다. 조선수산조합은 해체하여 조선수산회로 개편한 데 반해 어업조합에 대해서는 1922년부터 경비 보조를 시작했다. 설립비와 이사 급여, 그리고 공동시설비 보조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소규모 조합을 통합하여 규모 증대를 유도했다. 또 가입 조합원 수도 증가했다. 특히 수천 명의 조합원을 포용하는 해태어업조합의 설립은 조합원 가입률을 높이는 주요 계기였다. 조합원 가입률을 높이는 데 사용된 장치는 어업권 행사와 공동시설 사업이었다. 조합의 어업권 행사로 인해 조합원 아닌 어민은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조선 어민을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하는 유인책이 되었다. 어업권 취득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조선인 어민들은 어업조합의 독점적 어업권 취득이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또 어업자금 대출도 조선 어민을 유인하는 좋은 미끼였다. 고리대 대신 상대적으로 저리인 조합 자금 대출을 기대한 어민들은 어업조합 가입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조합 재정 구조 상 자금 대출은 여의치 않았고, 어민들은 대신 어획물의 공동판매만을 강요받았다. 이에 어민들의 불만은 팽배했다.

총독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으로 어업조합의 외형은 1920년대 들어 확대되었다. 그러나 어업조합의 재정상 어업조합 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총독부는 1929년 지정 어업조합제를 실시하여 이사를 임명하고, 1930년 새로 <조선어업령>과 <조선어업조합규칙> 등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또다시 어업조합에 대한 방침을 변경하여 어업조합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³³⁾

32) 최재성,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8호, 2012.12.

33) 최재성,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 『사람』 제47호, 2014.1.

3. 축산어업조합(丑山漁業組合)의 설립과 주요활동³⁴⁾

축산어업조합은 1911년 6월 3일 제정된 어업령 제16조(‘일정한 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조합을 설치할 수 있음’)를 근거로 1924년(大正 13년)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출장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명칭은 ‘축산어업조합’이며 사무소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으로 활동 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이다.³⁵⁾ 주요 사업으로는 어획된 수산물의 위탁 판매, 금융사업, 조난구조, 망양부 및 표식등 설치, 김 양식 등이다. 아래부터는 1934년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한 『경북의 수산』에 실린 축산어업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丑山漁業組合
 一、沿革
 大正十三年土地の有志相謀り組合設立上日夜盡瘁せし結果、同年十一月創立認可を受くるに至れり。組合事業たる漁獲物委託販賣は深甚の苦心を拂ひ來りしが、最近取扱高を激増し前途益々進展の域に達せり。金融事業に於ては従前の高利仕込みを排除し尙既往暴風害の復舊を遂成する等に協力し、組合員の經濟の助長と生活の安定を圖り漁村の維持上資する所多し。其の他網築場及標識點燈の設備、遭難救恤、品評會の開催及表彰事業等に力を注ぎ漁村の健實なる促進を圖りつゝあり。
 二、事業の概要
 1、委託販賣
 販路は主に山間奥地に在りて交通不便なるを仲買人の購買力少なく且つ數年來一般財界の不況に祟られ魚價低落し、漁村は疲弊の深刺を呈するに至れり。而して組合に於ては之等の事情に鑑み更に最善の努力を拂ひ尙仲買人に對する魚代金の運轉資金及製品委託物の前渡金を交付する等種々苦心を重ね來りし結果今や本事業大に進展し一年の取扱高は一躍八萬圓に急進し、著しく漁村經濟の更生を見るに至れり。
 2、金融事業
 當組合員は元來殆んど資財なく僅かなる漁利を以て生計を維持し來りし處、昭和五年の大風害にて其の唯一財産たる漁船を悉く破損せられ之が復舊の途なきを以て、組合に於て起債を爲し三年々賦償還にて一萬四千圓を貸付し速に復舊せしめしも、其の後財界不況の影響著しく一般組合員は窮境の極に達せしを以て、更に昭和八年度迄に起債金を以て一年定期償還にて二萬二千圓を貸付し營業者の經濟を大に緩和せり。
 3、遭難救恤
 組合員の遭難者に對し之が救済と慰安を圖り來りしが、昭和七年の暴風の際には幸に遭難事故少なく、組合員二人出漁中の遭難者を救助せし者に對し賞與金を交付せしが其の後は救済上殆んど特記すべき事項なし。
 4、網築釜の設置
 昭和三年度より實施し來れる處毎年度漁期に至りて之を利用する者多く一般營業者の便利とする處頗る多し。
 5、標識點燈
 丑山港は毎年度漁期には漁船の出入頻繁なるのみならず夜間沖合に活動するを以て之が目標を喪ふる爲、毎年五月より十一月迄本道東海岸に於て相當突出せる竹山の頂上に點燈台を建設し最近電燈裝置とせし結果、一般營業者の受くる便益多大なるものありべし。
 6、岩海苔増殖
 岩海苔増殖の爲昭和二年度より昭和六年度迄毎年繼續して沿岸岩石にセメント床張を實施せし處成績良好なるに鑑み、昭和八年度より更に繼續實施中にして現在施工面積一、三〇〇坪に達せり。

<그림-17> 축산어업조합 연혁, 『경북의 수산』,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 소화 9년

34)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 『경북의 수산』, 소화 9년, 158~164쪽.

35) 조선총독부 관보 대정(大正) 13년, 11월 18일.

① 以下組合事業の概要を表示すれば左の如し。

一、組合員数

種別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備 考
	現	前	比	現	前	比	現	前	比	
漁業専業者	233			256			280			他視方に移籍者及死亡者の爲減
兼業を有する者	10人			10人			10人			
計	243			266			290			

二、組合員の漁獲高

漁業種別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数量	価格	単価	数量	価格	単価	数量	価格	単価
鯨	620担	1,660円	2,677円	599担	1,520円	2,537円	541担	1,400円	2,587円
鯨刺	10,000樽	10,000円	1,000円	9,500樽	9,500円	1,000円	12,000樽	12,000円	1,000円
意刺	1,500尾	1,500円	1,000円	1,500尾	1,500円	1,000円	1,500尾	1,500円	1,000円
手網	2,122担	3,180円	1,498円	1,600担	2,400円	1,500円	1,600担	2,400円	1,500円
網	5,500担	5,500円	1,000円	6,000担	6,000円	1,000円	5,000担	5,000円	1,000円
底網	1,100担	10,000円	9,090円	1,000担	9,000円	9,000円	1,000担	9,000円	9,000円
計	—	—	—	—	—	—	—	—	—

三、委託販賣高

魚種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数量	価格	単価	数量	価格	単価	数量	価格	単価
いわし	10,000樽	11,000円	1,100円	9,500樽	10,500円	1,105円	8,000樽	8,800円	1,100円
にしん	1,200樽	2,400円	2,000円	1,200樽	2,400円	2,000円	1,200樽	2,400円	2,000円
あわ	2,000尾	1,400円	700円	2,000尾	1,400円	700円	2,000尾	1,400円	700円
かま	2,000尾	2,000円	1,000円	2,000尾	2,000円	1,000円	2,000尾	2,000円	1,000円
なまこ	—	—	—	—	—	—	—	—	—
あぶら	2,000担	2,000円	1,000円	2,000担	2,000円	1,000円	2,000担	2,000円	1,000円
計	—	—	—	—	—	—	—	—	—

四、漁業資金貸付状況

種別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貸付金額	返済金額	残高	貸付金額	返済金額	残高	貸付金額	返済金額	残高
擔保貸付金	3,000,000	3,000,000	0	1,000,000	1,000,000	0	3,000,000	3,000,000	0
保證貸付金	3,000,000	3,000,000	0	3,000,000	3,000,000	0	3,000,000	3,000,000	0
計	6,000,000	6,000,000	0	4,000,000	4,000,000	0	6,000,000	6,000,000	0

五、貸付金回収準備貯金

種別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口数	金額	備 考	口数	金額	備 考	口数	金額	備 考
天	3,000	4,000,000		3,000	4,000,000		3,000	4,000,000	
地	4,000	4,000,000		4,000	4,000,000		4,000	4,000,000	
計	7,000	8,000,000		7,000	8,000,000		7,000	8,000,000	

六、借入金状況

種別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借入金額	返済額	残高	借入金額	返済額	残高	借入金額	返済額	残高
漁業資金貸付金	10,000,000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0
委託販賣資金	1,000,000	1,000,000	0	1,000,000	1,000,000	0	1,000,000	1,000,000	0
計	11,000,000	11,000,000	0	11,000,000	11,000,000	0	11,000,000	11,000,000	0

七、貸借対照表

(昭和九年三月三十一日現在)

資 産	金 額		負 債	金 額	
	現 金	債 権		現 金	債 権
漁業	1,800,000	—	一 般 正 味 財 産	1,800,000	—
土 地	500,000	—	基 本 設 備 産 物 債 立 金	500,000	—
建 物	5,800,000	—	事 業 資 金 債 立 金	5,800,000	—
作 業 用 機 器	3,300,000	—	役 務 債 権 債 立 金	3,300,000	—
貸 付 金	10,000,000	—	役 務 債 権 債 立 金	10,000,000	—
委託販賣代金借渡及立替金	1,500,000	—	仲 介 買 入 保 証 金	1,500,000	—
現 金	3,380,000	—	借 入 保 証 金	3,380,000	—
計	20,780,000	—	本 年 度 剩 餘 金	1,000,000	—
			計	20,780,000	—

< 그림-18 > 축산어업조합 사업개요, 『경북의 수산』,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 소화 9년

1) 축산어업조합(丑山漁業組合)의 연혁

대정(大正) 13년, 토지의 유지들이 모여 조합설립을 꾀한 결과, 같은 해 11월에 창립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 사업인 어획물 위탁 판매는 심각한 고심을 수반했으나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에 도달하였습니다. 금융사업에 있어서는 이전의 고리대금을 배제하고, 과거의 재해 복구를 신속히 하는 등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어촌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물 염색장 및 표지등 설치, 조난구조, 품평회 개최 및 표창 사업 등에 힘을 기울여 어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축산어업조합(丑山漁業組合)의 사업개요

(1) 위탁판매

판매장은 주로 산간 깊은 곳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고 중매인의 구매력이 낮아 여러 해에 걸쳐 일반 재계의 불황으로 인해 어가격(魚價格)이 하락하며 어촌이 심각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중매인에게 어물 대금의 운전 자금 및 제품 위탁물의 선금 지급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고심을 거듭한 결과, 지금 본 사업은 크게 발전하여 연간 취급액이 일거에 8만 엔으로 급증하였으며, 현저하게 어촌 경제의 재생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2) 금융사업

당 조합원들은 본래 거의 자산이 없고, 겨우 어업에서의 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화 5년의 큰 풍해로 인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어선이 모두 파손되었고, 이를 복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채무를 발생시켜 3년 할부로 1만 4천 엔을 대출하여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융계의 불황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일반 조합원들이 극심한 궁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 8년까지 채무금으로 연간 정기 상환 방식으로 2만 2천 엔을 대출하여 업계의 경제를 크게 안정시켰습니다.

(3) 조난구조

조합원들의 조난자에 대한 구호와 위로를 도모해 왔습니다. 소화 7년의 폭풍 시에는 다행히 조난 사고가 적었고, 조합원 두 명이 출어 중 조난자를 구출한 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구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4) 망양부(網梁釜) 설치

소화 3년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는 매년 성어기 동안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일반 업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 표식점등, 표지등

축산 항구는 매년 성어기에는 어선의 출입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 먼 바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본도의 동해안에 상당히 돌출된 죽도산의 정상에 등대가 건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등 설치로 인해 일반 업자들이 얻는 혜택이 매우 클 것입니다.

(6) 암해태 증식

암해태 증식을 위해 소화 2년부터 소화 6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해안의 바위에 시멘트 바닥을 깔아 실시한 결과 성적이 좋았기에, 소화 8년부터는 더욱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1,3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축산어업조합의 현황

다음의 통계는 축산어업조합의 현황을 조합원수, 어획고, 위탁판매고, 어업자금 대부현황, 차입금, 대차대조표등을 1931년부터 1933년까지의 정량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합원 수(전업,겸업 포함)는 1931년 310명에서 1933년 292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타지방 이전 및 사망자 등 자연 감소 요인이라고 보아지며, 조합원의 어획고는 각 어업도구별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931년에 비해 1933년에는 청어를 주로 잡는 연자망(鰍刺網)어업이 614동에서 59,870동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현상 모든 어종의 어업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수확량 증가는 1931년에는 어획물의 총가격이 56,654엔에서 1933년에는 51,912엔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11> 조합원 수

종별	1931(소화6년)	1932년(소화7년)	1933년(소화8년)	적요
어업전업	202	195	190	타지방으로 이전 사망자 감소
겸업	108	104	102	
계	310	299	292	

<표-12> 조합원의 어획고

어업별	1931(소화6년)		1932년(소화7년)		1933년(소화8년)	
	수량	가격(엔)	수량	가격(엔)	수량	가격(엔)
연자망(동)	614	15,625	349	15,131	59,870	20,967
온자망(존)	10,408	10,865	7,930	7,241	140,880	11,378
정승(미)	17,374	1,500	67,540	7,160	32,960	5,833
채조(관)	2,112	2,429	1,988	2,226	6,906	5,389
수조망(관)	5,714	3,935	6,420	3,239	2,883	2,232
연락망(동)	1,201	20,999	174	6,271	7,249	2,090
저인망(관)			2,510	1,756	1,650	1,350
기타		1,301		854	12,959	2,622
계		56,654		43,878	285,354	51,912

위탁판매는 정어리의 위탁량이 약 4배, 청어의 위탁량은 약 10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위의 통계에서 본 어획량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축산항의 주용한 생산물은 정어리와 청어임을 알 수 있다.

<표-13> 위탁판매고

어종별	1931(소화6년)		1932년(소화7년)		1933년(소화8년)	
	수량	가격(엔)	수량	가격(엔)	수량	가격(엔)
정어리(존)	10,616	11,085	7,558	7,353	380,848	30,707
청어(동)	1,710	34,379	529	21,705	71,604	27,695
대구(미)	16,586	1,426	58,545	6,225	28,575	5,285
미역(관)	2,603	2,987	2,438	1,878	6,938	4,842
다치					12,758	3,134
가자미(관)	2,463	2,124	4,420	2,885	3,039	2,776
아부라매(관)	1,769	1,564	2,277	2,389	1,632	1,845
기타		4,492		2,552	5,563	2,276
계		58,057		44,987	510,957	78,560

<표-14> 어업자금 대부 현황

종별	1931(소화6년)				1932년(소화7년)				1933년(소화8년)			
	대부고		연도말현재		대부고		연도말현재		대부고		연도말현재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담보 대부금	31	6,601	26	7,386	10	1,695	27	7,049	12	2,589	28	6,633
보증 대부금	72	6,312	107	12,342	43	3,863	95	7,664	30	1,974	61	4,005
계	103	12,913	133	19,628	53	5,558	122	14,713	42	4,563	89	10,638

<표-15> 대부금 회수 준비저금

구분	1931(소화6년)		1932년(소화7년)		1933년(소화8년)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56	736	49	451	31
본금액은 위탁판매대금중 각자명의의 저금을 공제하여 회수충당						

<표-16> 차입금 상황

종별	1931(소화6년)				1932년(소화7년)				1933년(소화8년)			
	대부고		연도말현재		대부고		연도말현재		대부고		연도말현재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구수	금액
담보 대부금	4	20,000	2	19,597	3	16,500	3	16,929	1	10,000	1	10,000
보증 대부금	1	5,000	1	2,500	-	-	1	2,500	1	2,500	1	2,500
계	5	25,000	3	22,097	3	16,500	4	19,429	2	12,500	2	12,500

축산어업조합의 총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금 현황은 아래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자산 내역중 어업권이 18,500엔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부금, 건물, 예금 등이 순으로 나타난다. 부채와 자본 현황으로는 정미재산, 적립금, 잉여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차입금과 보증금은 13,825여엔으로 전체 4만여엔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건전한 재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당시(昭和 9

년, 10월 1일) 축산어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에는 강병조(姜秉朝), 이사 이용규(李容奎), 서기 강호륜(鄭壕淪), 고원 장성열(張星烈), 송충석(宋忠錫)이었다. 36)

<표-17> 대차대조표(소화 9년 3월 31일 현재)

자산	금액	부채	금액
어업권	18,500.00	일반정미(正味)재산	24,520.00
토지	300.00	기본재산적립금	851.73
건물	5,500.00	사업자금적립금	352.85
집구	220.00	구출자금적립금	119.71
대부금	10,638.53	역직원신원보증금	632.69
위탁판매대금전도및 입체금	1,546.55	중매인보증금	693.18
예금	3,318.71	차입금	12,500.00
현금	706.10	본년도잉여금	1,059.73
계	40,729.89	-	40,729.89

36)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 『경북의 수산』, 소화 9년, 214~215쪽.

다음은 1937년 경상북도에서 발행한 『경북의 상공수산』에 나타난 경상북도 지역 13개 어업조합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축산어업조합의 조합원, 어선, 어획고 등을 통해 그 규모와 경상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어업조합은 1914년 울릉도 어업조합을 필두로 1927년 영덕 어업조합을 마지막으로 13개의 어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축산어업조합은 여덟 번째로 설립되었다. 조합원 수는 291명으로 영일, 울릉도, 강구, 구룡포등의 순으로 12번째로 그 숫자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른 숫자도 제일 적음을 알 수 있을뿐더러 총 어획고에서도 10번째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축산어업조합은 경상북도 전체의 어업조합중에서 그 규모는 영일, 감포, 구룡포 등에 비해 하위권에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인 강구에 비해서도 규모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37)

<표-18> 경상북도 어업조합 조사(소화10년도)

조합명	설립일	조합원수	어선수	총어획고(円)	위탁판매고(円)	적립금(円)	사업계획(円)	어업자금대부(円)	공동구입(円)
울릉도	1914.02.23	630	243	282,370	256,700	14,769	94,206	29,604	23,331
영일	1914.12.08	820	1,020	1,814,865	738,340	160,636	322,703	116,114	
감포	1922.11.09	307	408	1,134,844	536,841	79,839	182,944	86,251	
구룡포	1922.11.09	599	396	527,620	169,581	7,009	183,075	73,045	
영해	1923.30.06	422	75	111,423	58,737	4,376	46,638	5,040	
강구	1923.11.29	600	194	232,002	193,252	16,171	199,991	55,013	1,423
청하	1923.12.20	307	139	120,365	51,786	5,154	85,282	25,983	1,126
축산	1924.11.21	291	72	94,054	89,576	4,198	56,612	10,170	
송라	1925.02.20	249	83	43,280	35,968	1,902	38,811	11,844	2,422
장자	1925.02.20	398	240	217,467	144,909	30,914	299,223	17,028	
양남	1925.02.20	193	99	84,140	36,790	3,819	32,124	5,039	
곡강	1926.03.12	298	171	141,704	22,156	293	38,969	6,961	
영덕	1927.11.11	436	123	63,790	22,674	3,243	18,131	12,674	3,000
계		5,550	3,263	4,867,924	2,357,310	332,323	1,598,709	454,766	31,302

37) 경상북도, 『경북의 상공수산』, 소화12년, 115~116쪽.

4) 축산어업조합 임원 현황

1930년에서 1944년까지의 축산어업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당시 영덕군 축산면에서 활동한 인물들과 어업조합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업조합과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이 어떠한지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1930년 김정한(金禎漢,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55번지), 1934년 강병조(姜秉朝), 1937년 김정한(金禎漢), 1941년 요시자와 도요오(芳澤豊男,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55번지)가 취임하였고 1944년에는 요시자와 도요오(芳澤豊男)가 중임하였다.

이사는 윤영상(尹永祥,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마쓰나가 긴주(松永銀重),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政行,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아오키 사다모토(青木延元,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이었으며, 감사는 한영각(韓永珏,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31번지), 김정겸(金井謙,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43번지), 박희상(朴禧相,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11번지), 김봉주(金奉珠), 송국필(宋國弼,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23번지), 니시하라 에이카쿠(西原永珏,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31번지), 다마가와 슌센(玉川俊先,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47번지), 이와모토 고큐(岩本固久,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352번지), 신모토 카게마사(新本景昌,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673번지), 금강차학(金岡次學,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29번지), 노무라 요시코(野村芳子,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33번지) 등이 활동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사 중에는 윤영상(尹永祥)을 제외하면 전원 일본인이며, 감사 또한 대부분이 일본인인데 이는 어업조합의 실제 권력이나 주도권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정동 주민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윤영상(尹永祥)은 1928년 1월 3일자 조선신문(朝鮮新聞)에 근하신년(謹賀新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아 이미 1928년에도 축산어업조합 이사를 역임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30년에는 어업조합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조합 일은 보지 않고 자기일만 보고 다니는 것, 어업자들에게 불친절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³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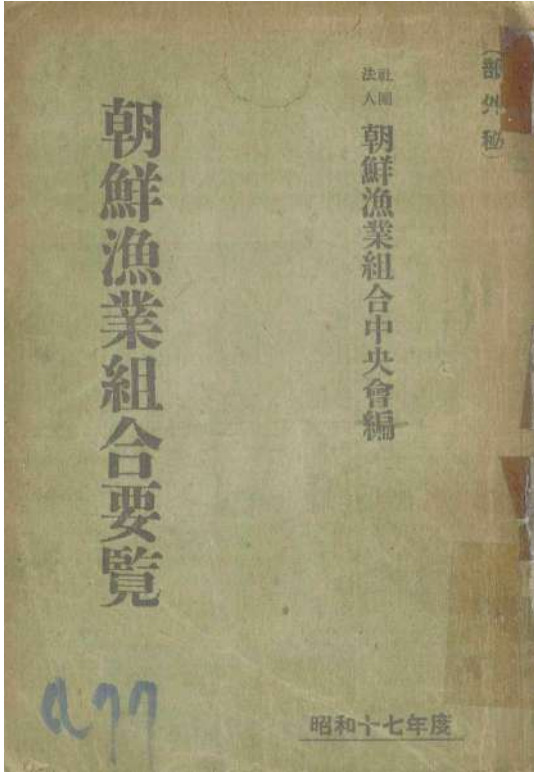
38) 「축산어업조합 이사 윤씨 권고사직」, 『中外日報』, 1930.8.29., 4면.

<표-19>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타난 축산어업조합 임원 및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허가청
1924.11.18 大正13년	어업조합 설립 -명칭 : 축산어업조합, -구역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허가년월일 : 대정13년 11월 21일(1924.11.21)	대구 지방법원 영덕 출장소
1930.11.26 昭和 5년	어업조합설립 -명칭: 축산어업조합 -주 사무소: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매립지 -목적 : 조합원 어업, 조합원 어업권 취득, 경제난 구제, 필요 공동시설 -지구 및 조합원자격 :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경정동 등 소재구내 일부 어업자를 조합원으로 -설립인가 연월일 : 대정13년 11월21일 -조합장 : 김정한(金貞漢)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55번지 -이 사 : 윤영상(尹永祥)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감 사 : 한영각(韓永珪)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31번지 김정겸(金井謙)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43번지 박희상(朴禧相)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11번지 -위 소화5년 10월 20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 출장소
1930.12.24 昭和 5년	-축산어업조합 경정 소화5년 10월 20일 신청착오로 인하여 등기 사항중 조합원 자격을 좌와 같이 경정한다.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및 경정동 전부의 어업자를 조합원으로. -소화5년 11월 22일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 출장소
1937.11.10 昭和12년	-축산어업조합 변경 이사 마쓰나가 긴주(松永銀重), 소화12년 9월 25일 사임.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취임 -강구어업조합 변경 이사 황영수(黃英秀), 소화12년 9월25일 사임, 마쓰나가 긴주(松永銀重)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3 45번지 취임	대구 지방법원 영덕 출장소
1937.11.29 昭和12년	-축산어업조합장 강병조(姜秉朝) 임기만료, 소화12년 9월 15일 총대회(總代會)에서 김정한(金貞漢,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55번지) 취임 -소화12년 11월 6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38.12.2	-축산어업조합변경	대구

昭和13년	감사 한영각(韓永珪), 박희상(朴禧相), 김봉주(金奉珠) 임기만료 소화13년 9월 26일 총대회에서 한영각(韓永珪), 김봉주(金奉珠) 재선중임 송국필(宋國弼, 영덕군 축산면 경정동 323번지) 감사 선임 -소화13년 11월 26일 등기	지방법원 영덕지청
1939.5.24 昭和14년	-축산어업조합변경, 이사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 소화14년 3월 20일 사직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政行,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이사취임 소화14년 4월 1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1.6.10 昭和16년	-축산어업조합 변경, 조합장 김정한, 감사 한영각(韓永珪), 김봉주(金奉珠), 송국필(宋國弼) 임기만료, 조합장 요시자와 도요오(芳澤豊男,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55번지) 감사 니시하라 에이카쿠(西原永珪, 동소 131번지), 다마가와 쉰센(玉川俊先, 동면 경정동 347번지), 이와모토 고큐(岩本固久, 동소 352번지), 소화16년 4월 4일 취임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2.1.12 昭和17년	-축산어업조합변경 감사 니시하라 에이카쿠(西原永珪), 소화16년 12월 1일 사임 -소화16년 12월 4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2.2.19 昭和17년	-축산어업조합 변경 이사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政行) 사임, 소화16년 12월 11일 이사 아오키 사다모토(青木廷元,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12번지) 취임 -소화16년 12월 27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2.6.27 昭和17년	-축산어업조합 변경 감사 신모토 카게마사(新本景昌,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673번지) 취임 -소화17년 4월 27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3.7.3 昭和18년	-축산어업조합 변경 소화18년 4월 20일, 감사 다마가와 쉰센(玉川俊先) 중임, 이와모토 고큐(岩本固久), 신모토 카게마사(新本景昌) 퇴임 감사 금강차학(金岡次學,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29번지), 노무라 요시코(野村芳子, 동소 233번지) 취임 -소화18년 4월 28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4.2.7 昭和19년	-축산어업조합 이전 소화18년 12월 8일, 주사무소: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97번지로 이전 -소화18년 12월 10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1944.6.16 昭和19년	-축산어업조합 변경 조합장 요시자와 도요오(芳澤豊男), 소화19년 4월 22일 중임 -소화19년 4월 27일 등기	대구 지방법원 영덕지청

5)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와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水産振興共進會)



<그림-19> 조선어업조합요람, 소화17년

(1)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39)

-위치 : 경상북도 영일군 포항읍 천구정
(慶尙北道 迎日郡 浦項邑 川口町)

① 연혁 및 지역 개요

본도의 해안선은 길이가 50여 리에 이르며, 중앙부에서 서남쪽으로 깊게 만이 들어와 영일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뒤편에는 태백산맥이 있고, 거기서 갈라지는 여러 개의 지맥이 산을 형성하며, 바다에 가까워져 암초를 만들어 낸다. 또한 계곡이 해안에 열려 있으며, 영덕군의 강구항, 영일군의 포항항·구룡포항·대포항, 경주군의 감포항은 자연 항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모두 어항으로 적합하다. 이 외에도 영덕군의 대진항, 영일군의 월포항 및 칠포항, 양포항은 어선의 정박에 적합하지만, 아직 항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현재 항구건설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한편으로, 소화(昭和) 18년에는 개통이 예정된 동해본선(東海本線)과 함께 이들 항만시설도 완공되어 그 이용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 혜택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릉도는 본토에서 71해리 떨어진 바다 위에 우뚝 서 있으며, 둘레는 29리로, 본도 유일의 속(屬)섬으로서 3면에 9개 어촌을 품고 있다. 내도동은 작은 만을 품고 있어 선박의 정박에 적합하며, 섬 내 유일한 물자의 출입 항구이기도 하다.

본도 해안은 차가운 물줄기와 따뜻한 물줄기가 교차하고 있어 다양한 어종이 회유하며 분포하고 있으며, 그 서식 환경은 매우 풍부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어획량은 해안 1리에 25만 원에 달하며, 전 조선에서 가장 많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 어장을 개발하고 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정(大正) 3년에 울릉도 어업조합이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13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39)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 『朝鮮漁業組合要覽』, 소화17년, 133~137쪽.

소화(昭和) 5년에는 조선어업령이 개정되어 어업조합 상호간 연락을 긴밀히 하고 공동의 사업 등을 촉진 달성하기 위해 경북어업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기획되었다. 소화(昭和) 5년 11월 19일 인가를 받고 동년 12월 1일 대구상공장려관 1층을 빌려 일반사무를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화(昭和) 7년도에는 경상북도 온유비제조업수산조합 사업과 약유비 위탁판매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이후 본부의 판매통제 방침에 의거 업무를 집행한 이래 소화(昭和) 8년 그 수산조합이 해산되고 본 회에 그 업무 일절을 계승하여 금일에 이르렀다. 어업조합의 소재지는 영일군 포항읍 천구정에 사무소 신축을 계획하여 소화(昭和) 11년 3월 31일 공사공비 13,595원을 투입하여 서양식 건평 120평 68작(勺)의 건축을 기공하여 동년 11월 25일 준공하였다. 다음해 소화(昭和) 12년 1월 18일 사무소를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전하여 금일에 이르렀다.

② 소속 조합의 지역 및 개요

대정(大正) 3년 2월 울릉동어업조합이 설립되고 다음으로 동년 12월 영일어업조합의 설립을 보았다. 그후 대정(大正) 11년 당국의 국고보조가 시작되어 어업조합의 설립이 장려된 결과 현재 전 연안의 13개 조합이 설립되었다. 각 조합은 어획물 위탁 판매를 중심 사업으로 어업자금 대부, 당업자간 금융 편리를 도모하고 또한 각종 공동시설 사업과 어촌 개선 발전과 촉진 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조합의 소재지는 해륙 공히 교통이 편리하고 1~2개 조합을 제외하고는 정기선과 차편이 왕래한다.

③ 어업상황

본도 해안 전역에 걸쳐 해조류가 풍부하게 자생하고 있다. 어종의 산란기와 관련하여 많은 생선이 회유하는 가운데, 특히 전 조선에서 유명한 영일만을 중심으로 본도 해안에 정박장(망어장)이 100여 개가 형성되었다. 이곳의 어획량은 절정에 달하여 동해안 어민들은 이른바 '연어 경기'에 도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화(昭和) 5년 이후 점차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어, 업자들은 파산의 비운에 울며 어촌은 힘들고 지쳐 있다. 어민 생활의 안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구제 대책으로 멸치 어업의 특질인 '큰 돈을 얻는 환상'이 상실되었고, 건강한 연안어업을 영위할 길이 없어, 전적으로 당국의 지도에 의지하여 어업조합의 활동을 연안어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어촌진흥 운동의 발흥에 힘입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다. 본도 내의 주요 어업은 정어리이며, 도내 각 어촌은 이제는 근시일내에 복구된 정어리와 고등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을 잡고 있다.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 대모망(大謀網), 연락망(鍊落網), 기선저예망(機船底曳網) 어업 등 자본 어업 외에도 멸치, 정어리, 참치 등 각종의 유자망(流刺網), 청어, 갈치 등 연승어업(延繩漁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연중 정기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소

화(昭和) 14년에는 어획량이 실로 1천 2백만 원을 넘었다.

④ 도내 수산 제조품

도내 수산업에서 본도 내 수산물 중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약유비(鰯油肥)이다. 그 외에도 연이어 잡히는 것들은 멸치, 해조류(石花菜, 銀杏草, 櫻草), 조리 및 소금에 절인 정어리, 고등어, 갈치 등 다양한 포장류와 어묵, 튀김, 찌개류 등이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이 중 정어리 기름, 해조류, 조리 및 소금에 절인 정어리가 본회의 통제에 따라 위탁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북 신결연(身缺鍊)제조업 조합에 의해 통제 판매되고 있다.

⑤ 위탁판매

본회의 위탁판매 사업이 소속 조합의 위탁판매 사업을 촉진하고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창립 초기부터 본도의 중요한 어획물인 멸치 및 소금에 절인 생선 등의 위탁판매를 해오고 있으며, 매년 50만 원 내외의 판매 성과를 보이며 경북 수산 주식회사가 그 경영을 대행하였다. 그러나 그 회사가 해산됨과 동시에 해당 판매는 소속 영일 어업조합에 환원되고 있다. 또한 소속 조합의 해삼, 넙치, 기타 활어의 판매를 통제하며, 운반선에 지정하고 어가의 안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화(昭和) 7년도에는 경상북도 약유비(鰯油肥)제조업 수산조합의 취급을 맡아 위탁 판매 업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를 모두 이어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최근 본도 근해에서 정어리 대어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전적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소화(昭和) 13년부터 본도 연안의 석화채(石花菜), 은행초(銀杏草), 앵초(櫻草) 등 기타 해조류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소화(昭和) 14년부터는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자(煎子)의 통제 판매를 하여 본회의 사명 달성에 계속 힘쓰고 있다.

⑥ 금융사업

금융사업으로서는 소화(昭和) 5년 본회 설립 당시 식산은행에서 저리 자금 30만 원을 차입하여 이를 소속 13개 조합의 어업자금 대출에 활용하였다. 그 이후로 본 사업을 계속하며 어업 금융의 전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⑦ 공동구매사업

공동 구매 사업으로는 기존 어업용품의 공동 구매가 주로 대량 구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어업조합에서의 현금 거래 제도에서는 본 사업의 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거의 중개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 공동 구매는 극히 적은 양에 그쳤다. 중국 사변 발생 이후에도 국내의 여러 물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어업용품 또한 통제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 경제의 건전한 운영은

어업용 물자의 조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회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공동 구매 사업을 계획하였다. 소화(昭和) 14년부터 본회 사업 기관의 확장과 체계의 보강을 위해 본도 수산업자의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급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⑧ 공동시설

주요 공동 시설로는 제빙 시설이 있다. 도내 생산된 신선한 어획물은 최근 교통 및 운송의 개발과 함께 판매 경로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부산 내륙은 원래 북서 연해와 만주 방면으로 개척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용 얼음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소화(昭和) 14년 이후 현재의 제빙 능력으로는 하루에 10톤의 얼음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상적인 10톤 제빙 설비의 증설을 위해 본 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전기동력으로 현재의 설비를 전환하고 있으며, 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본회의 운반 시설은 어업용 물자의 신속한 운반 및 배급을 목적으로 하며, 소화(昭和) 15년도에 통제중에있는 약유비(鰯油肥)를 화물 자동차 2톤으로 운반 및 판매하고, 해조류 및 조리를 위해 두 대를 구입하여 그 수요 및 배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속 조합 및 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각 조합의 개황을 정리하여 설립 순서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표-21> 어업조합 개황 목록 (소화 8년도 조사)

조합명	설립일	조합원	조합원 어획고(엔)	위탁 판매액	각종 적립금	소화9년 사업금액	주요 공동 시설 사업 종류
울릉도	19140223	726	101,346	89,160	14,850	102,904	어획물위탁판매,금융사업,소형동력부어선건조장려,청연승어업장려,청절제조장려,출어자공동숙소설치,제품보관창고 및 선거장설치,암해태증식,등대설비
영일	19141208	783	1,210,469	805,590	161,455	348,743	위탁판매및사업,선박운영,어구배치지도, 각종해양활동지원 및 장려,어업 관련 교육,해양 안전 및 재난 구호 조치,해양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지도
감포	192211.09	248	1,141,900	517,860	61,901	156,293	위탁판매,금융사업,공동구입,조난구조,감포항수축조성,폭풍경호신호,암해태증식,출하장려,연안어업장려,어부림조성,어업장려,어가갱생지도

40)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 『경북의 수산』, 소화9년, 82~85

구룡포	1922.11.09	627	703,440	171,506	3,821	157,729	위탁판매,금융사업,조난구조,망양부및망간장설치,공동창고및저수고설비,폭풍경호,출하장려,어부림조성,구룡포항수축조성,어선대부
영해	1923.30.06	433	105,211	62,109	3,588	33,108	위탁판매,금융사업,약포(미역)제품검사,선착장설비,암해태증식,선양장 및 창고설비,조난구조
강구	1923.11.29	549	177,687	242,343	14,141	182,001	위탁판매,금융사업,어선대부 및 건조보조,조난구조,어구공동구입,모범어촌지도,연안어업장려,부업장려,복어인공부화
청하	1923.12.20	280	145,288	56,201	6,087	94,246	위탁판매,금융사업,공동구입,선류장축설,암해태증식,경호신호,선로표식,공동망양부설비,전화가설,청어,갈치어업장려,수산가공장려
축산	1924.11.21	292	51,912	78,560	1,324	39,210	위탁판매,금융사업,조난구조,망양부설치,표식점등,암해태증식
송라	1925.02.20	277	65,975	52,266	1,783	55,223	위탁판매,금융사업,조난구조,암해태증식,선양장점등,연안어업장려,패류양식
장차	1925.02.20	376	167,310	124,842	22,386	50,699	위탁판매,금융사업,어선대부,어부림조성,폭풍경보,조난구조,암해태증식,선괘장설비,부업장려
양남	1925.02.20	212	57,367	4,235	3,375	14,181	위탁판매,금융사업,조난구조,모범지정부락지도,선양장축조,암해태증식,연안어업장려,어부림조성
곡강	1926.03.12	228	50,409	8,986	5,556	23,669	위탁판매,금융사업,연안어업장려,암해태증식,선로표식,조난구조,부업장려
영덕	1927.11.11	398	81,739	44,270	1,967	3,292	위탁판매,금융사업,암해태증식,어부림조성,선양장축조,조난구조
계	13개조합	5,429	4,060,109	2,257,928	302,334	1,279,298	

(2)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⁴¹⁾

1935년 10월 11일에서 20일까지 10일간 경상북도의 어업발달과 그 어획물에 대한 제조가공업의 개선 발달을 촉진하고, 수산업 진흥과 어촌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항에서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이하 공진회)가 개최된다. 10일간 열린 이 공진회는 출품인원 1,884명(3,046점), 관람 인원 59,642명으로 포항 전역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진회는 포항이라는 변방의 바닷가에서 수산이라는 단위 산업의 특화 박람회로 개최되었으며 ‘중앙·종합’ 박람회와 차별되는 ‘지역·특화’ 박람회라는 특질을 갖는 것이다. 수산 특화 박람회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조선수산공진회의 출품점수(9,411점), 관람자수(283,514명), 수상자수(3,524명)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의 행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단위 최초의 수산물 개설편 박람회인 조선물산공진회 수상부의 출품인수(1,444명), 출품점수(1,849점), 수상자수(699명)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황을 이루었다. 조선 유수의 항구도시 부산도 아니고 전국적 규모의 박람회도 아닌 변방의 수산 특화 박람회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대 지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리라 짐작된다. 공진회의 개최식은 협의회와 협찬회의 공동 준비로 1935년 10월 11일 오전10시부터 장내 특설 식당에서 거행되었다. 관람 시간은 주간이 오전 9시~오후 4시, 야간이 오후 5시~10까지였고, 야간개장은 10월 13일·15일·17일의 3일간이었다. 입장자에 대해서는 장내 정리를 위해 입장권을 교부하였다. 수수료로 대인10전·소인5전(단체 1인 5전, 교원 인솔 하의 초등학교생 무료)을 징수했다. 장내 정리 및 관리는 주로 협찬회가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협찬회의 수입으로 책정하였다.

1933년을 기점으로 대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일제는 수산 분야에서도 ‘어촌진흥회’ 등의 조직과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지역별·단체별로 산업 진흥을 내세운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 공진회 개최식 축사에서 조선수산신문사는 진흥 운동의 목적이 어촌 경제의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불황인 때에 공진회를 계획하고 훌륭하게 성공을 거둔 것은 지역 진흥 운동의 열성에 따른 결과”라고 하여 공진회가 어디까지나 진흥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정리하였다. 1934년 11월 1일에 확정된 「공진회 취지서」에는 경상북도에서 공진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경상북도 어촌진흥을 위한 토대구축 방안으로, 어업의 발달 → 어획물의 증가 → 제조가공업의 개선 발달이라는 순환 효과를 높이하고자 기획된 행사임을 천명하였다. 한류 난류가 교차하는 천혜의 어장 조건, 높은 어획고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수산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수준에 머무는 가공업 분야, 대공황 이후 보다 심해진 어촌의 궁핍화 탈피를 위해 공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1) 이기복,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1935년)와 경북 수산업의 동향」, 『역사와 경계』 73호.

또 공진회 회칙 제2조에서는 공진회를 통해 “각종 수산품을 진열 전시하여 수산업의 개량 발달을 꾀하고 어촌의 진흥에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35년 공진회가 그 최대 목표를 수산 제조품의 개발과 확산에 두었음은 전시체제의 부응으로도 볼 수 있다. 경북도지사 오카자키 데쓰로(岡崎哲郎)가 공진회 개최식에서 “만주국의 용창과 무역의 호전은 수산물 수출의 격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나 1930년대 군수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은 침체기에 빠진 수산 제조업계를 쇄신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그 실현을 위해 박람회와 선전·교육적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1935~1936년 경상북도에서도 군수공업의 발흥에 따른 유비사업(油肥事業)으로 약비유(鰵油肥)의 생산량이 격증하였다.



<그림-20> 경상북도수산공진회 장면,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



<그림-21> 경상북도수산공진회 장면,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

① 공진회의 임원현황과 축산어업조합

공진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수산회,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同소속어업조합, 조선수산회의 4개 단체 공동주최로 하고 준비 사무는 주로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고, 그 외의 단체는 사무 보조와 출품 권유 및 수집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가 실질적인 준비와 개최의 주최로서 역할을 했다. 공진회는 도지사를 총재로, 도 산업부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고문 이하의 임직원은 회장이 촉탁하였다. 공진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았다.

<표-22>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 임원현황

직책	임명	인원수	이름	관련 단체
총재	경상북도지사겸임	1	岡崎哲郎	경상북도
회장	경상북도산업부장겸임	1	金時權	경상북도
부회장	회장 임명	3	難波照治	영일군수
			中谷竹三郎	경상북도 수산회장
			吉田雅一	조선수산회 부회장
고문		3	宮中嘉一	경주군청
			權寧世	영덕군청
			余座豊次郎	울릉도청
참여		10	下村重英	영일군 포항읍
			崔潤	경주군
			金性權	경주군
			日浦廣治	경주군
	金斗河		영일군	
	李源璣		영일군	
	文明琦		영덕군	
	權泰鎬		영덕군	
	崔冽		울릉도	
稻井秀左衛門	조선수산회			
총무장		1	金秉旭	경상북도청
총무	3	加藤淺五郎	경상북도 기사	
		龍野文一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	
		瀨戶甲一	영일어업조합	
상무 위원	50	石橋八百平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佐佐木知一	경상북도수산회	
		太田金吉	영덕군청	

위원		福泉敏顯	영덕군청
		有馬純夫	영덕군청
		姜秉朝	축산어업조합
		李容奎	축산어업조합
		경상북도(7인), 경상북도수산시험장(4인), 경주군청(3인), 영일군청(4인), 영덕군청(3인), 울릉도청(3인), 13개어업조합별1~2인	
	207	武田安秋	축산어업조합
		金井謙	축산어업조합
		金亨鎭	축산어업조합
		金在根	축산어업조합
		姜塊東	축산어업조합
		朴植相	축산어업조합
		金海東	축산어업조합
		金萬石	축산어업조합
		李文碩	축산어업조합
		宋國弼	축산어업조합
金奉洙		축산어업조합	
朴禧相		축산어업조합	
韓永珏		축산어업조합	
李炳喆	축산면		
경상북도수산회(4인), 연합회(1인), 어업조합관계자			
사무원	60	鄭壕淪	축산어업조합
		張星列	축산어업조합
		宋忠錫	축산어업조합
	경상북도수산회(2인), 연합회(4인), 어업조합관계자		
찬조원	71	園田福松	축산
		三好左太郎	축산
		裴尙奉	축산
		경상북도 어업조합 관계자	

부회장은 공진회 개최지인 영일군의 군수(難波照治), 경상북도수산회장(申谷竹三郎), 조선수산회 부회장(吉田雅一)이 맡았고, 고문은 이상에서 빠진 경주군·영덕군·울릉도에서 맡았다. 경상북도수산회 부회장인 십하미삼랑(十河彌三郎)은 구룡포어업조합장 자격으로 상무위원에, 문명기(文明琦)는 참여에 배속되었다.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龍野文一)은 총무를 맡았다. 참여, 총무장, 총무, 상무위원, 위원, 사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동주최 4개 단체가 골고루 안배되었다.⁴²⁾

영덕군에 속한 어업조합들도 물론 공진회에 참여했는데 그중 임원 명단중 참여에 문명기(文明琦)와 권태호(權泰鎬)가 소속되었다. 상무위원 50명중 축산어업조합 관계자들은 강병조(姜秉朝), 이용규(李容奎) 2명이, 위원 207명중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김정겸(金井謙), 김형진(金亨鎭), 김재근(金在根), 강괴동(姜塊東), 박식상(朴植相), 김해동(金海東), 김만석(金萬石), 이문석(李文碩), 송국필(宋國弼), 김봉수(金奉洙), 박희상(朴禧相), 한영각(韓永珪), 축산면장 이병철(李炳喆) 등 14명이, 사무원 60명 가운데는 정호륜(鄭壕淪), 장성렬(張星列), 송충석(宋忠錫) 3명이 배속되었다. 그리고 찬조원 71명중 축산관계자는 소노다 후쿠마츠(園田福松),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 배상봉(裴尙奉) 3명으로 축산어업조합 소속 임원은 총 22명이 주요 직책을 맡아서 활동했다. 한편 공진회 사무분담은 문서계, 서무계, 출품계, 설비계, 회계계, 선전계, 접수계로 구분하였으며 서무계에 축산어업조합 이사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이 회계계에 축산어업조합 이사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政行)가 업무를 맡았다.⁴³⁾

또한 위의 표는 1935년 당시 경상북도 어업과 수산업자들의 면면과 이들의 지위와 권력 관계 등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그 당시 축산어업조합의 주요 인사들의 명당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② 공진회의 예산과 축산어업조합

공진회에서 결정된 기초 안에 따라 공진회 예산의 편성 및 주최자 분담금의 지출 방법도 결정되었다. 예산은 당초에 12,300원으로 9,000원은 주최자가 분담하고 3,300원은 후원자가 보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수산회가 주최자 분담금으로 예산 몫을 변경했고, 총독부와 경상북도는 제반 사정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되자 공동시설의 설비를 담당하기로 하여 수입 예산안이 11,650원으로 축소되었다. 주최자 측의 분담금 지출 방법은 연합회 경비의 소요 시기와 각 부담자의 경비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로 결정되었다. 각 어업조합의 분담금액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각 조합의 규모를 고려하여 2,000엔에

42) 이기복,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1935년)와 경북 수산업의 동향」, 『역사와 경계』 73호.

43)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 소화11년, 35~48쪽.

서 25엔으로 결정되었는데 주최측이라 할 수 있는 영일어업조합의 분담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적은 분담금은 곡강·양남어업조합으로 25엔을 납입 했음을 알 수 있다. 축산어업조합은 경상북도 13개 어업조합중 7번째로 중간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으며 130엔을 분담했다.

<표-23> 주최자측 분담금액 및 납입기한

주최자	분담금(엔)	납입일정	
		1935.5.30.~마감일까지	1935.8.30까지
조선수산회	1,000	500	500
경상북도 수산회	2,000	1,000	1,000
경상북도 어업조합연합회	2,000	1,000	1,000
영일어업조합	2,000	1,000	1,000
감포어업조합	800	400	400
장기어업조합	550	275	275
구룡포어업조합	500	250	250
강구어업조합	500	250	250
청하어업조합	150	75	75
축산어업조합	130	65	65
송라어업조합	100	50	50
영해어업조합	100	50	50
영덕어업조합	70	35	35
울릉도어업조합	50	25	25
곡강어업조합	25	25	
양남어업조합	25	25	
계	10,000	5,025	4,975

위 표를 통해 수입 예산의 대부분이 주최측 분담으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경상북도 13개 어업조합과 수산단체의 당시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어업조합 가운데 가장 많은 경비를 분담 한 영일어업조합의 경우, 개최지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경북 도내 어업조합 가운데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에 있어서도 다른 조합에 비해 월등하였다.

③ 공진회 심사와 포상, 그리고 축산어업조합

참고품과 즉매품을 제외한 출품물은 그 산지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엄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장 이하 심사위원을 촉탁하고 심사규정도 제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은 조선총독부 기사 가등정(加藤鼎), 심사부장은 경상북도 산업기사 가등천오량(加藤淺五郎)이 맡았다. 심사위원 31인에는 조선총독부 기사, 부산세관 기사, 경상북도

수산시험장 기수, 각 군 산업기수, 어업조합 직원 등이 배치되었다. 가등천오랑(加藤倭五郎)부장은 공진회 총무였고, 그 외에 공진회 상무위원도 일부 포함되었다. 축산어업조합의 심사위원으로는 송충석(宋忠錫)이 참여했다.

심사는 주로 육안과 촉각에 의해 진행하되, 종류에 따라 학술적 심사를 병행하였다. 심사위원장이 개최날인 10월 11일에 회장을 방문하여 출품물을 일람하였으며, 오후 1시부터 심사부장 이하 심사위원을 경상북도수산회 회의실로 소집하여 심사 방침을 하달하였다. 심사장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항목을 공지하였다.

<표-24> 주요 심사 항목

출품 종류	심사 항목
제1부 소건품, 제2부 자건품 제3부 염건품, 제4부 염장품	품질, 형태, 色澤, 건조, 把束
제5부 통조림 및 조미가공품	용기, 외장, 肉詰, 臭氣, 結束, 포장, 食味, 挾雜物 외관(大小.形態.色澤),
제6부 해조류	형태, 섶택, 건조, 결속, 晒白, 협잡물
제7부 유비류	色澤, 취기, 酸價, 형태, 건조, 협잡물
제8부 어업용 및 제조용 기구기계류	고안, 재료, 품질, 실용가치, 기타
제9부 선어 및 활어류	섶택, 형태, 선도
제10부 기타 수산관계	출품의 종류에 따라 상기 각항에 준하여 심사

10월 18일 오전11시, 연예관에서 열린 포상수여식에서 613점(명예상5점, 금패30점, 은패65점, 동패120점, 포상393점)의 입상작이 발표되었다. 전체 2,382점의 심사출품물 중 포상 이상의 수상작은 613점으로 26%에 해당하며, 적어도 출품자의 1/4은 포상의 절차를 통해 격려하고자 한 주최측의 의도가 보인다. 이 가운데 상위 6%이내인 금패 이상 수상자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4> · <표 25>과 같다.

<표-25> 명예상 수상자 현황

部別	품목	세부품목	수상자	
			주소	성명
제1부	소건품	身欠鯿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市原重信
제2부	자건품	煎子	영일군 청하면	松岡龜吉
제4부	염장품	さば(鯖)	경주군 양북면	小田留吉
제5부	가공품	새우(蝦櫻干)	영일군 포항읍	松岡一郎
제7부	유비류	鱒油	경주군 양북면	慶北油肥製造組合(제4공장)

<표-26> 금패 수상자 현황

部別	세부품목	수상자	
		주소	성명
제1부 소건품	身欠鯧	영일군 포항읍	李雨珍
	尾吼鯧	울릉도 북면	朴鳳鎭
	磨二番鯧	울릉도 북면	金在華
	身欠鯧	대구부	增田秀三
제2부 자건품	海蔘	경상남도 부산부	朝鮮潛水器漁業株式會社
	煎子	영일군 포항읍	增野熊雄
	煎子	영일군 지행면	渡部七兵衛
제3부 鹽干品	開鱈	영덕군 강구면	姜學伊
	身欠鱈	영덕군 강구면	小栗兼次郎
제4부 염장품	太刀魚	영덕군 영해면	金在水
	鯧	영일군 포항읍	田中貢
	さば(鯖)	영일군 창주면	井上庄七
제5부 가공품	めじか節	영덕군 강구면	池田德藏
	蝦櫻干(새우)	영일군 포항읍	金斗河
	燒蒲鉾(어묵)	영일군 포항읍	辻井常吉
	蛤鹽辛(조개)	평안남도 강서군 적송면	赤松漁業組合
제5부 통조림	鯧トマト漬罐詰	영일군 포항읍	浦濱秋吉
	鯧トマト漬罐詰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면	川南豊作
제6부 해조류	わかめ(若布)	영덕군 축산면	金三稟
	岩海苔	울릉도	鬱陵島漁業組合
	銀杏草	영일군 지행면	金慶積
	わかめ(若布)	강원도 울진군 북면	金鍾浩
제7부 유비류	鰯×粕	영덕군 축산면	三好佐太郎
	鰯×粕	영일군 창주면	十河彌三郎
	鰯×粕	영덕군 영해면	裴文希
	鰯油	영일군 동해면	土堂禎二
	鰯油	영일군 창주면	中野健太郎
	鰯×粕	강원도 양양면 통천면	許俊
제8부 어업용.제조용 기구기계류	鯧瓢網	영일군 포항읍	迎日漁業組合
	鯖巾着網漁船	영일군 창주면	井上庄七

축산어업조합에서는 제6부 해조류부에서 미역(わかめ,若布)을 출품한 김삼기(金三稟)이며, 제7부 유비류에서 약박(鰯×粕)을 출품한 미요시 사타로(三好佐太郎)가 금패를 수

상했다. 그리고 은패 수상자는 5명으로 가자미, 참치, 대구, 파래 등을 가공한 해산물과 약유 품목을 출품한 김재호(金在湖), 강괴동(姜塊東), 김정겸(金井謙), 강월대(姜月代), 미요시 사타로(三好佐太郎)이며 동패 수상자는 대구, 청어, 우뚝가사리 가공품과 약유 품목을 출품한 축산어업조합, 배상봉(裴尙奉), 권천이(權千伊), 박일오(朴日畚), 한재익(韓在益), 한영각(韓永珪)이 선정되었다. 은패와 동패를 수상한 명단은 아래의 표와 같다.⁴⁴⁾

<표-27> 축산어업조합 은패 수상자 현황

部別	품목	세부품목	수상자	
			주 소	성명
제1부	소건품	가자미(かれい)	영덕군 축산면	김재호(金在湖)
		참치(鮪草)	영덕군 축산면	강괴동(姜塊東)
제3부	염건품	대구(開鱈)	영덕군 축산면	김정겸(金井謙)
제6부	해조류	파래(銀杏草)	영덕군 축산면	강월대(姜月代)
제7부	유비류	약유(鱒油)	영덕군 축산면	미요시사타로(三好佐太郎)

<표-28> 축산어업조합 동패 수상자 현황

部別	품목	세부품목	수상자	
			주 소	성명
제3부	염건품	대구(開鱈)	영덕군 축산면	축산어업조합
			영덕군 축산면	배상봉(裴尙奉)
제4부	염장품	청어(鱈)	영덕군 축산면	권천이(權千伊)
제6부	해조류	우뚝가사리(天草)	영덕군 축산면	박일오(朴日畚)
			영덕군 축산면	한재익(韓在益)
제7부	유비류	약유(鱒油)	영덕군 축산면	한영각(韓永珪)

포상을 수상자는 출품물 각 부별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31명이 선정되었다. 그 중 송충석(宋忠錫)은 소건품중 가자미, 염건품중 대구, 가공품중 가자미 가공품 등 세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도 자건품중 煎子, 염장품중 방어, 멸치가공품의 세 분야에서 수상했다. 축산어업조합도 전복을 가공한 자건품 분야에서 포상을 수상했다. 아래의 표는 축산어업조합원들의 각 분야별 포상수상자 현황이다.

44)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 소화11년, 35~48쪽, 56~71쪽.

<표-29> 축산어업조합 포상 수상자 현황

부별	품목	세부품목	수상자	
			주 소	성명
제1부	소건품	홍합(貽貝)	영덕군 축산면	이숙이(李淑伊)
		가자미(鰈)	영덕군 축산면	송충석(宋忠錫)
			영덕군 축산면	배상봉(裴尙奉)
		明太魚	영덕군 축산면	이봉조(李奉周)
제2부	자건품	煎子	영덕군 축산면	다케다야사키(武田安秋)
		전복(明鮑)	영덕군 축산면	축산어업조합
제3부	염건품	대구(開鱈)	영덕군 축산면	정호륜(鄭壕淪)
			영덕군 축산면	송충석(宋忠錫)
제4부	염장품	고등어(さば)	영덕군 축산면	유복용(劉伏用)
			영덕군 축산면	김응준(金應俊)
		청어(にしん)	영덕군 축산면	윤차석(尹且石)
			영덕군 축산면	권명출(權明出)
		방어(ぶり)	영덕군 축산면	권덕칠(권덕칠)
			영덕군 축산면	다케다야사키(武田安秋)
		전어(このしろ)	영덕군 축산면	유복록(劉伏祿)
제5부	관힐품	전복(鮑水煮罐詰)	영덕군 축산면	시바하라덴지(柴原傳次)
	가공품	鰈櫻干	영덕군 축산면	송충석(宋忠錫)
			영덕군 축산면	이용규(李容奎)
		鮑粕漬	영덕군 축산면	소노다후쿠마츠(園田福松)
		멸치(チリメンイワシ)	영덕군 축산면	다케다야사키(武田安秋)
제6부	해조류	미역(わかめ)	영덕군 축산면	권명술(權明述)
			영덕군 축산면	한영각(韓永珪)
			영덕군 축산면	김수창(金壽昌)
			영덕군 축산면	김대석(金大石)
		岩海苔	영덕군 축산면	김성진(金成振)
			영덕군 축산면	안병민(安炳珉)
			영덕군 축산면	정창문(鄭昌文)
			영덕군 축산면	정재연(鄭在鉛)
제7부	유비류	鯖×粕	영덕군 축산면	김장학(金長學)
			영덕군 축산면	박노숙(朴魯淑)
		鯖油	영덕군 축산면	김정겸(金井謙)
			영덕군 축산면	김장학(金長學)
제8부	어업용 제조용기구 기계류	朝鮮改良型漁船	영덕군 축산면	김기동(金奇東)
		광어(ひらめ)手繰網	영덕군 축산면	김차수(金且守)

이상과 같이 공진회에 출품하여 금패, 은패, 동패, 포상을 수여한 축산어업조합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축산항에서 생산되던 다양한 수산물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축산항은 1차 생산물인 수산물 어획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양식업인 김과 미역 등도 생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전시체제에 맞게 생선을 주원료로 하는 기름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한 비료생산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5년을 전후해서 축산항에서 어업활동을 한 인물들이 어떠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 축산항을 비롯한 인근 영해, 영덕지방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축산항을 근거지로 지역주민들의 어업 관련 최초의 조직은 1914년 2월 1일 축산리 일원을 어업지구로 축산어업계이며, 이를 계승하여 1924년 11월 21일 축산어업조합이 결성되었다. 이후 1961년 6월 30일에는 영해어업조합으로 흡수 합병되었다가 1962년 4월 1일 축산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다가 2011년 1월 1일 현재의 명칭인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수협,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33)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축산수협의 업무 관할 구역은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대구광역시 일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조합원은 축산리, 경정리, 사진리, 대진리, 병곡2리, 백석2리, 금곡2리 등에 걸쳐 있으며 어가호수는 694호, 어민수는 1,008명으로 그중 조합원 수는 843명이다. 축산수협의 지역별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⁴⁵⁾

<표-30>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 지역별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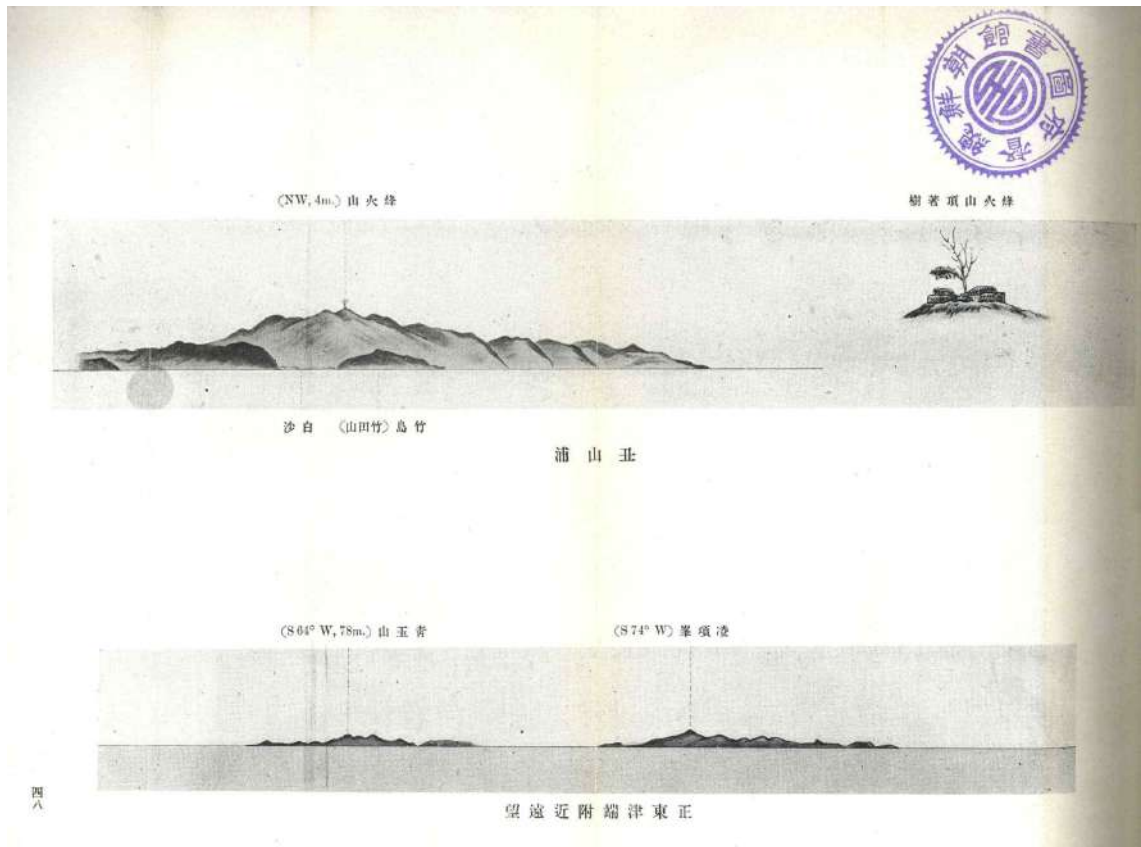
지역	어가호수	어민수	조합원수	어촌계수		어촌계원수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축산리	201	261	234	0	1	0	164
경정1리	55	119	87	0	1	0	56
경정2리	69	97	58	0	1	0	49
경정3리	32	37	33	0	1	0	27
사진1리	15	29	28	0	1	0	19
사진2리	35	60	45	0	1	0	31
사진3리	26	39	24	0	1	0	23
대진1리	33	54	51	0	1	0	33
대진2리	48	60	55	0	1	0	45
대진3리	50	63	47	0	1	0	44
병곡2리	31	41	39	0	1	0	21
백석2리	73	119	94	0	1	0	75
금곡2리	26	29	27	0	1	0	24
기타	0	0	21	0		2	0
계	694	1,008	843	0	13	2	611

45)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 『제62기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2023.

V. 축산항(丑山港)의 건설

1. 축산항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축산포(丑山浦)는 영일만(迎日灣)에서 북쪽으로 약 27해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죽도(竹島) 또는 죽전산(竹田山)이라 불리는 작은 소섬이 동쪽으로 돌출해 있다. 이 반도는 길이와 폭이 모두 약 2리(鏈), 높이가 256피트이며 원뿔형을 이루고 있다. 높이가 6피트 이하의 목이 땅과 연결되어 멀리서 보면 마치 외딴 섬처럼 보인다(참고: 경관도).



<그림-22> 축산항 경관도

죽전산(竹田山)의 남북 양측에는 각각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남쪽 만은 죽도와 마산 사이의 폭이 약 3리이며, 해안에서 1.5리 떨어진 곳의 수심이 약 6미터, 모래 바닥 이어서 작은 선박이 임시로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다. 북쪽 만은 죽도와 그 북쪽 육지 해안 사이의 폭이 1리 남짓 되며, 중앙 수심은 2미터이지만, 만 입구 양측으로 암맥이 뻗어나와 있어

작은 선박의 출입이 어렵다.

이 두 만은 영일만과 죽변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작은 선박 피난처로, 항상 작은 돛배와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다. 북쪽만의 동서 양측에는 죽전(竹田)과 성내 마을 두 마을이 있으며, 총 인구는 약 400명이다.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업으로 삼고 있다. 위험한 암초가 만의 북쪽 입구 각 부근에 있으며, 북동쪽으로 약 반 리 떨어진 곳에 암초가 뻗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지리적 설명)

봉화산(烽火山) 축산포 근처 북서쪽 1해리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 937피트에 이르고 그 정상은 매우 뚜렷하다(참고: 경관도). 축산강은 남쪽 만의 머리에 흐르는 작은 강으로, 물이 맑고 항상 마르지 않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공급품) 때때로 소량의 생선 및 채소를 구할 수 있으며, 장작은 없다.

(조수) 축산포에서는 삭망조 고조 시간이 3시 29분이며, 대조 때의 수위 상승은 3/4피트, 소조 때의 수위 상승은 1/2피트, 소조차는 1/4피트이다.

(해안) 축산포에서 북쪽으로 용추곶(龍湫岬)까지 이르는 35해리 동안의 해안은 거의 굴곡이 없기 때문에 거친 날씨에는 배를 정박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

(지형 설명) 해안 내륙의 산들은 빙장말(氷嶂末)에서 약 253도 5해리에 있는 칠포산(七浦山)에서 시작하여 해안선과 평행하게 북쪽으로 뻗어 높은 울진산맥을 이룬다. 칠포산(七浦山)은 영해 평야에 우뚝 솟아 있으며, 그 정상은 여러 개의 침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점은 높이 1659피트이다.

칠포산(七浦山)의 동쪽으로 뻗어 나간 지맥 중에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각각 응봉(鷹峯, 1,277척)과 만룡(萬龍, 오봉(五峯) 333척)이다. 이 두 산은 모두 험준하고 척박한 침봉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화모말(花母末) 서쪽 10해리에는 높이 3327피트의 금장산(金藏山, 金亭山)이 있다. 울진산맥의 주봉으로서 뾰족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 매우 뚜렷하다. 금장산 북쪽으로는 산세가 다소 낮아지지만, 울진군에 들어서면 다시 높아져 용추곶의 276도, 9.5해리 떨어진 곳에 높이 3,191척의 봉산(峯山)이 있다. 이 산 역시 울창한 노송이 둘러싸고 있어 두드러진다.

(암초와 조류) 대정(大正) 3년 3월, 러시아의 기선 블라디민(Vladimin)이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 중 금장산에서 88도, 21과 3/10 해리 지점에서 조류로 인해 바위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대정 7년 8월, 일본 군함 야마토가 금장산에서 90도, 22와 8/10 해리 지점에서 6미터의 바위를, 97도, 23과 6/10 해리 지점에서 6미터의 암초를 발견했다.⁴⁶⁾

46) 조선총독부 수로부, 『日本水路誌-朝鮮 東岸 및 南岸 제10권 上』, 대정(大正) 9년, 47~49쪽.

2. 동해안 지역의 자연재해와 축산항 건설의 노력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항구는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을 막아줄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는 섬이 존재하지 않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폭풍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증하듯 일제강점기부터 폭풍우의 피해를 알리는 신문 기사들이 여러 건 발견되는데 1929년 12월 동해안에 몰아친 풍설의 피해를 조선일보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⁴⁷⁾

지난 19일 이래로 경상남도 해안을 엄습한 폭풍우는 그 후 더욱 맹렬하여 저서 고기 잡든 수 십척의 어선을 비롯하여 하물선(荷物船)의 난파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중인데 이에 21일까지 판명된 동 피해상황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경무국착전)

-지난 19일 오후 1시경에 영일군 청하면 압바다에서 발동기 운반선 제1금행환(第1金幸丸, 19톤)이 목선 두척을 끌고 구룡포로 향하다가 전기 장소에서 격랑을 만나 매엇든 돌이 끈히지며 목선 두 척은 여지없이 전복이 되었는데 목선에 탔든 5명 선원 중 3명은 구조 되었으나 2명은 행위불명이 되었다 하며 손해는 1,300원 가량이라 하고

-21일 오전 2시경에 동북풍이 맹렬하여 감포항으로 피난 하얏든 발동기 어선 8척은 격랑으로 인하여 피난선끼리 서로 맞부드쳐서 수십척의 파선이 생기었는데 목하 경주서에서 전 서원이 출동하여 그 피해를 조사중이라하며

-19일 오후 8시경에 영일군 장기면 양포리 압바다에서 발동기 운반선 보환(寶丸, 11톤)이 풍랑으로 인하여 전복되었는데 선원 4명중 3명은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소본모(少本某)는 행위 불명이 되었다.

-조선우선회사 소유 기선 온성환(穩城丸, 400톤)은 폭풍우로 인하여 구룡포에 피난코저 하든 20일 오전 에커(艇)가 파손되어 구조를 청함으로 감포 주재소원과 다수한 소방조원들이 즉시 발동선을 타고 현장에 달려가 필사적으로 구조를 한 결과 승객 및 승무원 25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체의 손해는 불소한 액수에 달하리라는데 확실한 손해액은 아직 불명이라하며

-20일 오후 9시경에 영덕군 축산항 압바다에서 울산군 리병준(李炳俊)의 소유기선 발동기선(28톤)이 격랑으로 전복되어 선체는 쓰지 못할 만큼 파열되었는데 손해는 600원 가량이라 하며 여섯명 선원의 생사는 전혀 불명이라더라.

1929년 12월 19일 경상남도 해안을 엄습한 폭풍우는 어선 수십 척과 화물선이 난파하였는데 그 피해는 영일군 청하면, 장기면과 경주군 감포항에서 많은 어선이 전복되고 선원들은 행방불명된 이가 다수였으며, 400톤 크기의 기선인 온성환(穩城丸)도 구룡포로 피난하다 감포항 인근에서 난파되었으며, 그 손해액도 막대했다. 축산항 앞바다에서도 12월 20일 28톤 크기의 발동기선이 전복되어 선원들은 생사불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뿐

47)「동해안의 풍설로 어선 수십척 조난, 발동선20여척, 어선2척, 기선1척 난파, 실종속출」, 『조선일보』, 1929.12.24.,2면.

만 아니라 1931년부터 1933년까지 거의 매해에 걸쳐 축산항 인근 바다에서는 폭풍우 피해가 속출하였음을 신문 기사는 전하고 있다.

경북 연안 지방 일대에 지난 10일 아침 대 폭풍이 내습하여 각 선박 및 어선은 각항구에 피난 경계령이 내렸다. 영덕군 축산항의 축산에서 기박하던 삼판만일(三坂萬一)씨 소유 시가 100원 상당의 어선이 암초에 걸렸으나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⁴⁸⁾

경무국 착전에 의하면 23일 오전 5시반 경북 축산항 어업조합 소속 청어잡이배 20여척이 축산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축산 동쪽으로 5해리 되는 해상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중 돌연 서풍이 불어 전기 20여척중 15척이 조난하여 선원 111명은 행방이 불명되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바 대개는 사망한 듯 하다는 바. 전기 선원은 전부 조선인이라고 한다. 이 급보를 접한 동 어업조합에서는 어업조합원과 소방조원이 출동하여 수사중이며 전기 조난한 15척외에도 동 축산항으로부터 출항한 어선 5~6척도 소식이 끈어졌으므로 경비선 천대환(千代丸)이 출동하여 수사에 진력중이다.⁴⁹⁾

23일 맹렬한 서북풍으로 경북 해안선 일대는 무서운 풍랑의 엄습을 받아 다수 어선의 조난을 보았다. 23일 오전 5시30분 영덕축산어업조합에 소속한 청어잡이배 20척이 축산항구로부터 바다에 나갔다가 축산등에서 5해리되는 해상에서 강렬한 서풍을 만나 나뭇잎 같이 번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척이 몰아오고 나머지 15척에 선원 110명은 돌아오지안어 그들의 생명이 위태탄고 염려되더니 요행이 24일 오전에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아직도 네 척에 20여명이 돌아오지 안어 행방불명중에 있다. 이에 어업조합과 소방대원들은 구조작업을 하는 중이고 또 경비선 천대환(千代丸)도 출동하여 어선의 행방을 수사중이다.⁵⁰⁾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어업조합 소속의 비웃(청어)잡는 그물 가진배(자망선,刺網船) 20여척이 축산항으로부터 약50해리 가향되는 바다에서 비웃(청어)을 잡던중 23일 오전 다섯시경에 강한 서풍으로 인한 큰 풍향을 만나 20여척중에서 다섯척은 천행으로 겨우 살아 왔스나 나머지 조선형 어선15척은 승조원 111명을 실은 채 간 곳을 모르게 되었으므로 방금 경북 경찰부의 경비선이 출동하여 간 곳을 수색하는 중이나 이제껏 승조원 111명의 생사를 알수 없다.

제2보-경상북도 연해안 각처에 있는 경비선이 총출동하여 생명(生靈)을 삼킨 광분하는 검은 파도를 헤치고 그들을 수사한 결과 24일 오전 3시 포항항 부근에서 건기 조난한 4척 승조원 26명을 구조 하였으며 그 외에는 아즉도 행방불명이 된대로 소식이 묘연한데 검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돌아 오지안는 그 아버지와 남편을 찾는 가족들이 애꾸는 목소리는 그 부근의 산하를 울리는 듯 하는 참상을 일우었다.

제3보-경상북도 경주군 감포항 어업조합 소속 어선 5척(승조원20명)도 23일 출어한 이래 행

48) 「축산항 어선 조난, 동해안의 폭풍」, 『釜山日報』, 1931.01.13.,9면.

49) 「광도(狂濤)동해내습, 어선 20여척 조난 111명 생사불명, 어업조합, 경비선이 구조에 출동, 경북 축산항의 참사(지도포함)」, 『동아일보』, 1933.10.24.,1면.

50) 「경북 연해에 폭풍맹습, 조난어선 15척, 22명 상금 행방불명, 5척이외는 속속귀환중, 경북 영덕 축산포서」, 『조선일보』, 1933.10.25.,2면.

방불명이 되어 아즉 돌아오지 않는다.⁵¹⁾

축산항 어업조합 소속 조합원 청어잡이 어선이 인근 앞바다로 출항하여 폭풍우에 조난을 당하여 어업조합과 소방대에서 긴급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하였으며 선박의 물적인 파괴는 물론이고 선원들의 생사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33년 발생한 조난 사고는 어선 20여척이 조난하고 선원 110여 명의 생사가 불투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포항에 소속된 어업조합원들도 조난되어 선원 20여 명이 행방 불명 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이러한 조난 사고를 속보로 전국에 타전했다. 1936년 9월에도 축산 인근 바다에서는 폭풍우 피해로 선원들이 사망하고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를 전하고 있다.⁵²⁾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항내 주민들과 어업조합은 ‘축산항 소방조합’를 구성하고 조난 사고 및 피난 시설 구축에 노력하였다.

축산항 소방조 발회식, 영덕군 축산항은 동해안 우수한 어항인데 현금인즉 내외 인간 다수 거주지로서 소방조합이 없어서 일반은 매양 견총(遣擲)으로 생각하든바 금번에 유지의 발기로 소방조합을 설치하여 지난 10일에 발회식을 거행하였다고⁵³⁾

축산항은 수백여호(數百餘戶)의 인구가 거주하는 비교적 큰 어촌으로 선박 출입과 어획목입(漁獲牧入)이 끊이지 않는 영덕군내 우수한 어항인바 고등어와 정어리의 산출이 파다하여 어선 백여척과 발동선 수십여척씩 매일 출어 하여 그 산액은 매일 평균 수천여 원에 달하는⁵⁴⁾ 어획고를 올리는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조합이 없어 고민하던차에 유지들의 발기로 1925년 11월 10일 마침내 축산항 소방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후 소방조합의 출초식은 매년 1월에 거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기사와 같다.

축산소방조의 출초식이 상례에 의해 1월 17일 오전 11시에 시작되었다. 소방조원은 축산주 재소앞 광장에 집합하여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조합장의 지휘 아래 정렬하였다. 대석(大石) 영덕서장의 인원 점호, 복장, 기구 기계 검사를 받고 방수 연습을 하였다. 이어 서장의 강평, 훈시가 있은후 복전(福田) 서무주임의 보고서, 조합장의 답사로 연습이 종료되었다. 오후 어업조합 루상(樓上)에서 신년 축하연을 열고 지방 관민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상호결속의 술잔을 나누고 오후 5시 무사히 산회하였다.⁵⁵⁾

51) 「출어중의 어부 조난 백십일명 생사불명, 경북 영덕군 축산항근해서, 경비선출동수색중」, 『朝鮮中央日報 (여운형)』, 1933.10.25.,2면.

52) 「축산방면의 폭풍우 피해, 해면의 유목과 사체」, 『釜山日報』, 1936.09.05.,4면.

53) 「축산항 소방조 발회식(消防組 發會式)」, 『조선일보』, 1925.11.17.,1면.

54) 「영덕 축산항 어업호황, 일수입 수천원」, 『조선일보』, 1927.07.20.,1면.

55) 「축산항 소방조 소방의식(출초식) 17일 거행」, 『釜山日報』, 1931.01.23.,9면.

1931년 1월 17일 오전 11시 축산항소방조합원은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어업조합장의 지휘 아래 축산 주재소 광장에 집합하여 영덕경찰서장 대석(大石)의 인원 점호, 복장 및 기구검사를 받고 방수 연습을 했다. 이어 어업조합에서 신년 축하연을 가지고 지방 관민유지들의 참여하에 상호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축산항 소방조합은 축산어업조합의 주도로 어선 조난사고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공동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펼치며 축산항 관내 주민들과의 결속에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축산항의 자연적 조건이 어선들의 피항지로 적합함에도 안전한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파제 건설 등 항구의 수축공사가 필요함을 공유하고 지역 유지들로서 축산항 수축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여 축산항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축산천(丑山川) 제방공사(堤防工事)

축산항은 축산천이 죽도산 앞으로 흘러서 바다로 나가고 있어 항내에 모래사장을 만들었고, 죽도산이 항구 앞을 막고 있어 선박들이 피항하기 좋은 동해안 지역에 드물게 볼 수 있는 항만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 1902~1903년경부터 일본의 카가와현, 야마구치현 등의 어부들이 축산항을 기항지로 이용하게 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1914~1916년경에는 배들이 항구를 가득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영덕군 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어항이며 수백여호의 인구가 거주하며 매일 백여척의 선박이 빈번히 출입하는 항구였다. 그러나 항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홍수와 폭풍우의 피해가 빈번하였다. 1919년 8월에는 대 폭풍우로 축산강이 범람하여 다수의 가옥과 어선이 파괴되고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영덕군과 축산항 동민들은 경상북도 도비 지원금과 동민 지원금으로 축산천 제방 공사에 착수하였다.

경북 영덕군의 지난번 수해는 근래에 적은 수해인데 칠일 오전까지 판명된 손해는 병곡면에는 아조 무너진 집이 일곱, 반쯤 무너진 집이 다섯이요 떠나간 집이 열집이나 되었고, 창수원(倉水院)에는 유실 가옥이 둘, 반쯤 무너진 집이 넷이요, 축산면에는 전괴된 담이 이십육, 파뭇친 논 이십 정보요, 각산면에는 빠져죽은 자가 하나, 유실 가옥이 하나, 파뭇친 논이 오십 정보라더라.⁵⁶⁾

영덕 축산항은 군내 제2위를 점하는 어항이며 따라서 선박이 빈번히 출입하는 항구로 수백여호에 다수한 인구의 거주지인바 수년전 홍수시에는 번번이 홍수가 전답을 침해할 뿐아니라

56) 「영덕수해(盈德水害) 후보(後報)」, 『每日申報』, 1919.08.11.,3면.

동중(洞中)을 관통하여 가옥 인명의 피해가 잇섯스며 금후에도 홍수만 진다면 위험성이 만뎡바 군면 당국과 축산 동민은 피해를 방지키 위하여 본도 지방비 및 동민지원금으로 축산 방천(防川)공사(工事)를 행하여 1, 2기는 준공하였다는데, 1기는 3월 24일에 착수하여 5월경에 준공한바 3천원은 지방비 보조 2,370원은 동민지원금이며, 2기는 7월초에 착수하여 동회간에 준공한바 지방비보조가 4천원, 동민지원금이 2,300원이고, 3기는 본도 지방비 예산 관계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이라더라.⁵⁷⁾

차후론 여하한 대홍수에도 범람할 염려는 업게 되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고래로 군내 우수한 어항일 뿐 아니라 현재도 수백여호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촌으로 해산물이 풍부하여 매일 백여척의 선박이 출입하여 장래 발전될 여망도 많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앙을 관통하는 대천이 있어서 하시든지 대수만 지면 주민과 선박에 까지 불안을 됴므로 군면 당국자들과 유지제씨가 3년전부터 제방공사에 착수하여 민부담 5,800원과 도지방비 보조 15,000원 합계 20,750원의 경비로 본 월 10일경에 제3회까지 준공되어 제방 전부가 완성 되었다는데 지금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대홍수가 실지라도 염려가 없스리라더라.⁵⁸⁾

축산천 제방공사는 총 3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기는 1927년 3월 24일에 착수하여 같은해 5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5,370원(경상북도 지방비 3,000원, 동민지원금 2,37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제2기는 1927년 7월 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8월에 준공하였다. 공사비는 6,300원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경상북도 지방비 4,000원, 동민지원금 2,300원이 투입되었다. 축산천 제방공사 제3기는 1928년 10월에 준공되었는데 1기~3기 간의 총공사비는 동민지원금 5,800원, 도 지방비 15,000원이 투입되었다. 이상과 같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 투입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1> 축산천 제방공사 내역

구분	기간	공사비		
		합계	동민지원금	도비 지원금
제1기	1927.3. ~ 1927.5	5,370원	2,370원	3,000원
제2기	1927.7 ~ 1927.8	6,300원	2,300원	4,000원
제3기	~ 1928.10	9,130원	1,130원	8,000원
합 계		20,800원	5,800원	15,000원

축산천 제방공사는 1927년 3월 시작되어 1928년 10월에 완공되어 홍수에도 인명과 선박의 피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총공사비 20,800원 중 25% 이상인 5,800원을 축산항의 유지들과 주민들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축산항이 점점 인구와 선박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그만큼 주

57) 「영덕 축산 제방공사 1기, 2기는 준공」, 『조선일보』, 1927.08.16.,4면.

58) 「경북 영덕군 축산 제방 준공」, 『조선일보』, 1928.11.25.,6면.

민들의 고통이 컸다는 점과 이러한 당면 현안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사를 계기로 축산항은 본격적인 항만시설 건설과 주변도로 정비에 나서게 되며 명실상부한 항만으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4. 축산항 수축공사

축산항은 앞면이 동해와 접해있고, 항만 내 수심이 깊고 죽도산이 감싸고 있어 동해안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항만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북동쪽에서 폭풍이 닥치거나 동해의 파도가 밀려와 선박과 인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축산항 수축 공사가 드디어 1932~1933년(소화7~8년) 2년에 걸쳐 시행된다. 재원은 시국 응급 시설비로 총공사비 72,000엔이 투입되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57,600엔, 지방비부담액이 14,400엔이다. 공사는 우선 1932년에 남방과제 건설부터 시작되었는데 길이는 60미터이며, 이듬해인 1933년에는 북 방과제 길이 50미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34년 3월 남방과제와 북방과제가 완공되었다. 아래의 기사는 1933년 축산항 남방과제 공사의 준공을 알리는 기사이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고래부터 군내 유수한 어항으로 현시에는 상선(商船), 어선(魚船)의 정박이 빈번하여 매일 근 백여척의 선박이 출입하는바 소화 6년부터 제1기 축항공사를 기공하여 특히 군,면내 빈민구제를 중심으로 매일 250여명의 인부를 채용중인바 3만원 공비로 준공기는本月 하순경이라 하며 제2기 공사비도 4만 2천원의 도지방비 예산에 편입된바 축항 기성회와 일반주민의 희망은 해 4월부터 2기 공사를 계속 착수를 고대하며 따라서 도로공사도 지금까지 민부담(民負擔)으로 토공사는 마쳤으나 암석공사비로 도예산에 2천 7백원이 예정되었는바 하로라도 속히 공사착수 희망중인바 암석 공사만 되면 정기 자동차가 래왕케하여 교통에도 막대한 편익이 되리라한다.⁵⁹⁾

축산항 수축 공사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기 공사인 남방과제 공사는 빈민구제를 명목으로 매일 250여 명의 인부를 채용하여 진행되었으며 1933년 3월 하순경 준공되었으며 총공사비는 3만 원이 소요되었다. 제2기 공사인 북 방과제 건설은 4만 2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곧 착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산항 수축 공사를 위해 축산동 주민들을 중심으로하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산항구 건설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주변 배후 도로 건설에도 역점을 두어 이미 주민 부담으로 토목공사를 마쳤으며, 경상북도 예

59) 「축산 축항 공사 제1기 준공」, 『中央日報』, 1933.03.06., 4면.

산으로 암석공사비 2,700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어 이것만 마치게 되면 축산항 주변 교통에도 막대한 편리를 가져다 주리라 예상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경주 양양간 이등도로 분기점까지 약2리 가량인바 도로 토목공사는 민부담으로 완성되어 자동차 교통까지 하게 된바 아직까지 간간이 막혀있는 도로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자동통행이 될 수 없고 기타 일반교통에도 막대한 불편이 잇든바 당지 김정한씨 등의 알선으로 다행이 도의 인가가 되어 지방비 보조 3,000원 공비로 9월 11일경부터 착수하였다고 한다.⁶⁰⁾

이후 1933년 9월에는 축산항 유지 김정한(金禎漢) 등의 노력으로 경상북도 예산 3,000원으로 마침내 도로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듯 축산항내 방파제 건설 공사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개설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1934년 3월 축산항내 남·북방파제 완공 이후 연이어 9만 엔을 투입하여 1934년 4월부터 북방파제 80미터를 연장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193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이로써 총공사비 17만 엔이 소요되어 남방파제 60미터, 북방파제 130미터가 완성되어 안정적인 항구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공사 기간 중 1933년 9월에는 폭풍으로 인해 공사 중이던 방파제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재해 복구 공사를 통해 그 피해는 전면 복구되었다. 재해 복구 공사는 1934년 2월7일 착수하여 3월 31일에 준공하였으며 재해 복구 공사비는 국고보조금 8,500원이 투입되었다.⁶¹⁾ 이상과 같이 축산항 건설과 관련하여 축산항 연혁, 공사기간, 공사 내용, 공사 비용, 공사투입 인원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경상북도는 1936년(소화11년) 6월 25일 준공보고서인 『丑山港修築工事竣工記念』을 발행하였다. 축산항 수축 공사 관련 기록들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사 장면을 담은 사진과 준공 전후의 축산항을 담은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다음은 『丑山港修築工事竣工記念』에 기록된 축산항 수축 공사 관련 기록이다.⁶²⁾

축산항 연혁 및 공사개요(丑山港ノ沿革及工事概要)

제1절: 축산항의 연혁

본 항구는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에서 흘러나오는 축산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구에는 대나무로 덮인 작은 섬이 있다. 이 지역은 몇 가구의 농가가 있는 작은 마을로, 한때 항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1902~1903년(明治35~6년)경부터 가가와(香川)현, 야마구치

60) 「축산, 도곡간 도로개척공사 착수」, 『조선일보』, 1933.09.10., 3면.

61) 「浦項港外 二港 災害復舊工事竣工의件 指令案」, 『경상북도』, 소화11년 3월26일.

62) 경상북도, 『축산항수축공사준공기념』, 소화11년.

(山口)현 등의 통어업자(通漁業者)들이 이곳을 기항지로 이용하게 되면서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다. 축산항은 일본해와 맞닿아 있어 어족이 풍부해 어부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으며, 1914~1916년(大正3~5년)경에는 배들이 항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항만 시설이 부족하여 1919년(大正8년) 8월 대폭풍 때 축산강이 범람하며 다수의 어가와 어선이 파괴되는 참사를 겪었다. 이로 인해 1927년(昭和2년) 경북도의 보조를 받아 강둑을 쌓고 제방을 재정비하여 축산강의 범람을 방지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1932년과 1933년(昭和7~8년)에 걸쳐 도로 건설 비용과 시국 대응 긴급 시설 사업비로 7만 2천 엔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1932년(昭和7년) 10월 방파제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34년(昭和9년) 3월에는 남방파제 60m와 북방파제 50m가 완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풍과 파도에 대한 방파 시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화 9년(1934년) 4월, 계속해서 제2차 국민구제사업비로 9만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쪽 방파제를 80미터 연장하는 공사에 착수했으며, 소화 11년(1936년) 1월에 그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총공사비 17만 엔을 투입한 이 항구는 길이 60미터의 남쪽 방파제와 130미터의 북쪽 방파제로 둘러싸여, 수심이 깊은 만으로 조성되었다. 작지만 우수한 항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1기 사업에 해당하며, 앞으로 항구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방파제 보강 및 항만 내 선착장과 부두 건설 등 여러 시설을 요할 것이다. 본 항구가 이 사업을 통해 발전된 결과,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기선의 정박이 증가했고, 300톤 규모의 화물선이 입항할 정도로 항구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증명하는 바이다.

제2절 공사 개요

이 항구는 앞면이 일본해에 접해 있고, 만 내 수심이 깊어 자연적으로 좋은 항구이다. 그러나 북동쪽에서 폭풍이 닥쳤을 때, 일본해의 사나운 파도가 강하게 밀려와 선박과 인명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로 인해 항구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1932~1933년(昭和7~8년)도의 시국 응급 시설비를 사용하여 남방파제 60미터, 북방파제 50미터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1934~1935년(昭和9~10년)도 제2차 국민구제 사업비를 사용하여 북방파제는 추가로 80미터 연장되었다. 다음에 공사의 세부 사항을 기술한다.

1. 남방파제

1) 방파제 구조와 설계

-방파제 길이: 60미터

-최상부 폭: 5미터, 머리 부분 폭: 7미터, -높이: 평균 간조면에서 2미터 위까지

방파제는 암반과 직사각형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된 혼합 방파제로, 방파제 중심에는 3입방미터 크기의 암석을 채워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초부: 바깥쪽 1.5미터, 안쪽 1.7미터 두께로 기초를 다진 후, 외측은 1.5미터 이하, 내측은 1.2미터 이하 크기의 큰 암석들로 덮였습니다.

-선단부: 길이 50미터의 선단부는 내부는 3.7미터, 외부는 3.5미터의 기초 암반 위에 이중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블록 크기는 2미터 각, 높이 20센티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로 내부에 1.5입방미터 크기의 암석을 채워 넣어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방파제 상부 구조는 최상부 폭이 5미터, 머리 부분 폭이 7미터로, 양측에 3입방미터 크기의 대형 암석으로 견고하게 고정했습니다. 공간에는 13.6밀리미터의 작은 석재와 콘크리트로 채워졌으며, 매 평방미터마다 10센티미터 직경의 환기 구멍을 두 개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등대 구조물: 평균 간조면에서 11.25미터 높이로 등대를 세워 항구 입구의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2) 공사 중 발생한 손실 및 복구 작업

폭풍 피해: 1933년(昭和8년) 9월 북쪽 폭풍으로 인해 방파제의 일부 암석과 콘크리트가 손상되었습니다. 약 1천 입방미터의 암석이 유실되고, 23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전도, 95입방미터의 상부 콘크리트가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파제 복구 작업이 추가로 수행되었습니다.

2. 북방파제

1) 공사 연혁 및 구조

-1933년(昭和8년): 50미터 구간 공사, -1934~1935년(昭和9~10년): 80미터 추가 시공

-총 연장 130미터의 방파제 건설이 완료됨.

-구조적 특징: 방파제 상단 폭 5미터, 머리 부분 폭 7미터, 평균 높이는 간조면에서 2미터. 혼합식 방파제로, 암석과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물가에 일렬로 배치한 구조. 방파제의 중심에는 3입방미터 크기의 암석을 채우고, 외부 표면은 2미터 두께의 큰 암석으로 덮음.

2) 공법 및 시공 세부 사항

방파제의 기초부는 남쪽 방파제와 유사한 공법으로 시공. 내측과 외측 모두 3입방미터의 큰 암석을 사용해 덮고, 1.5미터 두께의 대형 암석으로 상단을 덮음. 환기 구멍은 매 평방미터마다 하나씩 배치, 방파제 선단부에는 평균 간조면에서 11.9미터 높이로 등대를 세워 항구의 표지로 사용.

3) 폭풍으로 인한 손실과 복구

1935년(昭和10년) 1월에 발생한 큰 폭풍으로 인해 12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유실, 26개 전도, 약 2,330입방미터의 암석 손실 발생. 폭풍 피해 이후, 방파제 보호를 위해 가장 큰 파도가 부딪히는 곳에 높이 1.5미터, 폭 1.2미터, 길이 2미터의 콘크리트 블록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조적 보강을 완료.

3. 공사 개요

1) 주요 자재

철근 콘크리트는 929입방미터, 일반 콘크리트는 1,139입방미터로, 사용된 골재 가운데 모래는 927입방미터로 해안에서 채취한 것이며, 자갈 1,805입방미터는 채취 후 다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철근 총 중량은 88톤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구매하여 부산에서 선박으로 운송한

후 항구에서 하역하고 검사 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시멘트는 총 11,365포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매번 납품 시 검사 샘플을 채취해 내무국 경성토목장 시멘트 시험실로 보내 합격한 것만 사용하였다. 대·중·소 암석은 총 31,600입방미터를 항구 양안의 돌산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채취할 수 있었다.

2) 작업 시설

본 공사에 사용된 주요 장비, 선박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감시소 1개, 창고 2개, 각형 콘크리트 제조장 1개, 3평배 1척, 6평배 3척, 2중배 1척, 레일 4킬로미터 등이며, 항구 내측에 길이 30미터의 기계교를 설치하여 소형 및 중형 암석을 운반하고, 대형 암석은 외측에 설치된 목재 회전 기중기 2대로 운반 및 적재하였다.

3) 암석 채취, 운반 및 투하

암석은 양안의 돌산 가까이에서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었다. 채취 장소에서 4킬로미터의 레일을 설치하고, 원치 8대와 운반 대차 6대를 사용하였으며, 3평 또는 6평배로 운반하였고 인부 4~6명이 운반하였다. 투하 작업은 단면 작업 방식을 사용하여 1회 작업 시간은 소형 및 중형 암석은 6평배로 10분 내외, 대형 암석은 4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이 방식은 다소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기중기와 6평배를 이용하여 대형 암석을 균일하게 배치하였다. 공사 중 자주 발생하는 큰 파도로 인해 균형이 맞춰진 대형 암석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러 연구 끝에 해저에 9톤에서 15톤 크기의 대형 암석을 채취하여 표층 균일화를 실시한 이후에는 추가 피해 없이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4) 각형 콘크리트 제조 및 설치

일일 10개, 한 달에 4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었다. 콘크리트는 수작업으로 반죽하였으며, 반죽대 3대를 사용하여 일일 80여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10개를 제조하였다. 충분히 경화된 후, 기중기를 사용해 6평배에 적재한 후 수면 아래로 내리고 잠수부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 안정화시킨 후 상부에 대형 암석을 얹고, 상부 콘크리트를 시공하였다. 공사 중 강원도 해안이라 불리는 곳의 파고 7미터를 넘는 큰 파도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작업원들이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5)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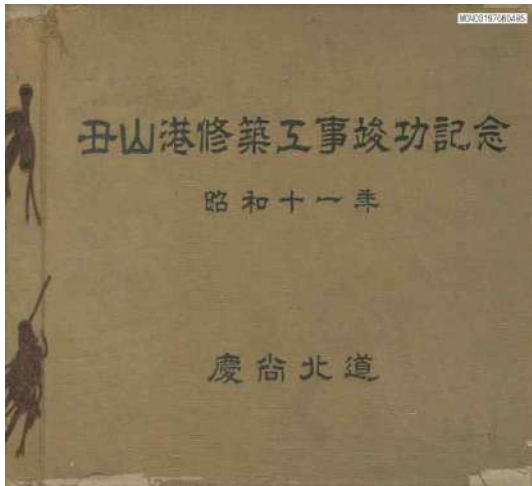
남방파제 머리 부분에는 평균 간조면 상에서 등대 높이 11.25미터의 사각 철탑을 세우고, 청색의 고정 전등 200와트 전구를 설치하였다. 북방파제 머리 부분에도 높이 11.9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원형 기둥을 세우고, 적색 고정 전등 200와트 전구를 설치하였다. 이 등대는 광도가 2해리에 이르며, 남북 등대 모두 전선을 방파제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하여, 전력은 영덕전기회사에서 공급받았다. 남방파제 끝의 철골 등대는 해수의 비산과 파도에 노출되었기에 페인트를 칠했으나 부식이 빨리 진행되었고, 북방파제 끝의 등대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 원형 기둥으로 개선했다.

축산항은 이미 1902년경부터 일본 통어업자들의 기항지로 사용되었으며 연안의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나 선박 항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늘어나는 선박과 인구들로 인해 축산항의 항구로서의 인프라 구축은 더 한층 절실해졌으며 1927년 축산천 제방공사에 이어 1932년부터 본격적으로 방과제 공사가 시행되어 1936년에는 명실상부한 항구로서의 기능을 갖춘 항만시설이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1936년 1월 완공된 축산항 방과제의 설계와 구조, 공사과정, 공사에 투입된 자재, 공사중 태풍의 피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완공된 방과제 위에는 등대가 세워져(남방과제 흰색, 북방과제 적색) 선박 출입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등대에 필요한 전력은 영덕전기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미 축산항에는 전기도 공급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위의 보고서에는 공사 기간 투입된 인력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투입된 인원은 일반인부, 석공, 선장, 잠수부등으로 소화7년 13,431명, 소화8년 36,316명, 소화9,10년 66,053명으로 총 115,800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서 지불된 임금은 총 91,666엔으로 1인당 평균임금은 0.792엔이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일반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2> 일반인부 임금비교, 단위:엔

구분		일본인	조선인	계
소화7년	연인원	347	5,424	5,771
	금액	298.070	2,226.050	2,524.12
	1인당 금액	0.858	0.410	
소화8년	연인원	276	13,809	14,085
	금액	224.990	5,669.44	5,894.43
	1인당 금액	0.815	0.410	
소화9년	연인원		14,494	14,494
	금액		6,234.460	6,234.46
	1인당 금액		0.430	
소화10년	연인원	175	7,924	8,099
	금액	255.570	3,761.680	4,017.25
	1인당 금액	1.460	0.474	
누계	연인원	798	41,651	42,449
	금액	778.630	17,891.630	18,670.26
	1인당 금액	0.975	0.429	

일반 인부는 1932년에서 1935년동안 4년에 걸쳐 총 42,449명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일본인은 798명(2%), 조선인은 41,651명(98%)으로 조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인당 평균임금은 일본인이 0.975엔으로 조선인 0.429엔보다 약 두 배 정도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공민구제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 결과이다.



<그림-23> 축산항수축공사준공기념



<그림-24> 남방파제 공사(1933.7.24)



<그림-25> 남방파제석재채취장(1933.8.19)



<그림-26> 남방파제 공사(1933.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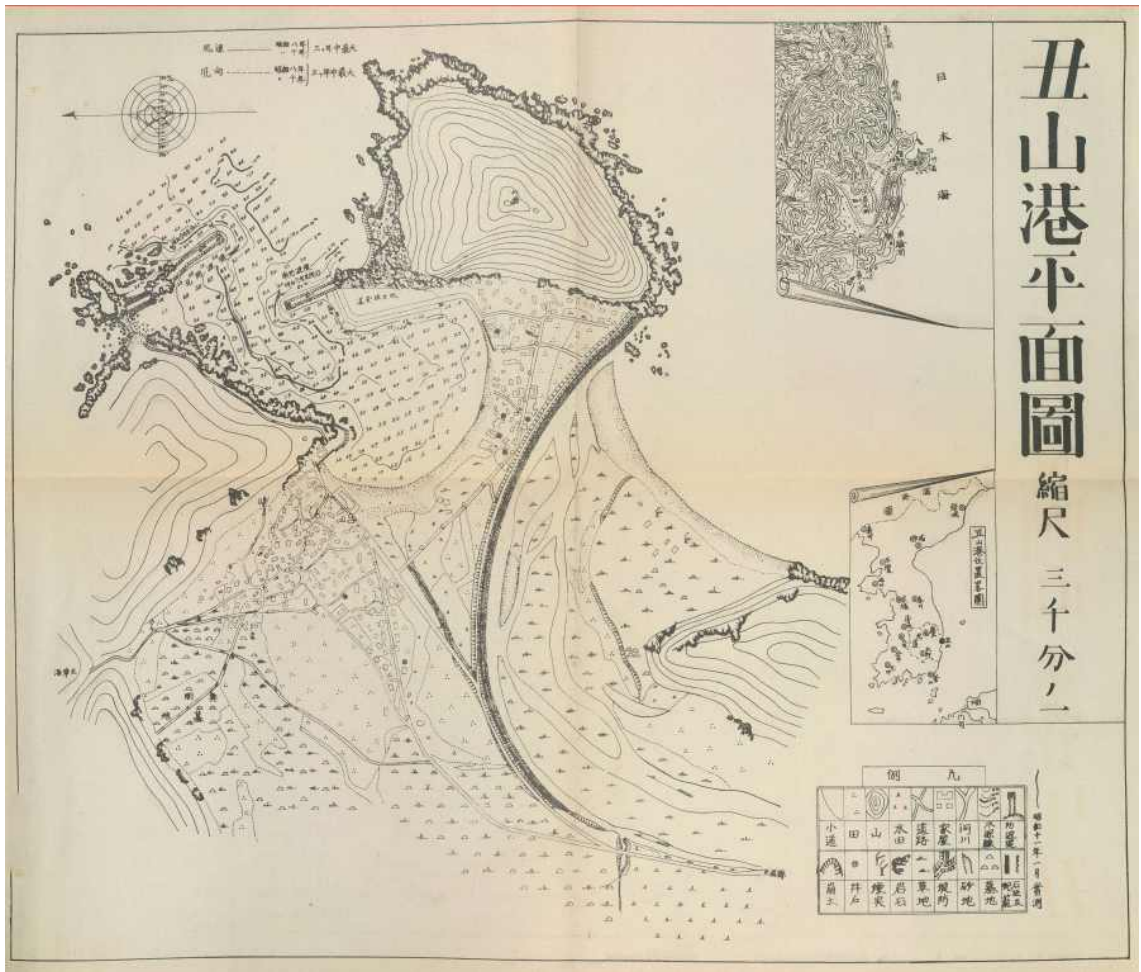
<그림-27> 북방파제 일부준공 (1934.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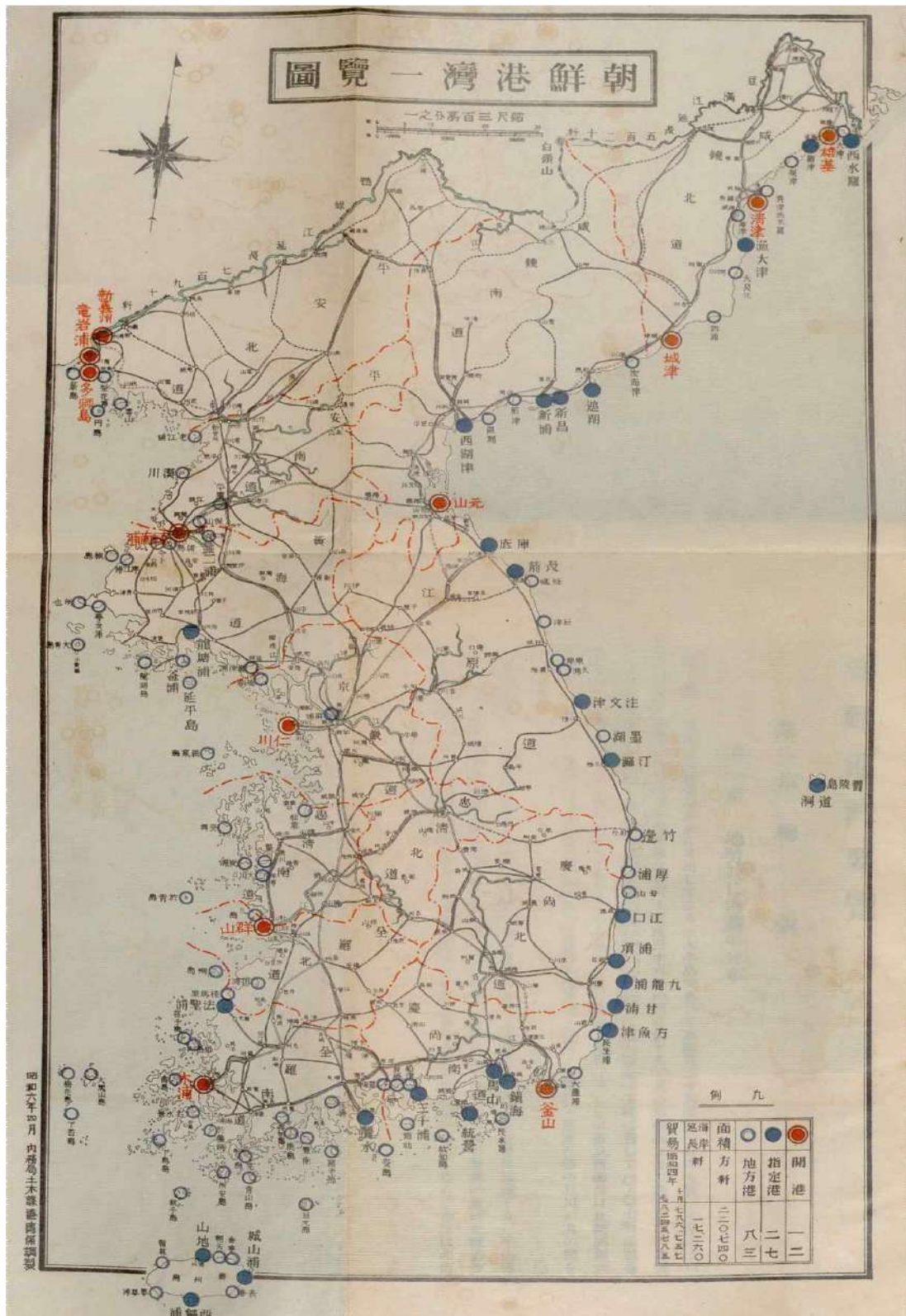
<그림-28> 북방파제 공사(1935.1.25)



<그림-29> 축산항 어선 정박 상황(1935.11.6)



<그림-30> 축산항 수축공사 완료후 소화11년



<그림 31 조선항만일람도, 조선총독부내무국, 『조선항만요람』, 소화6년.>

일본은 1876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1940년 해주항을 마지막으로 지정하기까지 모두 14개 항을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무역항으로 개방했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필요에 의해 조선의 항만을 개항, 지정항, 지방항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는데 개항(開港)은 외국과의 협약으로 상호 통상항으로 지정하여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를 말하며, 지정항(指定港)은 1927년 5월 공포된 '공유수면취체규칙' 제3조에 따라 항만의 축조, 시설관리, 운영 등에 따른 일체의 업무 관련 모든 행정적 조치가 조선 총독의 관장하에 있는 항구를 지칭한다. 지방항(地方港)은 군소항으로 연안의 물자교환이나 여객 교통, 그리고 어항(漁港) 기능을 주로 하는 항을 가리킨다. 위의 항만일람도에 의하면 1931년(소화6년) 개항은 부산, 인천, 원산을 비롯하여 12개, 지정항은 신포, 포항, 강구, 구룡포, 감포, 방어진, 마산, 진해, 통영 등 27개, 지방항은 축산, 죽변, 후포 등 38개가 지정되었다. 축산항은 지방항(1931년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주로 어항으로 동해안 연안지역의 인적·물적인 수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항구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축산항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기록에서 보듯이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인구와 선박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32년부터 실시된 축산항 방파제 공사로 인하여 축산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이 급증하고, 동시에 약유(鰯油)제조공장 등 각종 공장이 세워지게 되어 더욱 양호한 항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구 내부가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호안(護岸)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1935년부터 축산항 유지들은 끊임없이 호안공사를 요구하였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자연의 요항으로서 영해평야 일대의 농산물 적출항이 있음으로 지방민 다년간의 숙망(宿望)으로서 공비 13만원을 투(投)한 방파제는 금년도로서 완료할 예정이나 호안의 설비가 업서 항만이 앓터질 우려가 있음으로 지난 5월 하순에 유지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의 발의로 유지간에 협의한 결과 지원이 약3천원의 부담을 하기로 하고 공비 약7만원으로서 호안공사를 하기로 하여 불원 도 토목부등 당로에 적극적 운동을 개시하리라 한다.⁶³⁾

영덕군의 양항 축산항은 다년간의 숙원이든 축항은 목하 진보중으로서 불원 준공할 것이나 호안공사를 하지 안하면 사력(砂礫)이 문어져서 항만이 앓터질 우려가 만함으로 도저히 일시라도 방치할 수 업다하여 당지의 유지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 수년래(數年來) 이를 절규하여 오든바 전반에도 관계관이 시찰할 때 진정하얏슬 뿐만아니라 금번도 오카자키(岡崎) 지사가 래영 하얏슬 때 구두로 진정하얏는데 불원 적극적 운동을 개시하리라 한다.⁶⁴⁾

63) 「경북의 양항인 축산항 호안요망, 7만원의 공사로 진정」, 『每日申報』, 1935.06.13.,3면.

64) 「영덕군 축산항 호안공사요망」, 『每日申報』, 1935.11.03.,3면.

축산항 방파제는 설치되었으나 호안이 정비되지 않아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토사로부터 항만 호안이 얕아지며 이로 인해 항만의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축산항 유지인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을 중심으로 공사비 70,000원중 3,000원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토목부에 적극 요구하였으며 1935년 11월에는 경상북도 오카자키(岡崎) 지사가 영덕에 시찰왔을때도 구두로 진정하였다. 더불어 호안공사요청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시하였다. 이어 1937년에는 호안공사가 공사비 주민 부담 문제로 중도에 폐지될 뻔한 것을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는 자진하여 10,000원을 회사하여 주변으로부터 청송을 받았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군내 우수한 어항으로 선박출입에 막대한 불편을 느끼게 하든바 다행이 군,면 당국의 노력과 지원주민의 열성이며 본도의 특전으로 축항공사를 다년간 계속하였으나 아직도 계속 공사를 하지 안하면 완전치 못할 것은 사실로서 지원주민의 부담문제로 중도에 폐로 잇든바 당지 특지가 미요시 사타로씨가 자진하여 금일만원을 회사 하얏슴으로 일반은 씨의 특지를 청송불이 한다고 한다.⁶⁵⁾

이러한 축산항 주민들과 기성회의 노력으로 드디어 도비 10만원(한해대책사업비)을 확보하여 1939년 호안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본 군 중앙지대에 잇는 항만으로 동해안에 굴지하는 어항이다. 수산물 육양과 선박출입이 빈번하나 선박출입의 불편과 개선장의 불비로 해항 주민들은 십여년전부터 축산항 축항기성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과 국고보조와 도비와 민간부담으로 수차 축항공사가 잇섯으나 이로서는 아직도 중도에폐에 잇서 동 기성회 및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요망하던중 다행히 인가되어 도비 10만원으로 축항공사를 계속할 터인바 우선 5만3천원으로 준설공사와 호안공사를 불원간 착수할 예정인바 그 중 1할인 5천3백원은 민간부담으로 지방주민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항민들은 흔히 불의한다고 한다.⁶⁶⁾

호안공사 전체 공사비 10만 원 중 먼저 준설공사부터 5만 3천원으로 착공하였으며 그 중 5,300원은 민간의 부담으로 진행하여 1940년에 완공되었다. 한편 1938년 2월 폭풍으로 파손된 북방파제의 수선 공사도 총공사비 4,000원이 투입되어 1940년 10월 16일 시작되어 1941년 3월 31일에 완공되었다. 이상과 같이 축산항 건설(제방, 방파제) 공사는 1927년부터 시작되어 194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축산항 건설 공사의 연표와 지도는 다음과 같다.

65) 「축산항 축항비로 일금 만원회사, 영덕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 특지」, 『조선일보』, 1937.2.8.,4면.

66) 「도비 10원 인가로 축산 축항을 계속, 우선 5만3천원으로 착수」, 『조선일보』, 1939.9.15.,2면.



<그림-32> 축산항 호안공사 후 축산항평면도, 소화17년©국가기록원

<표-34> 축산항 건설 공사 연표

구분	년도	공사내용	공사비	비고
제방 공사	1927.3.~1927.5	축산천 제방공사	5,370원	
	1927.7~1927.8		6,300원	
	~1928.10		9,130원	
방파제 수축공사	1932.10~1934.3	남방파제60미터	30,000엔	시국대응시설사업
		북방파제50미터	42,000엔	
	1934.2.7.~1934.3.31	재해복구공사	8,500엔	1933년 9월 태풍피해
	1934.4~1936.1	북방파제 80미터 연장	90,000엔	2차국민구제사업 1935년1월 폭풍피해
호안공사	1939~1940	항내 호안공사	110,000엔	한해대책사업비
방파제 수선공사	1940.10.16.~1941.3.31	축산항 북방파제 수선공사	4,000엔	1938년 2월 폭랑으로 파손

이 밖에도 축산항 주민들은 제방도로 수축⁶⁷⁾, 주변 배후 도로 개설⁶⁸⁾, 축산항구 내 창고 건축⁶⁹⁾, 동해안선 철도 연장 요구⁷⁰⁾등을 꾸준히 지속하여 축산항 건설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67) 「제방도로수축과 대진축항진정」, 『조선일보』, 1934.10.5.,3면.

68) 「산업도로 불완전」, 『동아일보』, 1934.11.2.,3면.

69) 「7개 어조의 공동시설안, 국고 보조로 어조에서 계획 공비 9,500여원」, 『동아일보』, 1934.1.24.,3면.

70) 「철도연장 등 진정」, 『조선일보』, 1935.6.3.,3면.

Ⅵ. 축산항 사람들

1. 축산항의 주요 인사(人士)

일제강점기 축산항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은 주로 축산어업조합에서 조합장 및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산물가공, 어유(魚油) 제조 공장 등을 운영하였으며 축산항의 인프라 조성 즉 방파제 건설과 호안공사, 배후 도로 건설, 전기가설, 우체국 건립 등에도 기성회를 조직하여 축산항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빈민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학교설립에도 토지와 현금을 기부하는 등 공익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당시 활동한 주요 인사는 축산어업조합의 임원,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에 축산어업조합원 자격으로 수산제품을 출품한 수상자와 임원, 1914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사된 축산동 지적원도에 나타난 토지 소유자 그리고 기타 언론과 신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35> 축산항 관련 주요 인사 명단

구분	직책	성 명	비고
축산 어업 조합 임원	조합장	김정한(金禎漢), 1930.1937년	
		강병조(姜秉朝), 1934	
		요시자와 도요오(芳澤豊男), 1941~1944	
	이사	윤영상(尹永祥), 마쓰나가 긴주(松永銀重),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政行), 아오키 사다모토(靑木廷元)	
감사	한영각(韓永珪), 김정겸(金井謙), 박희상(朴禧相), 김봉주(金奉珠), 송국필(宋國弼), 니시하라 에이카쿠(西原永珪), 다마가와 순센(玉川俊先), 이와모토 고큐(岩本固久), 신모토 카게마사(新本景昌), 금강차학(金岡次學), 노무라 요시코(野村芳子)	1930년 1944년	
경상북 도수산 진흥공 진회	상무위원	강병조(姜秉朝), 이용규(李容奎)	1935년
	위원	다케다야스아키(武田安秋), 김정겸(金井謙), 김형진(金亨鎭), 김재근(金在根), 강괴동(姜塊東), 박식상(朴植相), 김해동(金海東), 김만석(金萬石), 이문석(李文碩), 송국필(宋國弼), 김봉수(金奉洙), 박희상(朴禧相), 한영각(韓永珪), 이병철(李炳喆)	
	사무원	정호륜(鄭壕淪), 장성렬(張星列), 송충석(宋忠錫)	
	찬조원	소노다후쿠마츠(園田福松),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배상봉(裴尙奉)	

	사무회계	오카다 요시오(岡田義雄)-회계,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政行)-서무	
	금패	김삼기(金三棄), 김삼기(金三棄)	
	은패	김재호(金在湖), 강괴동(姜塊東), 김정겸(金井謙), 강월대(姜月代), 미요시사타로(三好佐太郎)	
	동패	배상봉(裴尙奉), 권천이(權千伊), 박일오(朴日畚), 한재익(韓在益), 한영각(韓永珪)	
	포상	이숙이(李淑伊), 송충석(宋忠錫), 배상봉(裴尙奉), 이봉조(李奉周), 다케다야스아키(武田安秋), 정호륜(鄭壕淪), 송충석(宋忠錫), 유복용(劉伏用), 김응준(金應俊), 윤차석(尹且石), 권명출(權明出), 권덕칠, 다케다야스아키(武田安秋), 유복록(劉伏泉), 시바하라덴지(柴原傳次), 송충석(宋忠錫), 이용규(李容奎), 소노다후쿠마츠(園田福松), 권명술(權明述), 한영각(韓永珪), 김수창(金壽昌), 김대석(金大石), 김성진(金成振), 안병민(安炳珉), 정창문(鄭昌文), 정재연(鄭在鉛), 김장학(金長學), 박노숙(朴魯淑), 김정겸(金井謙), 김기동(金奇東), 김차수(金且守)	
축산 약유비 제조조 합	조합장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1940년
	부조합장	김정한(金禎漢)	
	이사	마쓰자카마사유키, 김성구(金聖九), 김장학(金長學), 최성봉(崔聖鳳), 한영각(韓永珪), 윤기준(尹基俊), 신조경(申曹慶), 김귀동(金龜東), 김성두(金斗星), 박노숙(朴魯淑), 김정겸(金井謙), 유준협(劉俊協), 다케다야스아키(武田安秋), 정전화태랑(井田和太郎), 박경창(朴景昌), 홍상식(洪相植), 강중군(姜仲君), 신용학(申龍鶴), 신덴요시지로(新田義次郎), 이익이(李益伊), 박광상(朴光相), 권학선(權學仙), 권기효(權奇曉), 김종하(金鍾夏), 윤영호(尹永昊), 김중효(金鍾曉)	
학교	위산학교	구종명(具鍾鳴, 감독) 김유진(金有鎭, 교장), 박봉필(朴鳳弼, 교감) 홍재기(洪在祺, 찬성장)	1909
	공립 보통학교	회장-박종태(朴鍾泰), 총무-이영교(李英教), 서기-남효의(南孝義)	1933

축산항이 동해안 지역의 어업과 수산업의 중요한 항구였으므로 이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도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1924년 결성된 축산어업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해왔으며 1940년에는 축산약유비제조조합을 조직하여 전시 체제하에서 당면한 군수물자를 생산해 내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구종명(具鍾鳴), 김유진(金有鎭), 박종태(朴鍾泰)등 수산업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공·사립 교육 기관 설립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인사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조선인으로는 김정한(金禎漢), 일본인으로는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다케다야스아키(武田安秋)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펼쳤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김정한(金禎漢, 1894~?)

김정한(金禎漢)은 1630년경 안동에서 양천마을(축산면 축산리 염장마을)로 내려온 신안동 김씨(新安東 金氏) 문중의 후손으로 영해부 양장 출신이다. 이들 안동김씨 문중은 3대에 걸친 효행으로 1867년(고종4년)에 세워진 정효각(旌孝閣)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의 부친인 김창진(金暢鎭·有鎭, 1854-1935) 무역으로 갑부가 되어 부산에 사업체가 있었으며 사헌부 감찰직을 제수받았다. 천석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장에 35칸 호동고택을 1920년대 건립하였다.⁷¹⁾ 또한 1909년 사립 위산학교(爲山學校)의 설립 발기인으로도 참가하여 교장직을 맡았다. 김정한은 천석군 집안으로 일찍이 축산의 부호로 불리웠으며 1925년에는 축산면장을 역임하였으며⁷²⁾ 1927년에는 경상북도의회 평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금회 경상북도평의원 개선에 영덕군에서 새로이 영덕군에서 최고점으로 당선되어 4월 1일 부로 도지사의 명을 받았다. 영덕군 축산면의 부호 김정한씨는 본년(1927) 34세 청년실업가로서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신망이 두텁다. 축산면장 봉직중 지방민을 위해 사비를 투자하여 축산 영덕간 도로 개수했으며 영세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대납하는등 공공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였다. 금회 당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대대적인 어업경영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동차 경영을 하고 있고 이번 韓文洋行 자동차 회사를 합병하여 대주주가 되어 전도유망한 청년 신사로서 위치를 더하고 있다.⁷³⁾

경상북도 평의원 개선에서 새로이 영덕군에서 당선된 김정한은 당시(1927년, 1895년생으로 추정) 34세의 청년 실업가로서 축산면장 재직시 사비를 투자하여 축산-영덕간 도로 개수 공사를 시행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는 세금을 대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여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워 경상북도평의원의 최고점으로 당선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실업가로서 대대적인 어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한문양행(韓文洋行)이라는 자동차 회사까지 합병하여 대주주가 되어 그 전도가 유망한 청년신사(靑年紳士)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청년 경북도평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4년 뒤인 1931년 조선일보에서는 경북도평의원 김정한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

71) 김진현, 『양천세헌록』, 양천세헌록 번역기획편찬위원회, 2020, 부록.

7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직원록 1925년도, <https://db.history.go.kr/modern/jw/level.do>

73) 부산일보 1927.4.2,4면, 경북도평의원 金禎漢약력



<그림-33, 김정한의 경북도평의원 당선 기사, 부산일보 1927년 4월 2일 4면.>

씨는 당년 38세의 장년으로 성격이 온순하여 인정미가 풍부하고 또한 강직하여 사업을 착수함에 철두철미한 특질이 있다. 씨는 백만장자로서 어촌인 축산항에서 모든 사업을 경영한지 십수년에 가진 난관을 조우하였으나 추호의 낙망도 없이 용진하여 불원간 장래에 성공할 것이며 더욱 군내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모범할 중견인물이다. 시는 소시로부터 두뇌가 예민하여 정치적 방면에 주력하며 도의(道議)로 피선되었으며 씨의 면내 활약을 본다면 명예면장을 위시하여 충심갈력(忠心渴力)으로 분투노력을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다.⁷⁴⁾

38세인 그는 성격이 온순하고 인정미가 많고 강직하여 철두철미하고, 백만장자로서 축산항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추호의 실망도 없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성공할 것이다. 또한 군내에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중견사업가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두뇌가 명석하여 경북도 평의원으로 피선되었으며 의원으로서의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축산면을 위해서 명예면장은 물론 충심갈력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정한은 수산물 가공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데 1927년 축산동 83번지에 ‘축산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영덕군 축산항 김정한씨는 현금(現今) 경북도 평의원으로 도내에 유수한 자본가인바 항상(恒常) 기계공장, 공업 기타 생산될 만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매양(每樣) 연구중이든바 작년 추기(秋期)부터 전기(前記) 항내에 관할공장을 설립하였는바 건축(建築)기타(其他) 화비(華備)에 개(開)만원자금을 투하하였으며 또한 해(該)공장에 대한 기계도 거대한 자금을 투하였다는 바 위선(爲先) 해산물로 전복, 해삼, 해(蟹, 게) 기타 고급어류 관할제조를 개시하였다는데 각종 어물의 산출이 만허 원료가 풍(豊)당(當)부(富)시(時)는 매일 백명 인부를 수용한다하며 금후 계획은 육산품으로 제조할 예정인바 장래가 자못 유망하다더라.⁷⁵⁾

현재 경북도의원으로서 이미 유수한 자본가인데 항상 기계와 공장설립에 관심을 가져 오던중 1927년 가을부터 축산항내에 통조림공장을 설립하여 수 만원의 거금을 투자하였

74) 「지방유지의 김정한씨」, 『조선일보』, 1931.9.6.,3면.

75) 「전도유망한 관할공장 김정한씨 설립」, 『조선일보』, 1928.4.8.,5면.

고 공장 기계설비에도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전복, 해삼, 게 등 고급 어종으로 통조림 제조를 시작하였으며 생산 물량이 많아 매일 인부 백여명을 고용하였다. 앞으로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통조림으로 가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 1931년에는 축산동에서 자본금 3,000원을 투자하여 합자회사인 대선상회(大鮮商會)를 설립한다. 해산물 및 곡물류 매매와 근해의 수송을 목적으로한 것인데 수산물 제조업을 넘어 영덕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수산물 등을 연근해로 수송하는 사업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통조림공장과 대선상회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1937년에는 규모를 더욱 확장하여 주식회사 경북합동관힐(慶北合同罐詰)을 설립하여 축산항을 넘어 포항읍 포항동 804번지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250,000원으로 수산물 통조림 제조 및 판매, 수산물 채취 및 가공, 어업자금 대부 등의 사업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 축산동 일대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후 수산물의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통조림 제조업, 연근해 수송업, 어업자금의 대부 등 생산물의 다각화는 물론 대부업과 같은 금융업까지 확장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축산항에서 경북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포항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36> 김정환이 설립한 회사 및 사업목적

회사명	직책	목적	설립일	본점주소	자본금
어업면허 ⁷⁶⁾		어업면허	1920.12.3	축산면 축산동 155	
축산통조림공장 ⁷⁷⁾	대표	각종 통조림 (식료품제조업)	1927~28	축산면 축산동 83	
대선상회 ⁷⁸⁾ (大鮮商會,合資)	대표	해산물 및 곡물류 매매 근해 수송업	1931.11.20	축산면 축산동	3,000원
경북합동관힐(주) (慶北合同罐詰) 79)	대표	수산물 통조림 제조 및 판매 수산물 채취 및 가공 판매 어업 자금의 대부 기타 전항의 사업에 부대하 는 일체의 사업	1937.3.1	포항읍 포항동 804 (이사)中野健太郎 紫原傳次 (감사)龍野二郎 森山茂	250,000원 불입금 77,500원 배당율6%

김정환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축산항의 대표적 생산품인 약유비(鰵油肥)생산에도 관여하여 축산약유비제조조합(丑山鰵油肥製造組合)의 부조합장으로도 활동

76) 조선총독부 관보 제2494호

77) 전국기업체총람(1958년판)

78)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3년판)

79)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41년판)

하며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등과 함께 지역의 번영을 주도했다.⁸⁰⁾ 한편 위와 같은 사업 활동 외에도 축산항의 전기가설에도 1929년부터 노력는데,

영덕전기주식회사는 객년부터 설립되어 영덕읍과 강구항을 위시하여 수천등의 점등고가 실현되며 지방발전이 미급한 영덕으로서는 일 색채를 가하게 된바 해 회사 용도 충실하게 되며, 따라서 업무도 점점 진보중이러는데 영해면 축산항은 수백여호나 되는 시장 어항이요 어항인 바 물화와 교통이 번잡한 곳으로 영해 김순택, 축산 김정한씨의 제씨의 활동으로 영덕읍에서 4리이상의 거리인 해 양지역에 연장토록 운동중이러는바 현금 영해 3백등, 축산 2백등이나 신청까지 되었다는데 이에 따라 명춘경에는 공사에 착수할 듯하다고.⁸¹⁾

영덕읍과 강구항에는 이미 전기가 공급되어 이미 수 천등이 불을 밝히고 있으나 영해면과 축산항은 수백호나 되는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어 영해의 김순택과 축산의 김정한 비롯한 유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중이다. 그 결과 영해에는 300등, 축산에는 200등을 이미 신청을 받았으며 1930년 봄에는 전기 연장 공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1955년에는 영해고등학교 교사 신축비로 대지 50,000평과 공사 자재 백여만원 상당을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다.

당지 축산항(丑山港)에 거주하는 김정한(金禎漢)씨는 가교사에서 수업하고 있는 영해(寧海)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신축비로 대지 오만여평과 백여만원에 달하는 자재를 학교당국에 자진 희사하여 군민을 감격케하였다.⁸²⁾

이러한 축산지역에서 김정한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씨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공공 부문에서도 큰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기술과 지식은 매일 발전하고 있으며,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씨는 축산 어업조합의 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축산에서 함께 활동하는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씨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발전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80) 「地元の繁榮牛耳る 丑山鰯油肥製造組合」, 『부산일보』, 1940.12.7.,4면. 조합장 :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부조합장 김정한(金禎漢), 이사 : 마쓰자카 마사유키(松板正行), 김성구(金聖九), 김장학(金長學), 최성봉(崔聖鳳), 한영각(韓永珪), 윤기준(尹基俊), 신조경(申曹慶), 김귀동(金龜東), 김성두(金斗星), 박노숙(朴魯淑), 김정겸(金井謙), 유준협(劉俊協),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정전화태랑(井田和太郎), 박경창(朴景昌), 홍상식(洪相植), 강중군(姜仲君), 신용학(申龍鶴), 신덴요시지로(新田義次郎), 이익이(李益伊), 박광상(朴光相), 권학선(權學仙), 권기효(權奇曉), 김종하(金鍾夏), 윤영호(尹永昊), 김종효(金鍾曉).

81) 「盈德電氣, 寧海에 延長計劃 明春에는 공사착수」, 『조선일보』, 1929.9.25.,5면.; 「축산항 전등 가설을 계획」, 『조선일보』, 1930.3.22.,3면.; 「영해,축산에 전기가설. 곧 공사착수」, 『조선일보』, 1930.7.2.,7면.

82) 「學校新築地寄贈」, 『경향신문』, 1955.10.4.,3면.



<그림-34, 김정한 사진
연도미상©김일현>

열어가고 있으며, 항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⁸³⁾

지역사회와 공공 부문에서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그의 활약은 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전쟁의 어려움속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축산어업조합장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인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로 함께 축산에서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 1883~?)

일제강점기 조선인 김정한과 더불어 축산항의 대표적 인물로 일본인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883년 일본 에히메현 온천군 구메촌(愛媛縣 温泉郡 久米村)에서 태어났으며 1909년에는 부산에서 곡물사업을 운영했다. 1921년에 축산으로 이주하여 축산, 신포, 주문진 등에서 대규모 어업경영과 관련 공장을 설립하였다. 더불어 경북수산조합 부조합장, 신포유비제조조합장, 축산약유비조합장등을 역임하였으며 청어 어업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37년 5월 17일에는 영덕군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⁸⁴⁾

명치(明治) 16년 4월 26일, 에히메현 온천군 구메촌에서 태어났다. 명치(明治) 42년에는 부산에서 곡물 상업을 운영하였다. 대정(大正) 10년에는 경북 연안 축산으로 이주함. 축산, 함남 신포, 강원 장전동 주문진 등 여러 곳에 공장을 설립하여 대규모로 어업을 경영하였다. 수산업계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쌓은 그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그의 사업은 아침 해가 떠오르듯 상승하고 있으며, 자산도 가속적으로 팽창하여 축산에서 가장 유력한 수산업자로서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의 동정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 경북수산조합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신포 유비 제조 조합장에 취임하여 수산업계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청어 어업에 대한 식견이 깊고 유비 통제에 힘쓰고 있다. 소화(昭和) 5년에는 청어 유비 통제 문제를 제안하여 이 분야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청어 어업에 관한 질문은 미요시 씨에게 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83) 「축산의 중진, 업계의 지도자 김정한」, 『부산일보』, 1940.12.7.,4면.

84) 조선총독부, 『관보』 제3141호, 소화(昭和) 12년 6월 7일.

그는 공사에 대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세로 축산의 항구 건설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제안하고 논의를 촉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당국에 대한 강력한 운동을 벌였다. 2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에 전 생명을 쏟아 노력한 결과,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졌던 항구 건설이 마침내 완공되었다. 그의 업적은 위대한 것이므로 특별히 기록해야 한다. 그의 아들인 요시타로 씨는 도쿄의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시부야 제조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 중이다. 그의 두 딸은 모두 여자 교사 출신으로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현대에서 드물게 보는 재주를 지니고 있다.(현 주소: 경북 영덕군 축산)⁸⁵⁾

어업경영과 유비제조사업을 비롯하여 축산의 항구 건설을 먼저 제안하여 20만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등 축산항 건설에도 많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에 비료 제조·판매와 해산물 매매를 목적으로 영덕군 축산면에 합자회사 삼영조(合資會社 三榮組)를 설립하고 약유비(鰵油肥) 제조 판매에 주력하였다. 1930년에는 약어(鰵魚) 통제 문제를 제창하였다. 경북유비수산조합 부조합장이던 1932년 4월에는 경북의 신흥 수산제조업으로 약유비(鰵油肥)가 아주 중요하며, 그 생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경북의 약유비(鰵油肥)통제'에 대한 언론 대담도 하였다.⁸⁶⁾ 1933년에는 영역을 확장하여 함경남도 신포, 1935년에는 강원도 고성 장전리에도 개설하였다. 1937년에는 영덕군 축산에서 어업 및 어업투자, 약유(鰵油) 제조 및 판매, 이에 대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삼영조 수산개발(三榮組水産開發, 자본금1,000,000원)를 설립하였다. 당초 자본금 100,000원의 삼영조(三榮組,合資)에서 10배 규모로 확대 개편된 셈이다. 약유(鰵油) 제조업에 몸 담은지 10년도 안되는 사이 영덕 축산을 벗어나 조선 약유(鰵油) 제조업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였다.⁸⁷⁾ 다음 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삼영조 수산개발 주식회사(三榮組 水産開發 株式會社)설립에 관한 내용이다.⁸⁸⁾

<표-37> 삼영조 수산개발 주식회사 설립개요

구 분	내 용
상호	삼영조수산개발주식회사(三榮組水産開發株式會社)
본점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88번지
목적	1.어업 및 어업투자 2.유비(油肥)제조 및 판매 3.위에 대한 부대사업
설립년월일	소화(昭和)12년 4월 10일

85) 민중시론사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조선공로자명감』, 소화10년, 570쪽.

86) 「경북의 鰵油肥 통제」, 『조선민보』 1932. 4. 23.

87) 이기복, 「경상북도수산신흥공진회(1935년)와 경북 수산업의 동향」, 『역사와 경계』 73호,

88) 조선총독부, 『관보』, 소화 12년 7월 20일, 3153호.

자본	총액 100만원, 1주 금액 100원, 불입주금액 25원
취체역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82번지 김종원(金鍾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24번지 계능선차랑(戒能善次郎),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88번지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1번지 이달사웅(伊達四雄), 경기도 경성부 원정(元町) 1정목 17번지 판본장태랑(坂本庄太郎), 강원도 통천군(通川) 순령면(順嶺) 하고저리(下庫底) 114번지 금정충태랑(金井忠太郎),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면 문암리 75번지
회사대표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
감사	田邊○,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면 신포리 50번지 일중도광지조(壹中島光之助), 경상남도 부산부 부평정 3정목 19번지
등기	소화12년 4월 20일 등기

한편 그는 축산항의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는 모습을 여럿 보여주었는데 풍수해로 연말을 맞은 궁민들에게 보리쌀 200석 시가 2,000원어치를 영덕군에 기부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영덕군 차원의 궁민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기부는 처음이었다.



<그림-35,
조선공로자명감에 실린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경북 영덕군 축산항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는 여러 가지 지방사업에도 종종 물질적 후원을 만히 하여 오든바 특히 작년도 풍수해로 인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엷는중에 닥쳐오는 구년말을 당한 군내 세궁민에게 단 한끼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새해를 마지하게 하여 달라고 맥미(麥米) 200석 시가 2,000원어치를 영덕군에 의뢰 하였으므로 동군에서는 씨의 특지를 감사하는 동시에 궁민 조사와 분배 방법에 몰두중이라 하며 본 군으로서는 세궁민에 대한 개인 동정은 처음이라고 한다.⁸⁹⁾

뿐만 아니라 축산항 건설 공사시 부상을 당한 일부를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병원까지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하고 치료비 400여원도 부담하고 축산동 자택에서 의식주까지 제공하여 동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원적을 충청북도 단양에 두고 수년전부터 본 군 축산항 축항공사에 와서 인부 노릇하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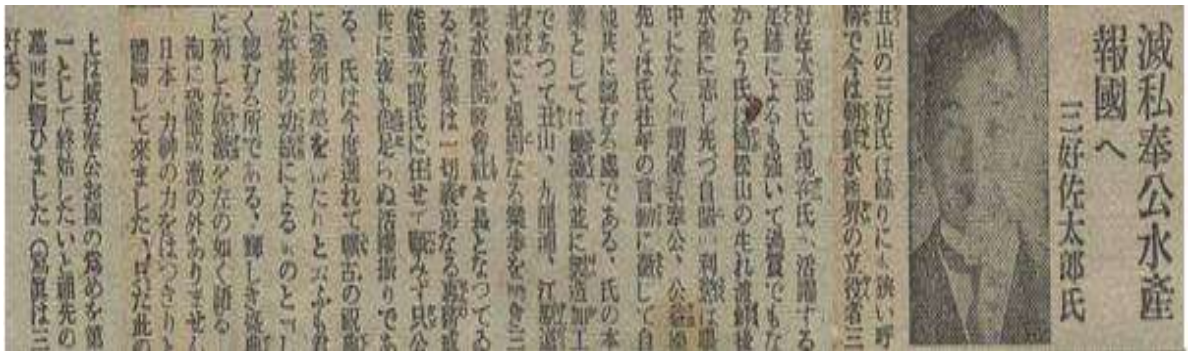
89) 「영덕군민의 활불(活佛) 삼호씨(三好氏) 특지(特志)」, 『조선일보』, 1937.2.7., 2면.

종팔(李宗八,44)은 축항 공사 중지 후 이집 저집에서 일품을 들든중 중상을 입게 되어 외편다리가 절상된바 사고무친하고 수중에 일전도 없는데 엇지할 수 업든바 축산항 어업가 미요시 사타로씨는 자기가 동정하여 함남 신포까지 병원에 인도하여 치료하는중 치료비 4백여원도 자담하였스며 지금도 무의무탁한 부처를 축산동 자택에 두고 의식까지 공급한다고 한야 일반은 씨의 자선심을 칭송한다고 한다.90)

또한 앞서 서술한 축산항 공사에도 자진하여 현금 10,000원을 기부하여 축산항 건설이 계속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구내 우수한 어항으로 선박 출입에 막대한 불편을 늦기게 하든바 다행이 군,면 당국의 노력과 지원주민의 열성이며 본도의 특전으로 축항 공사를 다년간 계속하였으나 아직도 계속 공사를 하지 안하면 완전치 못할 것은 사실로서 지원주민의 부담문제로 중도이 폐로 잇든바 당지 특지가 미요시 사타로씨가 자진하여 금일만원을 회사 하얏슴으로 일반은 씨의 특지를 칭송불이 한다고 한다.91)

이상과 같은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의 활동은 멸사봉공 수산보국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었다. 공공항상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지역 수산업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애써 왔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좁은 환경에서도 한계를 넘어 어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6> 멸사봉공 수산보국의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 부산일보1940.12.7.4면

그의 활동은 조선의 수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의 번영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는 축산항을 주요 항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큰 계획을 추진했으며, 항구의 수심을 깊게 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더 많은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미요시 씨는

90) 「노동중 피해자를 동정한 특지가」, 『조선일보』, 1937.2.22.,3면.

91) 「축산항 축항비로 일금 만원회사, 영덕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 특지」, 『조선일보』, 1937.2.8.,4면.

수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 미요시 씨는 항상 자립을 추구하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 왔다. 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큰 신뢰를 얻고 있다. 미요시 씨는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어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시설, 어유(魚油) 저장 탱크와 같은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미요시 씨는 우산 수산업 조합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의 지도력과 헌신 덕분에 조합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⁹²⁾

4.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1887.9.17.~?)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는 효고현 츠나군 스모토(兵庫縣 津名郡 洲木町)마을 출신으로, 1887년 명치(明治) 20년 9월 17일에 태어났다. 메이지 39년(1906년)에는 조선으로 건너가 진해 요항 사령부에 소속되어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으로 파견되었다. 다케다 씨는 이곳에 거주하며 지역 개발에 전념했다. 당시 러일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1907년(明治 40년) 가을에는 폭도 사건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림-37>

조선공로자명감에 실린
다케다야스아키(武田安秋)

그해 설립된 담성상회에 들어가 큰 활약을 펼쳤고, 이후 독립하여 잡화 상점을 운영하며 청어어업, 어유 및 어비 생산, 정치 어장 등을 경영했다. 이후 조선의 금광 시대가 도래하자, 정부의 장려와 금값의 급등에 힘입어 금광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는 이를 공동 경영 방식으로 개발했다. 1935년 현재 그는 여러 직책을 맡고 있다. 축산위생조합장, 축산해태개량조합장, 번영기성회장, 축항기성회장, 어업조합장, 소방조장, 학교조합의원, 면협의회의원,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 다양한 공직을 맡으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학교조합(1914년부터)과 소방대장으로 10년 이상 재임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07년 명치(明治) 40년부터 보병 제37연대에 입대했으

92) 「減私奉公 水産報國의 三好左太郎」, 『부산일보』, 1940.12.7., 4면.

며, 재향군인회장과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소년 시절에는 고향 스모토에서 학문을 배우며 크게 성장했고, 후일의 성공은 그때의 배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으며, 장남은 오사카에서 근무 중이다.

(현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 11)⁹³⁾

5. 신덴 요시지로(新田義次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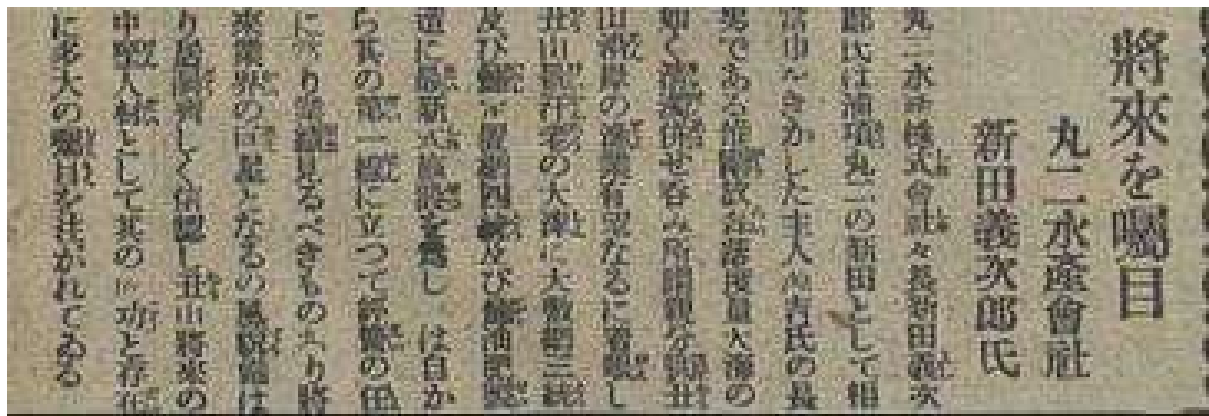
신덴 요시지로(新田義次郎)씨는 수산업 분야에서 장래를 주목받고 있는 인물로,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마루니 수산(丸二水産)"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인 신덴 씨와 함께 수산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큰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신덴 씨는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장차 수산업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의 활약은 고도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며, 우산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지방 산업 발전을 위해 고급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수산물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인 어유(魚油)와 지방산 생산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⁹⁴⁾

신덴 요시지로(新田義次郎)의 주식회사 마루니수산(丸二水産)은 자본금 50,000원으로 1939년 4월 11일 축산면 축산동 14번지에서 설립되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업 및 어업 투자, 수산가공 및 중개업, 유비 제조 및 판매,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 등이다. 이 사로는 武田安秋, 岡田義雄, 川口時成, 감사로는 島貫德松을 두었다.

93) 민중시론사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조선공로자명감』, 昭和10년, 171쪽.

94) 「將來を囑目 丸二水産會社 新田義次郎氏」, 『부산일보』, 1940.12.7., 4면.



<그림-38> 미래의 유망주, 마루니 수산회사 신덴 요시지로 씨
 『부산일보』, 1940.12.7.,4면.

Ⅶ. 축산항의 항로개설과 전기가설, 그리고 학교설립

1. 동해안 연안항로와 축산항

1) 축산항과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

조선 후기 이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선상(船商)이 성장하면서 조선 연안항로는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일본과 중국의 상인들까지 진출해 조선인 항운업자와 치열한 상권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1905년 8월 「한국연해 및 내하 항행 약정」의 체결로 일본인의 조선 연안 및 하천 항로 진출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상권경쟁은 일본인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조선 연안항로 경영은 일본인 항운업자들에 의해 독점되었다.⁹⁵⁾

부산지역의 유력 무역상인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 등 20여 명은 1907년 부산상업회의소 주최로 부산-목포 간 연안 및 도서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기선회사 설립을 계획하는데, 1908년 한남기선주식회사(이후 부산기선주식회사, 釜山汽船株式會社)를 설립, 부산을 기점으로 한 남해안과 동해안 항로를 개설하였다. 원산에서는 1908년 원산상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북한기선주식회사(이후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를 설립하고 원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항로의 경영을 계획하였다. 목포에서는 인천 호리상회(堀商會)의 항로를 양도받은 다케우치 츠루타로(武内鶴太郎)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연안항로를 경영했는데, 1909년 후쿠다 유조(福田有造)가 목포항운합명회사(木浦航運合名會社)를 설립하여 이를 계승하였다. 한편 인천에서도 게이다 리키치(慶田利吉), 가쿠 에이타로(加來榮太郎) 등이 협동하여 한서기선 항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연안항로의 개설과 동시에 정부에 항해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통감부는 그 청원을 받아들여 1911년까지 3년간 부산기선에는 매년 30,000엔, 북한기선의 항로를 양도받은 원산의 요시다 히데지로(吉田秀次郎)에게는 17,000여엔, 목포의 다케우치 등에게는 14,800엔의 항해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⁹⁶⁾ 1908년에는 원산의 합자회사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에게 국폐 30,000엔을 대여하며 부산-웅기간 명령항로를 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조선 명령항로의 시초이다.⁹⁷⁾

요시다 히데지로(吉田秀次郎)가 설립한 합자회사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는 1909년부터 조선 동해안 정기항로의 개발에 힘을 쏟아 한국 정부로부터 부산-웅기, 부산-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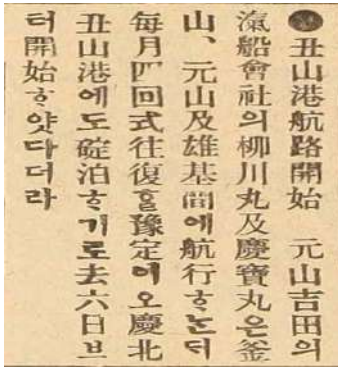
95) 하지영, 「1910년대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연안항로 경영과 지역」, 『역사와 경계』, 2018.12, 191~236쪽.

96)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17.

97) 하지영·최민경역, 조선우선주식회사사편, 『조선우선주식회사25년사』, 2023, 43쪽.

원산-웅기, 서호진-강릉의 명령항로 개시를 허락받았다.

축산항의 정기항로에 관한 기록은 1911년 9월 8일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부산과 원산 및 웅기를 왕복 운항하던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의 유천환(柳川丸) 및 경보환(慶寶丸)이 축산항에도 9월 6일부터 정박하기로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림-39> 축산항 항로개시, 매일신보

축산항 항로개시 원산(元山) 길전(吉田)의 기선회사의 유천환(柳川丸) 및 경보환(慶寶丸)은 부산, 원산 및 웅기(雄基)간에 항행하는데 매월 4회씩 왕복할 예정이요, 경북 축산항에도 정박하기로 지난 6일부터 개시하였다더라⁹⁸⁾

이 기록으로 보아 축산항에는 1911년에 화물과 여객을 운반하는 정기항로의 선박이 기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900년대 초기 일본의 조선 동해안 통어업의 성행으로 축산항이 중요한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1911년말 조선 연안항로 중 동해안을 운항하던 선박회사와 항로는 다음 표와 같다.

<표-41> 1911년 말 조선 연안항로 일람

구역	항로	기항지	횟수	수명자	비고
동 해 안	부산-영일만선	울산-방어진	4/월	釜山汽船株式會社	명령
	부산-웅기선	울산-영일만-축산포-죽변-강릉-양양-간성-장전-삼척-원산-서호진-신포-신창-차호-성진-명천-어대진-독진-청진-이진	20/년	吉田秀次郎	명령
	부산-웅기선	울산-영일만-축산포-죽변-삼척-강릉-양양-간성-장전	3/월	吉田秀次郎	자영
	원산-웅기선	서호진-전진-신포-신창-차호-단천-성진-명천-어대진-독진-청진-이진	36/년	吉田秀次郎	명령
	원산-웅기선	서호진-전진-신포-신창-차호-단천-성진-명천-어대진-독진-청진-이진	3/월	吉田秀次郎	자영
	부산-영일만선	대변-장생포-방어진-감포-구룡포	15/월	釜山商船組回漕部	자영
	부산-울산선	대변-장생포	30/월	釜山汽船株式會社	자영

98) 「축산항로개시」, 『每日申報』, 1911.9.8.2면.

1911년 조선 동해안을 운항하던 항로는 부산-영일만, 부산-웅기, 원산-웅기, 부산-울산 선이며 선박회사로는 부산기선주식회사(釜山汽船株式會社),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 부산상선조회조부(釜山商船組回漕部)이다. 원산에 본점을 둔 요시다선박부는 부산과 울산, 강릉, 신포, 청진과 웅기를 잇는 동해안 전 지역을 아우르는 사실상 유일한 선박회사임을 알 수 있다. 축산항은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 축산-죽변-강릉-양양-간성-장전-삼척-원산-서호진-신포-신창-차호-성진-명천-어대진-독진-청진-이진-웅기에 이르는 부산-웅기선의 중간 기항지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0>요시다히데지로(吉田秀次郎)

© 『조선우선주식회사25년사』

합자회사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를 설립한 요시다 히데지로(吉田秀次郎)는 1872년 1월 23일 구마모토현 아시키타군 사시키쵸[熊本縣 葦北郡 佐敷町]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졸업한 후 1894년 사시키(佐敷)은행(1897년 葦北은행으로 개칭)에 입사하였다.

이때부터 해운업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1897년 인천으로 도항하여 당시 조선 최대의 해운업자로 불리고 있던 호리상회[堀商會]에 들어가 해운업에 종사하기 시작한다. 당시 호리상회는 인천 최상층 자본가인 호리 히사타로[堀久太郎]와 그의 아들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요시다는 1901년 호리상회의 총지배인이 되었고, 호리상회가 1902년 원산에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지배인으로 파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원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 동해안 연안항로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는 우선 부산-원산을 기점으로 하는 정기항로를 개시하였는데, 이것이 동해안 정기항로의 출발이었다. 다음으로 요시다는 블라디보스토크와의 항로를 열었다.

요시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은 것은 러일전쟁 때의 활약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 거류 개인 항운업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신임을 얻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요시다가 몸담고 있던 호리상회는 소유 선박 4척을 징발하여 파견군인이나 귀환 군대의 수송에 종사하였고, 때로는 러시아 함대의 습격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본우선(日本郵船)과 오사카상선회사가 전쟁으로 인해 인천 기항을 기피할 때, 인천항 유력 상인들과 결탁하여 삼륜상회[三ッ輪]를 조직하고 운항이 중단된 항운회사를 대신하여 일본과 조선 간 항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행동은 전쟁을 기회로 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얻고 있던 거대 기선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것이었다. 요시다 역시 호리상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러일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1904년 3월 러시아의 해군이 북선(北鮮)지방으로 남진하여 각 지역의 일본 거류민이 위협에 빠졌을 때 원산 영사의 명을 받아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유 선박 추지포촌(菽之浦丸)을 성진으로 파견하여 200여명의 거류민을 원산으로 피난시켰다. 4월에는 일본 군함이 러시아 함대에게 격침되어 일본군 60여명이 신포에 상륙해 있다는 것을 신포출장소로부터 통지받고 태성환(泰盛丸)으로 이를 수용, 원산으로 인양하였고, 원산 부영사의 의뢰로 소유 선박 행운환(幸運丸)과 일본 군함 상촌(上村)함대와의 연결 통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08년 호리상회가 원산지점을 폐쇄할 때 해운업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과감히 사직하고 독립하여 해운 및 무역업을 겸영하는 요시다상회(吉田商會)를 설립하였다. 이 무렵 요시다는 호리상회의 기선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본을 축적하였다던 것으로 보인다. 호리상회의 기선을 인수한 요시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 연안 항로 개설에 나서 원산을 기점으로 하여 북선 연안의 자영 항로를 열었다.

1909년에는 합자회사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를 설립하여 조선 동해안 정기항로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결국 한국 정부로부터 부산-웅기, 부산-원산, 원산-웅기, 서호진-강릉의 명령항로 개시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개인이 항로를 개시하여 이익을 내는 것은 어려웠다. 거대 기선회사들은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수익이 적은 비 개항장 사이를 왕래하는 연안항로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소항운업자들은 조선 연안항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부족한 수익을 한국정부의 보조를 받아 충당하려고 했다. 이들은, 연안항로의 확장은 ‘산업무역의 발달상 필요한 수단’이지만 도저히 민간 경영자가 독자적으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한국 정부의 보호 장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소항운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1908년 9월부터 한국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인 항운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은 일본의 조선 연안항로 지배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의 ‘개발’상 도로와 철도 건설보다 경비가 적게 드는 연안항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미 통감부가 설치되어 고문정치가 행해지고 있던 상황에 중소항운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한국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다는 1909년부터 3년간 한국정부에게서 연액 약 2만 엔의 보조금과 한국정부 소유의 기선을 무료로 대부하여 총 기선 수 6척으로 부산, 원산을 기점으로 하여 웅기만에 이르는 각 연안항로의 명령 정기항로를 개시하고 화객 집산과 항로 개발을 하였다. 당시 그의 이러한 활동은 부산의 해운업자이자 최대의 거두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와 비견될 정도였다.⁹⁹⁾

2) 축산항과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한국병합 이후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반 시설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조선 연안항로 경영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도 느꼈다. 조선 산업개발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조선의 안정적인 통치라는 정치·군사적 이유와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해운권을 장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민간 항운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영하던 부산기선주식회사(釜山汽船株式會社), 요시다선박부(吉田船舶部), 목포항운합명회사(木浦航運合名會社) 등을 통합해 자본금 300만엔의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이하 조선우선)를 설립하게 되었다. 1912년 4월 1일 명령항로 9개 노선, 자영항로 7개 노선으로 영업을 시작한 조선우선은 조선총독부 ‘수명회사’로서 조선 연안항로를 ‘독점적’으로 경영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산업개발에 필요한 항로를 ‘명령항로’로 지정해 조선우선이 경영하도록 했는데, 명령항로는 1912년 제1기 항해 명령을 시작으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총 19회에 걸쳐 갱신되었다. 이들 항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항해 보조금을 교부해 주어 회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¹⁰⁰⁾

명령항로는 정부가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개설한 항로로,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의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총독부는 그 경영을 조선우선에 일임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우선은 조선총독부 해운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회사’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간의 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였다. 때문에 ‘해운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외에 ‘이윤창출’ 또한 회사를 경영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조선우선이 설립되기 직전인 1911년 조선 연안항로는 통감부 시기 명령항로를 수명한 부산기선 등을 비롯해서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 商船株式會社)의 대리회사인 부산상선조(釜山商船組)와 사와야마기선(澤山汽船) 등 여러 기선회사가 정기항로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단거리 항로로 동해안에 1개 노선, 남해안에 6개 노선, 서해안에 7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었고, 일본우선주식회사(日本郵船株式會社)와 오사카상선 등 본토 기선회사들이 개설한 노선이 19개(경유 노선 포함) 있었다. 조선우선의 설립으로 이들 대부분의 연안항로는 조선우선이 경영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1912년 3월 28일 조선총독부 제1회 항해보조금 명령서가 교부되었다. 조선우선은 부산-웅기선 등 9개 노선의 명령항로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명령기간은 1915년 3월 31일까지

99)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17.

100) 명령항로란 정치·경제상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도록 명령하는 항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항지를 비롯하여 운임, 운항횟수와 선박의 종류와 규모 등을 명령하였고 그 업적을 정기적으로 감독하였다.

만 3년이었으며, 보조금은 3개년 평균 261,991엔이었다. 그해 8월에는 교통·운수상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항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후, 이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조선총독부로 제출했다. 이렇게 해서 제1기 명령기간 동안 조선우선이 경영한 항로는 11개 노선이 되었다.

<표-43> 제1기(1912~1915) 조선우선주식회사 경영 명령항로

구역	항로명	기항지	선박	운항횟수
동 해 안	부산-웅기선	장생포-포항-축산포-죽변-삼척 -강릉-양양-간성-장전-원산- 서호진-신포-성진-청진	800톤급 기선 2척	36/년
	원산-웅기선	서호진-전진-신포-신창-차호- 단천-성진-명천-어대진-독진-청진 -이진	200톤급 기선 2척	72/년
	영일만-울릉도선		50톤급 기선1척	24/년
	부산-방어진선	장생포	100톤급 기선1척	240/년

조선우선의 동해안 항로는 요시다선박부에서 운항하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였는데 부산-웅기 간 동해안 항로에는 수심이 깊고 격랑이 심한 해로 사정상 200톤 이상의 큰 기선을 배치해 화객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도록 했다. 여기서도 축산항은 부산-웅기선의 기항지로서 800톤급의 기선으로 계속 운영되었는데 조선총독부 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 노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노선은 부산을 기점으로 출항하며 월 3회 이상 연 36회 이상 왕복 운항해야 한다. 각 왕복 항해 모두 울산(장생포), 영일만(포항), 축산포, 죽변, 삼척, 강릉, 양양, 간성, 원산, 서호진, 신포, 성진 및 청진에 기항해야 한다. 여객·화물 수송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앞 항목의 기항지 이외에 전진, 신창, 단천, 혹은 명천에 기항할 수 있다.¹⁰¹⁾

따라서 축산항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0톤급의 선박이 월 3회, 년36회 왕복하여 기항하였다. 그리고 조선우선은 개업과 동시에 각 지역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였으며(부산지점, 목포출장소, 원산출장소, 인천대리점) 일본과 조선 각지에 순차적으로 취급점을 설치하였는데 축산항을 비롯하여 총 86개소에 설치하였다. 하객취급점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01) 조선우선주식회사, 『朝鮮郵船株式會社二十五年史』, 1937, 40~60쪽.

<표-44> 1912년 9월말 대리점 및 하객취급점 소재지

국외	일본	후쿠오카현 모지사
국내	경상남도	대변, 울산, 장생포, 방어진, 가덕, 웅천, 행암, 신마산, 구마산, 통영, 삼천포, 선진, 진교, 노량진, 송진포, 봉곡촌, 성포, 당동, 거제부, 장승포, 지세포, 하청면, 구조라
	경상북도	울릉도, 감포, 구룡포, 영일만(포항), 영덕, 축산포
	강원도	죽변, 삼척, 강릉, 양양, 간성, 장전, 통천
	함경남도	영흥, 서호진, 전진, 신포, 신창, 차호, 단천
	함경북도	성진, 명천, 어대진, 독진, 청진, 이진, 웅기
	전라남도	여수, 순천, 벌교, 거문도, 우도, 성산포, 조천, 산지, 추자도, 우수영, 완도, 장흥, 흥양, 나로도, 몽탄포, 사포, 중촌포, 구진포, 영산포, 지도, 법성포
	전라북도	줄포, 군산
	충청남도	갈림만, 안흥, 오천, 어청도
	경기도	강화도
	황해도	해주, 용호도, 웅진, 조포, 구미포, 덕동, 몽금포
	평안남도	진남포

축산항에는 조선우선의 하객취급점이 1912년부터 설치되어 194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25년에는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가 운영하였던 것을 아래의 자료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다.

表 韓名店酒同鮮全……錄附 (192)

道	同	平	竹	臨	三	江	襄	杆	長	庫	同	同	元	同	西	前
酒		海	邊	院	沙	陵	陽	城	箭	底			山		津	津
丸	松	高	同	小	梅	奧	和	夏	株	島	高	株	株	株	弘	池
井	川	橋	同	林	本	田	田	日	式	田	株	式	式	式	中	邊
回	回	回	上	回	回	回	回	出	會	回	會	會	會	會	回	回
酒	酒	酒		酒	酒	酒	酒	店	社	酒	社	社	社	社	店	店
海	同	長	同	方	同	甘	良	九	同	浦	江	益	同	丑	大	寧
雲		生		魚		浦	浦	龍		項	口	德		山	津	海
岩	岡	山	橫	中	龍	楠	浦	中	丸	大	市	立	同	武	同	茂
永	田	中	山	村	綱	井	項	野	二	福	原	花		田		回
酒	回	回	回	回	回	回	開	回	益	回	回	回	上	回	上	酒
店	店	店	店	店	店	店	會	店	店	店	店	店	店	部	部	店
巨	麗	下	講	長	船	三	統	同	馬	龜	鐵	入	同	同	同	釜
文	水	浦	樂	崎	津	千	營		山	馬	海	佐				山
島												村				
濠	謙	土	赤	押	慶	大	統	釜	龜	中	藤	會	會	支	丸	大
原	井	器	川	方	寶	野	營	山	田	島	原	社	社	店	二	池
回	回	回	回	回	豐	回	會	會	回	回	回	式	式	三	九	回
酒	酒	酒	酒	酒	輪	酒	會	社	酒	酒	酒	社	社	九	九	酒
店	店	店	店	店	株	會	社	店	店	店	部	會	會	折	折	店
					式	社						會	會	所	所	店
					會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社							會	會			

<그림-41> 朝鮮及朝鮮人社, 『朝鮮港灣號』, 1925,12.

부산-웅기선은 1912년 개설하여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연안 10여개 장소와 경상북도를 기항하는 항로였다. 1915년에는 웅기-모지선으로 변경하였고 기항지를 더욱 추가하며 연안교역에 진력했다. 1915년 항로를 한신까지 연장했으나 애초부터 조선 동해 연안의 물자소송을 주로 담당한 항로였다. 당초 부산-장생포-포항-축산포-죽변-삼척-강릉-양양-간성-장진-원산-서호진-성진-청진-웅기의 기항지에서 1915년에는 모지, 전진, 신포, 신창, 단천, 명천, 어대진, 독진으로 추가하였으며 1925년에는 간문에서 한신까지 연장하였다. 함경선 개통 이전 함경남도 신포방면을 주산지로 하던 명란은 거의 본 항로를 이용해 수송하였다. 정어리는 대정(大正)말기 무렵부터 조선 동북지역의 구불구불한 500리 해안을 따라 곳곳에서 어획되었는데, 정어리잡이가 갑자기 조선의 중요 산업으로 바뀌면서 어유와 지게미 등 그 생산품은 일약 ‘시대의 총아’로 환영받았다. 조선 동북지역의 생산량은 홋카이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는데, 유비시장(油肥市場)을 단연 압도하게 되었다. 본 항로는 연안의 유비를 수송하느라 평온할 날이 없었다. 일본으로부터 돌아오는 선박들은 어장용 물품을 수송하느라 매우 분주하였다. 현재는 1년 내내 선박을 가득 채우는 데에 곤란함이 없는 상황이다.¹⁰²⁾ 이러한 부산-웅기간 연안항로는 축산항에서 생산되는 유비와 정어리 등의 반출에도 큰 공헌을 했다.

한편 부산-울릉도선은 처음에 영일만-울릉도선으로 개설되었는데, 1912년 개설 명령을 받아 경상북도 포항과 울릉도간을 월 2회 왕복했다. 1915년 부산-울릉도선으로 변경되었고 월3회 연 36회의 횡수로 부산-포항-영덕-영해-죽변을 기항하였다. 그후 월1회가 더 증편되었고 평해, 축산포, 구룡포, 감포, 방어진, 장생포를 임시 기항지로 추가하였다. 즉 축산항에는 1911년부터 부산-웅기간 항로의 선박이 기항하였으며 1915년부터는 부산-울릉도선의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였던 것이다.

본도 동해안 포항 배릉도(盃陵島)간을 왕래하는 우편기선(郵便汽船)은 영덕군 축산항에 종래(從來)로 거시(去時)에는 직과(直過)하고 복선(復船)에만 정박케되야 우편교통의 불편이 많은바 이번 선해항민(般該港民)으로부터 기선회사에 신청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왕복을 불구하고 정박케 되었다더라.¹⁰³⁾

1915년 부산-울릉도선의 임시 기항지로서 축산항은 부산과 울릉도간 편도에만 선박이 정박하였으나 1920년 5월 18일부터는 왕복 선편 모두 정박하게 되었으며, 영해나 영덕을 거치지 않고 축산항과 울릉도를 연결할 수 있어 교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우선 경영으로 일원화된 연안항로는 철도 부설로부터 배제되었던 연안 각

102) 하지영·최민경역, 조선우선주식회사편, 『조선우선주식회사25년사』, 2023, 159~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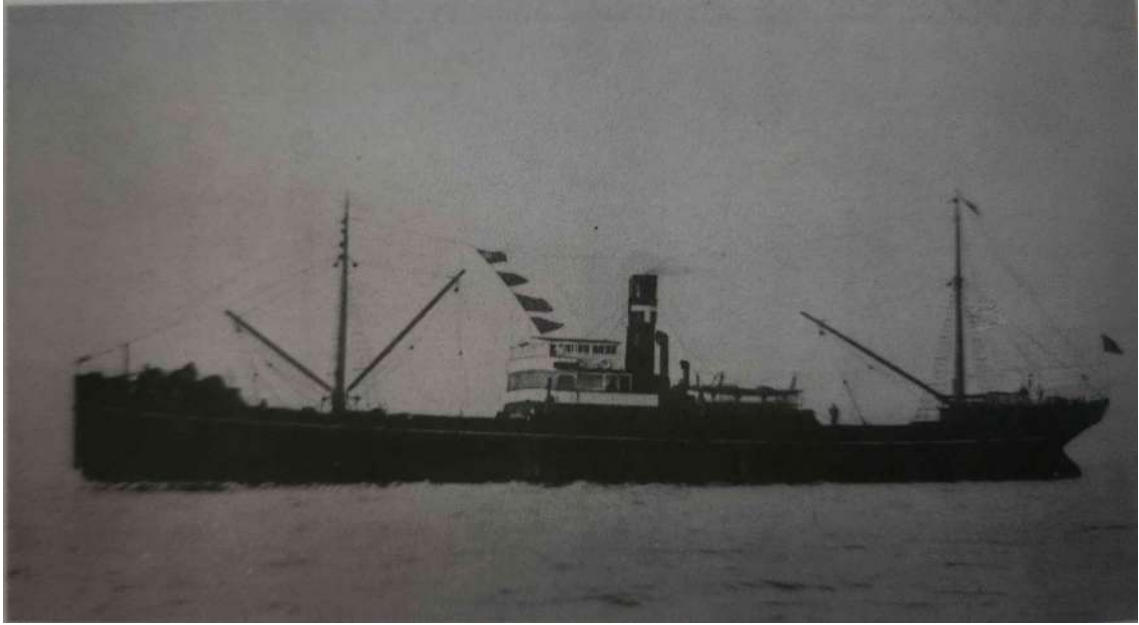
103) 「우선(郵船)과 축산항」, 『每日申報』, 1920.5.26, 4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연안무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표 44>는 조선우선의 주요 수송 화물이다. 조선 최대의 생산물인 쌀을 비롯해서 어류, 식염, 해초 등 연해 곳곳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해산물이 주로 수송되었다. 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산물 중 명태의 경우 주요 수송로인 동해안선이 ‘조선우선의 생명선’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화물이었다. 이러한 해산물은 기존의 육지 교통수단만으로는 수송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연안항로의 정비·확장은 그것의 유통 확대에 크게 기여했는데, 앞서 부산기선 설립 당시 조선해수산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조선우선은 신규 건조할 대형 선박에 선어(鮮魚) 냉장 설비까지 갖추도록 해 연안항로를 통한 해산물 수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외에도 흑연, 규석 등의 지하자원과 철도부설, 도로공사 등에 수반된 건설자재 등이 연안항로를 통해 수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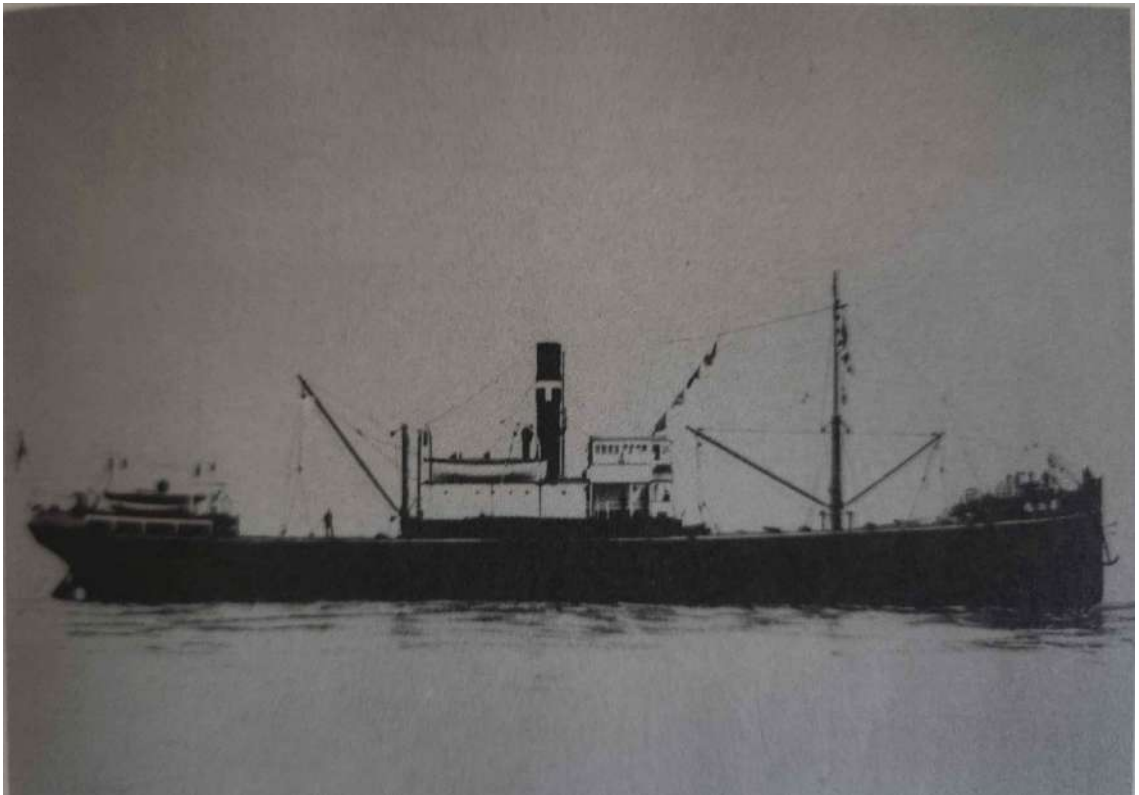
<표-45> 1910년대 조선우선주식회사 항로별 주요 수송화물

항 로	수송화물
부산-웅기 간 동해연안	청어, 명태, 흑연, 건설자재
부산-목포 간 남해연안	쌀, 규석, 鱈(제주도), 잡화
목포-진남포 간 서해연안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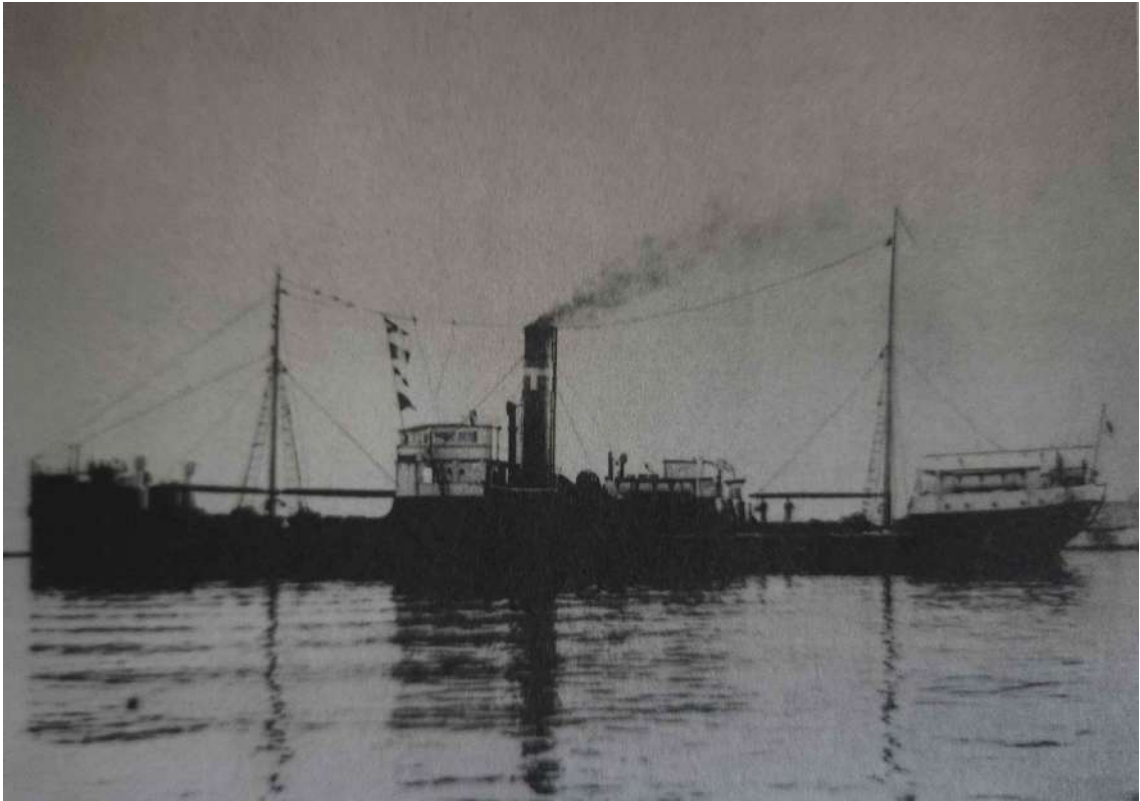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의 연안항로 경영은 ‘조선의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선 철도망과 연결되는 종단항을 중심으로 노선을 편성해 일본-조선-만주로의 연락을 보다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통감부 시기 메가다의 연안항로 경영 구상이 쌀과 해산물의 수송 등 물자의 수탈을 목적으로한 연안 개발이라는 경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수탈과 함께 대륙침략이라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실현 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어야 했고, 이들 선박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만한 규모의 회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림-42> 웅기-오사카선 취항 춘천마루(春川丸), 총톤수 971톤



<그림-43, 웅기-오사카선 취항 영강마루(榮江丸), 총톤수 1,164톤>



<그림-44, 웅기-오사카선 취항 청진마루(清津丸) 총톤수 1,331>

2. 축산항 전기가설

축산항은 제방공사와 방과제 수축 공사 그리고 항만 배후 도로개설 등 항만의 인프라 조성에 지역 유지들은 물론 항내 주민들의 노력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전기의 공급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1928년 영덕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영덕읍과 강구항에는 전기가 공급되어 수천등이 지역 사회와 산업에 이용되고 있었다.

영덕전기주식회사는 객년(客年)부터 설립되어 영덕읍과 강구항을 위시하여 수천등의 점등이 실현되며 지방발전이 미급한 영덕으로서는 일색채를 가하게 된바 그 회사의 ○용도 충실하게 되며, 따라서 업무도 점점 진보중이라는데 영해면 및 축산항은 수 삼백여호나 되는 시장어항이요 어항인바 물화와 교통 번잡한 곳으로서 영해 김순택(金順澤), 축산 김정한(金禎漢)씨의 활동으로 영덕읍에서 4리 이상의 거리인 양 지역에 연장토록 운동중이라는 바 현금 영해 300등, 축산 200등 가량이나 신청까지 되었다는데 이에 따라 명춘경에는 공사에 착수할 듯 하다고.¹⁰⁴⁾

축산항과 영해면 지역은 인구가 수삼백여호나 되고 어업과 수산업으로 물화와 교통이 번잡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영해의 김순택(金順澤), 축산의 김정한(金禎漢)은 영덕읍에서 영해와 축산항까지 전기의 연장공급을 위해 운동하여 미리 영해 300등, 축산 200등의 신청도 미리 받았다. 이에따라 1930년 봄에는 전기공사를 착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리고 1930년 6월 27일~28일 양일간 영덕전기회사 중역총회 및 주주총회에 영해 권태호(權泰鎬)씨와 축산 김정한(金貞漢)씨와 제씨들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전기가설 공사를 제안하였다.

경북 영덕군 강구항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는 축산항 및 영해 양처에 전기를 연장코자 숙제중 이든바 지난 27~8일 양일에 전기회사 중역총회 및 주주총회가 잇섯는 바 마침 영해 권태호(權泰鎬)씨와 축산 김정한(金貞漢)씨와 제씨들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바 영해, 축산 양처에 연장기로 결의되어 불원간 실지측량 공사도 착수하리라는데 임의 영해 3백등 축산 2백등의 신입도 밧엇다는 바 영해, 축산 양처의 주민들은 하로 속히 전등 가설하기를 기대중 이라고 한다.¹⁰⁵⁾

경북 영덕군 강구항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는 축산항 및 영해 양처에 전기를 연장코자 숙제중이든바 지난 27~8일 양일에 전기회사 중역총회 및 주주총회가 잇섯는바 마침 영해 권태호(權泰鎬)

104) 19290925_4_조선일보_영덕전기, 영해에 연장계획 명춘에는 공사착수

105) 19300702_6_조선일보_영해, 축산에 전기가설 곧 공사도 착수

鎬)씨와 축산 김정환(金禎漢)씨외 제씨들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바 영해, 축산 양처에 연장기로 결의되어 불원간 실시측량공사도 착수하리라는데 임의 영해 삼백등 축산 이백등의 신입도 밧엇다는바 영해, 축산 양처의 주민들은 하로속히 전등가설하기를 기대중이라고 한다.¹⁰⁶⁾

이렇듯 영해와 축산지역 주민들은 어장준비와 결망(結網)작업에 전기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되어 기성회를 조직하고 좀더 조직적으로 전기가설에 전력을 다했다.

경북 영덕군 영해와 축산향 양처에 영덕전기주식회사 전기를 연장 점등하라고 운동한다 함은 기보 하엿거니와 전기 양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섭 활동을 거듭하여 경주, 양양간 이등도로변으로 통과키로 예척공사를 마치고 인가 신청할 제 회에 본 군 오묘면과 축산면 일대 해안지대에서 전등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좌기 위원들의 활동으로 이백여 개의 전등 신청도 밧엇고 래11월중에는 점등도 희망한다는바 본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예척공사에 착수아야 동 4일경에 완료하고 5일경에는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인가만 나면 불인간 실시측량과 가설공사에 착수할 터이라하며 일반주민들은 하로밧비 되어 어장준비와 결망(結網)에 필요하다고 하나 11월중에는 점등될지는 알 수 업다고 한다.

기성회 위원 - 회장 김응천(金應千), 위원 노동식(盧東植), 박무길(朴武吉), 안상곤(安尙坤), 손필주(孫弼周), 김병택(金柄澤), 이종악(李鐘樂), 권태오(權泰五), 박종국(朴鐘國), 권중기(權重琪), 김성환(金成煥), 전명조(全命祚), 황세영(黃世英), 신방우(申方友), 김필선(金必先), 김두성(金斗星), 강병조(姜秉朝), 이재영(李在榮)¹⁰⁷⁾

위와같이 1929년부터 축산과 영해 양 지역의 유지 및 주민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1932년 5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6월 중순경에는 준공되어 점등까지 이어졌다.

경북 영덕 강구항에 위치를 둔 영덕 전기주식회사에서는 당지에서 6리 거리인 영해와 축산향 양처에 전기를 연장코저 수년전부터 숙제로 내려오든바 공사인가까지 맞흔후 지금까지 유아하야 두엇든바 지난 5월부터 실지공사에 착수하야 금월 중순경에 준공되어 덤등까지 한다는바 시설이 부족한 지방으로서는 이채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¹⁰⁸⁾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지방으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이채로운 현상이라 기대되며 축산향 축항과 배후도로 건설에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전기공급과 더불어 우편소 설치 운동도 전개되었다.

영덕군 축산향은 군내에서도 우수한 어항일뿐외라 인근 경정동과 그 외 부근 각 동에도 해산물 산출이 풍부하야 전부 축산향에 집중되어 각지로 수출될 뿐외라 본 축산향에만 일백여척

106) 19300703_4_中外日報_영덕전기를 축산,영해에 연장 주민은 실현을 기대
107) 19301007_7_조선일보_영전(盈電)영해(寧海)연장 공사착수, 해안선 지대통과
108) 19320629_4_동아일보_영해에 전등

의 어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각지 시세를 알고저할 때는 영해나 혹은 영덕읍에 와서 알게 되니 이삼리 래왕간에 불편한 점은 물론이어나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세에 상입상 막대한 곤란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당지 유지 김정환씨와 제씨의 주선으로 축산 우편소를 설치하려고 관계당국에 운동한다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체신국에서도 시찰까지 하여갓다는바 인가는 김정환씨 명의로 될듯하다 하며 주민 일반은 금춘에는 꼭 실현을 보겠다고 기대중이라더라.¹⁰⁹⁾

축산항은 인근 해산물이 모여 각지로 수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일 백여척의 어선이 출입하는 곳으로 그 수산물의 시세를 알고자 할 때 인근에 있는 영덕이나 영해에 와서야 알 수 있으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해산물의 시세 특징을 고려할 때 그 불편함이 막대하여 김정환의 주도로 축산우편소 설치 운동이 진행되었다. 체신국에서도 현지 시찰을 마쳤으므로 1930년 봄에는 우편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였다.

3. 축산항의 학교

1900년대 초반 축산항이 동해안 어업의 중요한 항구로 떠오르자 자연히 인구가 늘어나며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그리하여 축산면 지역에는 학교 설립 운동이 있었는데 1909년 위산학교(爲山學校), 1916년 경신학원(景新學院), 1932년 축산공립보통학교 등이다. 그중 사립 위산학교(爲山學校)는 김유진(金有鎭), 박봉필(朴鳳弼), 박영식(朴永植) 등 34명의 발기인이 기본재산 2,000여원(기부금, 출자금)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림-46> 사립 위산학교 발기인 서약서 전문, 『황성신문』, 1909.5.15.,3면.

慶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誓約書全文이 如左凡我同志人 金有鎭 朴鳳弼 朴永植 等 三十四人이 締結誓約曰 現下學校設始가 無處無之인 바 慶北本省으로 言之라도 郡邑이 已皆設立이되 惟我全郡이 長夢을 未醒호야 徒尙舊習에 使青年子弟로 終日向壁而坐호야 誦焉讀

109) 19300111_7_조선일보_축산 우편소 신설계획 금춘엔 신설될 듯

焉에 腦髓가 貫澈치 못호고 思想이 奮揚치 못호야 學問上 效果가 無호 畚 不啻라 身體上 保護도 難호 慮호며 또호 身體가 個人의 身體라도 國家의 關係가 不尠호 卽 雖其一日이라도 余等이 엇지 早自圖成치 아니호리오 이에 財政을 鳩聚호 卽 基本財産 又는 寄付出資金收入總額이 二千圓에 達호니 可謂 完全호 學校라 稱호지라 來頭校況興旺은 惟我三十四人의 雙肩에 擔任이 되고 國家의 振興호 希點은 學徒全般의 雙肩에 專任이 重大호 卽 此에 對호야 義務熱心이 雖 寢食間이라도 豈可少弛乎아 況我賢侯 具鍾鳴氏가 前後訓諭勸勉호신 言이 節節이 感謝호 卽 더러 學校設立호 當地까지 視察호시니 余等이 益益 服膺호야 堅乃志氣호야 爲山學校의 程度가 九仞에 到達호기까지 一心贊成호기 爲호야 誓約書를 成立호노라. 監督 具鍾鳴 校長 金有鎭 校監 朴鳳弼 贊成長 洪在祺¹¹⁰⁾

위 내용은 경북 영해군 남면 축산동 사립 위산학교 발기인 서약서 전문이다.

우리는 동지들 김유진, 박봉필, 박영식 등 총 34명이 함께 서약하여 말하길, 현재 학교 설립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경북 본 도(道)에서도 군과 읍에 이미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오직 우리 군은 아직도 오랜 관습에 젖어 있어 청년 자제들이 종일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학문을 읽고 외우더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발전하지 못하니 학문적으로 얻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보호도 어렵다. 또한 신체는 개인의 것이지만, 국가와의 관계 또한 적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성공을 도모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이에 재정을 모았더니 기본 재산과 기부, 출자금 수입이 2천원에 달하였으니, 이는 완전한 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교의 번영은 우리 34명의 어깨에 달렸고, 국가를 진흥시키려는 희망은 학생 전체의 어깨에 달려 있으니, 이에 대한 의무와 열정은 잠시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 구중명씨께서 앞뒤로 훈계와 권면을 해주시며, 말씀하신 바가 매순간 감사할 뿐더러 학교 설립을 위해 현장을 시찰해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 이를 마음에 새기고 뜻을 굳건히 하여 위산학교가 마침내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찬성하며 이 서약서를 성립한다. 감독:구중명, 교장:김유진, 교감:박봉필, 찬성장:홍재기.

경상북도의 타 군,면에서는 이미 신식 교육기관이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으나 영해군 지역에는 아직 학교가 없어 청년들이 오랜 관습에 젖어 종일 벽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교육의 정도는 미진하였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성장도 지체되기 마련이어서 구중명, 김유진, 박봉필 등 34명의 발기인이 기부금 및 출자금 2,000원으로 사립 위산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감독 구중명(具鍾鳴)은 당시 영해군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찬성장 홍재기(洪在祺)는 영해군청 주사(主事)로 근무하고 있었다.¹¹¹⁾ 김유진(金有鎭, 창진,暢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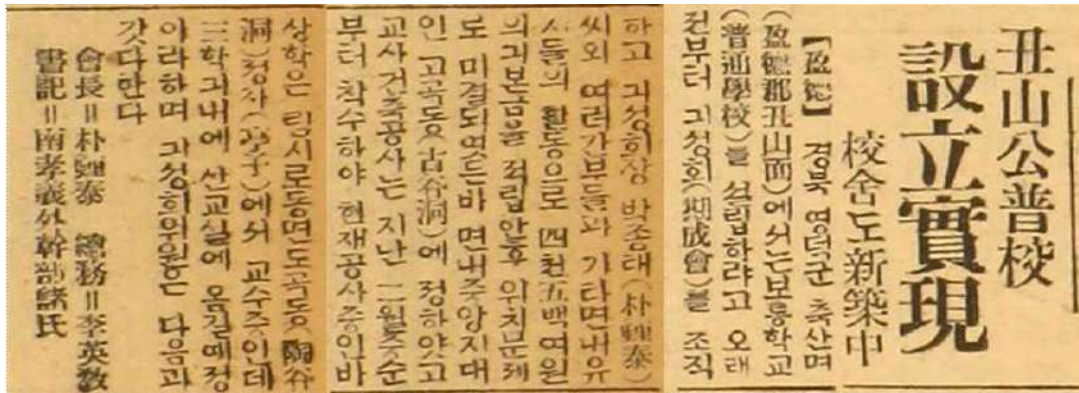
110) 「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9.5.14.,3면.; 「慶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誓約書全文」, 『황성신문』, 1909.5.15.,3면.

11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제국직원록 1909년도, <https://db.history.go.kr/modern/jw/level.do?orga>

은 축산항의 안동김씨 문중의 천석군으로 경북도의회 의원과 축산어업조합장을 역임한 김정환(김정환(金禎漢)의 부친이며, 박봉필(朴鳳弼)은 축산항에서 지예망(地曳網)어업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이는 학교 설립을 위해 영해군청이 앞장서서 지역민들과 힘을 합쳐 청년들의 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립 위산학교(爲山學校)의 이후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워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한편 사립 경신학원은 1916년 8월 3일에 설립되어 1934년 10월 5일 폐원되었으나 1941년 4월 12일 축산공립국민학교 경정분교장으로 다시 개교하였다. 1999년 9월 1일 축산항 초등학교 경정분교장 편입되어 최근 2023년 3월 1일 폐교되었다.¹¹²⁾

이후에도 학교 설립에 대한 축산 주민들의 노력은 계속되어 1932년에 축산공립보통학교, 1944년 축산항국민학교¹¹³⁾를 설립하였다.



<그림-47> 축산 공립보통학교 설립 실현, 『中央日報』, 1933.4.10.,4면.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는 보통학교를 설립하라고 오래전부터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성회장 박종태(朴鍾泰)씨의 여러 간부들과 기타 면내 유지들의 활동으로 4천 5백여원의 기본금을 적립한 후 위치 문제로 미결 되었든바 면내 중앙지대인 고곡동(古谷洞)에 정하였고 교사 건축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인바 상학은 임시로 동면 도곡동(陶谷洞) 정자(亭子)에서 교수중인데 3학기내에 신 교실에 옮길 예정이라 하며 기성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박종태(朴鍾泰), 총무-이영교(李英教), 서기-남효의(南孝義)외 간부 제씨¹¹⁴⁾

nCode=1909-05-028-0233.

11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6%95%EC%82%B0%ED%95%AD%EC%B4%88%EB%93%B1%ED%95%99%EA%B5%90_%EA%B2%BD%EC%A0%95%EB%B6%84%EA%B5%90

113) 축산항국민학교는 1944년 축산리 190번지에서 남학생 28명, 여학생 15명으로 개교하여 1968년에는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운영되고 있다.

114) 「축산 공보교 설립실현, 교사도 신축중」, 『中央日報』, 1933.4.10.,4면.

축산공립보통학교는 1932년 9월 29일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해 11월 23일 축산면 고곡리 207번지에서 4년제 학교로 개교하였다. 학교 설립을 위해 박종태(朴鍾泰)를 회장, 총무에는 이영교(李英敎), 서기에 남효의(南孝義)등의 간부진으로 하는 기성회를 조직하여 4,500여원의 기본금을 적립하였다. 교사 신축전 임시로 도곡동 정자를 이용하였으며, 신축 교사는 면의 중앙지역이 고곡동으로 정하고 1933년 2월 중순부터 착공하였다. 이후 1938년에는 축산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41년 축산공립초등학교, 1996년 축산초등학교, 1999년 영해초등학교 축산분교로 바뀌었다가 2011년 3월 1일 폐교되었다.¹¹⁵⁾

축산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해방이후에도 이어져 1955년 5월 19일에는 공립 영해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당지 축산항(丑山港)에 거주하는 김정한(金禎漢)씨는 가교사에서 수업하고 있는 영해(寧海)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 신축비로 대지 오만여평과 백여만환에 달하는 자재를 학교당국에 자진 희사하여 군민을 감격케하였다.¹¹⁶⁾



<그림-48> 학교신축 대지 기증, 『경향신문』, 1955.10.4.,3면.

당시에는 가교사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 신축을 위해 축산항 김정한(金禎漢)은 대지 50,000여평과 백여만환에 달하는 자재를 기부하였다. 이러한 김정한의 선행은 많은 영덕군민들을 감격케 했다.

11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1%ED%95%B4%EC%B4%88%EB%93%B1%ED%95%99%EA%B5%90_%EC%B6%95%EC%82%B0%EB%B6%84%EA%B5%90

116) 「학교신축 대지 기증」, 『경향신문』, 1955.10.4.,3면.

Ⅷ. 신문 기사로 본 축산항

신문 지상에 처음으로 보이는 축산항에 대한 보도는 1909년 황성신문의 사립 위산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이며 이후로 약 100여 건의 기사가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등에 게재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축산항 수축과 배후 도로 개설 및 축산천 제방공사, 전기가설 등 축산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동해안 지역의 폭풍우로 인한 조난과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였다. 또한 동해안 지역 어업과 수산업 관련하여 정어리와 고등어 등의 어획고와 관련된 기사와 이를 이용한 유품생산관련 기사가 다음을 이었으며 이를 운영한 김정한(金禎漢),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등 축산항의 주요 인물들의 동정도 함께 다루었다.

1. 축산항 기사목록

축산항과 관련한 신문 기사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기록을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1909년부터 1956년까지의 전체 기사 목록과 기사 내용을 제시한다.

<표-46> 축산항 관련 신문기사 목록

발행년도	기 사 명	발행자
19090514_5	경북 영해군 남면 축산동 사립 위산학교 발기인 (慶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	대한매일신보 (국한문)
19090515_5	경북 영해군 남면 축산동 사립 위산학교 발기인 서약서 전문 (慶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誓約書全文)	황성신문
19110908_2	축산항로개시(丑山港航路開始)	每日申報
19190811_3	영덕수해(盈德水害) 후보(後報)	每日申報
19200526_4	우선과 축산항(郵船과 丑山港)	每日申報
19250124_2	폭약폭발로 2명참 사1명 위독	조선일보
19251117_1	축산항소방조발회식(丑山港消防組發會式)	조선일보
19270402_4	경북도평의원 김정한 약력	釜山日報
19270407_4	축산천제방 근본적 개수	釜山日報
19270501_1	영덕경신생원족(盈德景新生遠足)	조선일보
19270720_1	영덕축산항(盈德丑山港) 어업호황(漁業好況)	조선일보

19270816_4	영덕축산(盈德丑山) 제방공사(堤防工事)	조선일보
19280103_6	광고 축산어업조합 이사 운영상	朝鮮新聞
19280408_4	前途有望(전도유망)한 鑛詰工場(관힐공장)	조선일보
19280415_5	千餘町步(천여정보)의 無煙炭鑛(무연탄광)	조선일보
19280720_4	丑山海(축산해)에大鰯群(대약군)	동아일보
19281125_6	慶北盈德郡(경북영덕군) 丑山堤坊竣功(축산제방준공)	조선일보
19281206_5	盈德丑山港(영덕축산항)에 鯖大豐(청대풍)	조선일보
19290802_4	盈德丑山港鯷魚大豐獲(영덕축산항온어대풍획)	조선일보
19290901_4	英寧道路工事(영녕도로공사) 今秋(금추)에 着手(착수)를決議(결의)	조선일보
19290925_4	盈德電氣(영덕전기) 寧海(영해)에延長計劃(연장계획)	조선일보
19291016_3	丑山港近海(축산항근해) 메르치豐獲(풍획)으로	조선일보
19291023_7	영금한 녀편네, 돈을 탐내서 거짓 강간 고소	조선일보
19291213_3	丑山港近海(축산항근해) 메르치豐獲(풍획)	조선일보
19291224_2	東海岸(동해안)의風雪(풍설)로 漁船數十隻遭難(어선수십척조난)	조선일보
19300111_7	丑山郵便所(축산우편소) 新設計劃(신설계획)	조선일보
19300212_3	各地道路測量(각지도로측량)과 江口港浚濬(강구항준설)은	조선일보
19300322_3	丑山港電燈架設(축산항전등가설)을計劃(계획)	조선일보
19300625_6	買上價低落(매상가저락)으로 鯷漁業者總罷(온어업자총파)	조선일보
19300702_6	寧海(영해),丑山(축산)에 電氣架設(전기가설)	조선일보
19300703_4	영덕전기를 축산,영해에 연장 주민은 실현을 기대	中外日報
19300716_6	寧英間道路測量(영영간도로측량)	조선일보
19300829_4	축산어업조합 이사 윤씨 권고사직	中外日報
19300830_6	烏保面電燈(오보면전등) 架設期成會組織(가설기성회조직)	조선일보
19300908_4	丑山釀造場(축산양조장) 個人經經反對(개인경경반대)	조선일보
19300912_4	축산어업조합 지정인가신청	中外日報
19301007_7	盈電寧海延長(영전영해연장) 工事着手(공사착수) 해안선지대통과	조선일보
19310113_9	축산항[丑山港] 어선 조난 ; 동해안의 폭풍	釜山日報
19310123_9	축산항[丑山港]소방조 신년 소방 의식[出初式] 17일 거행	釜山日報
19310408_2	축산항 수축[修築]과 배면도로 개수	釜山日報
19310906_3	嶺東(영동)에關門(관문)이요 產業中心(산업중심)의盈德郡(영덕군)	조선일보
19310906_3	地方有志(지방유지)의,, 김정한	조선일보
19310906_7	축산방면 멸치 풍어 8월중 2만원	釜山日報
19320519_7	이달 내무부장에게 축산축항의 진정, 삼호기성회고문	釜山日報

19320629_4	寧海(영해)에電燈(전등)	동아일보
19320713_4	축산축항 진정위원 3명래구	釜山日報
19320716_9	남겨진 축산의 축항, 번영회부터 시설 진정	釜山日報
19321111_3	축산항 확축공사지 진제[鎮祭][포항]	釜山日報
19321117_6	축산으로 부터	釜山日報
19330306_4	축산항 축항공사 제1기준공	中央日報
19330410_4	축산 공보교 설립현실 교사도 신축중	中央日報
19330722_4	축산의 수산제품검사 매우양호, 거래도 원활	釜山日報
19330904_3	盈德丑山漁組海苔増殖計劃(영덕축산어조해태증식계획)	조선일보
19330910_3	丑山(축산),陶谷間道路(도곡간도로) 開拓工事着手(개척공사착수)	조선일보
19331008_3	遠洋漁業時代(원양어업시대)!	동아일보
19331024_1	漁船廿餘隻遭難(어선이십여척조난) 百十一名生死不明(백십일명 생사불명)	동아일보
19331025_1	橫說豎說(횡설수설)	동아일보
19331025_2	慶北沿海(경북연해)에暴風猛襲(폭풍맹습)	조선일보
19331025_2	狂濤東海來襲(광도동해내습) 漁船廿餘隻遭難(어선입여척조난)	동아일보
19331025_2	丑山港遭難船(축산항조난선) 全部無事歸還(전부무사귀환)	동아일보
19331025_2	甘浦(감포),浦項(포항)서도遭難(조난) 丑山十六隻歸還(축산십육척귀환)	동아일보
19331025_2	出漁中の 漁夫遭難 百十一名 生死不明 : 慶北盈德郡丑山港近海에서 警備船出動搜索中	朝鮮中央日報
19340105_3	축산[丑山]항에 운수 교통 실현	釜山日報
19340119_3	慶北三漁港修築(경북삼어항수축)	동아일보
19340124_3	七個漁組(칠개어조)의 共同施設案(공동시설안)	동아일보
19340416_3	丑山港防波堤(축산항방파제) 不遠(불원)에着工(착공)	동아일보
19340706_4	盈德郡內漁組(영덕군내어조)의 鱒油(약유)와粕豐富(박풍부)	조선일보
19341005_3	堤防道路修築(제방도로수축)과 大津築港陳情(대진축항진정)	조선일보
19341102_3	産業道路不完全(산업도로불완전)	동아일보
19341219_4	조난선 속출 위험하기 그지 없는 축산항[丑山港] 축항기석 투입으로 항로 위험	釜山日報
19350517_5	慶尙北道, 本格的となつた沿岸鱒漁業, 丑山港以北大群回游	朝鮮新聞
19350530_3	丑山港沖で鱒の大漁, 油肥工業多忙	朝鮮新聞
19350603_3	鐵道延長等陳情(철도연장등진정)	조선일보
19350607_6	盈德郡各漁組(영덕군각어조)	조선일보
19350613_3	慶北의 良港인 丑山港護岸要望 : 七萬圓의 工事に 陳情	每日申報

19350629_5	非常水災警備(비상수재경비)코저 慶北(경북)에도防水團(방수단)	동아일보
19350804_4	慶北(경북)의 水産業(수산업) (一(일))	동아일보
19350808_4	경북의 수산업 (삼)	동아일보
19350817_4	慶北(경북)의 水産業(수산업) (終(종))	동아일보
19351103_3	盈德郡丑山港 護岸工事要望	每日申報
19351217_5	鱒油肥統制(약유비통제)의 巡廻座談會(순회좌담회)	동아일보
19360507_8	慶北水産概況(경북수산개황)	동아일보
19360701_3	窮民救濟砂防(궁민구제사방)과 築港等(축항등)을陳情(진정)	조선일보
19360905_4	축산방면의 폭풍우피해, 해면의 유목과 사체	釜山日報
19361116_4	知事巡視(지사순시)를機會(기회) 築港(축항),鐵道等陳情(철도등진정)	조선일보
19361202_3	矢繼ぎ早に南下する鱒の大群に待機, 丑山港の試漁船にも凱歌, 今年は海の當り年	京城日報
19361205_4	鱒漸次南下(온점차남하)	조선일보
19361222_5	축산방면 멀치 대어업, 공장활기떡어	釜山日報
19370207_2	盈德郡民(영덕군민)의活佛(활불) 三好氏(삼호씨)의特志(특지)	조선일보
19370208_4	丑山港築港費(축산항축항비)로 一金萬圓喜捨(일김만원희사)	조선일보
19370222_3	勞働中被害者(노동중피해자)를 同情(동정)한特志家(특지가)	조선일보
19370317_5	축산항을 탄생시킨 아버지! 남자답고 용감한 삼호[三好]씨, 사회로 보내는 여러 가지 미담	釜山日報
19370817_3	遷至(답지)하는國防獻金(국방헌금)	조선일보
19371118_4	祭祀費(제사비)를節約獻金(절약헌금)	조선일보
19380127_6	盈德近海鱒漁獲(영덕근해온어획)	동아일보
19380205_8	축산약유비조합 총회	朝鮮新聞
19380226_10	전시하의 경북(영덕군), 축산어업조합 광고, 김정한, 오카다 요시오	朝鮮新聞
19380308_4	대망한 우편소 축산에서 곧 개점, 환희의 주민에게 조속히 이용되다	釜山日報
19380504_6	盈德水産製造高(영덕수산제조고) 昨年中百數十萬圓超過(작년중백수십만원초과)	조선일보
19381025_7	發動船一隻破船(발동선일척파선) 船員一名(선원일명)은溺死(익사)	조선일보
19390622_4	수산검사소 축산에 신축	釜山日報
19390702_31	광고, 祝創刊, 盈德郡丑山港 慶北道會議員 三好佐太郎, 丑山面協議員 金禎漢	每日新報
19390913_6	축산항[丑山港] 수축에 10만원을 투입하여 2년간 실시(대구)	釜山日報
19390915_2	道費十萬圓認可(도비십만원인가)로 丑山築港(축산축항)을繼續(계속)	조선일보
19390927_4	한해 사업은 감포 축산 두 항, 중대 장래성을 보다	釜山日報

19390930_4	甘浦, 丑山港改修 九龍浦項工事は中止	每日新報
19391001_3	砂防(사방), 林道(임도), 港灣(항만), 河川等(하천등) 救濟工事續續實施(구제공사속속실시)	동아일보
19401207_4	축산의 증진, 어업조합, 미요시 사타로, 김정한, 신덴요시지로(환이수산)	釜山日報
19480716_2	광고 축산어업조합 이사장 김정한	水産經濟新聞
19480729_2	광고 축산어업조합 조합장 김정한 이사 홍재석	水産經濟新聞
19481027_1	광고 축산어업조합, 축산어업조합 중매인조합	水産經濟新聞
19490126_2	發動機船(발동기선)이遭難(조난)	조선일보
19490219_1	광고 축산어업조합	水産經濟新聞
19490518_2	광고 축산어업조합 이사 홍재석	水産經濟新聞
19490922_1	광고, 盈德, 丑山港國民學校	嶺南日報
19491014_2	今冬漁獲期待, 活氣찬丑山港	民主衆報
19551004_3	學校新築地寄贈(학교신축대지기증)	경향신문
19560602_3	탄피 2통 압수	동아일보
19570626_2	風浪(풍랑)만나漂流(표류) 三日(삼일)만에歸港(귀항)	조선일보
19590212_4	게는 東海岸(동해안)서 第一(제일)	조선일보

2. 축산항 관련 신문기사 내용

19090514_5_대한매일신보(국한문)_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

190515_5_황성신문_慶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誓約書全文이

慶北寧海郡南面丑山洞私立爲山學校發起人誓約書全文이 如左凡我同志人 金有鎭 朴鳳弼 朴永植 等 三十四人이 締結誓約曰 現下學校設始가 無處無之인 바 慶北本省으로 言之라도 郡邑이 已皆設立이되 惟我全郡이 長夢을 未醒호야 徒尙舊習에 使青年子弟로 終日向壁而坐호야 誦焉讀焉에 腦髓가 貫澈치 못호고 思想이 奮揚치 못호야 學問上效果가 無호 卽 不啻라 身體上保護도 難호가 慮호며 또호 身體가 個人的 身體라도 國家의 關係가 不尠호 卽 雖其一日이라도 余等이 엇지 早自圖成치 아니호리오 이에 財政을 鳩聚호 卽 基本財産 又는 寄付出資金收入總額이 二千圓에 達호니 可謂 完全호 學校라 稱호지라 來頭校況興旺은 惟我三十四人의 雙肩에 擔任이 되고 國家의 振興호 希點은 學徒全般의 雙肩에 專任이 重大호 卽 此에 對호야 義務熱心이 雖寢食間이라도 豈可少弛乎아 況我賢侯 具鍾鳴氏가 前後訓諭勸勉호신 言이 節節이 感謝호 卽 學校設立호 當地까지 視察호시니 余等이 益益 服膺호야 堅乃志氣호야 爲山學校의 程度가 九仞에 到達호기까지 一心贊成호기 爲호야 誓約書를 成立호노라 監督 具鍾鳴 校長 金有鎭 校監 朴鳳弼 贊成長 洪在祺

경북 영해군 남면 축산동 사립 위산학교 발기인 서약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동지들 김유진, 박봉필, 박영식 등 총 34명이 함께 서약하여 말하길, 현재 학교 설립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경북 본 도(道)에서도 군과 읍에 이미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오직 우리 군은 아직도 오랜 관습에 젖어 있어 청년 자제들이 종일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학문을 읽고 외우더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발전하지 못하니 학문적으로 얻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보호도 어렵다.

또한 신체는 개인의 것이지만, 국가와의 관계 또한 적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성공을 도모하지 않으면 어찌 하겠는가? 이에 재정을 모았더니 기본 재산과 기부, 출자금 수입이 2천 원에 달하였으니, 이는 완전한 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교의 번영은 우리 34명의 어깨에 달렸고, 국가를 진흥시키려는 희망은 학생 전체의 어깨에 달려 있으니, 이에 대한 의무와 열정은 잠시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 현호 구종명 씨께서 앞뒤로 훈계와 권면을 해주시며, 말씀하신 바가 때

순간 감사할 뿐더러 학교설립을 위해 현장을 시찰해주셨으니, 우리는 더욱 이를 마음에 새기고 뜻을 굳건히 하여 위산학교가 마침내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찬성하며 이 서약서를 성립한다. 감독: 구중명, 교장: 김유진, 교감: 박봉필, 찬성장: 홍재기

19110908_2_每日申報_축산항로개시

원산(元山) 길전(吉田)의 기선회사의 유천환(柳川丸) 및 경보환(慶寶丸)은 부산, 원산 및 웅기(雄基)간에 항행하는데 매월 4회씩 왕복할 예정이요, 경북 축산항에도 정박하기로 지난 6일부터 개시하였다더라.

19190811_3_每日申報_영덕수해(盈德水害) 후보(後報)

가옥 던디가 결단 나고 이축까지 사상이 낫서

경북 영덕군의 지난번 수해는 근래에 적은 수해인데 칠일 오전까지 판명된 손해는 병곡면에는 아조 무너진 집이 일곱, 반쯤 무너진 집이 다섯이요 떠나간 집이 열 집이나 되었고, 창수원(倉水院)에는 유실 가옥이 둘, 반쯤 무너진 집이 넷이요, 축산면에는 전괴된 담이 이십육, 파묻친 논 이십 정보요, 각산면에는 빠져죽은 자가 하나, 유실 가옥이 하나, 파묻친 논이 오십 정보라더라.

19200526_4_每日申報_우선(郵船)과 축산항(지방통신판)

본도 동해안 포항 배릉도(盃陵島)간을 왕래하는 우편기선은 영덕군 축산항에 종래(從來)로 거시(去時)에는 직과(直過)하고 복선(復船)에만 정박케 되어 우편 교통의 불편이 많은바 이번 선해항민(般該港民)으로부터 기선회사에 신청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왕복을 불구하고 정박케되었다더라.

19250124_2_조선일보_폭약폭발로 2명참사 1명위독

다이나마이트를 어디 가지고 불에다 말리다가 터지는통에 지난 18일에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 사는 박경수(朴景洙)라는 사람은 수침된 다이나마이트를 주어가지고 무엇인지 몰라서 이웃집 아궁이 불에 말리다가 돌연히 폭발되야 그 옆해 잇든 두 사람은 참혹히 즉사하고 박경수는 중상을 당하야 방금 치료를 받는 중인데 생명이 대단히 위독하다더라.

19251117_1_조선일보_축산항 소방조 발회식(消防組 發會式)

축산항 소방조 발회식, 영덕군 축산항은 동해안 우수한 어항인데 현금인즉 내외 인간 다수 거주지로서 소방조합이 없어서 일반은 매양 견총(遣摠)으로 생각하든바 금번에 유지의 발기로 소방조합을 설치하여 지난 10일에 발회식을 거행하였다고

19270402_4_부산일보_경북도평의원 金貞漢약력

금회 경상북도평의원 개선에 영덕군에서 새로이 영덕군에서 최고점으로 당선되어 4월 1일부로 도지사의 명을 받았다. 영덕군 축산면의 부호 김정환씨는 본년(1927) 34세 청년 실업가로서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신망이 두텁다. 축산면장 봉직중 지방민을 위해 사비를 투자하여 축산 영덕간 도로 개수했으며 영세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대납하는 등 공공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였다.

금회 당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대대적인 어업경영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동차 경영을 하고 있고 이번 한문양행(韓文洋行) 자동차 회사를 합병하여 대주주가 되어 전도유망한 청년신사로서 위치를 더하고 있다.

19270501_1_조선일보_영덕 경신생(景新生) 원족(遠足)

영덕군 경정동 경신학교생도(盈德郡 景汀洞 景新學校 生徒)들은 해교선생인솔하(該校 先生引率下)에 지난 19일 천진(天津), 축산항구(丑山港口) 및 해안(海岸)을 관광(觀光)하고 귀교.



<그림-49> 1924년 경신학원©영덕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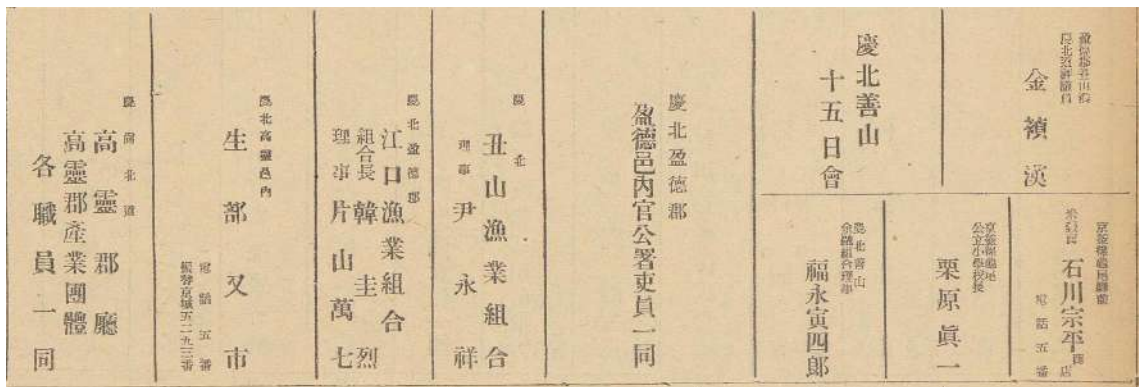
19270720_1_조선일보_영덕 축산항 어업호황, 일수입 수천원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수백여호(數百餘戶)의 대촌(大村)으로 선박 출입과 어획목입(漁獲收入)이 부절(不絶)하는 군내 유수한 어항인바 근일에는 고등어와 정어리의 산출이 과다하여 어선 백여척과 발동선 수십여척씩 매일 출어 하여 그 산액은 매일 평균 수천여원에 달한다는데 어업경기는 과(頗)히 대 호황이라더라.

19270816_4_조선일보_영덕 축산 제방공사 1기, 2기는 준공

영덕 축산항은 군내 제2위를 점하는 어항이며 따라서 선박이 빈번히 출입하는 항구로 수백여호에 다수한 인구의 거주지인바 수년 전 홍수시에는 번번이 홍수가 전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동중(洞中)을 관통하여 가옥 인명의 피해가 잇섯스며 금후에도 홍수만 진다면 위험성이 만튼바 군면당국과 축산동민은 피해를 방지키 위하여 본도 지방비 및 동민지원금으로 축산 방천(防川)공사(工事)를 행하여 1,2기는 준공하였다는데, 1기는 3월24일에 착수 하여 5월경에 준공한바 3천원은 지방비보조 2,370원은 동민지원금이며, 2기는 7월초에 착수 하여 동회간에 준공한바 지방비보조가 4천원, 동민지원금이 2,300원이오, 3기는 본도 지방비 예산 관계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이라더라.

19280103_6_朝鮮新聞_(광고) 근하신년_축산어업조합 이사 윤영상(尹永祥), 영덕군축산항 경북도평의원 김정한(金禎漢),



<그림-50>조선신문 근하신년 광고

19280408_4_조선일보_전도유망(前途有望)한 관힐공장(罐詰工場) 김정한(金禎漢)씨 설립

영덕군 축산항 김정한씨는 현금 경상북도 評議員으로 도내 우수한 자본가인바 항상 기계공장, 공업, 기타 생산될만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매양 연구중이든바 작년 추기(秋期)부터 전기 항내에 관힐공장을 설립하였는바 건축 기타 화비(華備)에 개만원(開萬圓)자금을 투하얏스며 그 공장에 대한 기계도 거대한 자금을 투하엿다는바 위선 해산물로 전복, 해삼, 게 기타 고급어류 관힐제조를 개시 하였다는데 각종 어물의 산출이 만허 원료가 풍당부시(豐當富時)는 매일 백명 인부를 수용한다하며 금후 계획은 육산품으로 제조할 예정인바 장래가 자못 유망하다더라.

19280415_5_조선일보_ 천연정보의 무연탄광 영덕 범물산에서 새로 발견했다.

경북 영덕군으로부터 강원도 삼척군까지의 해안지대에 금,은,동,철,석탄, 무연탄등 광물이 적지안케 잠재하여 잇다함은 두보 한 바와 갓거니와 금번 영덕군 축산항(丑山港)부근 경덕동 범물산(景汀洞 凡勿山)에서도 무연탄광(無煙炭礦)이 발견되었는바 발견자는 日人 퇴호갑일(瀨戶甲一)이라하며 토지 소유자는 경정동 박준상(朴俊相), 전길용(全吉用), 이선영(李先榮), 이출이(李出伊) 네 사람이라는 바 기사가 실지로 조사한 결과 무연무취로 품질이 극히 우량하며 분량도 천연정보나 된다는데 총독부 인가를 얻는대로 즉시 분월 중순경에 개광할 예정이라더라.

19280720_4_동아일보_丑山海에大鰯群(대약군) 每日 漁獲高(매일 어획고)가 五千箱(오천상)

경북 동해안 영덕군 축산항을 중심으로한 부근 일대의 바다 가운데에는 "멜"의 떼가 들이밀어 멜치 대풍의 호황이라는데 목하 동지의 중 어선은 백오십척 매일 평균 5천상(일상 4~5백미)인데 매상 80내지 1원5전의 시가로 비료제조용에 공급된다더라.

19281125_6_조선일보_경북 영덕군 축산 제방 준공

차후론 여하한 대홍수에도 범람할 염려는업게 되었다,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고래로 군내 우수한 어항일뿐아니라 현재도 수백여호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촌으로 해산물이 풍부하여 매일 백여척의 선박이 출입하여 장래 발전될 여망도 많다만 우려되는 것은 중앙을 관통하는 대천이 있어서 하시든지 대수만 지면 주민과 선박에까지 불안을 됴므로 군면당국자들과 유지제씨가 3년전부터 제방공사에 착수 하여 민부담 5,800원과 도 지방비

보조 15,000원 합계 20,750원의 경비로本月 10일경에 제3회까지 준공되어 제방 전부가 완성되었다는데 지금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대홍수가 실지라도 염려가 없스리라더라.

19281206_5_조선일보_영덕 축산항에 鯖大豊(청대풍)

사흘 동안에 일만오천미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자고로 일대 어황으로 근래에도 만흔 산물이 나서 어선의 출입과 상인의 교통이 번잡 하든바 지난 18,19,20일경까지 산출된 고등어(鯖)가 도매된 것이 12~13만미 가량이며 그 외에 산매된 것까지 15만미에 가깝다는 바 가격은 도매에 3전이상 4전 가량이 평균이라하며 군내에서는 어물 산출고가 제일이며 장래는 더욱 많은 발전이 잇스리라더라.

19290802_4_조선일보_영덕 축산항 鯪魚大豊獲(온어대풍획)

매일 선박 출입이 백여척 人夫 賃金(인부임금)만 千餘圓到達(천여원도달)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고래로 유명한 어항으로써 근래에 이르러서는 제방공사 완성과 항만수축이며 선박 출입이 편리토록 일반시설을 가하여 본 군내에서는 우수한 대어항인데 今春부터는 어물 산출이 평균으로 풍부하여 시세가 좋아 오든바 근일에 와서는 온어(鯪魚, 정어리)가 대풍이 되어 착박(搾粕, 지게미를 짜다, 시메까스)공장이 수십개소이며 매일 기선, 발동선, 기타 어선 출입이 백여척이며 노동인부 임금만 일평균 천식원(千蝕圓)에 달하는 호상황인바 차외에도 관입(罐入) '간쯔메'공장 등이 잇서 압으로 크게 발전될 여망이 만타더라.

19290901_5_조선일보_영녕(英寧)도로공사 금추에 착수를 결의, 지난 24일 영해면 영녕도로기성회에서

영덕면 영해시장은 인군에서 비할곳 없는 대시장인바 동으로 대진, 축산항의 수입물 편리와 기타 해안 각 동에 어획물은 전부 본 시장에 몰여드는데 이 어산물이 매매되어 수출되는 곳은 영양군과 안동군 일부와 청송군 일부외 각지로 파급되는바 또한 그 지방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 목재, 기타 각종의 물품이 많아 수입, 수출의 연산액이 만어 누만거액에 달하는 터이나 본 시장으로부터 영양군界까지가 약 오리 가량의 거리로서 구작로로 통행하게 되어 일반교통에 불편함은 이로 형언할 수 없는바 연전에 본 기성회에서 약 1리 가량의 거리는 자동차 통로로 공사하였으나 그 외는 경비관계 또는 지주들의 반항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든바 그 기성회에서는 지난 24일 하오 2시에 영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영녕도로기성회를 개최한바 동 기성회 위원들과 영해면장 남효즙(南孝楫), 창

수면장 이낙현(李洛鉉)씨외 면 이원(吏員)급 각 주재소원 다수 참석하에 측량신청의 건과 경비예산의 건과 창수면 부담에 대한 건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할 건과 금추내로 도로공사에 착수할 건을 토의한 후 폐회하였다는바 상업자들과 일반주민들은 이 도로가 하루속히 개통되기를 기대중이라더라.

19290925_4_조선일보_영덕전기, 영해에 연장계획 명춘에는 공사착수

영덕전기주식회사는 객년(客年)부터 설립되어 영덕읍과 강구항을 위시하여 수천등의 점등고가 실현되며 지방발전이 미급한 영덕으로서는 일색채를 가하게 된바 그 회사의 ○용도 충실하게 되며, 따라서 업무도 점점 진보중이라는데 영해면 및 축산항은 수 삼백여 호나 되는 시장 어항이요 어항인바 물화와 교통 번잡한 곳으로서 영해 김순택(金順澤), 축산 김정한(金禎漢)씨외 제씨의 활동으로 영덕읍에서 4리 이상의 거리인 양 지역에 연장토록 운동 중이라는 바 현금 영해 300등, 축산 200등 가량이나 신청까지 되었다는데 이에 따라 명춘경에는 공사에 착수할 듯하다고.

19291016_3_조선일보_ 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으로

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으로 일반 경기가 매우 조하 영덕군 축산항 부근 동리에는 근일에 메르치(은)고기가 다수히 산출되었다는데 이로 인하여 어업 당사자 및 일반 상업가에게는 조흔 경기를 주게 되었다는데 특히 경정동에는 수히 산출되어 사오천원의 가액에 달한다더라.

19291023_7_조선일보_영금한 녀편네, 돈을 탐내서 거짓 강간고소

경북 영덕경찰서에는 지난달 23일에 이십여세의 젊은 녀성의 강간 고소장을 들고 와서 울며불며 이런 원통한 일을 시원하게 하여 주지 안흐면 독은 원혼이라도 분은 남어잇겟사오니 명정한 처분으로 속히 신원하여 달라는 애걸이 잇섯다. 이 고소장을 바든 경찰서에서는 장(張)사범 주임 이하 서원들이 조사에 활동하였스나 사건의 내막은 알 수 없서 장사범 주임은 사십여 리 거리를 밤중에 래왕하며 취조한 결과 그 여자는 본 군 영해면 성내동 장문식(張文植)의 처 조언례(曹言禮, 29)로서 동리 리덕출(李德出, 26)이라는 상업자의 돈을 탐내어 부처간에 공모한 후 지난달 21일 하오 6시경에 이덕출과 조언례 두 사람이 동군 축산항까지 동해 하얏다는 회로에 축산항 뒤 잣목이(峙, 고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 고소를 한 것이라는데 지난 13일에야 겨우 해결되었다더라.

19291213_3_조선일보_축산항 근해 메르치 풍획 비철에 만히잡혀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부근 경정동에서는 지난 구일에 『메르치』(鯪(온))를 만히 잡었다는 바 때아닌 겨울철에 잡힌 것이 이상하다는데 총산출고는 대략 수천여원에 달한다며 그 지방 경제는 이로 인하여 다소간 완화될 듯하다더라.

19291224_2_조선일보_동해안의 풍설로 어선 수십척 조난, 발동선 20여척, 어선2, 기선1 난파, 실종속출

지난 19일 이래로 경상남도 해안을 엄습한 폭풍우는 그후 더욱 맹렬하여 저서 고기 잡든 수십척의 어선을 비롯하여 하물선(荷物船)의 난파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중인데 이에 21일까지에 판명된 동 피해상황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경무국착전)

-지난 19일 오후 1시경에 영일군 청하면 압바다에서 발동기 운반선 제1금행환(第1金幸丸, 19톤)이 목선 두 척을 끌고 구룡포로 향하다가 전기 장소에서 격랑을 만나 매엇든 들이 끈혀지며 목선 두 척은 여지없이 전복이 되었는데 목선에 탔든 5명 선원중 3명은 구조되었으나 2명은 행위불명이 되었다하며 손해는 1,300원 가량이라하고

-21일 오전 2시경에 동북풍이 맹렬하여 감포항으로 피난 하얏든 발동기 어선 8척은 격랑으로 인하여 피난선끼리 서로 맞부드쳐서 수십척의 파선이 생기었는데 목하 경주서에 서 전 서원이 출동하여 그 피해를 조사중이라하며

-19일 오후 8시경에 영일군 장기면 양포리 압바다에서 발동기 운반선 보환(寶丸, 11톤)이 풍랑으로 인하여 전복되었는데 선원 4명중 3명은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소본모(少本某)는 행위불명이 되었다.

-조선우선회사 소유 기선 온성환(穩城丸, 400톤)은 폭풍우로 인하여 구룡포에 피난코저 하든 20일 오전 에커(舵)가 파손되어 구조를 청함으로 감포 주재소원과 다수한 소방조원들이 즉시 발동선을 타고 현장에 달려가 필사적으로 구조를 한 결과 승객 및 승무원 25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체의 손해는 불소한 액수에 달하리라는데 확실한 손해액은 아직 불명이라하며

-20일 오후 9시 경에 영덕군 축산항 압바다에서 울산군 리병준(李炳俊)의 소유기선 발동기선(28톤)이 격랑으로 전복되어 선체는 쓰지 못할 만큼 파열되었는데 손해는 600원 가량이라 하며 여섯명 선원의 생사는 전혀 불명히라더라.

19300111_7_조선일보_축산 우편소 신설계획 금춘엔 신설될 듯

영덕군 축산항은 군내에서도 우수한 어항일뿐외라 인근 경정동과 그 외 부근 각 동에도 해산물 산출이 풍부하여 전부 축산항에 집중되어 각지로 수출될 뿐외라. 본 축산항에만 일백여척의 어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각지 시세를 알고저할 때는 영해나 흑 영덕읍에 와서 알게 되니 이삼리 래왕간에 불편한 점은 물론이어나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세에 상업상 막대한 곤란이 잇슴을 유감으로 생각한 당지 유지 김정한씨와 제씨의 주선으로 축산 우편소를 설치하려고 관계당국에 운동한다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체신국에서도 시찰까지 하여갓다는바 인가는 김정한씨 명의로 될 듯 하다 하며 주민 일반은 금춘에는 꼭 실현을 보겠다고 기대중이라더라.

19300212_3_조선일보_각지 도로측량과 강구항 준설은 도지방비로 하라고 시찰은 도지사에게

본도 임무(林茂) 도지사는 부임 이래로 도내 각지를 순회 하든중 지난 4일은 영일군 구룡포에서 오후 2시경에 본 군 강구항에 도착하여 항내 전부를 시찰한바 주민 일중은 축항 공사 제2기 실현을 진정코저 하얏스나 건축 문제로 보류하고 선박 출입하는 강구만 준설기로 하며, 본 읍 주민들은 하수구를 도 지방비로 시설토록 진정하였으며 축산항 주민들은 어선 정박의 방과제 시설과 도곡동에서 축산까지 2리 가량의 거리를 측량할 것과 영해 주민들은 녁영도로측량의 안건을 진정하였다는 바. 이상 다섯가지 진정한 것은 다 실현되리라고 관망중이라는데 제반 시설이 부족하고 발전이 미급한 지방으로서 이상의 안건이 시설이 된다면 다소간 장래 발전에도 만흔 영향이 미치겟다하며 이외에 지방법원 지청도 당지에 이전하도록 간담이 잇섯는바 임지사는 이 일에 자동차로 영양 방면에 향하였다더라.

19300322_3_조선일보_축산항 전등가설을 계획

영덕군 축산항 김정한씨와 유지 몇사람은 영해 성내유지와 협력하여 양처에 전등을 가설하려고 오래전부터 만흔 활동이 잇섯스나 지금까지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든바 금번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 실지 조산한 결과 전등 신청이 양처 합하여 오백여등에 달하였슴으로 금춘에는 완전한 실현을 보리라하며 따라서 우편소도 설치기로 운동중이라하는 바 모든 기관이 하로빳비 되기만 향민들은 고대중이라더라.

19300625_6_조선일보_매상가 하락으로 온어업자 총파(鰮漁業者總罷), 영덕 축산항부근에서 백여척 어선 휴업

근래의 경제 공황은 어디나 갖게되어 시세를 이길 수 없어 각 방면 사업에 지장이 만
흠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이니와 영덕군 축산항 부근 일대에서는 지난 20일경에 각지에
서 집중한 정어리(鰮漁業者)잡는 배 근 백여척이 항만에 정박한 후 휴업을 단행한바. 이
에 대한 원인은 정어리 가격이 너무 헐하여서 그와 같이 총파업을 한다 하나 일방으로
온어공장주(鰮漁工場主)의 진술을 들건대 생 정어리 가격은 별로 헐치 안코 어비와 기름
가격은 거의 작년 반액임으로 지금 것만은 타격을 맞는다는데 양편의 양보로 불원간 해
결되리라 한다.

19300702_6_조선일보_영해, 축산에 전기가설 곧 공사도 착수

경북 영덕군 강구항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는 축산항 및 영해 양처에 전기를 연장코자
속제중 이든바. 지난 27~8일 양일에 전기회사 중역총회 및 주주총회가 잇섯는 바. 마침
영해 권태호(權泰鎬)씨와 축산 김정한(金貞漢)씨와 제씨들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바. 영
해, 축산 양처에 연장기로 결의되어 불원간 실지측량 공사도 착수하리라는데 임의 영해
3백등 축산 2백등의 신입도 맞았다는 바. 영해, 축산 양처의 주민들은 하로 속히 전등 가
설하기를 기대 중이라고 한다.

19300703_4_中外日報_영덕전기를 축산,영해에 연장 주민은 실현을 기대

경북 영덕군 강구항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는 축산항 및 영해 양처에 전기를 연장코자
속제중이든바 지난 27~8양일에 전기회사 중역총회 및 주주총회가 잇섯는바 마침 영해
권태호(權泰鎬)씨와 축산 김정한(金禎漢)씨외 제씨들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바 영해, 축
산 양처에 연장기로 결의되어 불원간 실시 측량 공사도 착수하리라는데 임의 영해 삼백
등 축산 이백등의 신입도 맞았다는바 영해, 축산 양처의 주민들은 하로속히 전등가설하
기를 기대중이라고 한다.

19300716_6_조선일보_寧莢간 도로측량

영덕군 영해시장에서 인군 영양읍까지 도로를 개통코저 한다함은 이미 속제로 내려오
든중 영해 부근 대진항 및 축산항에 하륙되는 물화이며 본 군 연해안 일대 산출되는 해
산물 운반에는 일반 상업자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줄 뿐아니라 지방 발전상과 교통상에

도 막대한 영향이 있음으로 영해면에서는 수년전에 원구동(元邱洞)까지 완전한 공사를 진행하고 그 외 4리 가량도 실측만 하였으면 다소간 공사라도 하였을 터이나 실측도 안 할뿐외라. 수년 한해로 인하여 중지되었든바 본 군면 기타 영해 유지들의 활동으로 본도에서는 불원간 측량할 계획이라하며 실측만 마치면 도로공사도 착수토록할 예정이라고 한다.

19300829_4_中外日報_축산어업조합 이사 윤씨 권고사직

영덕군 축산면 어업조합 이사 윤영상(尹永祥)이는 지난 10일 축산어업조합 총대회의 석상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바. 그 이유는 조합일은 보지 안코서 자기 일만 보고 다니는 것과 어업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등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듯 하다더라.

19300830_6_조선일보_오보면(烏保面) 전등 가설 기성회 조직, 영해 연장공사를 이용하야

영덕군 축산향과 영해 성내에서는 영덕전기주식회사 전기를 연장코져 양처 교섭위원들은 전등 신청을 맞는다고, 강구 본사에 누차 교섭까지하야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는 지난 7월11일부터 영해 연장에 대한 예측 공사에 착수하야 총거리 일만 구천 메-도루의 예측을 마치고 축산, 영해 양처의 분기점은 축산면 도곡동에 정하고 예측을 마친 후 본 월 20일경에 인가신청을 준비 중이든바, 동 군 오보면소와 오보어업조합에서는 오보면 전등 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이왕 영해까지 오류십리를 무인공지로 갈 터이면 본 면 지대로 통과케하여 달라는 이유로 강구 본사에서 기점하야 금진(金津), 하저(下渚), 대부(大夫), 창포(菖蒲), 오보(烏保), 노물(老勿), 석동(石洞), 경정(景汀)각 동을 통과시킬터인바 김응천(金應千), 권영기(權寧幾), 노동식(盧東植) 제씨는 전등 신청과 각 동에 위원을 선거하며 본사 교섭에 주력 중이라는데 영해 연장 공사는 오보면 지대를 통과할 듯하다고 한다.

19300908_4_조선일보_축산 양조장 개인 경경반대(經經反對), 당국에 진정

현하 전조선 재계의 공황은 극도에 달한중 발전되지 안허도 무관인 양주업(釀酒業)은 발달되는 셈으로 영덕군 각지에도 양주장의 만흔 반면에 경제에도 관계가 잇거니와 간혹 분쟁이 잇는곳도 업지 안흔터이다. 그런데 근일 본 군 축산면 축산향 시민들은 한영각(韓永珩),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김중환(金重煥), 암본위문(岩本衛門)제씨의 발기로 사십여인이나 인하야 각 관계 당국에 이차나 진정하였다는 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탐문하건대 전기 축산 양주장은 수년전에 그 동 김모(金某)가 경영하여 오든바 그때에도 시민들은 불편이 만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출하였거니와 본 년 여름에 와서 본동 김모는 취소를 당케되는 동시에 김모란 연고자와 또 그 동 시민들중에는 허가를 어드려고 누차 당국에 교섭하였스나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 반면에 타면 타동인 지품면(知品面) 수암동(壽岩洞) 윤모(尹某)의 명의로 허가된 것은 엇더한 취지인지 알 수 업스나 그 동 일반유지들은 당국의 처리가 너무도 불철저함으로 십여명 주민은 연서하여 타지방 사람 개인에게 줄 터이며 차라리 조합(組合)을 승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였다는데 일반은 장래 해결을 주목중이라고 한다.

19300912_4_中外日報_축산어업조합 지정인가신청

영덕군 축산어업조합의 지난 총대회에서 지정조합을 하여달라고 도 당국에 신청을 하였다는바 인가 여부는 아직 알 수 업스나 더욱 흥미를 가지는 것은 전 이사 윤씨가 권고 사직을 당하자 사방에서 벌떼가티 일어나서 풍우를 무릅시고 이사 운동을 하드니 지금은 모다 물러 안졌다는바 그 이유는 지정이되면 관선(官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관선에는 누가 될는지 일반인사는 자못 흥미있는 주목을 하고있다더라.

19301007_7_조선일보_영전(盈電)영해(寧海)연장 공사착수, 해안선 지대통과

경북 영덕군 영해와 축산항 양처에 영덕전기주식회사 전기를 연장 점등하라고 운동한 다 함은 기보 하였거니와 전기 양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섭 활동을 거듭하여 경주, 양양간 이등도로변으로 통과키로 예척공사를 마치고 인가 신청할 제 회에 본 군 오보면과 축산면 일대 해안지대에서 전등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좌기 위원들의 활동으로 이백여 개의 전등 신청도 밧엇고 래11월중에는 점등도 희망한다는바 본사에서서는 지난 1일부터 예척공사에 착수아야 동 4일경에 완요하고 5일경에는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는데 인가만 나면 불원간 실지측량과 가설공사에 착수할 터이라하며 일반주민들은 하로밧비 되어 어장 준비와 결망(結網)에 필요하다고 하나 11월중에는 점등될지는 알 수 업다고 한다.

기성회 위원 - 회장 김응천(金應千), 위원 노동식(盧東植), 박무길(朴武吉), 안상곤(安尙坤), 손필주(孫弼周), 김병택(金柄澤), 이종악(李鐘樂), 권태오(權泰五), 박종국(朴鐘國), 권중기(權重琪), 김성환(金成煥), 전명조(全命祚), 황세영(黃世英), 신방우(申方友), 김필선(金必先), 김두성(金斗星), 강병조(姜秉朝), 이재영(李在榮)

19310113_9_釜山日報_축산항 어선 조난, 동해안의 폭풍

경북 연안 지방 일대에 지난 10일 아침 대 폭풍이 내습하여 각 선박 및 어선은 각항구에 피난 경계령이 내렸다. 영덕군 축산항의 축산에서 기박하던 삼판만일(三坂萬一)씨 소유 시가 100원 상당의 어선이 암초에 걸렸으나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19310123_9_釜山日報_축산항 소방조 소방의식(출초식)17일 거행

축산 소방조의 출초식이 상례에 의해 1월 17일 오전 11시에 시작되었다. 소방조원은 축산주재소앞 광장에 집합하여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조합장의 지휘아래 정렬하였다. 대석(大石) 영덕서장의 인원점호, 복장, 기구, 기계 검사를 받고 방수 연습을 하였다. 이어 서장의 강평훈시가 있은후 복전(福田) 서무 주임의 보고사, 조합장의 답사로 연습이 종료되었다. 오후 어업조합 루상(樓上)에서 신년 축하연을 열고 지방 관민 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상호결속의 술잔을 나누고 오후 5시 무사히 산회하였다.

19310906_3_조선일보_축, 영덕 소개판 발행

(광고) 축산어업조합, 축산면 축산항 박경창(朴敬昌), 김장학(金長學), 한영각(韓永珏)

19310906_3_조선일보_영동에 관문이요 산업중심의 영덕군, 과공(跨畝)면적(面積) 48방리, 인구 78,485인

영동의 관문이요 동해의 요항에 산업의 중심인 영덕군을 자이 만천하에 소개하는 바이다. 영덕군은 영동의 중심지대로서 동서가 7리이며 남북이 11리여로서 9개면 160동리에 인구 78,485인을 포용하고 있는 대군(大郡)으로 경지면적으로는 전(田)15,060,232평이며, 답(畓) 12,831,880평이나 되어 실로 타군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것이다. 교통으로는 해륙이 공히 편리하여 육로는 영덕읍을 중심으로 하여 남으로 남해선 철도 중점인 포항과 연락하고 서(西)로는 안동으로 통하여 경북선과 연락하며 북으로 강원도로 통하는 각각 자동차가 있고 해로로서는 강구를 중심으로 하여 남으로 부산, 북으로 원산으로 통하는 정기기선이 있고, 동으로는 일본을 통래하는 상선의 연락부절의 편리가 잇스나 철도의 편리가 업슴은 유감이나 불원한 장래에 동해안 철도가 관통할 것이요. 또 도북선(度北線)의 신흥인 강구항을 중점으로 하여 영덕읍을 관통할 것이며, 철도가 통과하는 날에는 일본을 직통할 연락선도 또 실현될 것이다. 산업으로는 동해의 무진장의 해산물과 영해 4대평, 영덕의 2대평의 옥지비토에서 산출하는 농산물은 영동의 제1위요 영덕의 생명이며 더욱 조선지(朝鮮紙)의 품질은 세계를 통하여 자랑할 것이며 그 산출고는 조선에서도 굴지일 것이다. 대진항, 축산항, 강구항은 영덕의 요항으로 해륙물의 집중처이다. 특히 강구항은 영덕의 인후로서 축항공 사도 제1기를 마치여서 정박이 안정함으로 매일 출입하는 선박이 수백척이 달하며 2기 공사도 착수하였슴으로 강구의 발전은 영덕읍을 능가하면서 있다. 특히 영덕의 해산물로서 오십천(五十川)에 은어는 세계에 유(類)가 업고 칠보산(七寶山) 및 영해 초영곡(椒永谷) 약수는 석왕사(釋王寺) 삼방약수(三防藥水)로 하여곰 북그럽게 하나 교통이 불편하여 유감이더니 지어금년하여 영해면에서 교통을 개척하고 휴게실까지 건축하였스니 불원간에 자동차의 편리가 있을 것이며, 명소로서는 북에 용추폭포, 남에 호호대(浩浩臺), 서에 주벽강동(走壁江東)에 고불봉(高佛峰), 그 어느 것을 자랑 못할가! 이에 지방관을 발행하는 所以(까닭)는 심각화하는 공황의 원인과 궁핍하여가는 조선의 진상을 알기 전에는 그 전도를 측정할 수 업다. 그럼으로 각 지방의 진상을 적나라 조사 소개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좁은 지면이나마 영덕의 진상을 소개하여 백년대계에 한 적은 도움이라도 줄가한다. 대포부(大抱負)의 어업가여! 군 등은 청어어장으로 조선 유일인 영덕 해안을 차지하고 농업가(農業家)는 대한부갈(大旱不渴) 영해 영덕 수십리 옥야(沃野)를 가진리라! 탐경가(探景家)는 북으로 용추폭포를 거쳐 적벽봉, 임경대, 호호대를 더듬으며 오십천의 은어의 진미를 맛보라, 사회운동자는 반만의 어민과 수천명의 해상노동자의 씩씩한 꼴, 창수 지품 양면의 화전구(火田口)과 협곡평야에 깔니인 4만여의 소작인 및 농업노동자의 궁장(窮壯)을 보라! 이에 영덕군의 지방관을 내는 所以이다.

19310906_3_조선일보_지방유지의 김정한(金貞漢)씨, 경북영덕 소개판

씨는 당년 38세의 장년으로 성격이 온순하여 인정미가 풍부하고 또한 강직하여 사업을 착수함에 철두철미한 특질이 있다. 씨는 백만장자로서 어촌인 축산항에서 모든 사업을 경영한지 십수년에 가진 난관을 조우하였으나 추호의 낙망도 업시 용진하여 불원간 장래에 성공할 것이며 더욱 군내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모범할 증견인물이다. 시는 소시로 부터 두뇌가 예민하여 정치적 방면에 주력하며 도의(道議)로 피선되었으며 씨의 면내 활약을 본다면 명예면장을 위시하여 각 공직에 취임하였섯고 압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충심 갈력으로 분투노력을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다.

19320519_7_釜山日報_이달 내무부장에게 축산축항의 진정, 삼호기성회고문



삼호기성회의 고문이 최근 내무부 장관에게 축산항의 개발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축산항은 지역의 어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항구지만, 현재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어업인들의 생업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구 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시설의 개선: 현재 축산항의 방파제와 정박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강한 파도나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삼호기성회 고문은 항구의 방파제 및 정박 시설을 강화하고 현대화하여 어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어업활동 지원: 축산항은 지역 경제와 어업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장소이다. 따라서 어획물의 보관 및 운반을 위한 냉동 저장 시설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는 주장하고 있다.

환경 개선: 항만 주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깨끗

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호 기성회 고문은 내무부 장관이 이 진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축산항의 개선이 지역 어업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19320629_4_동아일보_영해에 전등

경북 영덕 강구항에 위치를 둔 영덕전기주식회사에서는 당지에서 6리 거리인 영해와 축산항 양처에 전기를 연장코저 수년전부터 숙제로 내려 오든바 공사인가까지 맞춘 후 지금까지 유야 하야 두엇든바 지난 5월부터 실지 공사에 착수하야 금월 중순경에 준공되어 덩등까지 한다는 바 시설이 부족한 지방으로서는 이채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

19320716_9_釜山日報_남겨진 축산의 축항, 번영회부터 시설 진정



축산 지역의 어항 시설에 대한 진정서가 번영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축산항은 어업 활동의 중요한 거점이지만, 필요한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강조되어 있다.

식수 문제: 축산항에는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거의 없으며, 제한된 식수조차도 오염된 상태여서 음용이 불가능하다. 진정서에서는 식수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항구 주변

변의 식수 설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항 방파제 및 시설 강화: 강한 바람이나 폭풍 시 어선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방파제를 강화하고, 정박 시설의 보수를 요청하고 있다.

환경 및 위생 문제: 어항 주변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지역 어민들과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위생 설비를 마련하고, 항만 주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번영회는 내무부와 지방 정부가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축산항이 지역 경제와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321111_3_釜山日報_축산항 확충공사 지진제

다년간의 숙원으로 남아 있던 축산항 확장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계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급속도로 착공해야 할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 지방 예산 사업으로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1일의 길일을 택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축산항 방파제 기부(基部)에서 지진제(地鎮祭)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항 기성회(期成會)에서 각 관계 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9321117_6_釜山日報_축산으로부터

축산항 확장 공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시국에 따른 긴급 자금 3만 엔을 투입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큰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공사의 진행이 예상보다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역 사회가 하나 되어 이룬 결과로, 주민들은 이를 기적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1기 공사:공사는 우선 27칸(약 50미터) 길이를 방파제로 건설하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제2기 공사:이후 80칸(약 145미터)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차후 확장될 항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공사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추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협력과 조화입니다. 만약 지역 간 협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큰 항구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는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타지마 부장(田島部長)과 타케다 기성회장(武田期成會長)의 눈물겨운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조율하여 공사가 가능하도록 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항구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과의 물류 및 연락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배들이 방파제와 하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빠르게 출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항구가 발전하려면 도로 교통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 영해(寧海) 방향으로 주요 도로가 이미 개발 중이지만, 공영 버스 노선까지 연결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9330306_4_中央日報_축산 축항공사 제1기준공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고래부터 군내 유수한 어항으로 현시에는 상선(商船), 어선(魚船)의 정박이 빈번하여 매일 근 백여척의 선박이 출입하는바 소화 6년부터 제1기 축항 공사를 기공하여 특히 군,면내 빈민구제를 중심으로 매일 250여명의 인부를 채용중인바. 3만원 공비로 준공기는本月 하순경이라 하며 제2기 공사비도 4만 2천원의 도 지방비 예산에 편입된바 축항 기성회와 일반주민의 희망은 해4월부터 2기 공사를 계속 착수를 고대하며. 따라서 도로공사도 지금까지 민부담(民負擔)으로 토공사는 마쳤스나 암석 공사비로 도 예산에 2천 7백원이 예정되었는바 하로라도 속히 공사착수 희망중인바 암석 공사만 되면 정기 자동차가 래왕케외여 교통에도 막대한 편의가 되리라한다.

19330410_4_中央日報_축산 공보교 설립실현, 교사도 신축중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는 보통학교를 설립하라고 오래전부터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성회장 박종태(朴鍾泰)씨외 여러 간부들과 기타 면내 유지들의 활동으로 4천5백여 원의 기본금을 적립한 후 위치 문제로 미결 되었든바 면내 중앙지대인 고곡동(古谷洞)에 정하였고 교사 건축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착수하여 현재 공사중인바 상학은 임시로 동면도곡동(陶谷洞) 정자(亭子)에서 교수중인데 3학기내에 신교실에 옮길 예정이라하며 기성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한다.

회장-박종태(朴鍾泰), 총무-이영교(李英教), 서기-남효의(南孝義)외 간부 제씨

19330722_4_釜山日報_축산의 수산물제품검사 매우양호, 거래도 원활

우산의 수산물 생산 실적은 매우 우수했으며,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산 수산물 검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성적-검사 총수:1,281개, 1등급:158개, 2등급:961개, 3등급:151개, 4등급:11개

불합격: 없음, 주요 출하지: 고베(神戸)

검사 개요

본 월 검사 결과: 검사된 수산물 중 총 1,281개가 합격. 총중량: 204,960근, 거래액: 11,542엔

전년도 1기 검사와 비교:검사 수량: 1,640개, 총중량: 667,443근, 거래액: 24,881엔

현재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품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산물 현황

생산 및 어획 상황:올해 어획 시즌은 전년도보다 일찍 시작되어 4월 중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어군이 해안에 가까이 모여드는 경향이 강해져,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생산량 확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날씨 영향:좋은 날씨 덕분에 조업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가격 동향:중순 가격-2등급 상품 기준(10관당 2엔 45전~50전), 하순 가격-10관당 3엔 35전까지 상승, 가격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특이 사항:올해는 예년에 비해 특정 지역(江口島保)에서의 특출난 소식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동해안 지방 일대가 조업의 최성기에 돌입했습니다. 생산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습니다.

우산의 수산물 생산은 올해 품질과 거래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거래 안정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검사된 총중량이 감소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19330904_3_조선일보_영덕 축산어조(漁組) 해태(海苔)증식계획, 이미 공사에 착수

경북 영덕군 축산항 축산어업조합에서는 동 조합구내 각 동에 제반 공동시설을 착착 진행하여 일반조합원의 편의를 도모 오든바 특히 매년 다량의 산출을 하는 해태(海苔)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구내 경정동에 1,200여원의 경비로서 지난 1일부터 착수한바 ‘세멘트’ 공사만 준공되면 해태는 다량의 산출을 보리라고 한다.

19330910_3_조선일보_축산, 도곡간 도로개척공사 착수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경주 양양간 이등도로 분기점까지 약 2리 가량인바 도로 토목 공사는 민부담으로 완성되어 자동차 교통까지 하게 된바 아직까지 간간이 막혀있는 도로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자동 통행이 다닐 수 없고 기타 일반교통에도 막대한 불평이 잇든바 당지 김정한씨 등의 알선으로 다행이 도의 인가가 디여 지방비 보조 3,000원 공비로 9월 11일경부터 착수하였다고 한다.

19331008_3_동아일보_원양어업시대! 경북어업자들이 분기(憤氣), 북해도(北海道廳)에 출어원(出漁願)

경북 구룡포 어업자로부터 당지 어업조합을 통하여 북해도 원양어업의 출어를 희망하

19331025_2_동아일보_감포, 포항서도 조난, 축산 16척 귀환, 22명은 행방불명

-24일 아침 조선 동해안을 엄습한 서풍으로 인하여 경북 감포항 근해에서는 출어중의 어선 55척이 조난하여 승조원 20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포항 근해에서도 어선 1척, 감포근해에서 어선2척이 전복되었으나 다행히 인명 전부는 구조되었다. 영덕군 축산항에서 출어한 어선 20여척도 해상에서 조난하여 16척은 간신히 귀항하고 나머지 4척(승조원 22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19331025_2_조선일보_경북 연해에 폭풍맹습, 조난어선 15척, 22명 상급 행방불명, 5척이외는 속속귀환중, 경북 영덕 축산포서

23일 맹렬한 서북풍으로 경북 해안선 일대는 무서운 풍랑의 엄습을 받아 다수 어선의 조난을 보았다. 23일 오전 5시30분 영덕축산어업조합에 소속한 청어잡이배 20척이 축산항구로부터 바다에 나갔다가 축산등에서 5해리되는 해상에서 강렬한 서풍을 만나 나뭇잎 같이 번동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척이 몰아오고 나머지 15척에 선원 110명은 돌아오지않아 그들의 생명이 위태탈고 염려되더니 요행이 24일 오전에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아직도 네 척에 20여명이 돌아오지 않아 행방불명중에 있다. 이에 어업조합과 소방대원들은 구조작업을 하는 중이고 또 경비선 천대환(千代丸)도 출동하여 어선의 행방을 수사중이다.

19331025_2_朝鮮中央日報(여운형)_출어중의 어부 조난 백십일명 생사불명, 경북 영덕군 축산항근해서, 경비선출동수색중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어업조합 소속의 비웃(청어)잡는 그물 가진배(자망선,刺網船) 20여척이 축산항으로부터 약50해리 가항되는 바다에서 비웃(청어)을 잡던중 23일 오전 다섯시경에 강한 서풍으로 인한 큰 풍향을 만나 20여척중에서 다섯척은 천행으로 겨우 살아 왔으나 나머지 조선형 어선15척은 승조원 111명을 실은 채 간곳을 모르게 되었으므로 방금 경북 경찰부의 경비선이 출동하여 간곳을 수색하는 중이나 이제껏 승조원 111명의 생사를 알수 없다.

제2보-경상북도 연해안 각처에 잇는 경비선이 총출동하여 생명(生靈)을 삼킨 광분하는 검은 파도를 헤치고 그들을 수사한 결과 24일 오전 3시 포항항 부근에서 건기 조난한 4척 승조원 26명을 구조 하였으며 그 외에는 아직도 행방불명이 된대로 소식이 묘연한데 검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돌아 오지않는 그 아버지와 남편을 찾는 가족들이 애꾸는 목소리는 그 부근의 산하를 울리는 듯 하는 참상을 일우었다.

제3보-경상북도 경주군 감포항 어업조합 소속 어선 5척(승조원20명)도 23일 출어한 이래 행방불명이 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19340105_3_釜山日報_축산항에 운수 교통실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은 예로부터 가자미, 대구, 청어로 유명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축항 공사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항은 북부 경상도의 주요 항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해양 운송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산항은 해상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며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항만 공사의 뒷받침으로 축산항은 동해안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정기 자동차 운행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진출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축산항과 해안선을 연결하는 정기 왕복 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우산항과 내륙 간의 물류 교류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교통망 확충으로 축산항은 단순히 어업 중심지가 아니라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통 연결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 및 교류가 쉬워져 지역 문화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교통이 양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여 상생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항의 이번 교통 확충은 지역 사회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 전체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340119_3_동아일보_경북 삼어항(三漁港) 수축(修築), 대포,강구,축산등 각 어항 제2차 구궁(救窮)사업

경북도에서는 제2차 국민구제 사업비중으로 18만원을 어항수축비로 하여 구년도에 착공하리라는데 그 공비할당은 다음과 같다.

-축산항 남측 방파제 축조 7만원, 강구항 항내 설비 및 호안공사 6만원, 대포항 제1차 방파제 축조 5만원

19340124_3_동아일보_7개 어조의 공동시설안, 국고 보조로 어조에서 계획 공비 9,500여원

경북도에서는 동해안 각 어항의 설비와 수산 장려를 위하여 각 어업조합 소재지의 축항, 성양장, 잔교창고의 설비를 하기위하여 9,500원의 예산으로 양남, 장기, 오보, 축산, 영해, 강구, 청하의 7개 어자업조합의 공동시설을 한다는. 각 어업조합의 공비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양남어조-공비1,000원으로 선양장(船揚場), 장기어조-공비 1,600원으로 잔교, 축산어조-공비1,500원으로 창고, 영해어조-공비2,400원으로 사무소와 창고, 강구어조-공비1,000원으로 잔교, 청하어조-공비1,000원으로 계획중

이상의 공비중 반액은 국고보조, 1/4은 도지방비 보조, 1/4는 각자 조합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9340416_3_동아일보_축산항 방파제 불원에 착공, 총공비 구만원예산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경북 연안의 중요어항으로 연전 제1, 제2의 축항으로 시설을 완비하여 오든중 금년도 도 지방비 9만원의 예산으로 방파제를 축조하기로 되어 불원 착공하리라 한다.

19340706_4_조선일보_영덕내 어조의 약유(鰵油)와 박(粕)풍부

경북 영덕군내에는 강구, 오보, 축산, 영해 4어업조합이 편성되어 제선어산물(諸船漁山物)을 판매하여 오는 중 금년도에 이상4어구(漁區)내 약유(鰵油), 박(粕) 총계는 여좌하다는 바 비작년성적도 매우 양호하며 수출지 가격도 유일등매관(油一等每罐)에 2원30전, 박일등매표(粕一等每俵)에 8원96전이라고 한다.

강구어조-油10,100관56 粕4,800표, 오보어조-油3,000관 粕1,200표, 축산어조-油9,690관 粕4,600표, 영해어조-油12,800관 粕3,500표

19341005_3_조선일보_제방도로수축과 대진축항진정

경북 영덕군 축산항 유지들은 지난 27일에, 동 영해유지들은 28일에 본도 추월(秋月) 토목과장의 래영을 기회로 제방 축항 도로개축에 대한 진정이 잇섯는바 축산 제방은 200원, 도곡간 도로는 500만 지원, 주민이 부담하면 여의 수 만원 공비는 축산 축항 인부와도 지방비로 수축하게 되었으며 대진 축항은 더 고려할 점을 보였고 영해영양간 도로는 도회 의원 및 지방유지 대표와 영양까지 일일이 시찰한 바 불원간 복구공사에 착수케 될 터이라고 한다.

19341102_3_동아일보_산업도로 불완전

축산항은 영덕군내 큰 항인 동시에 조선 동해안에 있어 우수한 선박 피란항으로 당국에서 항만수축에 착수하여 이미 완성하였으나 결렬된 내리도로의 불완전으로 비가오면 교통두절되는 형편이므로 축산항 관계자는 이 불완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 외에도 포항,영덕간 도로와 경북선 미완성 등은 산업발전상으로 든지 일반 교통상으로 보드래도 당면의 큰 문제라 한다.

19341219_4_釜山日報_조난선 속출 위험하기 그지 없는 축산항, 축항기석 투입으로 항로 위험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현재 항구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난 사고와 항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산항 근처에서 조난 선박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로의 위험성과 더불어 항만 공사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난 사고로 인해 일부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은 수일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구 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기초석을 투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항구 근처에 암초와 위험한 물길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어 선박의 항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항로와 관련된 경고 표지(위험 표지)는 일부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를 안전 표지로 대체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험 표지는 불완전하며, 항로와 관련된 경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조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항로에 암초와 같은 위험 요소가 늘어나고 있어, 선박의 안전 운항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해양 당국은 기존의 위험 경고 표지를 보완하여 안전 표지 및 명확한 항로 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조난 사고에 대해 구조 작업과 후속 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축산항은 동해안 지역에서 중요한 항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항만 공사는 지역 경제와 물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항로와 항구 주변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9350517_5_조선신문_경상북도 본격적 연안약어업, 축산항이북 대상회유

정어리 어업의 본격적인 개시

경상북도 연안에서는 최근 대규모 정어리 어군의 회유(回游)가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축산항(丑山港) 북쪽부터 대포항(大浦港) 남쪽에 걸쳐 큰 어군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연안 어민들에게 이번 어군의 출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망어획(刺網漁獲)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업 결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산업과와 수산과에서는 이번 현상이 본격적인 어업 시즌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연안 어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지역 당국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대규모 정어리 어군은 연안 어업의 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산항과 대포항 주변의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수익원이 될 전망입니다. 어획량 증가로 인해 관련 수산업 및 유통업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지역 내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획량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무분별한 남획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자원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 규제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규모 어군이 출현하면서 여러 지역 어민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어리 어군의 이동은 기상과 해양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 기회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50530_3_조선신문_축산항 총약대어, 유비공업다망

경상북도 연안, 특히 축산항 앞바다에서 정어리 어군의 대규모 출현으로 풍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업은 이번 시즌 첫 대규모 어획으로 기록되었으며, 지역 어업에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정어리 어획량 증가로 인해 정어리 오일 및 비료 제조 공장들이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구는 석탄 연기로 하늘이 덮일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생산과 유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26~27일경) 축산항 인근 바다에 정어리 대군(大群)이 발견되자, 약 30척의 어선이 출동하여 조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척당 평균 500상자의 어획을 기록하며,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성공적인 어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풍어로 인해 수산업뿐 아니라, 정어리를 원료로 하는 오일 및 비료 제조업도 함께 활기를 띠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구와 공장에서의 작업량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이후로 조업이 저조했던 상황에서 이번 풍어는 지역 어업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풍어에도 불구하고 정어리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남획은 장기적으로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업 규제와 자원 보존 대책이 중요합니다. 풍어로 인해 시장에 정어리가 과잉 공급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저장 및 유통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어리 어군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상 및 해양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획 타이밍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9350603_3_조선일보_철도연장 등 진정

경북 영덕군 관민 유지 오십여명은 문,권 양 도회의원을 선두로 본도 아부(阿部)내무부장 내영 시찰을 기회로 지난 30일 오후 6시경에 영덕군청에서 축산, 대진축항을 위시하여 좌기 십여건을 진정하였다는바 일반군민은 진정이 주호하기만 기대중이라 한다.

진정요항

1-축산 대진 양항 축항에 관한 건,

1-등의 도로개설에 관한 건, 영덕 창포간 2리, 강구 하저간 1리, 축산 경정간 1리, 축산 대진간 1리

1-강구교 가설에 관한 건

1-도로승격에 관한 건 : 축산 도곡간, 대진 영해간, 영해 영양간

1-임산(林産) 도로개설에 관한 건 : 강구 왕계간, 창수면 신기 백청간

1-철도부설에 관한 건 : 경북선 연장, 동해안선 연장

19350607_6_조선일보_영덕군 각 어조 위판고 27만원

경북 영덕군내에는 강구, 영덕, 축산, 영해 4어업조합이 설립된바 소화9년도 위탁판매고는 좌와 같다. 강구 어업조합 판매성적이 1위라고 한다. 4조합 위탁판매비교

강구조합-246,693 영덕조합-7,849 축산조합-70,155 영해조합-54,410 계-379,107

19350613_3_每日申報_경북의 양항인 축산항 호안요망, 7만원의 공사로 진정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자연의 요항으로서 영해평야 일대의 농산물 적출항이 있으므로 지방민 다년간의 숙망(宿望)으로서 공비 13만원을 투(投)한 방파제는 금년도로서 완료할 예정이나 호안의 설비가 업서 항만이 얕터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난 5월 하순에 유지 미

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의 발의로 유지간에 협의한 결과 지원이 약3천원의 부담을 하기로 하고 공비 약7만원으로서 호안공사를 하기로 하여 불원 도 토목부등 당로에 적극적인 운동을 개시하리라 한다.

19350629_5_동아일보_비상수재경비 코저 경북에도 방수단(防水團), 하천연안 주민의 생명위하야 도내99소에 배치

해마다 수해의 창흔을 받아 하천 연변에 주거하는 인민의 생명재산에 큰 위협을 느껴 오든바 이에 경북도당국에서는 도내 각처에 수방단을 조직하고 평소부터 수해경비에 대한 준비를 해두기로 결정하고 24일부로 수방단의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홍수기의 수해경비를 만전을 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수방단은 관계지방은 부윤, 군수, 읍면장, 토목과출소원 등과 연락을 위하여 그 지방의 소방조를 이용하고 그에 부족되는 인원은 구역내의 부락민을 보충시켜 방수기구와 재료 등 만반의 준비에 일치하여 비상시에 총용키로 할 터이라 한다. 이에 경북도내에 수해방비를 요망하는 곳이 99개소나 되는바 그곳마다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었는데 지역은 아래와 같다한다. 영덕, 축산,영해,병곡.....

19350804_4_동아일보_경북의 수산업(一)

1. 경북의 해양상황

경북 해안선은 연장 160리요, 중앙부에서 서남방에 깊이 만입(灣入)하야 소위 영일만을 형성한 외에는 대개 평조하며 배부(背部)는 태백산맥에서 분기하야온 기십조(幾十條)의 지맥은 산각해(山脚海)에 박(迫)하야 암초를 작하고 계곡은 연안에 개하야 사빈이되고 암초, 사빈과 삼차교착(參差交錯)하야 그 간에 일도(一道) 삼군(三郡) 20면(二十面) 칠십유오(七十有五)의 어촌을 포용하엿다. 그리하야 영덕군 축산항 강구항, 영일군 포항항, 구룡포항, 대포항, 경주군 감포항은 해륙무역항, 또 어항으로 호적지인데 그 설비도 점차 완비하야 간다. 일방 울릉도는 본토로부터 73해리의 해상에 흘립(屹立)한 주위 29리되는 고도인데 경북 유일의 속도(屬島)이며 최고 해발 3,230척 이하 천척(千尺)의 십수준봉(十數峻峯)이 흘립하야 연봉은 거의 단애절벽을 이루워 기봉괴암(奇峯怪巖)은 수소기복(隨所起伏)하야 풍광이 절가(絶佳), 기후가 온화하야 천혜적 낙원이라는 정평이 있다.

경북 연안의 수심은 울릉도 연해에는 급경사하야 총합수십미돌(沖合數十米突) 드러가지 안혀 백심선(百尋線)에 달하고 해저의대개는 급구배가 되어잇으나 본토 연해에는 비교적 완연하야 총합(沖合)육리(六里) 내지 십수리(十數理)를 거하지 안흐면 백심선(百尋

線)에 달하지 안코 또 난류인 대마해류의 일과는 조선해협을 관류북진하여 경북연안을 세류(洗流)하고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 연안에 연하여 남하하는 한류 ‘소만’해류와 경북연해 북부에서 조우교착하여 일본해 충합(沖合)방면(方面)에 분주하여 조석은 극히 미소하고 간만의 차는 삭망에도 겨우 일척(一尺)오(五), 육촌(六寸)에 불과하다. 경북연해는 한난류의 이조류가 교착한 관계상 한난양성의 각종수족의 회유분포와 그 서식상황이 극히 풍요농밀하여 호개(好個)의 양어장을 형성하여 해안선의 단소에 비하여 어획고 년산 5~6백만원에 달하는 실로 무진장의 보고요 천혜적 해리(海利)이다.

2. 중요(重要)수족(水族)

경북 연안은 그 지세 해황이 각종 수산동식물의 회유첩식(回遊捷息)에 적당하고 해양상황은 각종의 어업경영에 적합하여 수소(隨所) 호어장을 형성하여 각종 수족의 종류가 극히 번다하고 또 그 분포상황은 자못 기지(既知)의 수산의 수가 범70종류를 산하는데 어류 50종, 패개(貝介)류 6종, 조(藻)6종, 해수류(海獸類)기타 10종으로 그중 청(鯖),연(鰺),온(鱺),설(鱈),접(鰈),조(鯛),사(鮪),방(魴) 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어획고로 수산을 고찰하면 청(鯖,고등어)의 회유농밀(回遊濃密)한 점은 전 조선을 통하여 제1위인데 영일만 충합(沖合)의 추청(秋鯖)은 청건착망(鯖巾着網)어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업(斯業)의 흥폐는 경북 연안 어획 여하로 좌우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요 기타 춘(春), 하청(夏鯖)의 양기에도 청(鯖)의 호어장으로 정평이 잇고 기선(機船)유강(流綱)어법(漁法)의 발달이 전 조선 제일인 것을 보면 연해 청(鯖)어장이 탁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유어(柔漁)는 울릉도 해안에 어획되는데 반도 스루메(오적어포,烏賊魚脯) 총산액의 8할은 실로 울릉도산으로 도(島)의 수산경제는 유어어업의 성쇠로 좌우하는 실정에 있다.

연(鰺,청어)는 영일만이 조 조선에 관절(冠絶)하는 곳으로 조선 연(鰺)어장의 대표가 되는데 그 년총산액의 약7할이 영일만에서 어획될 뿐 아니라 본 어업은 지방 어민들이 경영하는 대중적 어업인 관계산 본 어업이 소장(消長)은 경북 수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설(鱈)는 본도 연해 도처에 회유첩식하여 본도 수산물의 제3위를 점하는 확실한 어장으로 일반이 촉망하는 바이다.

기타 각종 수족의 회유분포와 첩식 등으로 본다면 어떠한 수족이든지 양호한 어장인 것은 그 어획고의 다수인것과 어업자의 조밀(稠密)한 것이 입증이 된다.

3.어업자 상황

구분		전업(專業)	겸업(兼業)	피용자(被傭者)
조선인	호수(戶數)	2,658	1,742	1,272
	인구(人口)	6,237	2,978	1,683
일본 내지인	호수(戶數)	239	26	106
	인구(人口)	405	54	161
계	호수(戶數)	2,897	1,767	1,378
	인구(人口)	6,652	3,030	1,944

4. 어업의 종류

경업구래(慶業舊來)의 어업중 그 종류 20여종의 그 주요한 것은 장시(杖矢), 휘리강(揮懼綱), 자강(刺綱) 및 일본조(一本釣) 등 이였으나 명치37년 통어(通漁)조약의 개체로 의해야 일본 내지인의 통어자 및 이주자가 점차증가하여 일한합병전후부터 일본내지인 어업자의 통어가 일층 빈번하고 각종 어업의 이입, 어구, 어법은 급속도로 진보발달하여 대정(大正) 초기(初期)에는 박망(縛網), 건착망(巾着網), 대부망(大敷網), 팔각망(八角網), 각망(角網), 호망(壺網), 지성망(地成網), 유망(流網)등 일본식 어업이 발전하여 어업상 일대 혁신을 보게 되었다. 특히 종래의 연(鰵)어업을 주로 한 임시(林矢)어업은 대정 6년경부터 전폐하고 기대(基代)로 낙망(落網) 또는 표망(瓢網)어업이 발흥하였다. 범선(帆船) 박망(縛網) 및 건착망 어업은 발동기선 건착망으로 변하여 대정12년경에는 전연 범선 건착망어업은 절영되었고, 범선유망(帆船流網)도 역시 기선유망으로 발전하여 점차 기계화함에 지(至) 하였다. 기선(機船)저예망(底曳網)어업의 발흥, 북해도식 대모망(大謨網)의 진흥, 저호망(底壺網)어업의 출현, 어구, 어법의 개선에 반(伴)하여 어업은 획시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각종 어업의 어획고는 좌표와 여하다. 이상 통계표가 명시하는 것과 같이 조선인 어업자는 10,996인, 일본내지인은 630인 즉 인구의 대비는 조선인이 일본내지인의 16배 강(強)인데 고획고를 본다면 조선인 1,968,136원이요 일본내지인이 3,759,135원이므로 조선인의 어획고는 일본내지인의 1/3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조선인어업자가 얼마나 영성한 지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19350808_4_동아일보 경북의 수산업(三)

청어(靑魚)어업

경북 연해는 조선 제일의 연어장지(鰵漁場地)이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연해이르는 곳마다 우수한 어장이 만허 년어획고 150만원을 불하하여 전조선 연(鰵) 총 어획고의 7할

을 점하고 있다. 유래(由來) 조선인은 연(鰵)을 가장 기호하여 식선과 제물로 진중히 여겨 이곳 어업중 가장 중요한 어업이요. 따라서 연(鰵)의 어(漁) 불어(不漁)는 연안 어촌경제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구래(舊來) 본 어업에 사용한 어구는 대정(大正) 초기까지는 조선독특인 장시(杖矢)하는 정치(定置)어업이었으나 근 2년 점차 발달하여 호망, 표망 등이 비상한 세력으로 보급되어 대정6년경에 지(至)하여야는호망은 낙망으로 추이하여 현재에는 낙망(양(兩)낙망, 편(片)낙망)의 이종이 유함과 표망의 이종어장이 대표적이 되어있다. 이외에 연자망어업이 중,소 어업자간에는 행성하고 잇는 터이다.

청(鯖,고등어)어업

본도 연해는 실로 조선 청(鯖)어장중 가장 중요한 어장으로 당업자간에 중요시하는데 그 중에도 추계에는 청(鯖)의 대군이 집단농밀하고 어체가 비만대형한 것은 타어장에 그 유례가 없고 따라서 청어획은 경북 어획물중 제일위를 점하여 년어획고 250만원에 달하는 중요의 것이다. 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는 기선건착망, 기선유망, 범선유망, 연승(延繩,주낙), 일본조(一本釣) 등인데 좌에 차등 각종 어업의 상황을 기술하면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 : 대정8년 이전까지에는 박망어업이 성행하였으나 그 당시(當時)편수회(片手廻) 기선건착망의출현과 동시 박망어업은 선조(先漕)건착망으로 변천하고 순연한 범선박망어업은 점차 감소하여 대정14년경부터는 선조건착망은 기선건착망으로 변하여 또 양수회(兩手廻)건착망이 발흥하여 현재에는 우수한 진용을 整齊하였다.

기선유망(機船流網)어업 : 청(鯖)유망어업은 일본내지인의 창업한 것인데 그 근거지를 감포와 구룡포로하고 범선유망은 기선유망으로 개량하여 현재에는 40마력이상의 발동기어선이 수백척을 돌파하나 어군의 감소와 재계불황으로 침체상태에 있다.

범선유망(帆船流網) : 범선유망은 조선인 소어업자의 경영인데 현재 종업선수(船數) 92척, 어황은 부진상태에 있다.

청연승(鯖延繩)어업 : 소자본으로 경영할 수 잇는 간이어업인데 대정14년 이래 울릉도 근해에서 상당한 성적을 보게되어 소화7년도부터 영일군 연안의 소어업자를 독려하여 비상한 호성적을 본 소어업이다. 본 영업은 소자본으로 경영할 수 잇고 수익이 확실할 뿐아니라 어한기에 조업할 수 잇는 대중적 어업으로 그 어로해역은 총합(沖合) 7리 내지 10리의 해역까지 출어하는 고로 범선보다 소형발동기선을 사용이 증가되게 되었는데 다년 청어(靑魚)어흥으로 우는 연안 소어민들을 구제하는 소어업이다.

온(鯉,정어리)어업

어획물의 종류로 대별하여 ○온(鱸)어업과 진온(眞鱸)어업의 이종이 있다. 전자는 주로 지예망 및 권현망(權現網)으로 어획하는데 이 어업은 연안 사빈 수소(隨所)에서 보통하고 그 수 89건에 달하며 각 어장에 제조설비를 하여 어획물은 즉시 전자(煎子)로 제조하는 도내 년산이 16만 6천여원이다. 진온어업은 대정12년 이강 어획을 증여하여 금일에 지(至)하였는데 주로 자망을 사용하고 최근 약간의 기선견착망을 사용함에 이르렀다. 그어기는 주로 5월~8월간이 성어기요 어획물은 착박유(搾粕油)의 제조원료 사용하는데 년산액 착박3만표, 유십만관내외이다. 소화6년부터 총독부의 착박 및 온유 판매 통제에 순응하여 박은 삼릉(三稜)상사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하고 유는 합동유지(合同油脂)주식회사에 판매하게 되었다. 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수는 기선견착망 23척, 범선유자망 410척에 달하고 성어기에는 경남, 전남의 어선도 입어하여 활황을 정한다.

설(鱈,대구)어업

경북 연해는 도처에 설(鱈)의 회유서식이 만히 이르는 곳마다 우량한 어장을 형성하여 경북 어획물중 제3위를 점하는 주요어업으로 그 사용하는 어구는 주로 기선저예망, 연승 및 낙망, 표망 등인데 기선저예망은 조선어업보호규칙에 의하여 허가 종업선(從業船) 수 20척으로 제한되었고 또 어족의 번식보호의 견지에서 사용사연을 25통 80마력을 제한하고 또 난획의 폐를 방지하고 있다. 설연승어업은 주로 조선인 어업자로 현재 종업선수 400척인데 조선인 어업으로는 청어어업과 비견하는 추요(樞要)어업이다. 또 낙망, 표망은 청어어획을 주로 하는 것이나 경북에서 설(鱈)의 성어기는 매년 12월부터 익년 4월경까지이요. 산란을 위하여 연안의 회유하는 것을 낙망 또는 표망으로 청어와 혼획하는 것이다. 설(鱈)의 어획고는 년350관, 가액 48만원에 달하는데 12월로부터 2월경까지는 주로 선어로 조선내 각지에 판매하고 특히 최근 도 수산회와 도 어업조합연합회에서는 설(鱈)의 대중적 수용으로 환기하고 어가의 향상유지를 기도하기 위하여 설(鱈)의 조리법의 보급과 시험회 등을 개최 선전하고 있다. 전기 어기(漁期)이외의 어획물은 무두개설(無頭開鱈)로 제조하여 일본내지, 남중국방면에 수출하는데 그 수량은 년액3만7천관, 가격 2만3천원에 달한다.

19350817_4_동아일보_경북의 수산업(終)

청절(鯖節, さばぶし)

청절역(鯖節亦) 울릉도가 주산지이다. 경북은 청어장(鯖魚場)으로 전조선 제1위를 점하고 그 어획물은 선어(鮮魚)우(又)는 염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통례이나 울릉도는 대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라 운반이 불편하여 청절의 제조가 성한데 현재 울릉도에 청절제

조공장수가 57개소이오 제조품은 광도현(廣島縣), 향천현(香川縣), 대판(大阪)등지의 삭절(削節,가쓰오부시)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영일군 관하에 청연승어업을 장려한 결과 그 어획물의 가정적 처리방법으로 청절제조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는데 장래 기대가 큰 제조업이다.

앵간류(櫻干類)

앵간은 포항을 주산지로 감포, 구룡포, 강구등에서 제조하나 아직 성행치 못하고 포항이 독점무대가 되어있다. 제조공장수 5개소 제품의 종류는 해로(海老), 하돈(河豚), 소접설(小鰈鱈), 등이오 수용지는 대판, 동경이다.

관힐류(罐詰類)

경북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관힐류는 포수자(鮑水煮 전복), 만(鰻 뱀장어), 포소청수자(蒲燒鯖水煮), 청미부(鯖味付), 온미부(鰹味付), 00미부, 해(蟹 계) 등이오 그 주요 집산지는 부산, 하판 등이다.

온유비(鰹油肥)

경북 연해에는 대정 18년경부터 대우온(大羽鰹)이 회유하기 시작하여 이내 년년 증척하여 온어업은 급진적으로 진흥하였고 따라서 온유비제조업자의 축출(簇出)을 보게되었다. 소화4년경에는 粕오만표, 油13만관에 달하였으나 재계불황으로 온유비폭락하여 당업자는 비경에 함하였으나 최근 다시 발흥하는 경향으로 장래 유망시 된다. 온유비의 주산지는 영일군 대보, 구려룡포, 양포, 곡강, 영덕군 축산, 오보, 강구, 영해, 경주 감포이오, 제조고는 박28,425표, 유79164관이다.

양식업(養殖業)

경북에는 고래 해수산동물의 양식업에 관하여는 문헌이 없고 시설이 불만한 것이 없으나 대정6년 이래 영일어업조합에서 영일군 대송면(大松面) 해안 부근의 수류를 이용해야 치어의 보호양식을 하였으나 그 성적을 보지 못하여 포기하였고, 대정12년 이래 지방비보조를 받아 연안 암면에 세멘트를 도포하여 암해태(岩海苔)의 번식을 시킨 결과 그 성적이 양호하였으므로 총독부에서도 어촌진흥, 어가의 부업장려를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있어 도지방비와 아울러 도내 각 어업조합에 보조금을 주어 적극적 장려를 하여 호성적을 나타내인다는데 동해의 암해태는 세계무류(世界無類)의 영양가치가 있고 품질이 우량하여 어촌부업으로 크게 유망하다고 한다.

어항 및 어선 피난장 수축

경북 연안의 어촌중 어선의 기박(寄泊)하기 적당한 개소는 약15개소 있는데 그 가운데 어항 또는 어선피난장에 적당한 곳은 감포, 구룡포, 포항, 강구, 축산, 도동인데 어느곳이든지 인공적 수축하지 안하면 완전한 어항 또는 어선 피난장이 되지 못하므로써 대정3~4

년 포항항 하구준설과 어장선 피난의 개수를 하고 대정7~9년 강구, 포항, 감포, 구룡포, 축산항의 수축을 하고 다시 양포, 대보의 간이한 어선피난장의 수축을 진행중이나 아직 완전히 되기까지는 전도요원하다. 특히 경북의 관문인 포항항의 개축항문제는 긴급시행을 요하는 경북의 대문제가 되었다. 경북어항시설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항과 어선피난장 수축상황

항명	기준공	수축종류	총공비
포항	기공 대정3년 준공 대정4년	하구준설, 導水堤291미, 制水工事 6개소	9,993
강구	기공 대정7년 준공 대정9년	防波堤 91미, 川口切開 91미	142,165
포항	기공 소화2년 준공 소화5년	導水堤 744미 導水堤 388미	423,000
감포	기공 소화6년 준공 소화9년	防波堤 173미 防波堤 100미	875,150
구룡포	기공 소화6년 준공 소화9년	防波堤 제182미 防波堤 200미	875,887
강구	기공 소화원년 준공 소화5년	導水堤,制水堤, 締切堤760미 防波堤,導水堤350미	389,000
축산	기공 소화7년 준공 소화8년	防波堤107미	72,000

19351103_3_每日申報_영덕군 축산항 호안공사요망

영덕군의 양항 축산항은 다년간의 숙원이든 축항은 목하 진보중으로서 불원 준공할 것 이나 호안공사를 하지 안하면 사력(砂礫)이 문어져서 항만이 얕터질 우려가 만함으로 도 저히 일시라도 방치할 수 업다하여 당지의 유지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 수년래(數年來) 이를 절규하여 오든바 전반에도 관계관이 시찰할 때 진정하얏슬 뿐만아니라 금번 도 오카자키(岡崎) 지사가 래영 하얏슬 때 구두로 진정하얏는데 불원 적극적 운동을 개 시하리라 한다.

19351217_5_동아일보_약유비(鰯油肥) 통제의 순회 좌담회

경북 어업조합연합회에서는 명년 3월말 삼사협정(三社協定)의 약유비통제의 기한 만료되므로 약유비 제조업은 경북에 있어서 장래를 크게 촉망하는 신흥제조업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어업자뿐 아니라 원료생산자인 어민에게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북도로서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북 동해안을 삼(三)구로 나누어 순회 좌담회를 개최한다는데 그 시일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2월16일 : 구룡포 어조에서 감포, 장기, 구룡포, 대보어조와 당업자(當業者)
- 12월17일 : 포항 영일어조에서 영일, 곡강, 청하, 송라(松羅)어조와 당업자
- 12월19일 : 강구어조에서 강구, 영덕, 축산, 영해어조와 당업자

19360507_8_동아일보_경북 수산개황

경북의 해안선은 연장 160리인데 중앙부에서 서남방에 깊이 만을 형성한 영일만외에는 대개 평조하나 배부육지에는 태백산맥의 분기 수직조의 산각이 해에 임하여 암초가 되고 계곡은 연안에 열여 사빈되었는데 암초사빈이 삼차교착한 그 사이에 일도삼군에 27면 70여동의 어촌을 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영덕군 축산항, 강구항, 영일군 포항항, 구룡포항 경주군 감포항 등은 자연의 항만이다 거액의 경비를 투하여 축항설비를 한 어항이요 장래 무역항으로 유망시하고 이밖에도 영덕군 대진항, 영일군 울포항, 칠포항, 임곡항, 대동배항, 양포항 등은 어선의 정박정계에 적당하고 또 울릉도는 이 도로부터 72해리의 해상에 홀립한 주위29리되는 고도인데 치고 해발 984미 이하 300미의 십수의 준봉홀립하여 연안은 거의 단애절벽이나 도내에는 각종 초목이 번무하여 천연의 식물원의 관이 있다. 그리고 기봉괴암이 수처에 기복하여 풍광이 가절하고 기후온화하여 실로 천혜의 낙원이라는 정평이 있고 연안낙빈이 열린곳에 어촌을 형성하여 풍과정온하여 어선정계에 적당하고 연안 3면 9어촌을 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도동항은 도내 물자의 유일의 탄토(呑吐)항으로 조선각항과 포항, 일본간의 직항로가 있다. 이 섬 연안의 수심은 울릉도 연안에는 급경사하여 총합 수십미에서 백심선을 초과하나 본도연안에는 해저가 대개 급구배하였을 지라도 비교적 완만하여 총합6리 내지 10리를 거하지 안으며 백심선에 달하는 곳이 없다.

해류는 난류인 대마해류의 일파는 조선힬협을 관류북진하여 본도 연해 북부에서 조우교착하여 일본해 총합방면에 분류하는데 조석은 극히 미소하여 간만의 차 삭망에 1척 5~6촌에 불과하다. 한난의 이조류의 상류교착하는 관계로 한난양성의 각종 어족의 회유분포와 그 서식 자못 풍요농밀하여 호개의 어장을 형성하여 어획고 500여만원에 달하여

연안 십리당 어획고 십만원으로 단연 전조선 제일위를 점하는 무진장의 보고인 천혜의 해리역(海利域)이다.

1. 연안군(郡),도(島),면(面),동(洞)수 : 3군, 1도, 22면, 254동
2. 수산업자 호수,인구 : 전업자(3,586호, 215인), 겸업자(2,290호, 3,975인),
중업자(1,152호, 1,517인), 계(7,028호, 11,707인)

3. 어선수 :

-동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조선형 920척, 일본형 2,198척), -동력을 사용하는 것(297척),
계 3,415척

4. 중요 수산물 어획고(단위:원)

구분	청(鯖)	연(鰈)	온(鱈)	설(鱈)	大刀漁	접(鰈)	방(魴)	若布	기타	계
소화 9년	2,175,809	1,120,400	350,921	523,946	397,629 162,886	116,252	19,186	79,273 69,146	695,815	5,707,273
소화 10년	1,599,396	1,072,045	521,225	497,347	335,962 247,348	123,256	96,831	91,759 75,322	734,006	5,394,497

5. 면허,허가,계출어업건수

1) 면허어업(단위:건)

구분	受理	免許	현재유효수
소화9년	283	37	609
소화10년	187	22	608

2) 허가어업

구분	受理	許可	현재유효수
소화9년	848	788	765
소화10년	1,945	1,421	909

3) 계출(届出,신고)어업

구분	감찰하부(鑑札下付)	현재유효수
소화9년	598	837
소화10년	579	588

6. 어업에 관한 등록 사건수

구분	직권에 의한 등록	신청에 의한 등록	총계
소화9년	124	221	345
소화10년	223	235	458

7. 중요어업별 어획고(단위:원)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각종정치망	1,443,424	1,431,595	타뢰망	76,765	162,526
건착망	1,647,900	1,286,421	지예망	141,491	177,414
수조망	419,404	493,300	채조	119,843	140,491
각종연승	379,201	466,359	나잠	14,840	195,934
연자망	406,725	413,260	각종일본조	85,668	132,500
온류망	190,787	246,962	기타	257,325	257,217
청류망	523,900	90,100	계	5,707,273	5,394,497

8.중요 수산제품액(단위:원)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어업종류	소화9년	소화10년
약착박	232,061	386,529	약포	80,953	96,899
신흙연	171,190	301,500	포○	68,815	92,700
약유	148,819	283,175	개설	27,541	84,540
전자	167,908	223,611	하앵건	39,200	71,673
염청	161,460	236,668	염연	49,090	70,220
방魴	15,677	119,800	기타	400,637	598,483
			계	1,563,495	2,465,798

19360701_3_조선일보_국민구제 사방(砂防)과 축항(築港) 등을 진정

경북 영덕군에서는 지방발전과 국민구제책에 유의하여 오든바 지난 28일 오후 3시반 본도 이(李)산업부장의 래영 순시를 기회로 권(權)군수(郡守), 문, 권 양도의원 선두로 관민유지 다수 환영리에 좌기 각항의 진정이 잇섯는바 국민구제책에 만흔 고려가 잇슴으로 대략실현의 가능성이 잇스리라고 한다.

- 진정요건 : 1.축항취진(築港催進)의 건 : 축산항, 대진항 1.강구항 방파제 연장의 건
 1.임산도로개통의 건 : 강구항에서 달산(達山)면 옥계(玉溪)간
 1.사방공사시설의 건

19360905_4_釜山日報_축산방면의 폭풍우 피해, 해면의 유목과 사체

축산 지역 태풍 피해 상황

경상북도 포항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산 지역은 비교적 심

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영덕군 동부에 위치한 축산 지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 지역의 논과 밭이 태풍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곡물 작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거의 전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태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많은 나무 조각과 부유물이 바다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 조각뿐만 아니라 사체도 떠내려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축산 지역에서 발견된 사체 2구가 축산동에 임시로 묻힌 상태입니다. 첫 번째 사체: 7~8세로 추정되는 조선인 남성. 붉은 천으로 허리끈을 만든 모습이며, 허름한 흰 면옷을 입고 있음. 두 번째 사체: 45~46세로 추정되는 조선인 남성. 짧은 머리에 턱수염이 있으며, 허리에 가는 끈 하나만 묶여 있는 상태. 태풍 피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업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긴급한 구호와 복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361116_4_조선일보_지사순시를 기회 축항, 철도 등 진정, 군수 이하 유지 연서로

경북 영덕군에서는 지방발전과 이재민구제책에 유의하여 오든바 지난 13일 오후 1시 경에 상룡본(上龍本)도지사의 래영 순시를 기회로 권군수, 문,권 양도회의원이 선두로 관민유지 다수 출영과 청내에서 접견을 마치고 이어서 좌기 각항을 진정하였는바 동 지사일행은 동 2시에 순시를 마치고 포항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진정요항

1.사방공사실시에 관한 건

1.철도부설 촉진에 관한 건 : 경북선, 동해안선

1.상수도 설치에 관한 건 : 영덕, 강구

1.시가 지하수도공사 시행의 건 : 영해, 영덕, 강구 삼처

1.보통학교 학년 연장의 건 : 병곡, 지품 양고

1. 제방복구공사급시의 건 : 오십천 송천, 덕곡천 제방

1.임산도로개설의 건 ; 영해에서 오촌, 신리, 백청간, 강구 옥계간

1.등의 도로승격의 건 : 도곡 축산간, 영해 영양간

1.항만축항공사의 건 : 강구항 준설과 방파제 연장공사, 창포항 선류공사, 축산항 호안공사, 대진항 축항공사

1.등의 도로 구조물 보조의 건 :영덕, 창포간

19361202_3_경성일보_축산항 시어선, 정어리의 남하와 대풍어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의 정어리 어획은 점차 남하하여, 23일에는 후포리 앞바다에서 상당한 어획이 있었고, 24일에는 우산항 북쪽 25해리 지점에서 발동기선을 한 척 보내 시험 조업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조업 결과, 25통의 어획을 기록했습니다. 25일에는 북쪽 8해리 지점에서 53통의 어획을 했으며, 26일에는 출어한 5척의 배가 각각 30~40통의 어획을 기록하였습니다.

경북 연안의 활발한 조업

겨울철 이후 고등어와 대구의 대풍어에 이어, 정어리 어군의 회유 소식이 알려지며, 경북 연안은 생기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해류 상태가 양호하여 조업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정어리, 대구,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연안의 주요 어선들이 북부 해안에 집결하며 정어리의 대규모 회유에 대비하고 있으며, 연안 지역은 전례 없는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류 상태의 호조 덕분으로, 주요 어종의 풍어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축산 어업 조합의 통신

축산 어업 조합에서 경북도 수산과에 보낸 통신에 따르면, 정어리의 대규모 회유 시점은 20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경북 연안의 조업 성과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어리 대군이 경북 연안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조업 상황은 전쟁터와 같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19361205_4_조선일보_온(鱣)점차 남하, 경북 연안 활황

청(鯖), 설(鱈)의 풍어를 본 경북 연안에서는 다시 동해안 어업의 왕좌를 점하는 온(鱣)의 어기(漁期)가 접근함을 따라 연안의 화형(花形) 건착망(巾着網)어선은 북부 해안에 집결하여 온(鱣)의 습래를 대기하고 잇서 경북연안은 바야흐로 활황을 정하고 있다. 그는 즉 금년 해류의 변조에 의하여 여기라 빨리 도래한 것으로 청(鯖), 설(鱈), 온(鱣)의 성어기가 한꺼번에 도래한 것이라 한다. 이제 축산어조에서 30일 도(道) 수산과(水産課)에 어황을 보고한데 의하면, 수 일전부터 호어의 강원도 삼척중의 온어(鱣魚)도 점차 남하하여 23일 후포리(厚浦理)충(沖)에서 상당한 어획이 잇섯스며 24일 발동기선(發動機船)척(隻)을 축산 북방 25리에 출동 식혀서 시어(試漁)한 결과 25준(樽)의 어획이 잇섯다. 25일은 동북 8방리(方里)에서 53준(樽), 26일은 출어선 오척에서 각기 3~40준(樽)의 어획이 잇섯다. 는 것으로 온(鱣)의 성어기는 20일 가량이 빨라서 강원도충에서 대군이 회어한다는

정보도 잇스므로 경북 연안에의 회어는 순일(旬日, 열흘)을 격(隔)한데 불과하여 연안은 자못 활황을 정하리라 한다.

19361222_5_釜山日報_축산방면 멀치 대어업, 공장활기 띄어

대어! 어획 - 만 엔 훌륭한 청어 경기에 5천 통

동해 북부 해안에서 다시 연속되는 어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산 관계자의 예상에 따라, 연일 대기 중인 배들이 밀려들고, 엔진을 장착한 배들이 해안을 따라 밀려가며 일대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풍성한 어획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매일 같이 풍성한 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공장들도 활발히 가동되고 있으며,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들도 더욱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는 온화한 비로 보이는데, 이는 어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일부터 시작된 비로 인해 어군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부의 정보에 따르면 13일부터 출항한 선박은 32척이었으며, 그 중 7척은 동력선, 25척은 돛단배입니다. 16일까지의 어획량은 약 5천 통이며, 수확량은 1만 국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활발한 어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방면 약대어(鰯大漁) 공장활기

13일경부터 다시 큰 어획이 있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부두와 공장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도 활발한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는 비교적 온화한 상태입니다.

19370207_2_조선일보_영덕군민의 활불(活佛) 삼호씨(三好氏) 특지(特志)

경북 영덕군 축산항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는 여러 가지 지방사업에도 종종 물질적 후원을 만히 하여 오든바 특히 작년도 풍수해로 인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엷는 중에 닥쳐오는 구년말을 당한 군내 세공민에게 단 한끼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새해를 마지하게 하여 달라고 맥미(麥米) 200석 시가 2,000원어치를 영덕군에 의뢰 하였으므로 동군에서는 씨의 특지를 감사하는 동시에 궁민조사와 분배방법에 몰두중이라 하며 본군으로서는 세공민에 대한 개인 동정은 처음이라고 한다.

19370208_4_조선일보_축산항 축항비로 일금 만원회사, 영덕 미요시 사타로(三好左太郎)씨 특지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구내 우수한 어항으로 선박출입에 막대한 불편을 느기게 하든바

다행이 군,면 당국의 노력과 지원주민의 열성이며 본도의 특전으로 축항공사를 다년간 계속하였으나 아직도 계속공사를 하지안하면 완전치 못할 것은 사실로서 지원주민의 부담문제로 중도이 폐로 잇든바 당지 특지가 미요시 사타로씨가 자진하여 금일만원을 희사 하였슴으로 일반은 씨의 특지를 칭송불이 한다고 한다.

19370222_3_조선일보_노동중 피해자를 동정한 특지가

원적을 충청북도 단양에 두고 수년전부터 본 군 축산항 축항공사에 와서 인부노릇하던 이종팔(李宗八,44)은 축항 공사 중지 후 이집 저집에서 일품을 들든중 증상을 입게 되어 외편다리가 절상된바 사고무친하고 수중에 일전도 없는터에 엇지할 수 업든바 축산항 어업가 미요시 사타로씨는 자기가 동정하여 함남 신포까지 병원에 인도하여 치료하는중 치료비 4백여원도 자담하였스며 지금도 무의무탁한 부처를 축산동 자택에 두고 의식까지 공급한다고 한야 일반은 씨의 자선심을 칭송한다고 한다.

19370317_5_釜山日報_축산항을 탄생시킨 아버지 남자답고 용감한 삼호씨, 사회로 보내는 여러가지 미담외 ..

약유비로 이름 높은 축산의 번영, 호안공사 최대급무

축산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최근의 기름과 비료 생산지로서 축산이라는 이름은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실제로 축산항은 본토 사람들 중에서 5~6가구만 살고 있을 정도로 외진 마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과거부터 부산과 원산 간의 유일한 피난항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해안에는 무궁무진한 어족이 모여드는 어항으로도 유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치(明治)35~36년(1902~1903년) 경부터 본토의 야마구치, 카가와 근처의 상인들이 이곳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정(大正) 3~4년(1914~1915년) 경에는 이 해안의 어장과 비교적 안전한 피난항으로서 어선들이 왕래하며 매우 번화해졌다. 그 후 울산, 장천, 주문진 등 여러 곳에서 항구가 건설되면서 정박 안전성이 높아지고,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어획물이 자연스럽게 다른 항구에서 상륙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축산항의 운명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도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축산의 운명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축산은 항구와 해안의 상황이 나아지면서 그 지역의 어업과 상업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항구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축산의 발전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역은 어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되었다.

축산 주민들은 이 항구의 출입을 개선하고,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려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지역 어업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항구의 출입을 쉽게 하여 어업이 더 잘 이루어지게 만든 작업들은 점차적으로 실현되었으며, 결국 소화 9년(1934년)까지 축산의 어업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를 위해 300척 이상의 어선이 활동하며, 3년간의 대규모 계획을 통해 어업 환경과 시설을 개선했다.

축산 항구와 그 해역은 원래 작은 어촌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대규모 어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소화2~3년 도비 보조비 16,000원으로 축산천 호안공사 결과 하천과 해양을 분리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화 7,8년 2년간 도비 7만2천여원을 투입하여 남북방파제를 축조했다. 또한 소화 9년 북방파연장 실시(공비9만여원)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축산의 어업은 해양 자원의 풍부함과 함께 크게 발전했다. 어업과 수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해안에 기반이 없어서 매년 알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비계의 중진 삼호 사타로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으며, 이 문제의 급박함을 알리고 자신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성회가 결성되었으며, 13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과정에서 1만 엔의 자금을 투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업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주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자산과 노력을 지역 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역에 기여한 점은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항상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후원과 기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진한 어업 및 조선업 사업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지역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한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조선업과 어업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는 어유와 쌀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품 생산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의 생산량은 매년 50만 톤 이상이며, 그가 담당하는 가공품은 생산 고급화로 그 명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사업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어업과 조선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념은 그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사업에서만뿐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남은 공학사로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으며, 차녀는 좋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고, 삼녀는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차남은 아직 어리지만, 삼호 사타로 씨는 그를 귀여워하며, 앞으로 소중히 길러 나갈 계획입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자신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사업에서의 성공이 가족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업의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어업과 조선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더 키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 방침은 *****조선업과 어업을 통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 큰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가 추진하는 어업, 조선업, 그리고 기타 산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조선업과 어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로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의 신념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유망한 축의 미래: 숫자가 말하는 조합의 업적

축산 지역은 천혜의 환경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진 유망한 어항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어업 조합의 성과를 통해 그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의 주요 수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200명에 달합니다. 이 지역의 어획량은 작년 기준 7만 엔에 달했으며, 가공을 통해 추가적으로 10만 엔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올해 들어 어업 성과는 더욱 눈부셔서, 가공 및 제조를 포함한 수익이 40만 엔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주요 어종으로는 정어리, 고등어, 대구, 가자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매우 풍요로운 자원입니다. 이러한 어업 자원은 축산이 가진 독특한 강점으로, 조합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축산만(灣)은 풍부한 해양 자원과 이상적인 어업 조건으로 인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어획량의 증가와 가공 산업의 발전이 어업 조합의 경제적 성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활용하여 축산의 번영을 더욱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항의 생명의 아버지! 의협심 사람, 삼호 사타로

축산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삼호 사타로(三好佐太郎) 씨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배짱과 따뜻한 인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의협심과 온정을 겸비한 인물로 지역 사회에 기여했다.

삼호 씨는 메이지 16년(1883년) 일본 에히메현(愛媛縣) 온천군(温泉郡) 쿠메무라(久米村)에서 태어났다. 메이지 42년(1909년), 그는 부산에서 쌀과 곡물을 다루는 상인으로 시작했다. 당시 그의 주 고객은 어부들이었다. 삼호 씨는 직접 발로 뛰며 돈을 모으러 다녔는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가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의사를 부를 돈도 없었던 비참한 상황의 가족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도우면서 그는 이들을 위해 임시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위로금을 마련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경험이 그가 어업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삼호 씨는 당시 부산의 무진(武人) 씨, 이시야(石谷) 씨, 야마다(山田) 씨 등과 함께 어업과 가공업으로 명성을 떨치던 자본가들과 협력했다. 그는 동해안 지역에 진출하며 축산항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해 봄 축산으로 이주했다. 삼호 씨는 단순히 자본을 투자한 사업가가 아니라, 직접 최전선에서 지역 어업을 주도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의 어업과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며 축산항을 번영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삼호 사타로(三好佐太郎) 씨가 있었다. 그는 부산에서 시작해 축산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 어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삼호 씨는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구축했고, 대규모 어선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노력 덕분에 축산항은 점차 번성하게 되었다. 그는 축산을 어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든 인물로, 항만 시설 개선과 어업 환경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삼호 씨와 같은 리더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삼호 씨는 단순히 어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항의 기반 시설을 다지고, 어선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축산은 어업과 항만에 있어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축산은 어업과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해안은 여전히 어업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축산은 여전히 어업 활동과 항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발전은 삼호 씨와 같은 선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체국이 필요하다” 축산(축산)의 선구자, 武田. 씨의 이야기

타케다 안추 씨는 축산(축산) 항구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내철(내륙)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소방조직의 책임자라는 영예로운 직책에 있습니다. 타케다 씨는 자신이 축산에서 약 25년 동안 거주해왔지만, 그동안 항구 발전에 대한 기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 건설은 호안 공사를 통해 일단락을 맞이했지만, 타케다 씨는 통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축산의 어업이 동해안에서 가장 우수한 어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지역의 어선들이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선이나 주문진, 포항 등 다른 항구로 가버리며, 축산에는 어선들이 입항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가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축산의 집합과 발송 업무는 영해(寧海)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보와 같은 긴급 우편도 모두 발송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체국이 없으면 최소한 야외 우편 취급소라도 설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370817_3_조선일보_답지하는 국방헌금

영덕- 금번 복지 사변이 전면적으로 험악하게 되어 일반의 국방열은 고조되어 경북 영덕 지방에서도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군청, 경착서, 각 면 소로 의뢰한 국방위문금은 14일

까지 다음과 같다.

강구어업조합 직원 일동 42원65전, 남정면장 김준호(金俊浩)의 직원, 구장 77원, 하저동 구장 최경순(崔敬淳)의 51명 50원, 달산면 윤영하(尹泳夏)의 38인 66원, 서희운(徐希云)의 노부교수 10명 12원, 축산항 삼영조(三榮組) 직원 일동 12원, 축산면협 직원 5원, 축산동 구장의 81명 50원, 축산 부인회외 5婦人會 33원, 상원동진흥조합외 3조합 20원, 남정면 부흥동민 5원, 동리 崔敬蓮 10원, 劉台烈 5원, 달산면 영달관산 광부 안봉이(安峰伊)의 2명 10원, 영해면 구장 일동 10원, 원전(院前)부인회 5원, 강구소학교생 2원, 영덕읍 양금정(楊錦亭) 10원, 신용백(申龍伯) 10원, 이삼암(李三岩) 20원, 축산불교, 애국 양(兩)부인회 88원50전, 오천 김선덕(五泉 金善德)50원, 동광사(東光寺) 강구포교소 신도 일동 53원67전, 송천(松川)야소(耶蘇)교회 신도 5원60전, 영덕읍 교회 유년 및 하기학교 아동 일동 6원 17전, 보경사 강구 포교소 19원 70전, 중화(中禾)공려(共勵)조합 5원, 원구동 남건모(南建模) 5원, 경북호(慶北號) 영덕 경친회(警親會) 10원, 김종하(金鐘夏)의 85명 15원, 김두성(金斗星)의 44명 23원 60전, 이우현(李雨鉉)의 55명 15원, 장성열(張星烈)의 1명 10원, 박재원(朴載元)의 2명 5원, 한달이(韓達伊)의 74명 5원, 매정동(梅亭洞)교회 5원60전, 임성도(林星道) 2원, 국방부인(國防婦人)영덕분회 100원, 지품면 103원, 경정동 4단체 12원 15전, 중견인물 강습회원(中堅人物 講習會員) 6원50전, 남정면장, 서기, 구장 일동 77원, 강구소학교 2원62전, 병곡동 이등이(李藤二) 10원, 동 김동연(金東淵) 10원, 동 안완상(安頑相) 15원, 동 김정한(金貞漢)의 2명, 15원, 동 신보(神保) 10원, 권병○(權炳○)4원, 남석동민(南石洞民) 일동 23원60전, 동 진흥조합 10원, 간이소방조 5원, 부인회 5원, 원구(元邱)일구(一區)조합 25원, 괴시(槐市)일구(一區) 조합 20원, 대진동 각구 진흥조합 54원, 연평, 별영, 원구 각 조합 42원, 묘곡대동조합 및 김병근(金炳根) 20원, 영덕군청원 일동 43원 5전, 영덕군내 공립학교직원 및 아동 일동 163원30전, 군내면직원 일동 49원70전, 산업조합직원일동 3원70전, 학교조합직원일동 1원20전, 군내어업조합직원 일동 20원50전

19371118_4_조선일보_제사비를 절약 헌금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박경창(朴景昌, 39)씨는 유여한 생활로서 매년 추절을 당하면 수십여위되는 조선(祖先)묘제사(墓祭祀)에 수백원을 드려 제사를 봉사하여 오든바 금년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각오한 바도 잇거니와 의례준칙에 의하여 남보다 솔선하여 충후보국의 적성으로 제수비 2백원을 국방헌금으로 당지 축산 주재소에 의탁하였다는 바 일반은 씨의 성의를 찬하 한다고 한다.

19380127_6_동아일보_영덕 근해 온(鱷)어획, 각 어장합계 십만준(樽) 돌파,

가격으로 십여만원

경북 영덕군 해안에서는 객년(客年) 12월 중순까지 각항 어획이 부진되어 당업자는 물론이요 각계에 과급되는 영향이 막대하든바 12월20일경부터 온어(鱸魚)가 잡히기 시작하여 강구, 영덕, 축산, 영해어구내에서 육양된 것이 1월22일까지 십만준 이상에 달하여 가격도 십수만원에 달한다는바 이로인하여 한산하든 각 어촌에는 대활황을 띠고 있다.

19380205_8_朝鮮新聞_축산약유비조합 총회

영덕군 축산약유비제조업조합에서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시부터 축산어업조합 건물 2층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축산 신사 건설에 관한 건:당업자들은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경쟁적으로 각각 신사 건설비를 기부하였습니다. 축산면 할당금 100엔 중 70엔은 이 기부금으로 포함되었고, 그 외에도 총 1,200엔이 기부되었습니다.

-군사 후원 연맹 기부에 관한 건

-청어 기름 창고 활용 방안에 관한 건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건

-여비 수령과 관련된 건

-전화 설치 기부에 관한 건

-전기 기계 조사 출장에 관한 건

-수산 검사 출장소 개축에 관한 건

-이사에 관한 건

-조합 경비 수입과 지출 현황 보고

-검사소 건축을 위한 적립금 수입과 지출 현황 보고

戦時下の慶尚北道(盈徳郡)



夢にみる明日の姿 突進す新星の江口

五年に満たぬ歳月に
各種の設備は完成

平田政一氏
安佐五郎氏
江口清一郎氏
江口清一郎氏

市道局長

内務主任 孫高島市氏



盈徳郡守 權寧世氏



下坂會次郎氏



金英漢氏の足跡

◆ 滄海漁民とくへる人



寧海漁業組合

新田義次郎



築地郵便所々長

十有餘年に及ぶ努力



田中署長の横顔

金閣下ごの名聲



文明鑛山



江口の歌

其へて産物

八萬民衆の聲に呼應

◆ 盈徳産業組合の功績

年産約六萬圓
盈徳酒造會社

濱田録男
江口漁業組合

丑山漁業組合

◆ 漁民の共栄

大 商工銀行支店

◆ 漁民の共栄

寧海の生字引

道井初次氏

瀬山に製をばす

安佐五郎氏

◆ 漁民の共栄

姜信旭氏

◆ 漁民の共栄

小業兼天眞氏

◆ 漁民の共栄

江安漁業會

◆ 漁民の共栄

寧海漁業組合

◆ 漁民の共栄

田島武二氏

◆ 漁民の共栄

江口の歌

其へて産物

<그림-56> 전시하의 경북 영덕군, 조선신문 1938년 2월 26일

19380308_4_釜山日報_대망한 우편소 축산에서 곧 개점, 환희의 주민에게 조속히 이용되다

영덕군 축산항은 거북처럼 구축되었다. 3월 1일 그날에 해상선과 운반선 등이 모여 들었고, 그곳에서 미래에는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우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곳의 시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일은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여관, 식당, 이발소 등이 생겼고, 주민들은 우체국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해안 지역의 개발이 아직 미진하고, 특정 시설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1월 우체국 설립의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자, 주민들은 기쁘게 받아들였고, 사무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3월 1일에 기다리던 우체국이 개설되었고, 새로운 우체국장이 임명되고, 준비가 완료되었다. 삼호 사타로 씨는 연장자로서 인사말을 전하며, 축산은 여러 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고 주민들은 이를 환영했다. 또한, 주민들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우체국 개설을 기념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19380504_6_조선일보_영덕 수산(水産)제조고(製造高) 작년중 백수십만원 초과

경북 영덕군에서는 수산계원(水産係員)들의 지도와 강구, 영덕, 축산, 영해 4개소 어업 조합이 잇서 어민훈련, 어업장려에 철저하므로 수산물도 년년이 증가할뿐아니라 수산제조고도 매년증가하여 소화12년 총제조고는 1,269,921원으로 세별(細別)하면 여좌하다고
-절류(節類) 260원, 소건류(素乾類) 24,504원, 염건류(鹽乾類) 900원, 자건류(煮乾類) 12,698원, 염장류(鹽藏類) 110,680원, 관힐류(罐詰類) 163,657원, 염신류(鹽辛類) 1,473원, 식용해조(食用海藻) 42,023 이상 식용품
-비료류(肥料類) 480,220원, 유납류(油臘類) 426,613원, 해조류(海藻類) 45원 이상 비식용품

19381025_7_조선일보_발동선 1척파선, 선원1명은 익사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입항하던 발동선 1척이 일기불순한 관계로 해항 방파제에 충돌되어 파선된바 즉시 이 급보를 접한 축산어업조합원과 축산경찰관소원의 출동으로 구호에 노력하였으나 원체 파도가 심하고 수심이 기피 선원1명은 익사하고 그 외는 구출하였스며 적재한 물품과 현금도 좌와 여히 침몰시켰다는 바 이 제 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 배난 향천현(香川縣) 고송시(高松市) 서빈정(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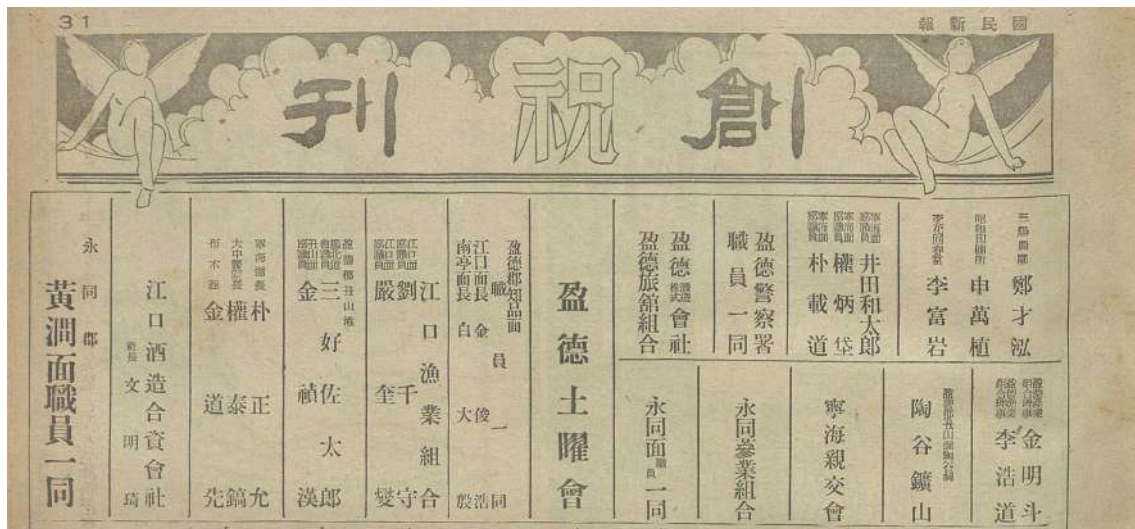
濱町) 옥곡암길(玉谷岩吉, 29)의 소유 10마력 발동선으로 20일 오전8시경에 강원도 삼척군에서 출범하여 전기항에 입항타가 그와 가티 파선된 것이라고 한다.

익사자씨명-소창정길(小倉定吉, 26), 적재물 손실-현금350원, 평목(平目)180여원, 유목(油目)50여원, 선체부분 1,500여원, 기타 다수

19390622_4_釜山日報_수산검사소 축산에 신축

경북 북부의 축산항은 청어 기름과 관련된 수산 제품이 주로 생산되는 요항으로, 이번에 수산 검사소가 새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 중이었으나 이번에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수산 관련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기술자인 기수(技手) 암절○(岩切○)씨가 주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390702_28_國民新報_(광고) 축창간,영덕축산항 경북도회의원 미요시 사타로, 축산면협의원 김정한(金禎漢)



19390915_2_조선일보_도비 10원 인가로 축산 축항을 계속, 우선 5만 3천원으로 착수

경북 영덕군 축산항은 본 군 중앙지대에 잇는 항만으로 동해안에 굴지하는 어항이다. 수산물 육양과 선박출입이 빈번하나 선박출입의 불편과 개선장의 불비로 해항 주민들은 십여년전부터 축산항 축항기성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과 국고보조와 도비와 민간부담

으로 수차 축항공사가 잇섯스나 이로서는 아직도 중도 이페에 잇서 동 기성회 및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요망하던중 다행히 인가되어 도비 10만원으로 축항공사를 계속할 터인바 우선 5만3천원으로 준설공사와 호안공사를 불원간 착수할 예정인바 그 중 1할인 5천3백원은 민간부담으로 지방주민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항민들은 흔히 불의한다고 한다.

19390927_4 釜山日報_한해 사업은 감포 축산 두 항, 중대 장래성을 보다

한해 사업은 다가오는 내년에 시작될 예정으로, 구룡포와 축산항은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해안 지역의 오랜 역사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향후 중요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예산에는 49만 엔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진행을 위한 중요한 계획들이 차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다가오는 발전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큰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예정된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간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대규모 확장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룡포만을 포함한 계획은 일단 보류하고, 차기 예산에는 구룡포의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축산과 감포, 두 항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秋月(土木과장)과 阿部(기술자)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하였습니다.

19390930_4_매일신보_감포, 축산항 개수, 구룡포항 공사는 중지

경북도내의 한해대책사업의 토목공사비 총액은 350만원인 바 그중에 도로개수는 33개소의 150만원이고 하천개수공사 18개소의 90만원 항만개수 2개소의 10만원이다. 항만개수는 감포, 축산의 2항인 바 최초계획은 구룡포까지 가(加)하여 26만5천원으로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항만개수공사는 한해대책사업의 본질에 반하는 바가 있음으로 10만원이 삭감되어 하천개수공사비에 추가를 보게 되었다. 차로 인하여 구룡포 항만공사만은 중지하기로 결정 되었다.

19391001_3_동아일보_사방,임도,항만,하천등 구제공사 속속 실시, 토개(土改)사업이외에도 440여만원, 구현되는 경북도 한해(旱害)대책

경북도의 한해 대책공사는 동도의 토목, 산림, 농무의 삼과가 주체가 되어 오는 1일부터 일제 착수하도록 계획이 완성되어 토지개량사업 전모는 이미 보도한 바이고 그 나머지 항만수축, 도로, 사방공사, 임도개발등의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항만 및 도로개수

감포 및 축산항 개수비 10만원(최초계획은 2십6만5천원 이었으나 한해(旱害)사업 본질에 반하므로 십만원으로 삭감

-도로개수 33개소, 공사비 150만원, -하천개수 38개소 공사비 90만원, -임도개발 50만원

-사방공사 1,328,700원

19401207_4_釜山日報_地元の繁榮牛耳る 丑山鰯油肥製造組合

지역의 번영을 주도하는 축산 약유비제조조합

축산 약유비제조조합은 동해안의 어유 제작업체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기의 전통을 간직하며, 조합원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지도 아래, 축산 약유비제조조합은 단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요시 사타로 씨와 같은 핵심 인물들이 힘을 합쳐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원의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합의 규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연간 생산량은 약 2만 2천 석에 달하며, 28개의 공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생산량을 크게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큼니다. 조합원들은 서로의 협력과 지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조량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곳에 속한 조합원들은 함께 지역의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의 결속력과 헌신은 지역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현재 조합의 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조합장 : 미요시 사타로

부조합장 김정환

이사 : 마쓰자카 마사유키, 김성구(金聖九), 김장학(金長學), 최성봉(崔聖鳳), 한영각(韓永珪), 윤기준(尹基俊), 신조경(申曹慶), 김귀동(金龜東), 김성두(金斗星), 박노숙(朴魯淑), 김정겸(金井謙), 유준협(劉俊協),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 정전화태랑(井田和太郎), 박경창(朴景昌), 홍상식(洪相植), 강중군(姜仲君), 신용학(申龍鶴), 신덴요시지로(新田義次郎), 이익이(李益伊), 박광상(朴光相), 권학선(權學仙), 권기효(權奇曉), 김종하(金鍾夏), 윤영호(尹永昊), 김종효(金鍾曉)

축산어업조합의 약진

축산어업조합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핵심 인물인

김정한씨는 최근 65,000톤에 달하는 해안 공사를 마치고, 제2계획을 위해 특별히 경북 북부의 대형 항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의 수심은 깊어지고 있으며, 육상의 시설로는 어유 탱크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쓰자카 마사유키(松坂正行) 이사님의 리더십은 조합의 발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강력한 팀워크로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와 생산에서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요시 사타로 씨는 어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물산을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축산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조합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멸사봉공 수산보국 미요시사타로(三好佐太郎)

미요시 사타로(三好佐太郎) 씨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그는 수산업계의 큰 기여자로서,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부 지역의 부유한 수산업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유 탱크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주도 아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유명한 수산업체의 CEO로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프로젝트에서 그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여러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헌신은 앞으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축산의 중진 업계의 투사, 김정한씨

김정한씨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공공 부문에서도 큰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기술과 지식은 매일 발전하고 있으며,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 씨는 축산 어업조합의 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축산에서 함께 활동하는 미요시사타로(三好左太郎) 씨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발전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으며, 항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의 유망주, 수산회사 신덴 요시지로 씨 (將來を囑目 丸一水産會社 新田義次郎氏)

신덴 요시지로 씨는 수산업 분야에서 장래를 주목받고 있는 인물로,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마루니 수산(丸二水産)"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인 신덴 씨와 함께 수산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큰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신덴 씨는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장차 수산업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의 활약은 고도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며, 우산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지방 산업 발전을 위해 고급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수산물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인 어유(魚油)와 지방산 생산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19490126_2_조선일보_발동기선이 조난

경북 영덕군 대진항 앞바다에서는 지난 5일 폭풍말으 맞난 본 군 축산항 박철희(朴喆熙)의 발동선은 선원 12명과 물건을 만재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선주 박철희의 유물이 발견된 것을 보아 파선 사망되었으리라고 추측중이나 사체는 아직 발견치 못하였다 한다.

19491014_2_民主衆報_금동 어획기대 활기찬 축산항

동해에 임한 축산항은 항내 수심한데다가 안해 가로노힌 죽도(竹島)가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잇는 비교적 양항이거니와 십여년전에 항만 수축공사가 잇는 뒤로 현재 3백수십 여호를 헤아리는 활기찬 어항이다. 특히 판민일치로 치안유지에 매진하고 잇음은 이 지방의 특색이며, 어조 지도하에 천초, 해초를 비롯하여 금년도의 추동어획기의 생산고가 기대되고 잇다.

19551004_3_경향신문_학교신축 대지 기증

당지 축산항(丑山港)에 거주하는 김정한(金禎漢)씨는 가교사에서 수업하고 잇는 영해(寧海)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신축비로 대지 오만여평과 백여만환에 달하는 자재를 학교당국에 자진 회사하여 군민을 감격케하였다.

19560602_3_동아일보_탄피 2톤 압수

지단달 27일 상오 1시경 해병포항지구 특무대 수사대가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서 여관업을 경영하는 김종원(金鐘原, 67)씨 소유 헛간을 급습 수색한 결과 밀수출을 기도하고 동철등으로 위장하여 은익중에 있는 신폴105미리 포탄(뇌관이 붙은 그대호)을 끊어 화약만 제거한 탄피 2톤을 적발 압수하였다. 동대에서는 계속 범인과 그 포탄의 출처를 예의 내사중에 있는데 동탄피는 약 1개월전 새벽에 군용 트럭 2대에 적재하여다 은익한 것이라고 한다.

19570626_2_조선일보_풍랑 만나 표류 3일만에 귀항, 밀선(密船)잡으로 갔던 배

지난 22일 밀수선을 잡으려고 경북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했던 경찰관 2명과 선원5명은 3일만인 25일 아침 무사히 귀항하였다는데 경찰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풍랑을 만나 헤매고 있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하며 다른 선박에 의하여 밀수선은 체포되었다고 한다.

19590212_4_조선일보_게는 동해안서 제일, 특산은 한지, 자급자족 안되는 농사, 풍토순람 영덕군편

군세일별(郡勢一瞥)

-면적: 742.72평방천(平方畝), 인구:93,221명(91년말 현재), 교육기관:국민학교28, 중학교5,고등학교2, 공민하가교2, 유아원1, 주요기관:군청,경찰서,교육구지원지청,전매서,우편국 연초경작조합, 명승고적:임경대,호호대,용추 신돌석장군 유허비, 가정,목은 양선생 유허비

북으로 강원도 울진군, 남으로 영일군, 서로 청송,영양, 동으로 동해에 접하여 태백산맥의 지맥이 군의 서부로 뻗치어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아 경동지괴(傾動地塊)를 이루고 해안은 용기해안으로서 단조하고 강구,축산항외에는 좋은 항구가 없다. 지질은 수성암으로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다. 우량 1,300미리, 평균 무상(無霜)일수 220일 전후로서 좋은 기후 지대이다. 삼한시대에는 원영덕(元盈德)을 야시홀(也尸忽)이라고 했으며 원영해(元寧海)는 우시국(于尸國)이라 하였으며 신라통일후는 전자를 야성(野城), 후자를 유린(有隣)이라고 칭하다가 고려초에 전자를 영덕, 후자를 예주(禮州)라 하였다. 고려 현종시 두 고을을 합하여 예주로하여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가 이씨 조선 태종조에 영덕에 현령을 두었으며 영해는 전국 44도호부의 하나인 영해도호부를 두었다. 그 후 선말 고종을미년에 군수를 두더니 1914년 부군폐합시에 양군을 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야가 적은 곳, 평야가 극히 적고 산이 많아 농업은 부진한 편이며 자급자족이 되지

못한다. 백여리의 해안선에는 영세어민들이 원시적 어업에 종사하는 반농반어 호수가 대다수로서 경제적으로 심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 산지인 지품,달산 양면에서는 수공업인 한지 생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연 생산액 2억환으로서 전주 다음으로 최고 생산지이다. 아직 원시적 수공업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당국의 장려정책에 의하여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거금 약20년전부터 엽연초의 경작을 하고 있어 그간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가 4289년 3월에 연초경작조합을 설립하여 350여 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경작으로써 년 생산량 60만키로(배상금 약3억)에 달하고 있어 점차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당군의 농가부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수산업은 본시 해안선이 전국 3대 어장의 하나였으나 자재부족, 자금부족, 기술부족등으로 거력 없다고 할 지경이다. **생활은 오징어로**, 그렇게 많이 생산되던 청어(鰵), 정어리(魷)등은 자취를 감추고 겨우 오징어, 방어, 게등이 주산물로 되어있고 그중 방어는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오징어는 영세어민의 생활로 지대를 이루고 있다. 전국에 유명한 영덕대게는 이 지방 생산액만 하더라도 년3천만환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독특한 풍미와 양으로써 전국 제일이라고 한다. **목은 선생의 고향**, 고려말 성리학으로 유명한 이색, 목은 선생의 출생지가 바로 군내 영해면 괴시동이다. 지금도 부(父)되는 가정(稼亭) 이곡(李穀)선생과 같이 유희비가 있다. 고려말 주자학의 태두인 목은 선생의 출생과 이조 5백년간 본 군에서 석학거유(碩學巨儒)가 많이 배출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 유명한 한말 의병대장 신돌석장군의 출생지가 군내 축산면 도곡동이다. 장군은 아일(俄日)전쟁후 일제의 우월한 권익과 침략으로 대한제국이 흥망의 기로에 있을 때 광무 10년 29세때 의병을 모집하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 전국의 병과 호응하여 왜인과 애병을 무찌르고 싸움마다 공이 컸으며강원도 일대 경상도 일부는 신대장의 세력범위내에 있었다고 한다. 장군이 융희2년 군내지품면 놀곡동에서 김상렬(金相烈)형제에게 비명횡사한지 50여년이 지나갔다. 지금은 그의 자손도 없고 홀로 유희비만 출생지에 쓸쓸히 남아있을 뿐이다. **특산은 은어(鮠)**, 오십천 맑은 물에 헤엄치는 은어도 이 지방 특산물이다. 옛적에는 나라에 진상물이라고 하며 지금도 연간 10수가 잡힌다고 한다. 독특한 풍미와 수박냄새는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이 지방의 은어잡이 낚시질과 루망으로 대성황이다. 오십천 절벽에 위치한 호호대와 임경대는 여름철의 유원지로서 절경을 이루고 용추의 폭포수와 절벽 이룬 해안선도 풍치는 그만이다. 산자수명한 이 지방 여름철은 선선한 기후와 더불어 하적의 낙원이다. 일제말년에 포항에서 영덕을 거쳐 강원도 울진, 삼척,강릉을 거쳐 원산에 이르는 소위 동해안선의 철도 예정지로서 일부 공사도중 해방으로 포기 상태인데 만일 이 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의 편리는 물론이고 동해안 일대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희망이야말로 영덕주민뿐아니라 동해

안 일대의 주민전부의 희망일 것이다. 끝으로 약40년 전휴하여 즐겨부르던 영덕의 노래를 이 기회에 소개코자 한다.

1. 벽과양양 동해바다 동편에 끼고 절벽에 무릉산 맑게 솟았네
임경대 호호대 경치 찬란해 우리의 영덕을 자랑 하노라
2. 울창한 수목의 풍치림(風致林)은 사시(四時)의 절경을 이루고
야성(野城)들을 관류하는 오십천 주야불식 곤곤히 흘러간다.

IX. 1914년 축산항 지적원도와 토지 소유주

1.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총 2천 40여만 엔의 경비로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을 하고 소유자와 지가 및 지위등급을 조사한 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등이 작성되었다.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1905년 12월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인 측량기술자를 양성하는 한편 1909년 2월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차관 중 1천만 엔을 토지조사 비용으로 승인받는 등 준비를 하였다. 1910년 1월 토지조사사업계획(1차)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 관제」, 8월 23일 「토지조사법」을 공포하였다. 8월 29일 한일강제병합에 따라 9월 30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고 12월에 1차 계획을 수정한 2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11년 11월 결수연명부규칙을 공포하여 1912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3월에는 과세지권취도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조선부동산증명령」을 공포하였고, 8월에는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관제」와 「조선총독부 지방토지조사위원회 관제」를 공포한 다음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법」을 폐지하였다. 1913년 4월에는 다시 2차 계획을 수정한 3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에 「결수연명부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을 필두로 토지소유권 사정을 개시하였다. 1914년 3월에는 「지세령」을 공포하고 4월에 조선재정독립계획을 실시하였다. 1915년 3월에는 3차 계획을 수정한 제4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18년 6월 「지세령」을 개정한 데 이어 7월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하였으며, 10월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토지조사사업계획은 3차에 걸쳐 수정되었다.

한일강제병합 이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은 총경비 1,412만 9,707원으로써 7년 8개월의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제2차 계획은 토지조사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충실히 확장할 필요를 인정하여 동년 12월 예산을 1,598만 6,202원으로 증액하였다.

2차 수정은 1913년 4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은 토지조사사업에 수반되는 지형측량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득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조사면적의 증가에 의해 예산을 1,997만

9,999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8년 7개월로 연장하였다. 3차 수정은 1915년 3월의 제4차 계획은 사업의 진전에 수반하여 조사물건이 크게 증가한 데다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아서 종래의 계획에 따라 수행할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 및 경비의 격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2,040만 6,489원으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8년 10개월로 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① 토지소유권, ② 토지가격, ③ 토지의 지형지모 조사 등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조사는 임야 이외 토지의 종류, 지주 등을 조사하여 지적도 및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고 토지의 소유권 및 그 강계(疆界)를 사정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등기제도의 소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적도의 축척은 시가지에서는 1/600, 서북선 지방의 산간부에서는 1/2400, 기타 일반지방에서는 1/1200으로써 제작하였다. 토지소유권을 확인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지적을 명료히 하였다.

토지가격 조사의 방법은 시가지, 시가지 외의 택지, 경지·지소(池沼) 및 잡종지 등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가지에서는 지목(地目: 토지의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에 따라 지가를 평가, 결정하여 각지를 통해 11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시가지 외의 택지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삼아 지가를 부여하여 53등급으로 나누었다. 경지, 지소(池沼) 및 잡종지는 그 수익을 기초로 삼아 지가를 정해 132등급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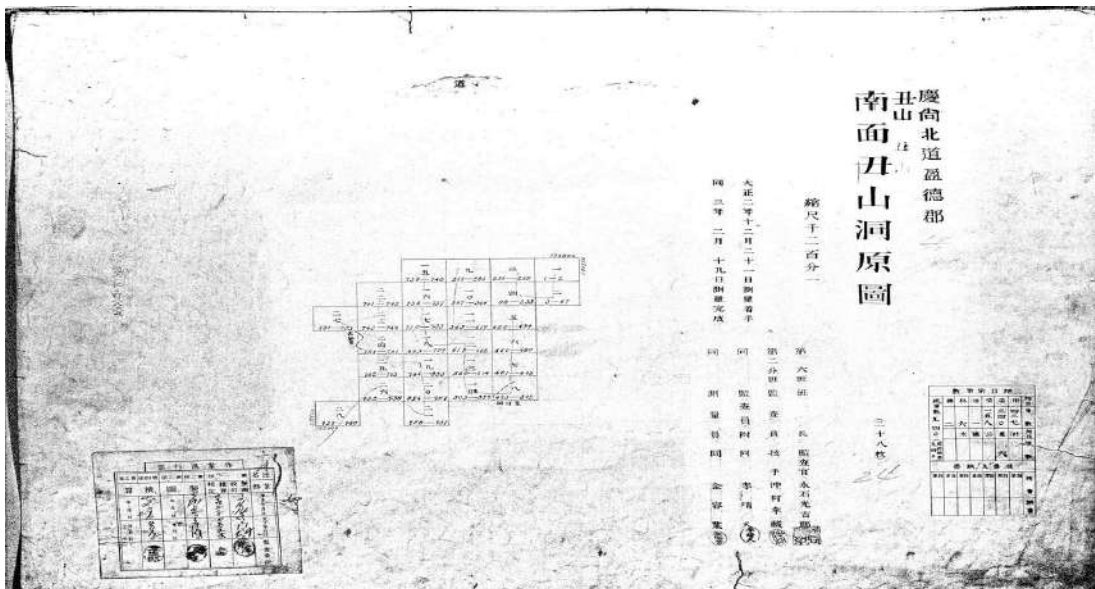
토지의 지형지모 조사는 지형을 측량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고저맥락 관계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서, 그 축척은 전국에 걸쳐 1/50,000으로 하고, 다시 부제(府制) 시행지와 이에 준하는 지방 33개소는 1/10,000, 기타 도읍 부근 13개소는 1/25,000의 축척을 사용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금강산, 경주, 부여와 개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의 편의를 꾀하여 특수지형도를 제작하였다.

토지조사의 각 작업의 성과로서 도부(圖簿)가 만들어졌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지적원도 81만 2,093매, 토지조사부 2만 8,357책, 분쟁지조사서 1,385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각종 지형도 925엽 등이 있다. (연결) 사업의 부대사무로서 지적원도를 등사하여 지적약도를 제작한 후에 이를 각 면에 배부 비치토록 함으로써 지적운용을 편하게 하였으며, 19개소의 시가지 및 92개 군·도(郡島)에 걸쳐 다시 지적이동(異動)의 정리를 하였고, 전도를 통하여 역둔토의 분할조사를 하였다. 또한, 기타 1/200,000 및 1/500,000 지형도를 제작하였으며 지지(地誌) 자료를 편찬하였다.

2. 축산항의 토지조사사업

축산항을 비롯한 축산동에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실시되었다. 1913년(대정2년) 12월 21일 측량작업을 착수하여 1914년 2월 19일에 측량을 완료하였는데 측량에 참가한 인원은 반장에 감사관 영석광길랑(永石光吉郎), 감사원(監査員) 기수(技手) 충촌신장(沖村辛藏), 감사원부(監査員附) 이정구(李靖久), 측량원 김용업(金容業)이었다.

토지 측량 결과 축산동에는 총 940필지가 조사었는데 그 중 밭(田) 427필지, 논(畓) 340필지, 대지(垓地) 158필지, 연못(池) 1필지, 임야(林) 6필지, 잡지(雜地) 2필지, 묘지(墓) 6필지였다. 아래의 축산동 지적원도는 축산동 전 지역을 28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목별 필지수와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의 서명도 함께 기록 되어있다. 각 지목별 소유주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와 축산동 소유의 토지는 물론 축산동에 영해향교 소유의 토지도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인 소유지 중 일본인 소유주로 축산어업조합 임원인 다케다 야스아키(武田安秋)·암본위문(岩本衛門)·평야미조(平野彌助)와 빈진웅태랑(濱○熊太郎), 산야학송(山野鶴松), 어곡호태랑(魚谷虎太郎), 오야수태랑(奥野秀太郎) 등이며, 조선인 소유주로는 축산어업조합장을 역임한 김정환과 그의 부친 김유진 그리고 위산학교 교감 박봉필과 받기인 박영식, 축산어업조합 임원 한영각, 김장학, 박경창, 송국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사 시점인 1913년도에 이미 많은 일본인 수산업자들이 축산항에 이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인 소유자들의 면면과 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58> 축산동 지적원도 1/1,200 조선총독부

<표-57> 축산동 지번별 토지소유자 명단(1913년 기준)

연번	주 소	당사소유자
1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0	강명용
2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6	강명용
3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5	강명용
3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8	강명용
3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2	강명용
4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9	강명용
4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9	강명용
1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2	강학수
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1	경덕행
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2	경덕행
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4	경덕행
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8	경덕행
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2	경명수
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1	경명수
3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8	경명수
3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8	경명수
7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3	고성만
3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6	국유지
3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4	국유지
3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5	국유지
4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2	국유지
4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5	국유지
4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0	국유지
5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15	국유지
5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2	국유지
5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3	국유지
5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9	국유지
6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0	국유지
6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8	국유지
7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0	국유지
7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8	국유지
7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1	국유지
7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5	국유지
7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6	국유지
8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4	국유지

8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5	국유지
9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59	국유지
6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7	권개
6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0	권개
6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7	권득수
7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1	권득수
7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0	권득수
7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2	권득수
7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5	권득수
8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1	권득수
8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2	권득수
8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7	권득수
8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1	권득수
9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8	권득수
9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5 - 0762	권득수
6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7	권득추
7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1	권득추
7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0	권득추
7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2	권득추
7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5	권득추
8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1	권득추
8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2	권득추
8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7	권득추
8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1	권득추
9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8	권득추
9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5 - 0762	권득추
2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0	권만득
4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43	권만득
4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2	권만득
1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1	권명술
2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33	권명술
4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5	권명술
2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7	권명출
4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1	권명출
6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5	권석만
6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8	권석만
6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1	권석만

6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31	권석만
7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0	권석만
7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1	권석만
8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7	권석만
2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8	권역수
4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45	권역수
6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32	권영목
8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8	권영목
8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9	권영목
9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58	권영목
9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60	권영목
6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4	권영섭
6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1	권영섭
6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2	권영섭
6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9	권영섭
6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2	권영섭
7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9	권영섭
7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8	권영섭
8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0	권영섭
8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3	권영섭
9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2	권영섭
9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6	권영섭
5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6	권영준
6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0	권영준
6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3	권영준
8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0	권영준
9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5	권영준
9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54	권영준
5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3	권영진
7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5	권영진
8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6	권영진
8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3	권영진
8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1	권영진
8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0	권영진
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6	권용하
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7	권용하
1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3	권응출

4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7	권응출
6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9	권응출
3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501	김개동
6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2	김개이
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0	김건수
3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7	김건수
4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0	김경옥
4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0	김경옥
4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4	김경옥
5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9	김경옥
4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6	김계수
7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9	김규영
5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0	김규한
6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3	김규한
8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3	김금복
1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5	김금술
2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9	김금술
4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2	김금술
5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4	김금술
2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1	김기도
4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0	김기도
7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7	김기동
8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4	김기동
8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6	김기동
8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8	김기동
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2	김내안
1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4	김내안
1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7	김내안
1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3	김내안
2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7	김내안
2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2	김내안
2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8	김내안
3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87	김내안
9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55	김덕근
6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5	김덕원
6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9	김덕원
7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3	김덕원

9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4	김덕원
9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0	김덕원
9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1 - 0931	김덕원
2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4	김도만
2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9	김도만
2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8	김도만
1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4	김도석
4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3	김도석
2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34	김도수
4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6	김도수
4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4	김도수
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36	김도우
2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3	김도우
5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2	김동오
6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0	김두원
2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32	김득이
4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9	김득이
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37	김마산
3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8	김마산
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1 - 0002	김만석
1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7	김만석
1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9	김만석
2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0	김만석
2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8	김만석
4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6	김만석
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5	김만수
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6	김만수
2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9	김만수
2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31	김명기
3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6	김명기
3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0	김명기
5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5	김명기
8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1	김명주
9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3	김명주
1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8	김명출
3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69	김명출
4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3	김명출

4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4	김명출
4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8	김명출
4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46	김명출
4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1	김명출
4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0	김명출
4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2	김명출
4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3	김명출
5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16	김명출
5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2	김명출
8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2	김문술
7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8	김문학
8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0	김문학
8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4	김문학
8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6	김문학
1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0	김방한
8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51	김방한
1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5	김병홍
3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2	김병홍
2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35	김복녀
3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2	김복득
3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6	김복득
5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1	김복득
2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5	김봉이
2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2	김봉이
3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9	김봉이
4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7	김봉이
6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1	김봉이
7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4	김상구
5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60	김상국
5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4	김상국
6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7	김상국
7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69	김상국
8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2	김상국
8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4	김상국
8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5	김상국
8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6	김상국
7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5	김상락

7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3	김상락
8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7	김상락
9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3	김상락
3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502	김상복
6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3	김상복
6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4	김상복
7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8	김상조
6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4	김상훈
6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8	김상훈
7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0	김상훈
7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5	김상훈
8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1	김상훈
9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4	김상훈
9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7 - 0752	김상훈
4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8	김석록
4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5	김석윤
8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4	김석이
1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2	김섬이
1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0	김섬이
7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67	김성봉
7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3	김성봉
7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3	김성옥
8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7	김성옥
1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2	김성재
1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6	김성재
2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6	김세구
3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1	김수명
3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2	김수명
4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3	김수명
6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5 - 0739	김수명
6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6 - 0736	김수명
4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3	김순이
5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4	김순조
1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8	김술업
1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6	김술업
2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5	김술업
4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41	김술업

6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0	김솔이
5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2	김승한
5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5	김승한
5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0	김승한
2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7	김식이
2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9	김식이
3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9	김억윤
3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3	김억윤
3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7	김억윤
6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3	김억윤
6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8	김억윤
6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9	김억윤
9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2	김억윤
9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4	김억윤
9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5	김억윤
5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0	김영근
4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1	김영도
5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7	김영도
6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14	김영도
4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1	김영식
6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7	김용이
6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8	김용이
6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4	김용이
6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6	김용이
7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6	김용이
8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57	김용이
9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2 - 0741	김용이
9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2	김원이
7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0	김월용
1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9	김유진
5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8	김유진
5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61	김유진
5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6	김유진
5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4	김유진
6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5	김유진
7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1	김유진
7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6	김유진

7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9	김유진
7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7	김유진
8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3	김유진
8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4	김유진
8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3	김유진
8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9	김유진
9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7 - 0750	김유진
5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3	김유한
7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3	김유한
8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52	김유한
4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9	김응록
1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4	김응수
2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1	김응수
3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0	김응수
4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48	김응수
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9	김응한
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5	김응한
2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1	김응한
4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5	김응한
1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7	김익수
3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6	김익수
5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5	김일수
5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7	김일수
6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0	김일수
7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7	김일용
2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0	김일홍
3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3	김일홍
3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5	김일홍
3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9	김일홍
3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0	김일홍
3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3	김일홍
4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5	김일홍
5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5	김일홍
7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2	김자성
5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8	김장수
1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9	김장학
3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9	김장학

5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5	김재련
8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50	김재련
8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6	김재련
3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7	김재문
6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7	김재문
7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1	김재문
3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7	김재술
5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6	김재술
6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2	김재철
9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1 - 0928	김재철
2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4	김절이
6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1	김정록
1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6	김정한
1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2	김정한
1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0	김정한
1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5	김정한
1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7	김정한
1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1	김정한
5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8	김정한
5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1	김정한
7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5	김정한
3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4	김종영
3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6	김종영
5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3	김종영
7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1	김종영
7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4	김종영
3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5	김종희
3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3	김종희
9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7	김종희
2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3	김주수
2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4	김주수
8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4	김주옥
9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6	김주옥
1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2	김주환
2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9	김주환
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7	김중철
1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89	김중환

1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2	김중환
1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5	김중환
1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2	김중환
2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1	김중환
2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1	김중환
2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3	김중환
3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2	김중환
3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4	김중환
3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8	김중환
4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4	김중환
4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5	김중환
5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7	김중환
7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7	김중환
3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5	김진택
6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11	김진택
6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5	김진택
6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8	김진택
6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8	김진택
9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3	김진택
3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4	김차학
3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5	김차학
3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2	김차학
4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9	김차학
5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9	김천수
8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6	김천수
7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2	김철영
7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6	김철영
8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6	김철영
9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7	김철영
9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7 - 0751	김철영
6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5	김치수
2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6	김치욱
4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5	김치운
4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44	김치운
1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9	김치장
2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4	김치장
5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9	김치장

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38	김태문
4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6	김태문
1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4	김하균
1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8	김하균
1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3	김하균
1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4	김하균
2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5	김하균
4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0	김하균
5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7	김하영
6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6	김하영
7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9	김하영
7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6	김하영
8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9	김하영
8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0	김하영
9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2 - 0742	김하영
9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3	김하영
8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56	김학기
6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5	김학이
9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6	김학이
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0	김형수
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0	김형수
3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5	김형수
3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0	김형수
3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0	김형수
3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1	김형수
6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6 - 0734	김호동
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5	김호영
2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6	김호영
3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4	김호영
7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3	김호운
1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8	김후종
2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1	김후종
2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3	김후종
3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1	김후종
3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6	김후종
3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7	김후종
3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8	김후종

6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5 - 0740	김후중
2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3	남병모
7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4	남병상
5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8	남조황
5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9	남조황
7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2	남조황
4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8	남효건
4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2	남효정
8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8	노문이
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9	다케다 야스아키
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8	다케다 야스아키
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5	다케다 야스아키
1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0	다케다 야스아키
1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8	다케다 야스아키
2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0	박경창
2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2	박경창
5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7	박경창
5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0	박경창
5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1	박경창
8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5	박경창
8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8	박경창
6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9	박경학
7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7	박경학
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39	박금동
3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3	박금동
3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91	박금동
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8	박기도
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2	박기도
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3	박기도
1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9	박기도
1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2	박기도
2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9	박기도
3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4	박기도

3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4	박기도
4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1	박기도
5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0	박기도
5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7	박기도
7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7	박기도
7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9	박기도
5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8	박기출
6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0	박기출
1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0	박동복
2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6	박동복
2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0	박동복
3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0	박동복
3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2	박동복
4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0	박동복
8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5	박만수
9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8 - 0939	박만수
9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8 - 0940	박만수
3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6	박문범
5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4	박문범
5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6	박문범
4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3	박문일
5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3	박문일
3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5	박문창
5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0	박문창
6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3	박문학
7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5	박문학
8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5	박문학
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5	박보윤
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9	박봉필
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7	박봉필
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6	박봉필
2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5	박봉필
3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80	박봉필
5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6	박봉필
6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4	박삼봉
6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9	박상수
7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0	박상수

7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8	박상수
7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2	박선이
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4	박성숙
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1	박성숙
1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7	박성숙
3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9	박성숙
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7	박성익
2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9	박송아지
2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6	박송아지
6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9	박송아지
7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5	박승태
8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7	박영달
7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8	박영분
7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1	박영분
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5	박영식
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0	박영식
2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0	박영식
3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0	박영식
4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8	박영식
5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7	박영식
6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6	박영식
7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73	박영식
7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6	박영식
7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4	박영식
8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59	박완석
8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3	박완석
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3	박용식
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3	박용식
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4	박용식
3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7	박용식
4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49	박용식
6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9	박용식
7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9	박용식
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3	박용진
7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4	박우상
5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9	박윤이
9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7 - 0753	박윤찬

5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6	박익이
7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2	박익이
7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1	박재봉
7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1	박재봉
6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5	박치중
7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9	박학근
8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7	박학근
5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7	박해수
7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6	박해수
6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2	박희상
8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9	박희상
2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6	방갑수
3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5	방갑수
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1 - 0001	방유문
1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0	방인수
2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0	방인수
4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9	방인수
1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5	배반석
2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1	배반석
2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8	배반석
3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3	배반석
4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3	배반석
2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8	배방모
2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5	배방모
2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8	배방모
6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5 - 0738	배방모
2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3	배봉환
3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6	배봉환
3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7	배봉환
4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8	배봉환
2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4	배원환
2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7	배원환
3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4	배원환
3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1	배원환
1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1	배유식
2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7	배유식
2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4	배유식

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4	배재익
1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3	배재익
1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2	배재익
18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4	배재익
3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3	배재익
6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6 - 0735	배재익
7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8	백순우
7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9	백순우
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7	변성천
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5	변성천
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9	변진용태랑
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1	산야학승
7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3	송국필
8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4	송국필
5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5	송덕조
5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1	송덕조
5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3	송덕조
6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5	송덕조
6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3	송덕조
6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7	송덕조
9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9	송덕조
9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7	송덕조
8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1	송응호
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6	신경보
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9	신경보
3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5	신경보
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0	신경역
8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2	신명한
7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2	신수원
7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64	신승
7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65	신승
7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66	신승
7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4	신승
7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6	신승
7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6	신승
9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5 - 0763	신승
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5	신재선

1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3	신재선
2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7	신재선
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9	신주렬
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4	신주렬
6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8	신주렬
6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13	신주렬
3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3	안봉진
4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1	안봉진
1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8	안봉학
1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7	안봉학
1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5	안봉학
2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8	안봉학
4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9	안봉학
4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1	안봉학
4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1	안봉학
5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19	안봉학
5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2	안봉학
1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3	안상률
2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6	안상률
3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1	안상률
3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89	안상률
2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2	안소사
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2	암본위문
1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1	암본위문
2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2	암본위문
2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7	암본위문
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4	어곡호태랑
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0	어곡호태랑
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2	어곡호태랑
8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55	영해군향교
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0	오아수태랑
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1	오아수태랑
1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7	오아수태랑
4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6	오아수태랑
1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4	옥정리일
5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7	유기수
5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99	유기수

8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0	유대렬
7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90	유동학
7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8	유동학
8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3	유동학
7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5	유상은
6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4	유석강
7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4	유석강
8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8	유석강
8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49	유석렬
3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92	유섭순
6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4	유술이
8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0	유술이
7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2	유영수
8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8	유용근
9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1 - 0929	유재근
6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9	유창수
6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7	유택수
9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8	유택수
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3	유학선
5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18	유화렬
8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7	유화렬
8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2	유화렬
1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9	윤관중
1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6	윤관중
3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7	윤관중
2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9	윤대지
3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91	윤대지
3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8	윤출이
8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6	이개동
1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7	이근좌
1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0	이근좌
2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6	이근좌
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2	이덕석
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8	이덕석
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3	이덕석
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7	이덕석
1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6	이덕석

2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5	이덕석
3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1	이덕석
3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2	이덕석
4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6	이덕석
5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3	이덕석
86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9	이량수
8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09	이량수
8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1	이량수
1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5	이병두
2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7	이병두
6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3	이복수
8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0	이봉영
8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1	이불리
1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66	이상익
1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8	이상익
2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9	이상익
2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30	이상익
4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5	이상익
4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2	이상익
5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0	이상익
5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9	이상익
5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2	이상익
5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4	이상익
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8	이석이
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4	이석이
2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6	이석이
2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7	이석이
49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5	이석이
9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7	이선문
1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9	이수연
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0	이수연
59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2	이수연
6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10	이수연
60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12	이수연
1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4	이수엽
8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3	이순근
8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5	이순근

9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1 - 0930	이순근
6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1	이순억
3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9	이순이
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7	이업이
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8	이업이
28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9	이업이
2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7	이업이
6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8	이여문
6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1	이여문
6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2	이여문
5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0	이영석
6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2	이영석
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6	이운이
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0	이운이
3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1	이운이
7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68	이인복
7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4	이인복
7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0	이인복
6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6	이재영
8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62	이재영
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7	이종기
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8	이종기
2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0	이종기
7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9	이종술
7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00	이지환
8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9	이지환
9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5	이차중
6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25	이천수
76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7	이천수
5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62	이학복
6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33	이학복
6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7	이학이
6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6	이학이
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1	이화향
1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9	이화향
1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1	이화향
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3	임계복

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1	임계복
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1	임계복
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4	임계복
1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0	임계복
2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48	임계복
31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63	임계복
4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0	임계복
5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3	임관순
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6	임관순
1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6	임두식
4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2	임두식
5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6	임두용
5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8	임두용
2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1	임룡술
4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9	임룡술
49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9	임룡술
5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1	임룡술
6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6 - 0737	임룡술
7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97	임명득
8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7	임명득
9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6	임명득
94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6 - 0938	임명득
5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5	임병선
80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22	임선이
8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35	임선이
9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4	임선이
9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61	임선이
5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7	임수식
8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8	임수식
5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41	임순숙
69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63	임순숙
3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1	임순영
4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6	임순영
7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684	임순영
8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7	임순영
43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4	임순창
4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3	임순창

7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78	임순창
4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0	임순청
45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7	임순청
7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782	임순청
27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4	임순택
5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17	임순택
27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3	임순호
5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4	임순호
4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58	임일식
4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8	임일식
52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6	임장식
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72	전주렬
8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8	전천동
9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21	전천동
2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22	정규성
19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6	정규진
6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16	정규진
8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54	정규진
2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4	정규환
35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2	정규환
4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17	정규환
6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36	정달선
9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3	정덕수
1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57	정덕수
2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8	정덕수
4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2	정덕수
41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1	정덕수
4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66	정덕수
49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7	정덕수
52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1	정봉추
2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11	정술원
59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606	조영석
54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2	주경달
54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3	주경달
54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4	주경달
5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5	주경달
5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6	주경달

3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4	천경린
3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498	천경린
5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62	천경린
6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41	천경린
87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9	천경린
9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915	천경린
80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18	천도수
6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4	천도하
74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8 - 0707	천명주
8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9 - 0853	천명주
86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81	천명주
8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5	천상구
86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5	천상귀
35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8 - 0500	천상인
6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30	천상인
84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58	천상인
85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72	천상인
17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5	최돌득
1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45	최돌증
3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89	최봉이
56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74	최봉이
6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06	최봉이
6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56	최봉이
40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4	최상구
3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7 - 0490	최석로
6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4 - 0514	최석로
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6	최유선
3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35	최유선
28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2	최유선
28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33	최유선
3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59	최유선
32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6 - 0473	최유선
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6	최일봉
5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55	최일봉
1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1	최일봉
58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3 - 0588	최학수
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4	축산동

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24	축산동
8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1	축산동
8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6	축산동
8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87	축산동
1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88	축산동
1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3	축산동
1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4	축산동
14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5	축산동
21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2	축산동
42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42	축산동
43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47	축산동
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6	평야미조
1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18	평야미조
6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62	평야미조
1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6	평야미조
13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097	평야미조
8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0 - 0890	하학이
47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2	한병두
1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0	한북리
13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3	한북리
16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1	한북리
3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86	한북리
3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288	한북리
42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40	한북리
4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4	한북리
5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0	한북리
6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7 - 0723	한북리
15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1	한영각
17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9	한영각
20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2	한영각
27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5 - 0425	한영각
13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4	한영태
15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9	한영태
1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8	한영태
20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5	한영태
3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9 - 0274	한영태
49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08	한영태

5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5	한영태
54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51	한영태
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03	한용석
4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2 - 0049	한용석
38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00	한용석
42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37	한용석
13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01	한유석
16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2	한유석
47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7	한유석
19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63	한응규
20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73	한응규
45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4	한응규
10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3 - 0248	한쾌홍
1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28	한쾌홍
22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94	한쾌홍
146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13	홍계운
185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51	홍계운
214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80	홍계운
50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8	홍계운
51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21	홍계운
52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8	홍계운
46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7	홍계윤
23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205	홍대석
411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7	홍대석
52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2 - 0633	홍대석
93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56	홍순흠
93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4 - 0757	홍순흠
16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04 - 0135	홍재진
412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0 - 0328	홍재진
457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73	홍재진
470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86	홍재진
503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419	홍재진
929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23 - 0749	홍종욱
478	경상북도 영덕군 남면 축산동(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011 - 0394	황유곤

참고문헌

-단행본

- 경상북도, 『축산항수축공사준공기념』, 소화11년.
경상북도, 『경북상공수산』, 소화12년.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경북의 수산』, 소화9년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 『경상북도 수산진흥공진회』, 소화11년.
김영광, 『축산면지』, 영덕문화원, 2015.
김진현, 『양천세헌록』, 양천세헌록 번역기획편찬위원회, 2020.
남교철, 『丑山誌』, 대정14년 8월.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第二輯』, 隆熙四年.
민중시론사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조선공로자명감』, 소화10년.
사단법인 조선어업조합중앙회, 『조선어업조합요람』, 소화17년.
심일중·박재홍, 『벉불, 푸른동해에서 피어나다』, 국립민속박물관, 2009.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의 보물선 축산항 이야기』, 2023.
영해군, 『경상북도 영해군읍지』, 1899(광무3년).
乙人, 「영덕은 엇더한 지방?」, 『개벽 제39호』, 1923,9.
朝鮮及朝鮮人社, 『朝鮮港灣號』, 1925,12.
조선총독부 수로부, 『日本水路誌-朝鮮 東岸 및 南岸 제10권 上』, 대정9년.
조선총독부 수로부,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 소화8년.
조선총독부내무국, 『조선항만요람』, 소화6년.
하정원역, 『丑山誌』, 南氏大宗會, 2014.
하지영·최민경역, 조선우선주식회사편, 『조선우선주식회사25년사』, 2023.

-논문

- 서경순, 「한국수산지의 해도와 일본 해군 수로부의 해도-경상도 동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17.
이기복, 「경상북도수산진흥공진회(1935년)와 경북 수산업의 동향」, 『역사와 경계』 73호
최재성,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 『사림』 제47호, 2014.1.
최재성, 「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
108호, 2012.12.
하지영, 「1910년대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연안항로 경영과 지역」, 『역사와 경계』,
2018.12, 191~236쪽.

-자료집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 『제62기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2023.

「浦項港外 二港 災害復舊工事竣工의件 指令案」, 『경상북도』, 소화11년 3월26일.

-신문/홈페이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釜山日報』, 『민주중보』, 『수산경제신문』,
『영남일보』, 『매일신보』, 『국민신보』, 『경성일보』, 『조선신문』,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여운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https://kyujg.snu.ac.kr>

한국근대사료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modern/main.do>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기록으로 보는 축산항
-일제강점기 축산항 아카이브

발행처 : 영덕군, 영덕문화관광재단
연구기관 : 주)위드컨설팅
발행일 : 2024년 12월

책임연구 : 김두진(위드컨설팅 연구원)
공동연구 : 설영성(위드컨설팅 연구원)
 권지윤(위드컨설팅 대표)
연구보조 : 이재화(위드컨설팅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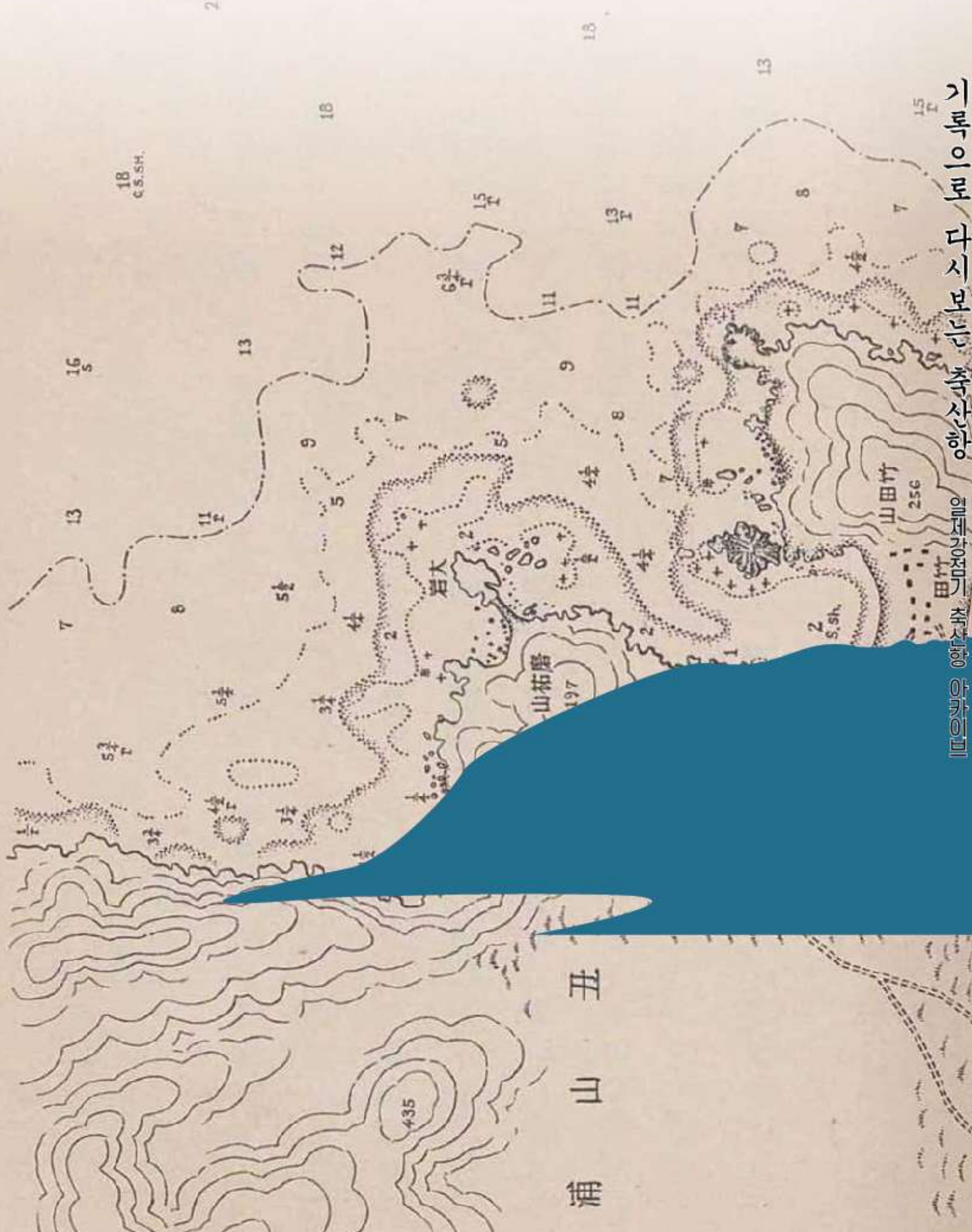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본부
 본부장 설태영
 관광마케팅팀장 황민재
 관광마케팅팀 주임 황정현

丑山浦

21

21

25



18
C.S.S.H.

16
S

13

7

6

13

11
T

5
L

4
L

3
L

2
L

4
L

2
L

1
L

4
L

7
L

8
L

9
L

4
L

7
L

8
L

13
L

11
L

12
L

15
L

13

山竹田
256

山祐庵
197

岩大

丑山浦

기록으로 다시보는 추사항

일제강점기 추사항 아카이브